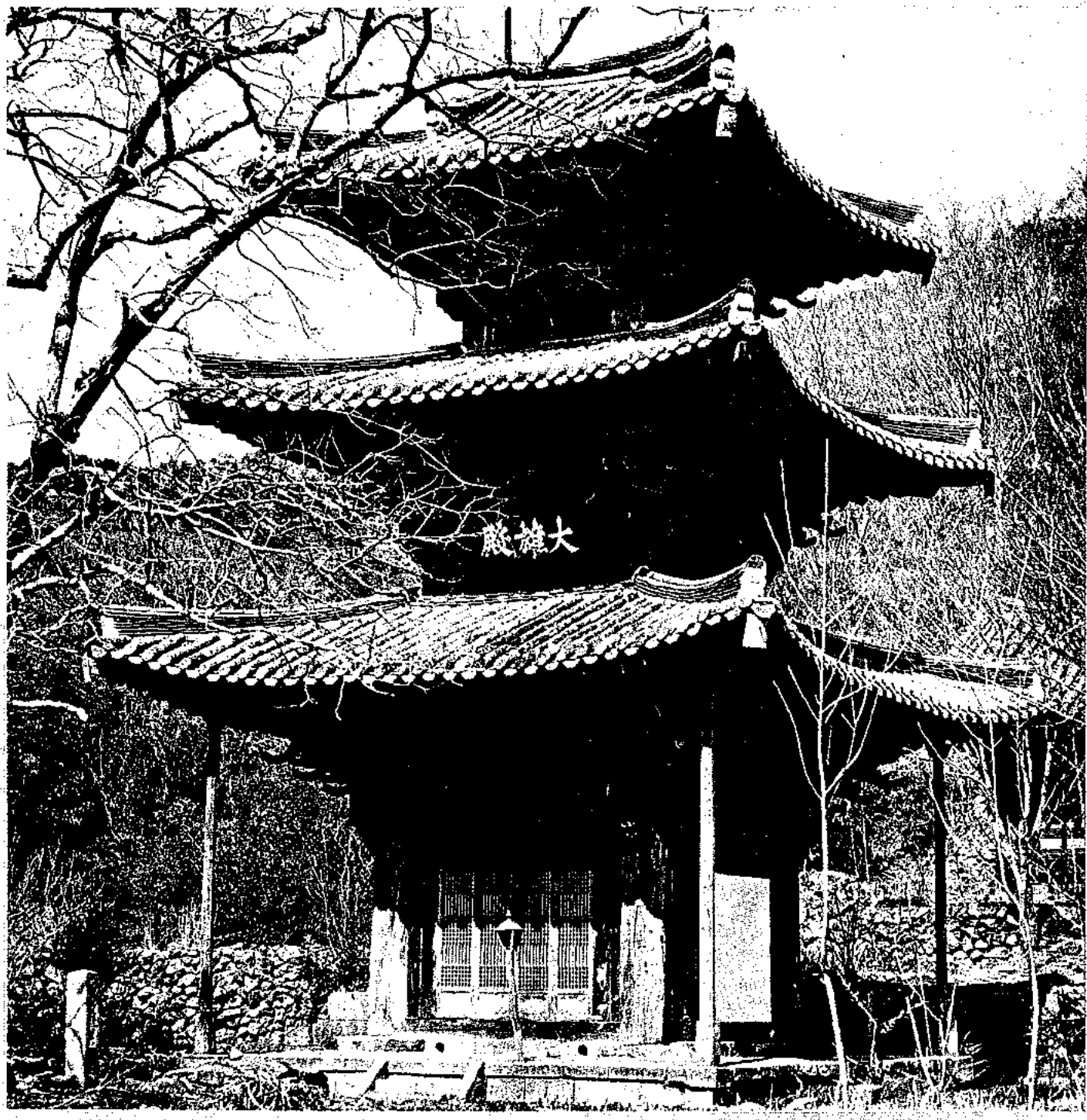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登錄日字：1967年 3月23日 登錄番号 제 라-1251 月刊 建築士
発行日字：1978年 12月31日 每月 1回発行 通巻 第118号

1978 12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李朝肅宗 16年(1690) 二重創 李朝 景宗4年(1724) 三重創으로 세운 単間3層佛殿이다. 木塔形式의 건물로써 統一新羅時代의 三層石塔을 보는 느낌이다. 1층과 2층, 2층과 3층의 対比에서도 安定과 洗練됨을 엿볼수 있으며, 이러한 建物이 단 하나밖에 없어 비교할 대상이 없지만 韓國 특유의 均衡美와 調和美를 간직하고있는 重要한 遺構이다. 規模는 작지만 構造는 추녀와 必柱의 力学上 平衡을 고려한 데 基因된 특수한 工法을 썼으며 意匠面에서도 손색이 없는 주목할 만한 건물이다.

U. D. C. 69 / 72 (054 − 2) : 0612 (519)

月刊 建築士

1978. 12

目 次

1978年度 第3回 臨時総会…… 2
会員動静…… 3

■ 特輯

韓国建築家協会 78年度 建築計論会…… 5
基調論文
가. 進化하는 建築対象과 建築家의 職能……李光魯
나. 建築教育의 目標……李海成
다. 建築創造와 文化의 媒介問題……金壽根
라. 우리時代의 建築家—그存在形式에 관하여··尹承重
意見論文
가. 変化하는 建築対象과 建築家의 職能……趙英武……21
나. 建築教育의 目標……金熙春……26
安瑛培……27
다. 建築創造와 文化의 媒介問題……康炳基……30
라. 우리時代의 建築家—그存在形式에 관하여··尹道根……34
朱鍾元……36
建築体系를 通해서 본 形態構成과 表現方法……尹道根……38
紀行文(U. I. A)를 다녀와서……崔昌奎……47
計劃住宅地의 施設供給에 대하여……朴勇煥……56
風水地理説과 建築計劃……(下)……朴時翼……60
会員作品……69
各大学 建築科巡訪……弘益大学校編……78
建築士法施行規則……82
海外作品……(A+U)……84
建築許可統計……99

編纂委員会
委員長 俞 景 哲
委 員 安 箕 泰
〃 吳 昌 熙
〃 尹 道 根
〃 李 環 魯
〃 李 文 輔
〃 鄭 日 榮
〃 黃 一 仁

発行人兼 編輯人・姜奉辰 / 登録番号・第라－1251号
登録日字・1967年 3月23日 / 月刊「建築士」
発行日字・1978年 12月31日 / 通巻 第118号
発行所・大韓建築士協会 / 住所・서울特別市 鍾路区
(非売品) 電話：73～9491～2 端鱗洞 89番地
印刷人：申 基 徹(合同社)中区 忠武路3街59－8
266－2583

1978年度 第3回 臨時総会開催

지난 12月21日 市内프레지던트 호텔 会議室에서 内外貴賓 및 全国市道支部 全代議員 建設部関係官이 参席한 가운데 第3回 臨時総会를 갖었다.

부의안건으로는 다음 3개의 안이 상정처리되었다.

제1호의 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건

제2호의 안 : 임원개선

제3호의 안 : 기타사항

제1호의 안 정관개정안이 자구수정 통과된 후 제2호의 안 임원 개선으로 들어가 김만성, 김두섭 두후보를놓고 무기명 투표로서 회장선거를 실시하였던바 김만성 27표 김두섭 40표로서 제12대 회장이 선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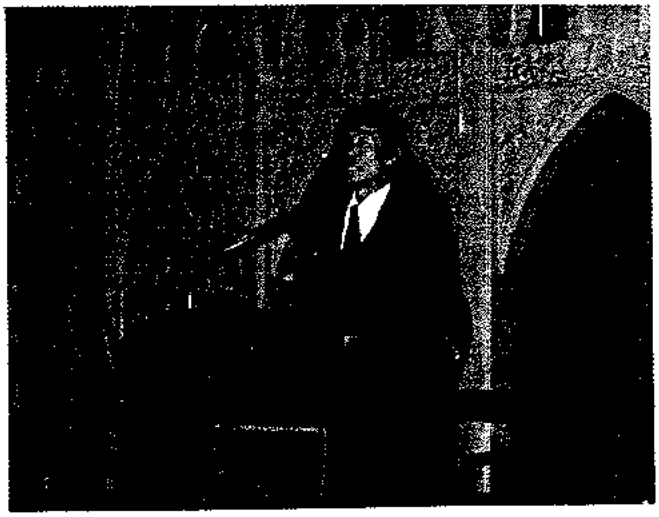
제12대 회장으로 피선된 김두섭회원은 전임본협총무이사를 역임했던 분이다.

회장으로 선출된 신임 김두섭회장은 즉시 이사선임의 전권을 수임받아, 회의에 입석한 전임회장 4분 장기인, 강봉진, 한창진, 이규복, 제씨를 모시고 숙의 끝에

서울의 박래운, 박우하, 한영수, 김정철

부산의 김규태

5인을 이사로 지명 총회에 승인을 요청 만장 일치로 의결 임명하였다.



당선소감을 피력하는 신임 김두섭회장

総会光景

참석한 전임회장 네분과 이사 선임을 숙의

참석한 전임회장 좌로부터 강봉진, 한창진, 장기인 이규복제위

會員動靜

전남지부 회원 사무소이전

성 명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면허번호	월 일
신 동 립	한진건축설계사무소	광주시동구대인동311－5	2－7277	47	2－585	11. 1
최 영 태	우미건축연구소	광주시동구금남로5가133 4		33	2－1315	〃
주 광 근	아주건축설계사무소	광주시동구대인동312－19	2－6998	7	2－622	〃
김 현 준	삼호건축설계사무소	광주시 〃	2－1451	37	2－1451	〃
조 경 환	해성건축연구소	여수시고소동638		5	2－1314	〃
이 정 종	대원건축설계사무소	〃	7897	8	2－65	〃
조 동 희	현대건축사무소	광주시동구금남로4가12	4－2597	3	1－175	11. 13
임 영 재	예소건축연구소	〃	3－6745	24	1－1507	〃
오 무 송	동아건축설계사무소	〃	4－2937	3	2－53	〃

강원지부회원사무소이전

민 병 협	관동건축설계사무소	강릉시성내동6	2262	강 릉 제34호	1－1487	10. 31

경북지부회원사무소이전

정 원 성	부림건축설계사무소	월성군안강읍안강리348－3	2040	1	1－769	11. 7
심 상 화	황제건축설계사무소	칠곡군왜관읍왜관동251	211	1	2－1480	〃

부산지부회원사무소이전

박 영 애	샘건축연구소	동래구북천동328	59－2204	2－92	1008	10. 19

서울지부전입회원

신 명 철	동아건축	강서구화곡동13－3	2－494	2－1334		11·2

경북지부전입회원

여 욱 동	동일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중구삼덕동1가1번지	66－9422	1－45	1－1226	10. 5

강원지부전입회원

박 영 봉	대아건축기술공단	춘천시중앙로1－66	2－2690	춘 천 제6호	2－1756.	10. 5
홍 영 배	관동건축설계사무소	강릉시성내동6	2262	강 릉 제33호	2－1570	〃

月間協会動靜

제25회 이사회의 개최

1. 일 시 : 1978. 11. 10
2. 장 소 : 본협회의실
3. 결의사항 : 가) 회원교육자 상품에 따른 상품금액 책정은 제6기(금년말)까지 매기마다 예비비에서 6만원씩 지출키로 결의
   나) 회원교육자 출퇴근 버스대여는 제6기까지 매기마다 9만원씩 지출키로 결의
   다) 교육자 중 탈락자를 건설부와 사전협의하여 매기마다 중간에 삽입시켜 재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결의
   라) 사무 인계인수는 제24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불구하고 주무당국의 요청에 따라 취임승인 신청이 인준된후 사무 인계인수키로 결의
4. 참 석 : 회 장 : 강봉진
   총무인사 : 김두섭
   이 사 : 박우하·한영수·유경철
   감 사 : 양상규

서울지부 신입회원

본　　적 : 서울
성　　명 : 이 봉춘
명　　칭 : 세종건축연구소
소 재 지 : 종로구당주동20－1
　　시민BD 301호
전　　화 : 72－6143
면허번호 : 1－472
등록번호 : 809
월　　일 : 12. 10

본　　적 : 서울
성　　명 : 이 종명
명　　칭 : 한양건축합동이종명연구소
소 재 지 : 도봉구수유동191－67
전　　화 : 988－2229, 2292
면허번호 : 1－139
등록번호 : 1－808
월　　일 : 11. 25

본　　적 : 서울
성　　명 : 김 복경
명　　칭 : 미건사. 김복경건축연구소
소 재 지 : 영등포구당산동3가387－2
전　　화 : 64－7817
면허번호 : 2－121
등록번호 : 제496호
월　　일 : 11. 17

경남지부 신입회원

본　　적 : 경남
성　　명 : 김 홍식
명　　칭 : 보성건축설계사무소
소 재 지 : 마산시장군동4가11
전　　화 : 2－3581
면허번호 : 2－532
등록번호 : 마산21
월　　일 : 11. 28

본　　적 : 부산
성　　명 : 배 종원
명　　칭 : 동아건축연구소
소 재 지 : 마산시산호동323－3
전　　화 : 2－7305
면허번호 : 2－1224
등록번호 : 제20호
월　　일 : 11. 27

전남지부 신입회원

본　　적 : 전남
성　　명 : 김 성추
명　　칭 : 가야건축연구소
소 재 지 : 광주시동구광산동40
전　　화 : 2－2868
면허번호 : 1－187
등록번호 : 33
월　　일 : 11. 9

전북 김광서 지부장 건설부 장관 표창받아

본협 전북지부 저주지역 회원 일동은 지난 8월～10월 까지 2개월간 전북 개화도 간척지 수택사업 기술지원을 펼쳐, 정부시책에 호응 지역개발 사업에 일익을 충실히 수행한 공을 인정받아 건설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進化하는 建築対象과 建築家의 職能

李 光 魯

本稿는 韓国建築家協会 78年度 建築討論 基調論文 임을 밝힌다.

〔1〕 進化하는 建築対象과 建築家

1960年代 中半 以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建築은 世界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즉 真実로 使用者를 만족시켜주는 새로운 建物은 거의 없고 建築家라는 職業이 기여하기로 되어있는 社会 와의 사이에 그 어떠한 形態를 가져야 하는가에 対하여 建築家와 大衆들 사이에 또한 建築家들 사이에도 상호간에 懐疑를 품게하고 있는 実情이다.

오늘날 建築家가 어떤 特別한 顧客을 위하여서 始終一貫 独自的인 自己表現에만 도취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社会的으로 無責任하다는 批判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建築規模의 大型化와 組立式建築에 依한 工場生産을 通한 建築材料의 規格化 等은 어디까지나 独自的인 즐거움을 表現하려는 建築家에게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要因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건축가는 한 個人이 아니라 수명 或은 그 以上의 人員이 集団이 되어서 設計를 하고 있는 形便으로 個個人의 건축가로서의 自己表現의 機会는 어느 정도 制約을 받는다고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Team의 構成에 의한 集団設計의 形態에서는 건축가는 経営技術에 대한 지식이 必要하게 되며 거기에는 作業의 効率性, 生産性등이 문제가 된다고 보겠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解答을 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建築物에 있어서 불편하다-너무 좁다든가 使用者의 要求에 맞지 않는다는 등-는 것이고 건물의 使用者를 진심으로 기쁘게 해 주는 건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즉 건축물의 가장 重要하고 명확한 目標는 사용자의 活動을 収容하고 이러한 活動을 便利하게 수행할 수 있고 또한 安定感을 주는 房이나 空間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겠으며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堅固하지 못하다든가 등의 不安感이 없고 적당한 建築費와 施工期間이 들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불안함과 不快함이 없도록 할 必要가 있다고 보겠다. Henry Wotten경이 말한 「좋은 건물이란 日用性, 堅固性, 時間, 価格 등에서 기쁨을 주는 것」이란 어떠한 視覚的인 기쁨에 많은 比重을 두는 建築論과는 그 観点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물이 外観上 훌륭하고 一般的으로 流行的인 表現을 간직하고 視覚的인 처리에서 잘 해결이 되었다면, 同時에 지붕이 샌다든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든가 너무 비싸게 들었다든가하는 문제들이 無視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건축가들이 경계하여야할것은 건축의 実用性을 追求하는 나머지 그 外観은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人間은 건물을 감각기관을 통하여 인식하는데 그들은 건물을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져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그 안에서 따뜻함과 차가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건축물도 그것의 独特한 「멋」이 있으며 이것이 視覚的인 기쁨을 주는 重要한 要件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視覚的인 기쁨을 感覚通路를 거쳐서 認識으로 通하는 것이다.

건물과 그 設備는 自然的인 気候를 調整하며 주어진外部環境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活動사이의 Filter 역활을 한다고 보며 건물과 설비는 인간의 生活을 便利하게 하고 때로는 기쁨을 맛보고 환경을 改善하는데 큰 역활을 한다. 현대 건축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長点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백여년 동안 건축가는 그 機能이 매우 細分化되고 많은 進化를 하고있다고 보겠다. 構造理論의 発達로, 構造技術者는 計量化가 可能한 作業에 있어서, 明快하게도, 建築物은 自己들의 合理的인 計算없이는 건축가는 집을 못 짓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同時에 前述한 바 건축설비로서 電気, 通信, 暖・冷房等의 技術者의 出現으로 이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건축을 기대하기란 힘들게 되었다. 또한 積算에 있어서도 積算家가 出現하게 된 것이다. 즉 一見下에 건축가의 역할이 매우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건축가에게 남은 것은 美的感覚이나 計量이 不可能한 Software面의 設計만이 남아 있으며 건축가는 무엇보다도 形,

比例, 色과 質感 等의 그야말로 視覺的인 기쁨과 材料의 使用에만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나마도 어느 것은 점점 計量이 가능해져 가고 있는데 例를 들자면 色은 色相, 明度, 彩度로 分析되고 또한 色에 대한 心理的인 反応조차도 計量이 可能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디자인 分野에서도 過去에는 건축가의 職分으로 自他가 公認하던 都市計劃 問題와 造景, 심지어는 실내장식에 이르기까지 전문가가 나타나 건축가를 몰아내는 형편에 놓여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때 건축가가 할 일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不安해 하게 된다. 이 時点에서 건축가는 自己自身의 職分과 그 앞날에 対한 自省을 하지않을 수 없게 되였던바, 오늘날 매우 興味롭게도, 그야말로 희미하였던 건축가의 概念을 컴퓨터의 利用과 建築的 思考方式의 協助로 확인하게 되었다. Christopherson이 말 했듯이 이것은 分明히 기술자와는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해서 上記한 여러가지 기술적인 面에 대한 課題를 주고 Program을 만드는 것은 건축가가 할 일인 것이며 더우기 그 Project에 対한 思考와 創造性을 責任지는 것이 건축가인 것이다. 그리고 人間慾求를 研究하고 제어하는 Soft-ware에 대한 価値를 결정짓는 것도 그 職分의 하나라고 보겠다.

건축가는 自己가 가지고 있는 力量以上으로 活動하도록 되어 있으며 建物의 基本構造를 決定하는 視覺的 効果以上의 次元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로 건축가는 그 건물의 使用者들을 認識器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使用者들은 그들 個個人의 感覺器官을 通해서 건물을 인식하게 되는데 건축가들의 設計決定은 그들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認識의 心理学은, 우리가 좋아하건 안하건, 同意하건 안하건 사람들은 자기들의 個人的 経験에 따라서 건물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絶対的인 基準으로 삼는다고 말해 주고 있다. 사람들은 건물에 대한 화폐가치뿐만 아니라 機能的인 面, 심지어는 美的인 面에 이르기까지도 자기 나름대로의 評価를 내린다는 것이다. 건축가가 제 아무리 건물을 機能的으로 或은 美学的으로 公平하게 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개개인의 趣味와 同一한 것을 건물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가는 이 사이에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建築計劃에 임해야 하며 모든 기능과 美的인 面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社会는 여기에 대한 責任을 건축가에게 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건물은 人間의 生活을 담는 容器이자 物理的気候의 Filter이고, 人間의 文化的인 気候를 形成하며 우리 건축가들도 역시 이 안에서 活動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文化的気候란 Geoffrey Broadbent가 Desing in Architecture에서 말한 社会的, 政治的, 経済的 道徳的인 圧力에 의해서 決定지워지는 文化的 要素라는 뜻이다.

세계 제2차대전 후에 발달된 컴퓨터의 広範囲한 利用 Ergonomics(人間工学), O.R의 体系分析, 情報理論 등의 導入으로 말미암아 건축가는 그 質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一面 建築論에 대한 混乱도 가져왔다.

이제 本論提起에 있어서 살펴보면 建築의 最高의 目的인 人間의 活動을 便利하고 安全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자연적 기후를 조정하고 人間工学的인 原理에 입각한 機能의 충족과 人間의 美的인 慾求를 調和시켜서 참된 이 時代의 建築을 創造함으로써 이 社会에 提示하고 社会의 一員으로서의 건축의 責任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建築生産論과 建築設計

오늘날 韓国을 비롯해서 世界的으로 先進国에서는 各 工業分野에서 長足의 発展을 가져와 거듭되는 技術革新의 結果, 모든 生産品에 対한 品質의 向上을 이루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극히 일부를 除外한 대부분의 建築界만이 아직도 手工業的인 단계에서 건축공사를 執行하고 있으나 만일 이대로 나간다면 他工業分野로부터의 공격과 규탄을 받으리라고 생각된다. 다행히도 일부 건축가들은 오늘날 社会科学을 人間慾求의 一般化된 理論으로 인식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건축적인 문제들은 표준화된 해결(Standardized Solution)을 통해서 人間慾求에 만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Le Corbusier가 제시한 「標準은 一時的인 것이 아니고 分析과 実験을 통해서 理性에 의해서 조정된 意図的인 어떤것에 대한 確実性에 確固한 기반위에 세워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組織과 機能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요구를 한다」라는 문제를 검토하고 찬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計劃·設計 技法에 있어서 工業化및 標準化의 方向에 대한 積極的인 協助로 Modular Cordination의 本格的인 이해와 追求를 하면서 여기에 建築家가 참가하여서 建築物이 要求하는 機能, 性能을 여하히 表現하는가? 다시 말해서 工業化된 生産技術을 도구로한 機能空間의 造形을 함으로서 建築物의 質을 向上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社会는 建築家로 하여금 고독한 예술가로서의 領域 속에서 헤메이도록은 허락하지를 않을 것이다. 즉 建築 造形에서 美를 求하고 복잡하게 多様化하는 기능을 충족시키고 또한 経済性을 追求하기 위하여서 건축의 企劃, 設計의 단계로부터 生産에 이르는 모든 知識과 技術을 動員하여서 Interdisplinary(学術的)하게 그리고 有機的으로 建築을 완성토록 하자는 技術論이 「建築生産論」인것이다. 여기에서는 在来의 設計와 施工이라는 두개의 아주 동떨어진 System의 둘레를 벗고 서로 造形과 構造, 機能이 융합한 建築空間을 창조하는 데에는 合理的인 技術的, 経済的 方法論이 必要하다고 보겠다. 建築生産論에서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建築的인 福祉라는 思想的인 복지 기술의 결과로서 質이 向上된 建築을 生産하자고 努力할 것이다.

이 마당에 선 建築家는 끊임없는 技術革新과 住宅生産을 위시한 各種 建築의 工業化 工法, 建築施工의 機械化, 要求性能과 品質管理手法, 電算化에 의한 Cost Planning등에 대한 技術 習得을 게을리할 수 없으며 建築施工에 대한 工業的認識을 깊게하고 建築施工의 近代化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学的인 뒷받침을 하도록 함으로써 建築設計의 質的인 向上과 国家 社会의 要求에 부응할 必要가 있다고 보겠다.

이런 意味에서 建築設計家는 図面上의 영역을 建築現場과 工業生産界로 확대하여 새로운 建築技術의 開発·育成과 施工 System開発에 関心을 기울여서 자기 자신의 技術向上과 設計와 施工間의 遊離現象을 없애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3〕 建築家의 性格

오늘날 대부분의 心現学者들은 建築家의 重要한 특징을 무엇보다도 創造性에 있다고들 보고 있다. 그러나 M. Beuse는 情報理論에서 科学과 技術, 芸術에다 同一하게 創造性을 관련시켜서 설명하고 있으나 建築的인 創造性이란어디까지나 芸術的(artistic)이라는 것을 意味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Donald Mackinnon은 創造性이란 本質的으로 새롭거나 統計的으로 頻頻하지 않는 反応이나 思想을 말한다고 본다. 이것을 建築에 適用하면 建築에 있어 새롭고, 統計上으로 頻頻하지 않은 反応을 일으키는 芸術的(Artistic)인 建築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工芸的인 稀貴性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라든가 오늘날 이루어지는 建物 設計의 論理性을 否定한다는것이 아니라 建築의 많은 문제들을 초월해서 技術的인 面에서 좀더 효율적이며 저렴하고 교묘한, 全体에 대한 解決策을 만들어 낼수 있는 創造的 能力을 가진 사람을 創造的인 建築家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Mackinnon이 말하는 建築家들은 역시 完璧한 芸能人인것같다.

確実히 그들은 Vitruvius가 말한 建築家보다 훨씬 앞섰다고 볼 수 있으며 心理学者들은 오늘날 建築家들의 卓越한 能力-技術者, 事業家, 言論人, 병리학자, 교육자, 심리학자-들을 結合시키고 調和시켜서 일을 推進해 나가는 能力에 놀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Mackinnon 은 40名의 創造的이고 世界的인 大建築家들을 (Ⅰ)群으로하고 다음을 한때 創造的인 Top Level에서 活動하였으나 創造的인 特質에서 좀떨어지는 43名의 建築家들을 (Ⅱ)群으로하고 그리고 지극히 平凡한 設計 事務를 하고 있는 建築家 41名을 (Ⅲ)群으로 해서 100가지의 設問을 通한 조사를 했었다. 그 結果를 보면 (Ⅲ)群의 建築家들은 그 内的인 要求에 있어서 비슷했으며 利益에 대한 慾望이라든가 能力에 있어서 대체적인 平準化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Ⅰ), (Ⅱ)群에 속하는 建築家들은 그들의 社会参與度, 自我認識, 心理的인 마음가짐과 融通性에 있어서 確実히 (Ⅲ)群 建築家들보다 次元이 높았다. 反面에 그들은 그들의 責任感, 社会適応性, 自制와 寛容, 集団意識, 順応性 등에 있어서는 어딘지 모르게 不足한 感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Ⅰ), (Ⅱ)群들은 어느정도 反社会的인 面이 약간 있었다는 것이다. 더우기 Frank Lloyd Wright는 이 조사에 不応했다고 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Peta Blake가 「建築의 大家들」이란 책에서 今世紀의 가장 훌륭한 建築家들의 자서전을 보여주었는데 Wright에 대해서는 거만하고 자만에 가득 찬 사람이고 그를 評하는 말에 매우 민감하고 特히 모욕적인 評에는 깊이 마음상해하고 변명하는 사람으로 되어있고, Le Cerbusier 역시 냉정하고 회의적이며 싸움하기 좋아하고 오만한 사람인데 私的으로 친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고 온정을 갖는 사람이며 학구적인 안목과 훌륭한 趣味를 가진 전혀 다른 両面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있고 Mies van der Rohe를 육중하고 화강암 같은 용모를 지녔고 우아하게 옷을 입으며 점잖고 놀랄 정도로 自己修養이 되어서 말이 없고 말을 하는 것이 고역이라고 느낄정도로 수줍어하는 사람으로 묘사하였다.

이 偉人들은 Mackfnnon이 말할 (Ⅰ)群의 세련되고 민감직스러우며 친절하고 호감이 가며 정력적이라는 것과는 次元이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보겠다.

또한 Macfarlans Smith (1964)라는 사람은 말하기를어떻든 좋은 建築家는 非社交的이고 유모어도 없고, 冷酷하고, 冷談하며, 疑心이 많고, 과묵하며, 염세주의적이고, 조용하고, 計算的이며, 自己中心的이고, 폐쇄적인것 같다고 하고 다만 造形面에 있어서 좋은 건축가들은 高度의 空間能力을 가진것 같다고 評하고 있다.

以上에서 볼때에 위대한 建築家들은 모두 個人的으로 많은 短点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古来로 좋은 建築家는 좋은 人格의 所有者이어야 한다고 배웠다. 또한 그 建築家가 建築하는 作品은 그 建築家의 그 동안의 모든 知識과 経験과 技術의 総和라고 생각된다.

人間의 個性을 観察하여 보면 大体的으로 大別하여서 内向的性格과 外向的 性格의 두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본다. 内向的인 사람은 늘 自己中心的이고 思索하고, 남의 일에 그다지 関心을 두지 않는 反面에 外向的 인 사람은 늘 잘 어울리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남의 일에 매우 関心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前者는 概念을 組織化하고 思想의 추상적 Pattern을 좋아하며 哲学的이고 形而上学的인 思索에 빠지기 쉬운데 後者는 多才多能하고 経験主義的이며 組織化와 哲学的인 思索보다 知識의 大衆化를 좋아한다.

이外에도 사람들은 人間을 創造的인 사람과 非創造的인 사람으로 나누기도 한다. 即 創造的인 사람이란 理知的인 것보다는 感性的인 面에 더욱 치우치게 되고 非創造

的인 사람은 理知的인 面에 더 素質이 있다고 본다. 필자는 建築家의 性格을 말하는 데에 內向性과 外向性의 性格에 더하여 創造的과 非創造性의 四要素를 가지고 人間의 性格에 適用시켜 보는것이 더 說得力이 있다고 生覚된다.

即 上述한偉大한 建築家들은 內向性에 創造的인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며 Peta Blake가 이야기하는 大家들의 性格에 있어서 오만하다든가 冷談하다는 等의 問題는 人格과 結付시키는 것보다 性格으로 結付시키는 것이 妥当하다고 생각된다.

以上에서 말한바 오늘날 建築家는 그 職務에 있어서 그 어느때보다도 複雜한 職務를 갖고 있으며 発展하는 工業化時代에 適応하는 反面 進行하는 建築大家들에 対한 創造를 꾀하고 이 社会環境을 淨化해 나가야 한다는 使命이 있음을 감안하여 어디까지나 美를 創造하는 創造者의 立場에 서서 허다한 知的인 考察과 分析을 익히면서 作品製作에 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서 생각할 問題는 建築生産을 위한 設計図는 제아무리 세밀하고 철저하게 製作되었다하더라도 이것이 어디까지나 그 次元的인 表現인 까닭으로 그 構想을 解釈하는데에 現場과 設計図사이에 差異가 생길 수 있음으로 建築家는 自己作品의 完成을 設計図의 完成時가 아니라 建築完了時라는 것을 명심하고 現場에 상주함을 原則으로 삼고 作品의 完成과 補完에 힘을 씀으로서 建築作品과 社会에 責任의 일단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 보호 헌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 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 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에 보다 더 아름답고 슬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 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다.
2.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 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야 한다.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6.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建築教育의 目標

李 海 成

本稿는 韓国建築家協会 78年度建築討論会 基調論文임

〈1〉

Norberg-Schulz는 建築教育은 다름 아닌 建築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出発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이 成功的으로 実践된 적이「없다고 말했」읍니다.

이 말을 吟味하려면은「教育」이라는 것,「建築」이라는 것, 또「建築教育」이라는 것을 問題삼게 됩니다.

教育은 極히 一般的으로 말해서 人間이면 어느 누구이고 間에 그 人間性을 伸張 発展시키고 人間性을 完成하는데 必要한 모든 것을 주고 얻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教育作用을 하고 있는것은 公的 教育体系인 学校뿐만아니라 社会속의 여러 他 教育機関도 包含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言及하려는 教育은 狭意的으로 限定하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지금 対話를 나누려는 教育問題는 그 自体가 目的的이고 意図的인 教育에 関한 問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뜻을 前提로 할 때 教育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具体的으로 定義할 수 있읍니다.

即 教育이란 知識, 能力, 技術, 価値의 意図的인 또 目的的인 創造와 啓発 或은 伝達입니다.

大学은 이러한 教育을 하는 公的 教育体系中에서 上位機関에 属합니다.

大学教育에서는 知識의 基盤을 다루면서 그것을 概念化하고 説明하며 立証할 수 있는 方法을 가르치는 特有한 機能을 가지고 있읍니다.

勿論 이것은 社会参与機能과 研究機能과 더불어 大学의 三大機能中의 하나입니다.

大学은 現時点에서 볼 때 技術과 社会가 急速하게 変化되면서 그 機構가 複雑해지는 한편 知識의 量이나 情報의 量이 増加拡大되는 現実에 直面하여서 高度로 啓発되고 訓練을 쌓은 知識人을 養成하고 輩出할 責任을 지고 있읍니다. 教育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要件이 필요합니다.

即 知識에만 致重하여 知的이고 分析的 教育内容을 為主로 할때 全人的教育은 欠陥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와 反対로 反 主知主義的 主情的인 教育内容을 為主로 하면 感傷的 愚를 犯하게 되며 이것은 系統的이고 規律的인 知的努力을 否認하게 됩니다.

知性과 感性의 調和가 全人的教育을 為해 必要합니다.

한가지 더 갖추어야 될 要件은 行動입니다. 行動이 더불어지지 않은 知識은 쓸모가 없읍니다. 感情 亦是 行動이 随伴되지 않으면 創造에 이르지 못합니다.

道徳的 行動이 人間完成을 이루게 합니다.

高度의 知識을 갖추었다고 해도 豊富한 感情을 가졌어도 行動이 随伴되지 않거나 不道徳的일때 教育의 効果는 疑心스러워 집니다.

以上 말한대로 教育이 人間性의 伸張 発展과 나아가서는 人間性의 完成을 위해서 必要한 것이기에 知性 뿐 아니라 感性이나 行動이 세가지가 合体가 되어야 所期의 効果를 걷을 수 있읍니다.

知와 美와 道徳이 合쳐진 教育의 像이 바로 全人間教育의 像입니다.

社会가 必要로 하는 사람은 바로이러한 教育을 받은 사람이며 단지 知識만을 많이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建築教育을 論하려 하면은 蛇足같은 教育論을 이야기하게 되어 안되었으나 오늘날 学校教育의 危機는 教育의 像이 定着되지 못한데서 그 権威가 喪失되어 否定当하고 있는데 原因이 있읍니다. 大学教育이나 그것을 맡고 있는 教授陣이 学問的으로나 道徳的으로 自信感을 잃고 動揺하고 있는 理由도 여기에 있읍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教育은 初等教育段階에서부터 優劣競争이나 試験準備의 強調로 그 自体로 비뚤어진 것으로 만들었으며 大学教育조차도 知識伝達이 全部인 것 같이 되어 버렸읍니다.

即 知識人을 만들어내는 일에 그치고 教育받은 사람을 만들어 내려는 뜻이 動搖되고 있는 것을 否認할 수 없읍니다.

科目內容이 時代的으로 뒤떨어졌다든지 知識이 老朽化된 것을 問題삼기 前에 教育像의 安着이 先行되어야 이 動搖를 克服할 수 있읍니다.

假令 몇가지 問題点을 指摘해 본다면은 科目別로는 새로운 理論이 깊이 있게 学生들에게 伝達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冷情히 反省해 볼 때 各 学問的 要素를 相互 結付시켜 주는 일에는 効果를 못 얻고 있으며 이것은 検討되어야 할 問題中의 하나 입니다. 또 더욱 重要한 일은 学校에서 가르치는 知識과 学問的 方法이 将次学生들이 人間으로 発展해가는 過程과 聯関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知識과 行動間의 明白한 連結과 教室속에서의 知識과 教室外에서 営為되는 生活間의 聯関性이 늘 教育課題를 通해서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問題 亦是 大学教育에서 検討되어야 할 宿題입니다. 나는 建築教育도 이와 같은 教育의 一般的 目標에 基礎를 두어서 생각해 볼 것을 말하고 싶읍니다. 그래야만 실마리가 풀릴것 같읍니다.

〈2〉

나는 教育의 窮極的 目標가 人間性의 伸張 発展과 그 完成에 있다는 主唱을 그대로 建築教育을 생각하는 基礎로 삼으려고 합니다.

人間은 原始的인 状態에서부터 人間自身을 表現해 낼 수 있는 새로운 方法을 継続的으로 찾고 있읍니다.

이것은 人間만이 가진 創意的 特徵입니다.

나는 人間이 人間自身을 表現해 놓은 것 中에서도 가장 完全한 것이 建築이라 생각하고 있읍니다. 建築은 그것이 지나간 時代의 것이든 現代의 것이든 現代의 또어느 地域 어느 民族의 것이든 그것을 통해 그 時代 그 地域의 人間의 人間生活을 알게 합니다. 그것은 人間이 建築的 営為를 통해서 自己 自身을 建物로서 잘 表現해 놓았던 까닭으로 볼 수 있읍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歷史過程속의 人間像과 建築像은 直接的 聯関性을 맺고 있는 것으라고 解釈하게 합니다.

即 全体的 人間性이 建築的空間-全体的建築-으로 表現되고 形成된 것으로 볼 수 있읍니다. 그래서 建築的 空間의 形成과 比較되어 마땅할 것으로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論理的으로 받아 들여진다며는 「全体的 建築」의 完成이라는 것이 마치全体的人間性의 伸張 発展과 完成과 같이 知性과 感性과 行動의 合体로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建築教育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 「全体的 建築」이라는 概念을 理解시키는 것이 重要하다고 봅니다.

첫머리에서 引用한 Schulz의 말中「建築」이라고 強調한 뜻은 바로 이「全体的 建築」을 뜻하는 것입니다.

Schulz는 이것을 建築의 全体性(Totality)이라고 表現하고 있읍니다.

建築教育의 目標는 이「全体的 建築」으로 綜合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어 주는데 있읍니다.

우리는 相当한 努力을 傾注하고 있으나 아직도 抽象的 Idea나 計劃 或은 Technic의 断片的 側面만을 가르치는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各 科目이 全혀 고립된 状態로 教授되고 있읍니다.

가령 大学의 全学年을 通해서 構造도 배우고 造形도 計劃도 배웠으나 従来 建築을 모르고 建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채 学校를 卒業하는 境遇도 있읍니다.

이것은 建築教育의 教科課程속에 全体的建築을 理解시키려는 意図的 뜻이 欠如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科目 서로間의 連結조차도 企図되고 있지 않은데 原因이 있읍니다.

設計時間을 通해 綜合하는 能力이 키워지고 이 過程에서 建築의 全体像이 発見되어야 하는데 設計課題의 内容에서부터 이 막연한 期待가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実感합니다.

더우기 오늘날의 建築家의 役割은 単一課題에 対한 解答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읍니다.

将来 그가 処해 있는 世界의 複雜한 여러 問題에 応答할 수 있는 資質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建築教育에서 주어진 課題에 対한 解答보다는 問題의 発見이 더 重要하다고 結果의 優劣評価보다는 過程이 더 重要한 것입니다.

科学的 知識을 基礎로해서 課題와 情報를 分析的 方法으로 処理하고 다른 한편 여기서 얻어지는 많은 可能性을 濃縮하여 綜合할 수 있는 能力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 한번 다시 말하게 되지만 建築教育도 人間教育과 마찬가지로 知와 感과 行動을 一体로 하여 分析(Analysis) 綜合(Integration), 実務(Experience)의 能力을 啓発할 수 있도록 해야 全体的 建築으로 向한 教育目標가 効果를 얻을수 있읍니다.

이렇게 目標를 設定해 놓아도 大学에서의 建築教育은 難題를 안고 있읍니다. 建築에 関한 知識은 個人的으로 다 履修할 수 없을 程度로 広範囲합니다. 또 建築에 関係시켜야 할 情報의 量은 爆発的으로 늘고 있읍니다.

拡大増加되는 知識의 量의 消化도 問題려니와 情報過剰을 処理할 概念과 理論이 欠如되고 있는 것도 問題가 되고 있읍니다. 때로는 情報가 知識인 것 같이 誤認되어 科目內容에 混乱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읍니다.

即 講義가 単純히 情報의 伝達이 되고 学生은 褪色되어 効用이 없어진 情報를 記憶하는 愚를 볼 수 있읍니다.

또 하나의 問題는 建築家가 創造的 芸術家라는 古典的 定義를 前提로 할때 芸術家의 個性的 直觀力만으로 現実世界의 複雜한 社会的 活動의 諸現象속에서 要求되는 建築의 일을 個人的 責任下에 処理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다른 한편 建築家는 芸術家라는 定義가 修正되어 建築活動이 여러 専門家들의 技術的 分担形式으로 進行된 것을 編成 綜合하는 것으로서 建築家는 그 Team의 一員으로 活動하는 것이라면 建築家로서의 生命을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建築課題를 個人的 責任下에 個性直觀力만으로 処理할 수 있는 時代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建築家는 마치 交響楽団의 音楽指揮者와 같은 役割을 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役割 亦是「全体的 建築」으로 向한 것입니다.

楽譜와 여러 楽器를 動員 演出해서 聴衆 全体에 翻訳해 내듯이 建築家도 計劃이나 여러 要求를 여러 協力者를 指揮해가며 하나의 設計概念으로 翻訳하는 役割을 하게 됩니다.

이 指揮者的 建築家, 総合하는 能力을 가진 建築家를 教育해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3〉

Boudon의 말을 빌리며는「建築空間은 事前에 思考되고 어떤 尺度에 依해서 計測되며 統一되어 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建築的 営為라는 것은 建築家의 精神的 空間을 具体的 空間으로 移行시키는 일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建築家들의 精神的 空間研究는 建築学에서 不可欠한 것이라고 했읍니다.

여기서 말한 尺度는 그것이 計量的 크기이든 視覚的이나 審美的크긴이든 또 心理的 크기이든 複合的 関聯에서 計測되는 基準입니다。

이말에 依하며는 그것이 具体的 空間으로 化하기 前에 思考된 精神的 空間이 前提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먼저도 잠간 言及했지만 이 建築的 空間의 統一性은 空間의 編成作業에서 여러 많은 可能性을 濃縮해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建築的 営為는 思考와 実践의 再段階를 거쳐서 概念的 構想作用이 具体化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建築教育을 통해 統一的이고 綜合的인 能力을 啓発하려는 理由가 여기에 있읍니다.

勿論 充分한 理論的 眼目만 가지고는 建築教育이 끝나지 않읍니다. 複合的 課題를 놓고 여러 可能性을 濃縮하여 具体化시키며 解決해내는 創造的 能力은 訓練을 통해 発展시킬 수 있읍니다 이러한 建築教育의 難題를 改善해 보려는 企図는 Gropius에 依해 Bau Haus에서 始作되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Bau Haus에는 教育原則을Werklehre와 Formlehre로 나누어 놓았고 課題를 풀 때 이것이 Collective work of Art라는 概念을 目標로 하여 統合되고 協同할 것을 強調하였읍니다.

Tomas Maldonado가 指摘하였듯이 Bau Haus의 教育原理가 学生 個人의 自由스런 自己表現 能力培養에 至重하였던 것이어서 지금에 와서는 現実社会의 諸課題를 解決하는데 그러한 個性的直觀力만으로는 適応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問題의正確한 分析 方法을 가르치고 그 解決方法을 科学的으로 教育하자는 主唱입니다.

즉 建築을 個人的 趣向이나 任意의 構想에 맡길 것이 아니라 人間社会에 関한 知識에 基礎를 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教育되어야 한다고 主唱하고 있읍니다.

勿論 機械産業的 生産 方法이 現実化되어진 형편에서 手工芸的 訓練이 必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疑問이 생기며 또 現世界의 複雜한 問題가 科学的 方法을 빌리거나 専門家들의 協同없이 解決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읍니다.

Gropius도 建築家의 役割이 調整에 있다고 強調했고 이것이 創造的 能力에 聯関된 協同에서 얻어진다고 主唱한 것으로 보아서 Bau Haus의 教育原理가 全的으로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읍니다. 다만 拡大된 建築 全体分野를 뒷받침할 科学的 理論의 基礎가 없었던 原因이 Bau Haus의 教育方法을 그 以上 発展시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建築에서는 限定的이고 単一課題를 풀 수 있는 原理가 아니고 모든 建築問題를 다룰 수 있는 包括的 原理가 必要한 것입니다. 이래야만 理論과 実務가 融合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먼저도 말했지만 이 包括的 原理를 基礎로 하고 学生들에게 全体的 建築을 理解시키면서 思考와 実践을 통해 精神的空間을 具体的 空間으로 化할 수 있는 創造的能力을 길러주는 것이 建築教育입니다. 합당치 않은 말 같으나 多面的 人間이 될 能力이나 意志가 없으면 未熟한 建築家라는 呼称을 들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읍니다. 우리의 教育上의 고민이 여기에 있읍니다.

이 고민은 바로 教科課程에 歴歴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4〉

B. Grad라는 사람은 그의 著書 "Adventure into Architecture"中에서 建築家에는 3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스스로 未来에다 自身을 位置시켜 놓고 展開되는 社会的 文化的 技術的인 環境과 関聯하면서 장래에 있을 建築의 発展方向을 내다볼 수 있는 革新者로서의 建築家이며,

둘째는 創造에 投身할 수는 없으나 創造라는 일을 알고 包括的으로 그 一部나 全部를 直接的 環境속에 実現시킬 수 있다고 意識하고 있는 実務家로서의 建築家이고,

세째는 建設企業이나 政府, 教育機関 혹은 建築家가 必要한 企業內에서 볼 수 있는, 設計라는 創造的 課程에는 従事하고 있지는 않으나 実務의 局面에 깊이 関係하고 있는 建築家로 나누어 있는 建築家로 나누어 놓고 있읍니다.

이 말은 現社会에서 모든 建築家가 真実로 創造的일 수 없으며 다 芸術的일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도 말했듯이 이 社会가 建築家에게 要求하고 있는 것은 多目的 人間으로서의 能力인 것 같읍니다.

美的 直観力도 있어야 하고 優秀한 能力으로 계획할 수 있는 知識도 있어야 하고 Consultant로 여러 分野를 調整할 知識도 가져야 하며 技術뿐만 아니라 財政, 経済, 社会, 心理 等 諸般 知識을 갖추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 直面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建築家의 職務가 拡張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高度의 管理機能이나 運営技術까지도 담당할 것을 要求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職能을 갖추려며는, 첫째 概念的 思考를 다른 사람이 直接 理解할 수 있는 図形으로, 模型으로 만들 能力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能力이 없으면 建築分野에 서 장래성이 없읍니다.

또 建築家라는 職能이 環境을 形成하는 일인 까닭에 이 職務의 周囲에서 進行되는 모든 일을 잘 알아야 하는 義務가 있다는 것을 認識하여야 합니다. 특히 自己職務에 関한 文献에서 늘 새로운 것을 찾고 뒤떨어지지 말아야 하고 設計가 公共의 安全性이나 健康복지에 関係되는 일인 까닭에 職務를 実際 執行할 資格을 얻기 前에 理論的 教育을 実際的 経験으로 補充되어야 합니다.

바람직스런 建築教育은 이상 말한 「建築」을 가르치는 일을 짜임새있게 実現해 가는데 있읍니다.

漢陽工大教授

建築創造와 文化의 媒介問題

金 壽 根

本稿는 韓国建築家協会 78年度建築討論会 基調論文임

[1]

今世紀 에 들어서 부터 芸術은 実証主義的, 自然科学的인 認識方法에서 芸術固有의 精神的価値를 追求하는 方向으로 기울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그 独自的, 価値的 存在로서의 芸術이 問題의 核心이 되어 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時点에서 建築理論適用의 여러 角度에서 본 建築創造의 本質과 文化間의 媒介問題에 関하여 論하고 批判的 反省과 더불어 그 価値観을 整理하므로서 다음 創造的 行為에 어떻게 그 바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本論文의 主題가 된다.

그 主題를 把握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固有한 建築経験과 더불어 오늘의 建築対象을 어떻게 判断하며 媒介할 것이냐 하는 問題로 귀착될 것이나, 오늘날 芸術의 눈, 即 본다는 것의 意味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批判基準의 定立이 사실상 어려운 課題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過去에는 記憶表象에 根據한 構想力이나 個人의 主観的判断에 依하여 芸術活動을 하여 왔지만 오늘날에는 이른바 機械時代의 理論과 芸術의 適応이 非意識的인 組織社会의 集団的意識이 人間을 疎外시키는 不安感을 造成하고 있기 때문에 芸術은 人間과 그 社会의 文化的 性格을 媒介하는 文化的 性格을 媒介하는 文化批評의 次元에까지 거슬러 올라 가야할 使命까지 떠 맡게 되었다.

建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人間이 무엇인가 하는것과 函数関係를 가지게 되므로 芸術이 媒体로서 媒介하는 役割의 性格을 달라지게 하고 있다.

過去에는 神과 自然, 그리고 人間情感이 중요한 内容이었던 것이나 오늘날의 建築芸術은 都市와 같이 人間과 그 社会가 中心主体 또는 目標가 되어 살아가는 方法을 脚色 또는 反映하는 性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人間과 그 社会의 生活 그 自体가 進行되어가는 実存的本質이 重要해진다. 따라서 建築은 한 人間社会의 살아가는 方法의 理想像인 것이며 그 人間社会의 生活空間을 造形하는 力動的인 文化의 形態로 정의되고 있다.

建築家는 人間社会의 理想像을 바로 그 人間社会의 媒介하는 中間者로서 存在한다. 그 媒介体가 바로 建築空間이다. 이 三者 即 建築家, 人間과 그 社会, 建築空間은 서로 交互作用을 가진 函数関係를 가진 뿐더러 서로 循環関係를 가지고 서로 影響을 미치게 된다. 그 媒介의 性格은 中間者인 建築家가 問題들을 処理하는 方法에 依하여 決定된다. 이때문에 建築家의 批判的反省이 必要로 되는 것이다. 実践的인 側面에서 中間者는 보편적価値를 判断하는데 公正性을 지켜야 할 것이고 그의 判断力은 그 自身의 個人的主観이나 個人的趣味感情 나아가서 過去의 技術表象의 記憶에만 依存할 수 없는 人間社会의 時代的精神을 媒介하는 時間, 空間에 対한 実存的判断力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時間, 空間은 形式論理가 아니라 機能論理와 結合体系 論理에 依하여서만 解決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形式論理에 根據한 実体概念은 오늘날 実体概念과 機能概念으로 解体되어 버렸다는 것을, 存在論 대신에 実存論이 導入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吟味해야 할 것이다.

[2]

이렇게 建築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原因은 바로 機械時代의 理論과 芸術의 適応이 자아낸 不均衡 때문이었다. 欠乏이 即 道具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思考方式의 実存論的 構成이 大量生産社会의 集団人的組織에 依하여 道具主義(instrumentalism)로 받아들여졌다. Dewey의 芸術論에 依하면 素材経験속의 行動이 스스로 存在하는 性能과 조화를 이룰때 이것은 予想하지 않았던 無意識속에 그 完全한 充足을 가져온다고 하며 이때 関係들의 有機的인 共通의 媒介(Medium-Organic Means of Communication) 위에 새로운 経験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것이 即 芸術的経験이라고 Dewey는 論하였다. 이 경우에는 항상 媒介는 人間과 事物, 人間과 人間, 集合団体와 組織으로서의 関係構造의 同質的融合이란 思考方式 위에

成立되는 것이다. 이런 実存論은 存在論과 다른点을 가진다. 이런 立場은 항상 大衆이 芸術的経験을 社会 속에서 터득하는 그 行為로서만 存在하게 된다는 것이다.

道具主義나 実用主義(pragmatism)도 그 意味대로 이런 実存(existance)의 궁극적 基盤을 多数人의 生活이 그것을 긍정하는 生活存在 그속에 있다는 것이다. 이 実存을 通하여서만 本質(essential)또는 真性(essence)을 헤아리려고 한 存在論의 方向이 合理的으로 集団人的으로 適用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美国에서의 機械時代의 哲学과 美学의 適応은 하나의 커다란 特徵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미 人間은「Subject」란 用語를 主観的인 것으로부터 主体的인 것으로 해석하는 段階에서 Kant의 主観의 確立에 뒤이어 생긴 새로운 認識論이 어떤 集団体, 即 人間社会 自身의 힘에 依하여 行하여진다는 意味가 될 것이다. 우리의 不安은 바로 여기에서 부터 생겨난다. 이런 不安은 흔히 機械主意(mechanism)의 否定的 側面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人間이 個人으로 存在하고 있느냐 아니면 巨人의 一部로 存在하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人間은 어느 個人이든지 어떤 社会組織의 構成員으로 소속하게 마련이지만 이런 社会組織에 소속하는 것으로만 그 対象의 感覚的素材조차 비로서 把握될 것이라는 段階의 文化가 出現하는 것 같다. 이럴때 순수한 意識을 가지지 못한 関係構造속에 人間이 融合되어지고 여기서의 媒介는 媒介体로서의 宇宙的 象徵主義가 하나의 特徵으로서 成立되어진다. 宇宙的関係로서의 抽象的媒介体가 巨人처럼 여기에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機械主義에 対한 不安이 생겨난다. 이런 機械主義의 巨人이 芸術을 創造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실제로 이런 芸術을 創造하는 技能人들이 수없이 많다. 이에 対한 省察에서부터 새로운 疑問, 새로운 序曲이 発生하는 것이다. 本 論旨의 展開는 바로 이러한 不安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이것을 가르켜 人間의 回復이라고 불러왔다. 이런 不安으로 말미암아 出現한 것이 바로 文化哲学과 環境論的研究이다.

3

人間은 環境의被造物이고 또 創造者이다. 한 人間의 価値観, 態度, 意見, 性格과 行動의 形成이 環境에 依하여 決定된다는 것이 이른바 環境決定論(Environmental Determinism)이다. 人間의 行態 또는 行動(Behaviour)은 人間의 感覚器官(Human Or nism)들과 人間環境(Environment)과 B=f(Ho×E)란 函数関係를 成立시킨다. 한 人間과 環境간의 交互作用을 科学的인 事実로 취급하는 것이 行動科学(behavioral Science)의 立場이다.

이 環境決定論의 函数関係에 依하면 環境이 人間形成에 影響을 미치는 것과 같이 人間은 서로 環境을 改造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두가지 反作用들이 서로 循環関係를 成立시킬 것이다.

環境은 한 人間을 둘러 쌓고 있는 外的存在들을 총칭하는 것인데 크게 나누어 人間環境, 物理的 環境으로 分類된다. 物理的環境은 自然(風土)과 物質的인 것들을 총칭하고 人間環境은 한 人間과 모든 社会들을 総称한다. 人間은 他人들과 外的存在들과의 交互作用過程속에서 한 人間으로 形成된다. 이런 環境的 関係들이 進行되는 場所가 바로 生活空間(Living Space)이다. 人間環境을 説明하는 構造的 要素들로서 社会体制와 文化体制, 그리고 性格構造를 지적하게 된다. 이 三者간에는 서로 相関関係를 가지고 있다.

環境論的 観点에서는 社会 및 文化体制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結果로서의 性格構造를 볼 것이다. 동시에 循環論的 観点에서는 性格構造 그 自体가 造形活動의 계기를 일으키는 環境的 要素이며 이것이 社会 및 文化体制를 改造하는 独立変数로서 作用할 것이다.

社会는 人間들의 각종 集団体들이며 文化는 社会를 誘導하고 管理하는 機能을 가진 精神的基盤을 意味한다. 性格構造는 社会 및 文化의 차이로 말미암아 精神的姿勢와 知覚反応形態가 달라질 것이다. 例를 들면 社会는 일종의 틀이요 文化는 그 틀이 담고있는 基本的 概念이요, 性格構造는 틀과 概念에 依하여 形成된다.

우리 建築家들이 注目하여야 할 集点은 바로 性格構造 即 그 精神的基盤의 共通的傾向의 中心要素들이 造形的契機 또는 力学的契機가 되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民衆이 그 生活속에 創造源들을 出産시킨다는 点이다.

4

그런데 問題는 民衆性格의 価値観이 과연 무엇이며 또 그 造形的契機들이 어떻게 評価되어 지느냐 하는 点이다. 이것은 中間者인 建築家의 芸術観과 더불어 分明한 批判基準을 定立하여야 할 対象인 것이다.

心的存在는 그 自体만으로서 自然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心的인것(Mind)의 単純한 現存性만으로서는 아직 文化客体가 아니다. 따라서 그런것이 文化概念을 完全한 것으로 할 수 없으며 心的인 것을 評価하는 精神的 存在, 即 評価하는 心的作用을 価値 自体와 또는 그 妥当性으로 부터 各各 区分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即 精神的価値에 있어서 重要한 것은 精神的인 것이 아니라 価値 그 自体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文化는 価値있다고 評価한 目的에 依據하여 行動하는 人間에 依하여 直接 人為的으로 出産한 것 또는 価値의 有無에 相関없이 人間에 依하여 意図的으로 育成하고 保存되는 것들의 総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文化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普遍的으로 公認된 価値에 依하여 構成된 意味形象이 깃들어 있는 그런 実存的客体의 総合体라는 意味로 文化를 解析하고 있다. 그런 文化의 客体가 이 価値와 결부되어 人為的으로 育成 保存되는 것이다.

우리는 過去와의 関係를 過去의 民衆의 生命力, 印 人間의 経験의 蓄積을 오늘날 이런 意味로서 가려내어 評価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한다. 過去와의 関係에 있어서 装飾的인 側面에서 오늘날의 建築과 아무런 関係가 없는 細部意匠이나 木造様式的인 構造断片들을 採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内面的인 類似性과 가까워지려는 것이며 過去의 民衆이 무엇을 造形하려고 하였고 또 어떻게 그 問題를 解決하려고 하였던가하는 그 方法自体를 밝혀서 이런方法이 오늘날 建築問題解決에 도움이 된다고 認定될 때에는 서슴없이 過去의 것을 採用할 것이다. 이렇게 過去의 形態上의 表現뿐만 아니라 内面的 関係와 過去와의 連続感을 追求하는것이 伝統의 意味로 解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現代建築家들 自身은 勿論 民衆의 精神的基盤을 어떻게 形成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課題인 것이다.

5

建築에 関한 決定은 経営的決定과는 다른 経験이라고 볼 수 있는 時間空間(Time Space)의 決定이다. 그 実際性은 지금 살고있는 人間의 像, 잉태중인 未来의 人間의 像과 合致할 수도 있고 또 合致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決定은 各個人이나 民衆의 実存的인 選択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政策決定者들과 建築研究者들은 誤判할지도 모르는 選択의 成課를 考慮하여야 한다. 結局 모든 関聯되는 者들간의 意識的 合力의 建築과 그 政策決定은 各階層들의 興望들을 診断하고 空間을 構造化할 수 있는 決定들의 作成을 必要로 한다. 短時日内에 政策의 基本方向이 될 수 있는 이런 審査決定을 作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三者들이 協議하여 決定을 가다듬는 形式은 相互間 問題解決에 対한 弁証法的인 交互作用 또는 循環作用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循環形式은 解決策을 提示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当面한 問題意識을 觸発시키고 交互作用을 일으켜서 反応을 観察하는 것이 目的이 된다. 한없이 協議形式을 企劃하고 反復하여 아주 솔직한 方向을 模索하기를 期待하는 行為이다.

이런 直接的인 交互方法은 여러 社会階層들의 権益과 合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 出産되는 建築은 国民全体와 関聯되고 各個人의 権益과 一致하고 새로운 要求들을 収容할수 있는 体系와 内容을 提供하고 人間의 온갖 次元들과 関与하고 現実을 意識하고 真実을 생각하는 人間像을 出産시킬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建築精神이 市民精神에 土着할 수 있도록 教育의 우선 対象이 되어야 할 것이다. 建築과 政治, 未来世代에게는 이 두 電極들 사이의 作用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그 結果로서 建築의 文化的 基盤이 形成되어야 할 것이다.

6

文化哲学的인 側面에서 볼때 人間環境 또는 空間이 人間을 形成하고 改造하는 要素라면 空間을 어떻게 改造할 것이냐 改造의 価値基準이 무엇이냐, 結局 人間이 무엇이냐에 問題가 귀착하고 만다. 人間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서 그 価値를 찾아내되 人間과 그의 空間을 改造하는데 適用하는것이 重要한 問題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文化全体를 評価하는 文化哲学의 課題이기도 하다.

美国의 精神分析学者 Hollok는 人間心理의 七大不変要素들로서 親密感(Intimacy), 友愛心(Compassion), 観念(I deology), 信頼感(Faith), 自律性(Autonomy), 内密性 Privacy), 美(Beauty)를 列挙하고 이것들 없이 人間일 수 있느냐고 論한 적이 있다. 이런 Hollok의 見解는 무척 東洋哲学에 接近하고 있는데 実際로 現代建築에서 이와 같은 用語는 建築概念으로서 채용되고 있는 것이다.

1938年 美国의 Clarence Arthur Perry의 近隣住居単位構成理論(Neighborhood Unit)은 人間의 友愛心과 親密感에 依한 社会的関係의 成果를 期待하였고, 1958年 CIAM이 解散되던 해부터 Mies van der Rohe가 中心되어 主導하던 技術的 傾向에 対한 反作用으로 나타난 美国의 formalism傾向의 作品들과 유럽国家들의 Brutalism 傾向의 作品들은 人間과 建築形態간의 親密感과 美를 回復시키려고 한 試図이었고 最近인 1975年 1月 国際建築家聯盟(UIA)가 채택한 世界住居憲章(International Charter for Habitat)은 4個章中 第1章 人間(Man) 第2章 人間과 社会(Man & Society)가 包含되어 住居에 対한 人間의 基本権利와 内密性을 강조하고 있다.

1956年 Max Bill은 人間의 必要들에 対応하여 造形되어 人間外界環境을 形成하는 모든 것들이 生活文化의 要素들이며 이 모든것들이 現代生活内容 의 客観的條件들에 根據하여 総合的調和로서 形成되어야 만 生活文化가 成立된다고 説明한 外界環境形成 또는 造形의 概念을 提案하였다. 여기에서 그가 使用하는 用語「Gestalt」는 機能과 形態와 美의 総合概念, 「Gestaltung」은 이런 総合概念에 依한 造形行為를 意味하고 있다.

우리가 対象으로 하는 建築創造는 建築空間, 建築的把握, 建築의 批判的反省, 建築的対象을 正確히 把握하고 理解하는 데서부터 始作된다.

建築은 人間과 그 生活의 保護施設에서 비롯하여 社会및 文化의 管理施設과 産業의 経営施設을 탄생시켜 왔다. 時代와 地域에 따라 새로운 実用施設들을 탄생시켜 왔듯이 建築은 人間保護와 그 社会生活이 要求하는 諸條件들에 関한 性能들을 만족시키는 時間空間또는 時代空間을 造形하였다. 이와같이 建築空間은 人間保護와 그 社会生活의 要求條件들을 反映하는 것이다. 항상 建築은 人間이 発見하여 人間을 為하여 創造하고 人間에 依하여 使用되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다.

建築的把握은 建築空間의 定義에서 시작하여 工学과는 다른 固有한 把握을 취한다. 그것은 人間과 그 生活속의 本質을 反映하는 空間構造로 부터 시작하여 그 本質的性能들을 수행하는 造形構造와 그 形態가 実存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次元들을 体系的으로 脚色하는 設計方法과 그 節次가 問題가 된다. 이 設計는 Program과 Project 間에 介入하는 固有한 造形表現手段인 것이다. 空間構造의 内容을 把握하는 立場은 항상 변함이 없으나 그 造形

表現手段들은 時代와 地域에 따라서 또는 個人에 따라서 또 処理하는 方法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建築의 批判的 反省은 空間体系가 미치는 社会的 成果가 무엇인가 하는데 있으며 이는 建築自体의 性格上, 都市化, 都市計劃및 建築物 対象이란 세가지 次元들로 区分하여 이루어질수 있을것이다. 特히 建築的 対象의 次元에 있어서는 建築的 対象때문에 作用하는 또는 空間性能을 수행하는 形式体系를 目標로 삼거나 그렇지 않으면 建築的 対象이 문제로 삼는 社会生活에 期待하는 成果를 目標로 삼게 된다.

建築的 対象에 있어서 重要한 問題는 우리가 그속에서 어떻게 日常生活의 줄거리를 만들었는가하는 点보다 그것이 어떻게 日常生活을 創造하고 있는가 하는 点에 価値가 부여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例를 들면 功利的인 것을 넘어서 生活의 멋과 精神的余裕를 生成시킬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点이다. 이런 生活의 멋과 精神的余裕의 開発이 重要하다고 생각한다면 建築芸術은 높은 次元의 精神性에 到達할 수 있을것이다. 여기에 建築対象의 将来는 오히려 人間自身에 依한 社会的生活의 創造속에 実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建築対象이 期待하는 成果는 단순한 心的 作用이 아니라 人間에 依하여 直接評価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評価基準이 되는 価値가 항상 作用한다. 이런 価値가 바로 建築文化의 傾向이 된다. 建築芸術은 性格上 이런 文化的 価値를 反映하는 媒介의 性格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

이와 같이 建築創造는 実質的인 性能과 文化的 価値를 反映하는 性格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文化的 批判의 目標가 되어진다. 간혹 造形芸術家 속에서 우리는 그가 속해 있는 芸術領域의 美만을 追求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한例로서 陶磁器를 만드는 造形芸術家가 그릇으로 使用하는 陶磁器를 日常生活속에서 使用하기 為하여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所藏装飾品으로서 製作하는 現象을 들 수 있는데 그릇이란 機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生活文化要素로서의 価値를 상실하였다는 批判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実用造形物의 경우 그것이 実用的機能 또는 実用的 契機에 의하여 그 機能과 形態 그리고 美가 総合的으로 調和된 것으로 制作되어 지는 것이며 実用造形物은 生活속에 実存하는 価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価値判断이 잘못되었을 때에 文化的 批判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建築芸術의 경우에도 이런 価値判断이 잘못된 例가 없지 않을것이며 建築은 陶磁器의 경우 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要素들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그 要素들과 有機的인 結合体系에 있어서 価値判断이 잘못된 危険이 더 많다. 이런 過誤는 어느 경우에도 그 芸術領域이 固有한 美라든가 기교 또는 趣味感情에 依하여 生活文化 要素들의 本質을 錯覚할 때일어나기 쉽다. 芸術이 文化的価値를 媒介하는 性格을 가진 것이라면 이런 実用芸術에서의 実存的 価値의 喪失또는 誤判은 文化的批判의 目標가 될 것이다

만약 建築造形物이 人間性格形成과 生活活動에 큰 影響을 미치는 空間이라는 것을 인정할 경우 建築芸術은 直接的으로 또는 間接的으로 人間의 本質과 그 運命에 影響을 미치는 舞台를 提供하는 活動이 될 것이다. 建築的 対象의 장래는 바로 建築造形物을 媒体로 하여 人間自身에 依하여 바람직한 社会生活을 잉태하고 出産하는 그 속에 存在한다는 것을 意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장래를 期待하기 為하여 文化的 価値를 媒介하고 反映하여야 할 것이다. 建築家는 모든 人間을 保護하고 모든 人間이 살아가는 理想的인 空間像을 構想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그 造形技法들을 発展시켜야 하며 이로서 建築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9]

이상과 같은 建築創造의 諸様相에서 보이듯이 建築家가 가지고 있는 社会的 役割과 그가 가지고 있는 価値判断의 基準은 相当히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

前述되어진 바와 같이 建築家의 役割은 民衆의 価値基準을 把握하고 民衆이 가진 文化的 現実로서 媒介하는 役割을 가지며 그속에 内在하는 伝統을 把握하고 여기에 새로운 伝統을 創造하는 性能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그 創造的 価値는 建築家 自身을 包含한 民衆의 文化的인 価値 判断基準에 따라 그 質的인 変化가 있게 된다.

文化的 生命力은 眼目(Eye), 知識(Brain), 行動力(Action)의 三者間의 좋은 平衡関係에서 이루어지며 이 三者가 上向的 方向性을 가질 때 가장 훌륭한 結果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建築家는 이러한 平衡속에서 文化創造의 核心的인 에너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같은 理由로 建築文化를 創造하는 直接当事者(施工主, 政策 決定者를 包含한 Patron)들에 있어서도 自己의 伝統을 理解하고 또한 自己自身의 伝統을 創造하는 姿勢와 努力이 要請한다. 만약 建築創造를 人間과 空間과 時代精神의 函数関係속에서 把握한다면 여기에「Rα」라는 因子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즉 $A=f(H+S)t+R\alpha$ 라는 方程式으로 表現하였을때 이「Rα는 그 地域에 特殊한 것, 유니크한 것으로서 世界人類의 지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 因子로서의「Rα」를 통하여 추출되는 우리의 것, 한국의것(Koreanese)을 찾아야 하고, 또 이러한 地域마다의 精粋를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 世界人類에 봉사하는 일이 될 것으로 믿으며 이러한 意味의 韓国学派가 세워질 것을 期待한다.

建築家 空間社代表

우리 時代의 建築家 그 存在形式에 관하여

尹 承 重

(1)

10여年前과 比較하여 볼 때 최근 몇년간 우리 社会와 都市의 発展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거대한 빌딩이 쉽게 기획되어 새로 세워지고, 한강변의 高層 아파트群의 숨가쁜 建設現場은 경제 성장의 기적을 실감나게 한다. 都市뿐만 아니라 全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간선도로망과 그 연변의 風景들, 観光地 구석구석까지 미친 環境改造의 손길은 대산업기지들의 거대한 모습과 함께 오늘의 우리 社会의 発展의 징조들이다.

우리 社会가 경제 지향적인 성장에 총력을 경주해온 결과로서 오늘과 같은 発展의 모습을 얻었고, 国際社会의 競争을 겨냥하며 「풍요한 사회」의 実現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1978年의 現実은 매우 밝은 未来를 약속받은 듯하다. 이러한 富의 성장은 결과적으로 建築의 수요로 나타나며, 「풍성한 建築」의 時代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建築을 담당하여 일으키게 될 建築家들에게는 더욱 고무적이며, 기대에 찬 未来가 될듯 하다.

1965年의 어떤 統計에서 서울의 家口当 平均 住居面積이 3.7坪이었음과 1978年 상반기 住宅의 平均許可規模가 42坪(부동산 이상 경기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 것으로 보이지만)이라는 事実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最近2～3年間完成되거나 계획중인 오피스, 호텔, 문화회관, 특히 민간 대단위아파트들의 規模의 방대함이나 사치스러움들에서 一見 「풍성한 建築」의 実体를 보는듯 하다.

이런 오늘의 時点에 서서 우리는 두가지 側面에 注目해 둘 必要가 있다. 하나는 매우 肯定的인 観点으로, 우리의 建築技術의 能力과 経験의 蓄積이 상당한 水準에 이르러, 이러한 量의 공급이 可能해졌으며, 자신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10여년전, 조선호텔이나 종합청사를 주관하였던 当局이 外国建築技術에의 依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의 사정을 인정한다면, 이런 大規模建築이 조용히 実現되고 있는 오늘의 現実은 크게 비교될만한 것이다.

이렇게 知識과 経験의 蓄積들이나 建築家 그룹의 성장은 「풍요한 建築」을 向한 매우 希望的인 일면임이 분명하다. 다른 또 하나의 立場은 이렇듯 활기에 찬 「建築家」들의 作業이 結果的으로 좋은 建築으로, 그래서 인간의 참다운 삶의 환경으로, 그래서 우리 時代의 창조적인 文化로 되어가고 있는지라는 의문의 제기에서부터 비롯된다.

建築은 곧「人間의 진정한 삶의 틀을 만들어 내는 作業」이라고 볼 수있다. 인간은 주어진 자연환경에 구속된 存在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어 자연에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생활환경으로서의 文化를 창조해 가며 자연환경과 文化를 통합한 그의 삶의 세계에 있어서스스로 자신의 삶의 主体이며, 생활환경으로서의 文化를 창조할 責任이 주어진다. 따라서 建築이 스스로 生活環境과 文化를 창조해 가는 과정이며, 인간의 인간다운 삶의 틀이라는 주장이 동의된다면, 建築을 잉태시키는 建築家에게 생활환경으로서의 文化를 창조할 責任이 있음이 분명해진다.

이런 態度에서 오늘의 現実을 바라볼 때 量的, 技術的 充足에도 불구하고 매우 不安스런 구석이 있음을 볼 수 있다.

建築의 作業은「인간의 要求」에서 비롯되어, 이를 充足시켜야 될 일차적인 機能을 갖는다. 또한 合目的이며, 合理的인 知識과 技術에 의해서, 結果的으로는 가장 경제적으로 要求되는 바의 機能을 갖도록 建築하는 것도 建築家의 한 課題이다. 그러나 建築의 投資者(Owner), 기획자(Client)들의 要求를 解決시킴과 동시에 또는 그와 併行하여 그 建築이 속하는 마을과 都市와 그리고 그 社会속 에서의 価値와 아름다움을 부여하려는 의지, 그리고 해있지도 않으며, 누구인지도 모르는 利用者들(Users)定을 아끼는 態度를 그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오늘의 状況위에서 오늘의 建築家가 자신의 삶을 사는 한 人間으로서, 人間을 위하여 또 그들의 社会를 위하여「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이 論考의 요지이다.

〈2〉

오늘의 社会는 분명 技術文明의 社会이며 또한 物質中心의 社会이다. 이 길을 先発하여 엄청난 富의 社会를 이룩한 先進諸国의 본을 따라 개발도상에 있는 우리社会도 物質的 富를 지향하여 合理的, 能率的, 実践的 사고와 행동이 가치 規範이 되는 그러한 社会로 되어가고 있다. 産業社会로의 成長은 필연적으로 建築과 도시의 수요를 급속히 팽창시켜「풍성한 建築」을 구가하게 되었다. 現代社会가 要求하는 大量需要, 大量生産은 建築의 테크놀로지, 規格化, 새로운 工法들이 建築家의 作業의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또한 複雑한 社会的 要求를「社会를 위하여」把握하는것, 끊임없이 새로운 知識과 情報를 管理하는 것, 그리고 合理的인 経営에 까지도 그들의 作業領域으로 拡張되었다.

即建築家는 여러분야의 테크놀로지를 종합하는 立場에 서게 된 것이다.

建築은 우선 利用者들인 인간의 要求를 充足시키는데서 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人間的要求란 매우 다양한 形態로 주어져서, 즉 생물인 인간으로서의「생리적 요구들」, 사고하는 存在인 人間으로서의「心理的 要求들」사회적 存在人, 또는 群化하는 존재인 인간으로서의「社会的 要求들」, 그리고 経済的 존재인 인간으로서의「経済的 要求들」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실제로 한 개체로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群을 이루어 集団으로서 存在하기 때문에「人間의 要求」에 解答을 주기 위하여 人間의 要求에 接近하여 파악한다는 일의 어려움이 생긴다. 特히 現代와 같은「巨大한 社会」속에서 한 部分으로 存在하는 한 인간의 実存的 要求는 무시되어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現代建築의 디렘마가 있다. 人間의 要求의 総和가 社会의 要求이며 結局 人間의 要求라는 立場을 取하여, 인간의 行態를 客観的으로, 統計的으로 観察하여 規定하려고 시도하는 行態論的 接近方法들이나, 人間의 行態나 性格이 그들의 環境에 支配되어 必然的으로 결정된다는 論理에 근거한 決定論的 接近方法들이 実証的, 科学的이라는 위안을 준다고 해도, 結果로서 태어나는 人間은「平均的」이어서 아무도 닮지 않은 생소한 人間일 수도 있다는데 함정이 있으며, 建築家의 디렘마가 시작되는 것이다.

人間은 社会에 태어나서 自我를, 자신의 특수한 퍼스낼리티를 形成해 가는 과정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인지, 감상, 規範的 行為의 모든 면에서 人間은 文化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人間의 行動이나 思考는 필연적으로 그 先行条件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물질중심적인 오늘의 巨大한 社会속에서 미아가 된「最後의 人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努力이 오늘의 建築家에 주어지는 또하나의 존재양식이 된다.

〈3〉

이런 디렘마에서 現代建築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人間中心的인 建築이라고 말하고 싶다. 人間中心的 이려는 追求는 예로부터 끈질기게 계속되어 왔다. 르네상스는 自然과 神으로부터 人間中心을 求했고, 近代의 歴史는 機械에 対해서 人間中心이려는 努力을 보여 주었다.

오늘의 巨大한 社会는 그 社会를 構成하는 人間들의 의지를 벗어나서, 그 社会自体로서 巨人이 되어버렸으며, 人間은 또 다시 人間을 배반한 巨大한 社会에 대항하여「人間回復」을 争取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社会는 본래 인간들의 삶을 위한, 삶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전체라는 것은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므로 社会는 전체로서의 価値規範과 체제를 갖게 되며 그개개의 人間의 要求와는 대립적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이룩할 수 있다고 전심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날 대다수의 인간들이 처한 現実을 묵묵히 받아 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물개성으로부터 자유로우려는 의지가 人間의 回復이며, 積極的으로 表現하면 인간의 창조이다.

이것은 혼자 하는 作業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는 作業이어야 한다.

④

오늘의 풍성한 建築의 時代에 建築家 低辺確保가 또 하나의 重要한 問題로 제기된다. 여기에서 建築家라는것은 勿論 해야할 바의「무엇」을 파악하고 実践하는 경우에 限定하여 말하는 것이다.

都市的스케일 巨大한 프로젝트를 훌륭히 리이드할 수 있는, 또는 世界史를 빛낼 위대한 建築을 잉태시킬 大建築家가 기대됨은 말할 것도 없지만 都市의 뒷골목에서 人間의 진정한 삶의 空間을 만들어 내며, 마을의 구석까지 建築의 즐거움을 주는데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全都市의 実体는 매우 추상적인 것이어서, 한 시민의 일상적 삶에 있어서는 거의 무관한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다. 全都市의 이상적인 마스터플랜보다는 일상적인 생활반경내에서의 建築物들과 이들 建築物들이 연출해 내는 外部空間의 形態나 분위기들, 즉 거리의 風景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며 親密한 관계에 서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親密하고 頻煩하게 接触되기 때문에, 都市의 환경과 생활의 활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都市속에서의 이런 部分的인 空間들은 그 空間의 장소성, 形態, 크기, 空間의 텍스추어, 공간과 공간의 흐름, 그 공간안에서 움직이고 행위하는 활동체들, 그리고 분위기를 만드는 빛과 색채와장치들에 의하여 인식되며, 우리들에게 한 특정한 場所로서 記憶되어 인간의 생활환경이 된다. 개개인들은 이런 場所들을 자신의 생활 싸이클에 의해서 連続的으로, 説話的으로 파악하게 됨으로서 都市는 무수히 많은 実体를 갖게되는 셈이다.

現代에 있어 都市와 建築의 窮極的인 명제는 그 속에서의 삶을갖는 인간들에게 창조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創造的 環境의 都市는 多樣性을 가진 選択의 自由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建築과 空間들은 人間과 그 環境사이에 무한히 많을 対話의 可能性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都市의 여러 地域들은 一樣하지 않으며, 그 場所의 고유한 성격, 자연지세와 경관, 주민들, 문화적 유산등의 상호작용을 最大로 許容시켜야 한다. 結局 人間生活의 創造的인 환경으로서의 建築과 都市는 한사람 또는 몇사람의 위대한 建築家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場所들의 主人인 市民들과 이에 協力하는 수많은 建築家들의 장의적인 努力의 結晶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명비판가 루이스 멈포드는 市民들이 都市에의 귀속감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問題이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価値観의 変化와 理解心을 키울 수 있는 教育이 절대적으로 必要하다고 강조한다.

파리가 가장 아름다운 都市로 그 전통을 길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파리시민들(建築家를 包含한)의 愛情으로 부터 비롯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들의 서울이 現代都市로의 進行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混乱은 市民들의 愛情의 대상이 되는 文化的 遺産이 적은 것이며, 市民들에게 어떤 理想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서울의 오늘이 있기 까지 불운하게도 두번의 不幸한 変身을 감수해야 했다. 閉鎖的 社会였던 王朝가 끝나고 日人들이 近代化를 企図했을 때, 그들은 意図的으로 새都市의 中心機能을 엣都市와 중복시켜 놓음으로서 아름다운 엣都市(모두들 그럴것으로 생각한다)는 사라져 갔다.

外国의 다른 伝統的인 都市들의 発展과정을 눈여겨 볼때 참으로 不幸한 일이었다. 두번째 不幸은 6·25 전화로 그 近代化된 都市의 대부분이 또다시 破壊된후 서울은 그 가장 가난했던 時期에 우선의 生存을 為하여 무경험과 무질서 속에서 재건되어 오늘의 서울의 첫출발이 된것이다. 사라진 엣서울에 対한 愛情과 자랑스러움이 있었거나, 都市生活에 対한 누적된 体験을 갖고 있었으면 오히려 가장 理想的인 새 都市로 変身시킬 좋은 機会일수도 있었다.

이런 歷史의 過程을 通해서 배우는 바와 같이 市民개개인의 높은 水準의 요구와 참여와 倫理的인 가치관위에서 해야할바의 「무엇」을 가진 建築家들의 底辺이 절실하게 必要함을 알게된다. 물론 이런 教育方法은 実物을 通한 경험으로부터 얻은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도적인 建築家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보겠다.

여기에서 建築家자신에게는 다른 하나의 숙제로 남는다. 인간과 그들의 社会의 要求에 명쾌한 해답을 주는 것과 함께, 그들의 作業이 芸術이 되어야하며 認識의 対象이되는 形態와 空間, 그리고 분위기를 연출해 내는 일뿐이 아니라, 그속에 内在하는 後景의 論理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마르셀 브로이어의 말처럼 「사람들은 建築같은것은 알지도 못하며 그들이 보는것은 주위의 風景이고 디테일한것 뿐」인 것이다. 한가지 더인용해 두고 싶은것은 모든芸術이 겪는 問題에 관한 아놀드 하우저의 다음과 같은말이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의 과제는 다수대중의 現在시야에 맞게 芸術을 제약할것이 아니라 대중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한 넓히는 일이다. 참된 芸術理解의 길은 教育을 通한 길이다. 少数에 依한 항구적 芸術独点을 防止하는 方法은 暴力的인 芸術의 単純化가 아니라 芸術的 判断能力을 기르고 訓練하는데 있다…」

[5]

이러한 時点에 서서 反省해 볼 것은 진정한 意味에서의 「建築家教育」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다. 어떤 意味에서의 우리의 現実은 建築家라는 概念조차도 매우 모호하게 쓰여지고 있음을 본다. 오늘의 建築家는 最新의 科学技術情報에 通達하고 経験한 「専門技術人」이며 社会와 文化를 洞察하는 「知性的知識人」으로서 인간과 그들의 社会의 要求에 接近하여 그 対立関係를 調和함으로서 인간의 창조적인 삶을 낳는 그 環境을 구체적인 生活의 場所 即 形態와 空間으로 社会에 돌려주는 社会的職分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建築家는 이 作業을 通하여 歷史속에서의 現在를 主体的으로 把握하려는 態度와 単純한 技術의 集合体가 아닌 그 이상의 「무엇」을 만들려는 執念이 内在할때, 이들의 作業은 「芸術」이 되며, 그時代의 文化로서 存在意味를 갖게되는 것이다. 建築家가 古典的인 存在方式에서처럼 全人的이며, 고고한 芸術家로서 召命받은 者로서의 特権을 누리던 時代와는 다르게 하나의 専門職으로서의 社会的職分을 갖게되었다 하더라도 人間과 그들의 社会를 為하여 「창조적 삶을 매개하는者」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것이다. 그러면 앞서의 문제로 돌아가 어떻게 専門職業人이며, 知性과 에지를 지닌 창조적삶을 매개하는 者로서의 긍지를 갖는 建築家를 많이 키워낼것인가에 関하여 몇가지의 方向을 제시해 둔다.

첫째, 지도적 建築家들이 오늘의 社会를 向한 明快한 지도이념과 그들의 作業을 通한 진정한 建築의 地平을 보여주는것과, 大学의 門을 開放하여 많은 지도적인 建築家들이 直接 大学教育에 参与하도록 유도하는것, 프랑스의 에콜·드·보자르나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에서처럼 현역建築家들에 의한 設計스튜디오에서의 実物을 通한 教育의 기회를 크게하는것.

둘째, 大学의 커리큘럼을 「建築家教育」을 목표로하여 재편성 하는것과 더 나아가서, 몇몇 대학들을 建築大学

(School of Architecutre)으로 昇格시켜 特히 建築家를 길러내는 專門教育기관을 지향하는 것.

세째, 大学教育過程以後에 建築家教育 또는 수련을 為하여 大学校育技能의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為하여 大学, 大学院, 科学院 같은 專門教育기구에서 建築都市의 設計用役이 可能하도록 許容하는것.

이 경우 教授들의 大学研究機関을 通한 프로젝트의 용역은 教育과 研究를 通한 社会奉仕의 次元에서의 倫理가 전제될것. 이 研究, 修練過程을 通하여 프로젝트에 의한 建築家修業을 쌓은후에 專門의 제도와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들.

이상 몇가지 接近方法은 물론 現行法制度의 改善을 전제로 하며 建築家와 建築家教育의 특수성이 大学에서 배제되어있는 現実이 매우 근시안적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말해두고 싶다

〈6〉

오늘날과 같이 建築家에 많은 機会가 주어진적이 없었다. 先進国들에 依해서 「先発中進国」의 地位를 확보한 이 産業化社会는 지속적인 高度成長 人口増加 急速한 都市化를 겪으면서 광범위한 都市再開発, 맘모스빌딩들, 大単位 集団住居단지들, 大単位産業基地等 일찌기 経験하지 못했던 大型프로젝트들이 속속 建設中에 있다.

또한 「새마을」을 理想으로하는 農村마을의 再構成이 当面의 과제로 등장하고, 中東建設붐에 힘입어 建築의 国際社会로의 데뷰가 実現되고 있는 中이어서 이런 社会的 要求는 필연적으로 建築家의 作業이나, 設計組織에 새로운 存在形式의 도입이 先行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70年代 후반에 이르러 몇개의 設計組織이 大型化 되어있고 또한 大企業의 資本力을 배경으로한 綜合엔지니어링 그룹들이 発足되어 있다. 이 大型 設計組織들은 방대한 人力資原을 기반으로하여 신속한 科学技術知識의 도입, 情報의 管理, 経験의 축적들과 能率的인 프로젝트의 소화능력을 갖추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特히 海外에서 教育과 経験을 쌓은 中堅브레인들을 대담하게 초빙하여 活動의 機会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들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家築家組織으로서의 새로운 存在形式을 갖지 못한채 急速한 팀의 확대는 두가지 面에서의 限界를 보여주게 된다.

하나는 팀으로서의 作業의 成果에 関한 問題이고 다른 하나는 이 組織이 技術知識의 総合의 次元을 넘어 建築家로서의 理念을 가지게 되느냐하는 問題이다. 이것은 이 組織을 領導하는 建築家의 力量에 속하는 것이겠으나 全設計組織이 곧 하나의 建築家라고 기대하기보다는, 建築家와 그의 作業에 協力하는 小単位의 建築家팀의 集合体로서 把握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存在形式이 可能하도록 제도적장치가 되어있음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바꾸어 말하면 백명쯤의 作業協力者를 거느리는 建築家를 상상하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建築作業팀을 가진 10명쯤의 建築家가 한 組織에서 活動한다는 뜻이되겠다. 現行法制度및 운영상의 모순은 세명의 協力者를 갖는 팀이나 백명의 協力者들로 구성된 大組織이 동등하게 취급되어 똑같이 法의 구속력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最近에 設計組織의 大形化를 지향하여 개정된 法에서 合同事務所의 개념을 도입하여 大型프로젝트의 責任을 묻고저 한것은 理解하기 곤란한 일이다. 建築家들이 스스로 協力하여 함께 作業하는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나, 建築家의 社会에 対한 責任은 무한한 것이어서 함께 責任질 수 없는 性質의 것이다. 이때의 責任은 法이 定하는 테두리안에서의 것을 뜻하는것이 아니라 그가 속하는 時代의 社会에 対한 의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의 作業이 그 建築의 投資者나 企劃者들의 要求에서 시작되지만 建築의 궁극적인 主人은 그 都市와 市民이므로 그 社会와 人間에 奉仕하는 그래서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 내는 차원의 작업은 法에 依한 규제로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建築家 自身들이 참된 職業精神과 낳는者로서의 執念, 그리고 実践으로서만 可能하다고 생각된다.

建築家

変化하는 建築的対象 - 変化하는 建築家의 職能

趙 英 武

本稿는 韓国建築家協会 78年度 建築討論 意見論文임을 밝힌다.

建築的対象은 人間의 自然的性質을 核으로하여 그 주위에서 変化하는 것이다. 항상 進化하고 変化하는 状況속에서 建築様式을 変化시키는 建築的 対象들을 把握하여 解決하여야 할 것이다. 어떻게 建築的対象들을 把握 하여야 하는가, 그 把握方法들이 어떻게 変化하고 있는가? 장차 建築家의 職能은 어떻게 変化하는가를 논하고저 한다.

1. 建築은 人間的이고 時間的인 芸術

建築은 人間과 그 生活 그 自体를 空間形式으로 造形한다. 장차 계속 해명되어질 온갖 人間의 自然的 性質들에 따라서 또 항상 力動的인 環境의 進化와 変化에 따라서 建築은 変化하도록 運命지어진 実用芸術이다. 建築芸術은 항상 人間이 그의 人生에 의하여 現在의 生活要素들을 造形하는 것을 対象으로 하므로 時間空間芸術인 것이다. 歴史的으로 建築芸術이 人間의 自然을 本源으로 하는 것은 不変이지만 이 自然의 本源을 認識하는 概念과 方法에 의하여 変化하여왔다. 오늘날 과거의 참다운 建築芸術基盤이 素朴한 아름다운 民俗建築속에 강하게 土着되어있고또 自然的이라고 評価하는 것이 바로 이런 見解이다.

따라서 建築的対象은 이렇게 進化하고 変化하는 空間構造의 造形 形式과 그 속에서 수행되도록 預想된 또는 期待한 成果가 目標인 것이다. 이런 造形形式과 그 成果는 建築主人公에 의하여 人為的으로 創造되는 것이기 때문에 文化的批判의 目標가 되기도 한다.

現在와 같이 都市化, 都市計画 및 建築的対象 세가지 次元들에 관한 批判이 어려운 時代일수록 더한층 建築하는 活動이 解決하여야 할 問題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어떻게 解決하여야 할것인가를 把握하여야 할 것이다.

2. 建築을 変化시키는 根源들

人間이 建築한다는 것은 바로 人間의 要求들을 充足시키기 위한 것 또는 그 充足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見解는 真理일 것이다. 이 人間的要求들은 매우 다양한 性質들을 표현한다. 크게 分類하면 生物인 人間의 生理的 要求들, 思考하는 存在인 人間의 心理的要求들, 社会的存在인 人間의 社会的要求들, 그리고 経済動物인 人間의 経済的要求들이 存在한다.

현재 이런 人間的要求들이 과연 科学的知識의 表現으로서 定義되어 지느냐가 疑問이다. 그런가하면 현재 파악된 어떤 要求들조차 그 充足水準이 経済的条件들에 의거하여 적당히 国家들마다 달라지고 또 그 充足形式이 経済的条件들과 더불어 慣習들에 의거하여 時代마다 달라지는 것도 事実이다.

이런 人間的要求들 가운데는 絶対的인 것 또는 確定的인 것이 있고 또 相対的인것 또는 未確定的인 것이 있다. 相対的인 것 또는 特定人의 特殊한 것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人間의 充足反応과 建物의 性能들 간의 一致問題이다. 建物은 50年以上 寿命期間을 予想하여 製作하므로 처음 使用할 무렵에는 新式이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 점점 流行에 뒤떨어진다. 어떻게 미리 이런 것을 予測하여 다시 改造할 수 있게하느냐가 問題된다. 이것이 適合性의 問題 또는 可変性의 問題이다. 이것이 適合性의 問題 또는 可変性의 問題이다. 可変性은 可変社会의 어떠한 用途라도 처리할 수 있는 変更可能性을 의미한다.

여기에 추가하여 새로히 共同社会次元의 要求들을 充足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建物은 보통 建築地区속에 集団的으로 건설된다.

이 建物内에서의 人間의 正常的인 生活과 建物自体의 正常的인 使用이 公害를 発生시킨다. 個人과 共同社会간에는 어떤 規制가 필요해진다. 共同社会構成員들은 서로 親密感과 信頼感을 가지고 社会的交換을 促進시키는 어떤 性格의 倫理的協約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이상의 것들이 建築의 人間的인 進化 또는 変化의 根源들이 되는 것이다. 그 밖의 建築의 時間的인 進化 또는 変化의 根源들은 무엇일까?

建築은 우리 時代의 環境의 変革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時代의 環境은 完全히 우리의 統制를 벗어난 集団心理의 変化, 生物的条件들의 変化, 技術들의 変化를 出現 시키고 있다.

이런 環境의 変革状況속에서 都市民들의 要求들과 事業主들의 要求들을 充足시켜 個人生活과 充実한 社会生活을 解決하는 可能性들을 期待하고 出産시키는 建築 및 都市計画의 技法들을 発見할 수 있는가 問題된다.

여기에는 例를 들면 별로 変化하지 않는 地理的 및 気候的与件들, 점진적으로 変化하는 地域資源들, 慣習들, 習性들, 信仰들, 家族構成 등, 그리고 変化가 빠른 家族経済, 就業活動들, 流行들이 存在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建築様式에 있어서는 무엇이 変化의 根源들이 되는가? 여기에서는 앞서 열거한 것들과 独立的으로 開発되는 構造技術인 建築工学과 建築芸術이 存在하는 것이다. 建築研究分野에 있어서는 人間的이고 時間的인 建築的対象들을 構成하는 空間의 造形技法들, 다시말하면 形態들, 美, 彫刻的造形은 本質的으로 建築家의 領域과 建築工学家의 領域이 両者에 의하여 그 変化가 促進된다.

建築工学은 1960年代에 組立化와 工業化의 研究 및 応用体系를 開発하였다. 그러나 建築芸術은 아직도 人間的이고 時間的인 空間을 体系的으로 設計하는 理論들과 方法들의 研究를 進行中에 있다.

3. 建築的 把握方法들의 変化過程

1920年代의 유럽 近代建築初期는 처음부터 全面的으로 過去의 모든 芸術様式들의 紐帯를 拒否하면서 独自的인 近代의 建築理論들과 方法들을 開発하였다. 그것은 유럽 国家들의 社会的 및 技術的인 発展이 必然的으로 招来한 結果이었다.

近代建築의 合理主義가 싹트기 시작하였던 때는 대강 19世紀末부터였다. 이런 새로운 것들은 온건한 折衷主義傾向으로 유도한 것이 1910年쯤에 出現하였던 新古典主義建築이었다.

近代建築第1期(1919~1929)의 発端이 되었던 이 모든 先駆的인 것들은 世界第1次大戦이 터지자 그 発展이 中断되었다가, 戦後에 생겨난 완전히 달라진 社会的 및 文化的環境과 直面하여야 했다. 戦争때문에 그 基盤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社会와의 妥協이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이처럼 急進的인 様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建築設計方向이 変革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유토피아적인 스케치들까지 派生시켰다. 그러나 建築은 具体的인 것에로 接近할수록 形態的, 工学技術的인 面에 의하여 特徴지어졌다. 그리하여 점차 形態들과 材料들의 規格化 또는 共通化가 形成되어졌다. 1928年 国際近代建築会議(CIAM)가 創造되었고, 이것이 이른바 国際様式建築運動의 母体이며 또 平行六面体를 建築様式의 象徴으로 삼았다.

1930年에 다시 変化가 나타났다. 이 変化들은 近代의 本質的인 方法들과 관계되었고 또 美学的問題들을 発展시켰다. 이 変化들은 空間, 形態, 材料, 建築様式 간의 関係들과 外界環境속에 建物들을 一致시키는 調和를 다루었다. 1920年代의 建築様式의 潮流를 国際様式이라고 정의한다면, 1930年代에는 類型的인 地域主義傾向을 지닌 明白한 分化의 特徴을 가지고 있다. 近代建築第2期(1930~1939)에는 近代建築이 독일, 화란, 프랑스에서부터 점차 중앙유럽 国家들과 美洲국가들에까지 널리 普及되므로 말미암아 이런 傾向이 形成되었다. 気候的, 地理的 및 伝統主義的条件들이 近代建築의 地域主義的分化를 촉진시켰다. 심한 것은 国家主義란 극단적인 方向으로까지 치닫기도 하였다.

世界2次大戦이 끝난 다음 유럽 国家들은 戦災復旧와 数百萬의 避難民들에게 住宅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큰 問題였다 실제로 近代建築第3期(1949~1958)에 볼 수 있는 潮流는 1930年代에 나타난 傾向의 延長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것은 대단히 독특한 差異를 가지고 있다.1930年代 새로운 近代的形態는 몇가지 限定된 部分에만 制限되어 있었으나, 다시 말하면 地域主義的伝統의 融合, 新式建物들과 自然環境 간의 関係들에 제약되어 있었으나, 그때는 이와 달리 새로운 形式的表現은 total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形式的表現은 形式化되어버린 伝統이나 基準에 대하여 아무런 制約을 인정 하지 않고 用途와 使用材料들에 가장 適合한 特殊하고 total한 形態들을 追求하였던것이다. 그리고 또 1920年전후의 近代建築이 이른바 古典主義와 分離하여 拒否闘爭하였다는 事実을 생각한다면아주 흥미있는 現象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모든 온갖可能性들이 다 고갈되어 버린 다음에 表現手段들의 普及이 形態들의 새로운 折衷主義方向을 発展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近代建築第3期는 새로운 折衷主義와 技術的完璧傾向에 의하여 特徴지어진다. 1958年 드디어 国際近代建築会議가 10人組(team-10)에 의하여 解散당하였다.

1958年경 몇 건축가들로부터 엿볼 수 있는 変化가 공공연히 나타났다. 그때까지 近代建築原理들을 全面的으로 신봉하였던 建築家들이 이 近代建築을 支配하던 몇 가지 原理들과 方法들에 대하여 凝心하기 시작하였고 또 새로운 建築概念들을 開拓해나가기 시작하였다. 1958年경만 해도 建築潮流들이 단순하였기 때문에 쉽게 観察할 수 있었던 事件들이 갑자기 多様하게 変化하였고 여러 系譜들로 갈라졌다. 이때부터 現代建築時代가 登場하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 近代建築의 代表的建築家들과 같이 일하던 建築家들마저도 建築作品傾向을 변화시켰다.

本質的으로 現代建築傾向은 brutalism과 formalism이라고 부르는 傾向들에 의하여 分類된다.

Brutalism은 두가지 종류들로 区分되는데, British brutalism은 大量生産社会에 순응하고 있는 本質的으로 論理的이고 非美学的인데 비하여 International brutalism의 本質的인 目標는 美学的秩序인 것이 特色이다. 이 새로운 brutalism傾向은 技術的完璧傾向의 完璧함과 正確함을 追求하지 않는 대신에 생긴 그대로의 材料들의 面質들과 根源性들을 追求하는 것이다.

Formalism은 主로 美国建築家들이 追求하였는데, 機能과 形態의 関係에 있어서 形式的인 形態追求에 보다 더比重을 두고 있는 傾向이다. 이 傾向은 1950年代以後에 美国에서 試図되었던 新古典主義, 技巧主義로 치닫는 미묘한 징조들을 들이내기도 한다.

西洋近代建築運動은 本質的으로 유럽建築의 伝統이었던 古典主義들로부터 分離하여 対決하는 試図이었음에反하여 西洋現代建築運動은 바로 전시대의 전통인 近代建築의 進化発展의 傾向, 어느 경우에는 近代建築과의 内在的인 闘爭이라고 評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時事的인 것에 직면할수록 現代建築傾向들을 把握하기가 어려워진다. 建築学의 研究와 応用의 体系가 아직 完全한 解決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世界的인 建築団体인 国際建築家聯盟(UIA)과 世界建築研究会議(CIB도 그 시급한 当面課題가 設計方法体系를 研究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1958年 CIAM解散宣言을 주도하였던 Team－10에 관하여 英国建築家 Ailson Smithson夫人은 「Team－10을 結成한 것은 全的으로 CIAM을 계승한 建築思想process가 적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建築家가 수행할 責任간에는 어떠한 抽象的인 master－plan이 介在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는 人間的인 事実과 그 状況을 유지하는 問題들밖에 없을 것이다…… 建築은 살아있는 것이며, 自然的으로 成長하여 結合하며, 그 全体로서, 人間이 자기의 希望을 실현할수 있는 空間을 創造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方法이 아니고서는 変革하는 建築grouping의 出現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이 Team－10의 主張이다(Team 10－Prima, 1970版)」고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의 評論家 Michel Ragon은 「Chandigarh와 Braqilia는 이제 紀念的인 都市들이 되어버렸다. ……21世紀都市들은 좀더 永久的인 改革으로서 建築世界의 可変性들을 가능케하는 適応性들(flexibilite's)을 가진 構造의 도움을 빌려서 이러한 紀念的都市인 建設을 피하여야 한다 …… Le Corbusier, Walter Gropius, Mies van der Rohe의 새로운 建築時代는 未来의 始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過去의 終末을 表現하였다고 보는 젊은 建築家들은 人間의 groupings과 時間, 可能性, 可変性, 空間性 등 새로운 概念들과 一致하는 都市建築들을 提案하고 있다(Cite'－I'an 2000, 1968版)」고 予見建築研究子룹(GEAM)을 대변하였다.

프랑스工学家 Gérard Blachere는 「CIAM의 아데네憲章은 人間을 위한 都市를 建設한다는 趣旨의 宣言, 이와 비슷한 宣言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그 成就目標, 즉 充足시켜야 할 要求들을 상세히 明示하지 않는 한, 엄밀하게 科学的精神으로 進歩的인 解決策들을正常化시키지 못하는 한 별로 쓸모가 없다고 여겨진다고付言하여야겠다(Savoir-Batir, 1966版)」고 批判하고 있다.

近代建築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1958年以後의 現代建築傾向들 즉 brutalism, formalism, utopianism에관한 批判도 생겨나고 있다.

독일建築家 Ju'rgen Joedicke는 「brutalism과 formalism의 경우, 建築家는 一面 研究와 実践간의 断切, 또一面 技術的 및 社会的変革에 주의하여야 한다. 具体的設計의 관점에서, brutalism은 最大供給을 目的으로 手段으로서는 時代錯誤的인 것이다……. formalism은 芸術, 즉芸術至上主義의 復活을 유도하였고, 그 目標는 19世紀末의 概念들의 意味로서 아름다운 芸術作品들을 創造하는 것이었다. ……utopianism傾向의 提案들은 이런 未来의 見解들이 現実的인 것 대신에 어떤 象徴的인 原型들을 表現하였기 때문에 失敗하였다……(Tendences de l'architecture moderne, 1969版)」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西洋建築이 새로운 決定的인 理論과 方法의 研究를 進行시키고 있는 똑같은 時期에 韓国建築은 어떻게 무엇을 発見하였을까? 그동안 우리는 伝統建築様式을 形式的으로 移植하였다. 그러나 現在 韓国固有의 地域主義建設의 理論과 方法은 그 윤곽을 들어낸 것이 무엇이라고 主張할 수 있을까?

4. 変化하는 建築家의 職能

社会的 및 技術的 変化

1970年 人口500萬抑制政策이 失敗한 서울은 1978年現在 人口 780萬人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人口가 増加하는 都市建設을 우리는 想像조차 못하였다. 장차 이것이 어느만큼 더 増加할 것인지도 疑問이다. 여기에서 생겨날 生活様相들이 어떻게 될지 予測할 길조차 없다. 서울의 旧都市内에는 이제 自動車들을 주차시킬 空地조차 없고, 上水供給과 汚物処理가 곤란해졌고, 마음껏 居住할 수없는 拘束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들을 위한 道路와 駐車場의 開発은 既存建築施設들을 撤去하지 않을 수 없고, 자꾸 道路用地들을 拡張시켜야 한다.

자꾸만 기존건축시설들을 철거하다보니까 어느덧 旧都市의 모습은 겨우 과거의 幻影들밖에 안남기게 되었다.

서울의 人口増加는 向都性과 就業構造의 修正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人口増加는 所得向上과 더불어 더 많은 建築面積들을 필요로 하고, 都市의 拡張은 通勤時間과 滞路時間과 増加를 초래하였다. 空気의 汚染과 水質의 汚染은 人間의 健康을 害칠 정도가 되었다. 土地需要는 地価上昇과 垈地面積零細化를 초래하고, 드디어 伝統的인 独立住宅建築의 포기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基本的인 計画設計의 発想들이 社会的側面뿐 아니라 技術的側面에서 몇 10年前과 별로 다름없이 処理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変革들과 対決할 수 있는 技法들, 즉 交通과 道路網, 供給処理, 法律, 住居建築技術의 技法들을 解決하여야 할 것이다. 空間創造의 劇的인 成果들은 오늘날 대단히 発展된 情報들 없이는不

可能하게 되었다. 工業的이고 機能的인 建築技術이 1920年代의 近代建築을 조건지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情報들이 決定的으로 20世紀末의 建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建築家의 地位

예상되는 發展들과 解決할 問題들의 빠른 變化에 비추어 建築家들의 活動은 束手無策이라는 것을 들어내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아직 좋은 建築과 都市計劃을 実践하여 본 歷史的經驗들이 거의 없으며, 1920年以後에도 本格的으로 變革狀況들과 直接 対決하여온 独創的인 技法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建築家는 一般的으로 建築研究는 이것이 直觀的인 創造의 可能性을 除去하여 버린다는 구실아래 거의 排斥당하고 있다. 그러나 合理主義와 想像力은 両者가 矛盾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人間을 위하여 相互補完的인 可能性들인 것이다.

充分한 情報들 없이는 想像力은 幻想的인 것이 되어버릴 危險이 많다. 近代建築에서는 概念과 創造가 항상 合理主義의 커다란 몫을 지속하였음을 立証하고 있다. 이런 事実에 비추어 建築領域에서는 科学的方法을 導入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 科学的方法들 가운데 예를 들면 体系的인 設計方法들, 計量的研究들, 建築技術들, 그리고 建築理論들을 열거할 수 있다.

실제로 建築家에 관한 現概念은 最終決定들을 혼자서 최종적으로 判斷하였던 19世紀末에 나타난 建築家－芸術家의 概念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不斷히 증가하는 情報의 量들과 解決할 問題들의 複雜性의 增加는 個人이 把握하여 処理할 수 있는 限界를 넘어서고 있다.

建築家가 현재의 研究들과 実践方法들을 가지고서 오늘날의 建築需要問題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反省하여야 한다. 물론 소규모의 建築空間들을 伝統的인 方法들에 의하여 処理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경험하지 못한 복잡한 문제들이 문제되어버리면 不充分한 것이 되어 버릴 것이다. 이런 疑問에 대한 解答이 어떤 職業人에 의하여 내려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建築家와 都市計劃家가 무엇을 해냈었던가에 상관없이 아직도 建築家는 현재 総合(integration)의 精神과 能力을 가진 非凡한 職業人들중의 한 사람이다.

최근의 研究로 말미암아 태어난 建築技術的産物이 組立化와 工業化의 形態이다. 要求들을 완전하게 把握하는 行為가 필연적으로 이 要求들에 적합한 形態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造形形態들이 문제되면, 즉각적으로 美学的考慮들을 介入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것이 장차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假定한다는 아무런 구실도 存在하지 않는다. 이것은 歷史的으로 變化할 적에는 항상 그러한 것이다. 이런 変革때문에 완성된 研究와 構造製作過程의 여러 段階들의 試験과 批判을 지배하는 基準들은 항상 美学的次元의 最小 要求들과 관련지어진다.

이런 責任遂行은 建築家가 職業構造들을 修正하는데 帰着할 것이다. 새로운 責任遂行에 필요한 職業精神과 職業構造의 変化가 이루어져야만, 장차 建築家는 社会에 대한 그 自身의 役割을 다하는 地位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条件들

우선 作家는 그의 主観的概念에만 의거하여 永遠한 進化状態인 社会的및 技術的 環境과 관련되는 새로운 対象空間의 可能性들을 간직하는 提案들을 創造하고 있는지 反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試図들속에는 그 背景으로서 建築進化의 原理, 즉 새로운 形式으로 나타날 새로운 用途에 対処하는데 필요한 適応性(flexibilite'), 予定된 用途속에서 修正이 가능한 適応性이란 共同分母가 存在하고 있다. 要求들은 環境의 変化에 맞추고 変化할 것이다. 새로운 또 修正된 用途들에 대한 可変을 가능케하는 適応性과 建物部材들의 一部 또는 全部의 修正과 交替를 가능케 하는 変異性(variation)이 문제된다.

이런 종류의 해결들은 아직 해결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建築経済가 문제된다. 建築経済는 建設 및 管理費用(価格)이외에 이 価格들과 建物의 価値, 効果, 建設 및居住의 조건들이 快適, 寿命期間과 관계된다. 適応性과 変異性의 가능성은 確定的인 것보다 더 많은 費用이 소요되는 것이다.

伝統的인 建築概念을 変化시키는 이런 例들이 최근의 事務室 및 学校建物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適応性은 실제로 現在 잘 알려져 있지 않은 将来의 進化 또는 変革에 순응하는 機能들과 内容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장차 事務室의 業務対象들과 教育対象들은 現在보다 더 달라질 것은 뻔하다.

장차 工業化는 建築家에 의한 研究方法들의 완전한 転換을 조건 지을 것이다. 工業化는 機能的 및 経済的利点들을 가지고 있을뿐아니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社会的様相들을 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労動者들이 就業条件들이 安定되어 있는 工場들로 몰리고 있는 状況이 장차 建設人力을 確保하는 手段으로서도 工業化 建築方法들의 発展을 초래할 것이다. 불과 10年以内에 人口 280萬人이 증가하는 状況에 비추어, 그 建築需要는 手工作的인 方法대신에 機械化된 工業化方法에 의하여 交替되어야만 供給이 可能할 것이라는 点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建築分野에 있어서는 手段들과 目標들이 대단히 밀접한 関係를 가진다. 또 하나의 理由는 工場에서 完成하는 生産品들의 最終마감 方法들이다.

완전한 工業化以前에 主要構造研究와 더불어 附帶構造物研究가 마무리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모든 詳細資料들을 決定할 필요가 있다. 研究調整을 위하여 동원하는 專門家들의 數가 현저하게 增加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協同作業의 体制가 필요한 만큼 建築家가 그의 設計案들을 明快하게 表現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장차 建物들의 形態들과 表現들이 어떤 것이 되어 버릴 것인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解答은 進化하는 時代속에서 그들의 見解들, 方法들, 手段들을 表現하는 建築家들의 能力과 適応可能性에 의하여 달라질 것이며 또 伝統様式들과 다른 새로운 様式을 創造하지 말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최근 人工的으로 環境条件들을 創造하는 巨大한 建築構造들의 技術的提案들이 많이 나왔다. 아직 이런 提案들은 空想的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오히려 현재 悪化되어 가고 있는 環境条件들을 定義하여 가장 現実主義的인 解決策들을 発見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不足한 것은 市民들의 意識에 비하여 現実的이고 理想的인 設計提案들이 不足하다는 事実이다. 이런 自覚的인 提案들이 없는 한 政治人들이나 執権者들은 필요한 財政的 및 法律的手段들을 発動시키기 위한 圧力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 問題에 있어서 運命을 거는 것은 人間生存의 基本原理들을 保護한다는 것 이외에 더 다른 것이 있지 않다. 大気汚染, 自然의 破壊, 그리고 不吉한 都市繁殖은 우리가 解決할 問題들이다.

1960年代에는 適応性의 概念이 都市計画研究의 고려사항들 속에 導入되기 시작하였다. 어느 建築研究보다 더한층 都市計画家는 그 事業執行이 소요되는 長期性을 고려하여야 했다. 長期計画은 원래 그 自体속의 修正이 불가피한 것이다. 현재 決定的인 理由처럼 인정되고, 유효한 최선의 것처럼 고려되는 모든 것들이 장차 修正主題들이 되어버릴지 모른다. 과거의 建築計画일 경우에는, 建築家의 相談者로서 建築主가 存在하였지만, 都市計画의 一部単位가 되는 大量住宅建設의 경우에는, 将来 利用者들이 存在하지않기 때문에 質問相対者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여기에 追加된다. 一般的으로 既存住居条件들의 分析밖에는 神経을 쓰지않는 資料들은 将来 利用可能性들을 위한 予測을 결여하고 있다. 例를 들면 江南地域의 中型以上의 아파트空間構造들이 부엌 및 食母房을 中心으로 한 食母家事空間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차 어떤 主婦像 또는 家族像을 出産시킬 것인지 疑問스러워진다는 것이다. 流行的이고 経験的인 原理들과 直観的予測들이 要求들의 変化를 充足시키는데 不充分하다는것을 発見해내야 한다.

1933年 아테네 憲章은 都市計画領域의 機能들에 대한 分離原則을 宣言하였다. 住居, 労動, 餘暇 그리고 交通에 대한 機能들을 分離하였고 또 住居地区들, 就業地区들, 餘暇地区들이 地理的으로 分離된 地区들속에 分散配置하는 것이었다. 이런 機能들의 分離는 19世紀의 유럽都市들의 錯誤들에 대한 反作用이었다.

이런 分離原理에 근거하여 建設된 住居都市들이 否定的인 成果들 밖에 거두지 못한 탓으로, 2次大戦以後의 新都市들은 아테네憲章과 相反되는 都市計画原理의 要求를 許容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유럽都市計画에서의 変化는 都心地区整備에서 나타났다. 都心地区들은 官庁所在地와 같은 業務機能들밖에 存在하지 않을수록 退勤時間後에는 아무런 生活과 活動들이 없어진다. 先見之明이 있는 都市計画家들은 좀더 分別있는 方式으로 都心地区들을 利用하기 위하여 아직도 나무랄데 없는 都心地区들을 保存하고 있다. 이 都市地区들이 都市의 利害関係가 높은 繁栄의 中心地区로 回復되어 지도록 이 都心속에 다시 끌어들일 産業活動들의 内容과 可能性들을 検討하고 있다.

가장 큰 関心은 바로 과거처럼 都市生活의 繁栄空間이 되는 街路의 復権이다. 街路는 技術的으로 交通軸에서 벗어나 歩行者의 領域을 確保하게 된다. 그 街路沿辺에는 百貨店들, 市場들, 食堂들, 寺院들, 会合場들, 劇場들, 映画館들, 社会福祉施設들, 官庁들, 民間会社들의 機能들이 配置되어 共存하는 것이다. 太平路의 様相이 밤에는 일종의 高速道路가 되어야 할 것인가?

5. 結　論

急進的으로 変革하는 서울속에는 建築家의 職業能力들을 変化시키는 수많은 建築的対象들이 存在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좁은 眼目으로서는 解決할 수 없는 많은 問題들이 人間的인 文化生活들을 可能케 할 수 있도록 解決되어야 한다. 1970年代의 建築家들은 急進的인 状況속에서 変化하는 建築的対象들을 人間的인 建築空間으로 創造하여야 하는 意志와 職業能力들을 가져야 한다.

建築対象들의 創造에 있어서 予定된 目標처럼 芸術을 강요한다는 것은 建築을 科学처럼 宣言하는 것과 같은 時代錯誤的인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科学的方法을 導入하여 建築的対象들과 根源들을 定義하여 体系的으로 解決하는 実践方法들을 発見하는 것이다. (1978. 11. 12~26)

建築教育의 目標

金 熙 春

本稿는 韓国建築家協会 78年度建築討論会 意見論文임

1. 建築에 있어서 Total Design의 概念

現代 建築界의 一角에서 建築을 創造되는 것으로서 보다 生産되는 것으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흐름이 高潮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建築物이 얼마나 独自的인 創造性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물음보다는 建築物에 関한 機能的, 社会的 美的인 諸般의 複合的인 要求들에 対한 解答으로서 建築物의 모든 部分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一貫性있게 処理되었는가 하는 것이 価値判断의 要諦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要請에 順応하기 為해서는 建築家 個人의 創造的인 努力뿐만 아니라 組織的 頭脳의 活用이 不可避하게 된다.

어떠한 文化的活動의 傾向은 時代的 背景의 한 断面으로서 나타 난다. 한 傾向이 時代的 背景이 갖는 特質 을 잘 代弁할 수 있을때 그것은 時代思潮의 한 局面으로 立証지워지게 되고 그렇지 못할때 그것은 過渡期的 流行現象으로서 곧 消滅되고 만다.

Total Design이라고 하는 建築思潮가 어느 一角에서 共感되고 있다는 事実은 現代建築界가 갖는 時代的背景의 한断 面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思潮는 構成的 事実로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Total Design概念이 現代建築界에서 차지하는 意義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国際主義 機能主義로부터 CIAM運動을 거쳐 다시 風土主義로의 回複을 主張하는 等의 現代建築思潮의 過程은 一見 混乱한 듯 싶지만 그 創造의 原動力이 갖는 本質을 보면 大体로 두갈래의 흐름으로 크게 大別 할 수가 있을것 같다. 그 하나는 主観的 感情的 方向이고 다른 하나는 客観的 理性的 方向이라고 볼 수 있다.

Total Design에 있어서의 建築的 表現은 組織的設計의 바탕에서 綜合된 見解가 하나의 建築物로 圧縮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特定의 主観은 全体의 見解로써 다듬어 질 수 밖에 없으므로 合理的 客観的 表現이 支配的이게 된다.

이러한 観点에서 Total Design은 위에 말한 現代建築의 2大 方向中의 後者 即 客観的, 建築創作의 한 姿勢가 될것이라고 본다.

한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世紀 以前의 建築家의 概念과 20世紀 以後의 建築家의 概念 사이에는 현저한 差異가 있는 것이다.

그 区別되는 제일의 要件은 建築 및 環境에 대한 時代的인 要請을 누구보다도 먼저 잘 알고 또한 将来를 通察하는 眼目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現実的으로 建築物에 具現하는 創造力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観点에서 Total Design에 있어서의 建築家像은 既存의 固定観念에서 벗어난 새로운 建築家像을 示唆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建築家 個人의 創造的 理念을 具現한다는 態度보다는 設計頭脳組織의 共同努力으로써 바람직한 建築環境을 만들어 낸다는 態度가 要望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建築家가 무엇을 創造하는가 하는 물음보다는 무엇을 為하여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問題意識이 優先하는 것이다.

2. 建築学部門의 独立

위에서 말 한 建築의 Totality를 前提했을 때 建築学部門이 우선 独自的인 分野로 独立되어야 할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는 建築学은 主로 工学部門에 드물게 美術学部門 또는 造形学部門에 属해 있다. 그러나 建築의 Totality에 비추어 볼때 工学部門 美術学部門 또는 造形学部門 그 状態는 満足하지 못하다.

그 理由로서는 各部門別 教育의 内容이 그 部門의 専功을 伸張하는 方針이기 때문에 建築의 特殊性을 살리기에는 여러가지 難点이 많다. 나라마다 文化의 尺度에 따라서 工学部門 또는 美術学部門에 属하는 경우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建築에 関한 比重이 크면 클수록 独立된 部分으로 発展되고 있는 것은 事実이다.

3. 建築의 教科目 및 課程의 再編成

建築의 Totality의 内容이 広範囲하고 또한 技術的 正確性 뿐만 아니라 그 表現에 있어서 未来指向性, 伝統性 人間性等이 具現되어야 하므로 教科目 및 課程이 새로운 次元에서 検討되어 再編成되어야 할 것이다.

特히 実技科目의 履修方法은 대담하게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建築의 創意性啓発은 具体的인 対象物을 相対로 모든 理論이 展開되고 例題가 提示되어 Programming Planning Designing의 課程이 綿密히 進行되므로써 이루어지게 될것이다. 이러한 課程에서 建築의 Totality 의 意義를 파악하게되고 나아가서 協同作業의 演習이 可能하게 된다.

따라서 建築 実技教育이 具体的인 対象物을 相対로 모든 教科目이 集中的으로 実施되도록 各課程이 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工大教授

建築教育의 目標

安 瑛 培

本稿는 韓国建築家協会 78年度建築討論会 意見論文임

7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나라는 経済와 工業分野에 놀랄만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建築分野에도 建築의 規模가 大型化함으로써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은 建築家로서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不安感도 없지 않습니다. 中東 부움으로 인해 야기되는 많은 建築技術者의 수요는 建築界의 人材不足 現象을 일으키고 있고 大学에서는 부족한 建築教育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実社会에서는 부족한 実務経験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큰 규모의 建物設計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불안감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大学의 建築教育의 目標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時間이 너무나 짧었고 建築教育의 目標設定을 李 海成 教授가 너무나 잘 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다시 첨가해야 할 말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마는 나는 이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여기에 약간의 의견과 이것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좀 제시해 볼까 합니다.

知와 美와 道徳이 합쳐진 教育의 像이 바로 全人間教育의 像이며 道徳的行動이 人間完成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李 海成 教授의 지론은 극히 당연한 말이어서 누구나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建築教育의 目標가 全体的 建築으로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는데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록 현대와 같이 科学文明이 극도로 발달하여 모든 직업이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가 아니더라도 오랜 과거부터도 통용되었던 사실입니다.

집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골격이 건실해야 하는 것은 建築物이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 중에서 가장 선행해야할 중요한 요건인것 처럼 한국의 건축교육의 지표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이 때 이것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全人間的인 教育의 像은 비단 建築이 아니더라도 社会, 経済, 芸術全般에 걸쳐서 필요한 것이며, "全体性"도 역시 建築에만 한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建築이나 교육을 논할 때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를 위한 問題点을 제기하고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李教授는 지금은 建築에 관한 지식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개인적으로 다 이수할 수 없는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建築課題를 개인적 책임하에 개성적 직관력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했읍니다. 그러기에 建築家는 音楽指揮者와 같이 指揮者的建築家, 綜合하는 능력을 가진 建築家이어야 한다고 했읍니다.

建築家라는 말 자체가 원래 종합해서 構想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強調하는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問題는 그 다음에 있다고 봅니다. 갖추면 갖출수록 좋은 建築을 창조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人間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에 관련된 여러 부문에 걸쳐 세부에 까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자칫하면 한쪽에 치우쳐서 편협해지기 쉬우므로 全体的으로 종합하는데 오히려 장해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분야 중에 한 작은 부분의 Specialist가 좁고 깊게 알고 있는 것에 반하여 建築家는 넓고 좁게 아는 것이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建築教育의 方向設定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축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너무 많은 것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읍니다. 建築理論으로부터 構造力学, 鉄筋콘크리이트, 鉄骨構造 그리고 材料, 施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식은 훌륭한 建築家로서 하나도 빼 놓을 수 없는 학문이지만, 이와 같이 광범위한 지식의 교육부담은 훌륭한 建築을 구상하고 종합하는 힘을 기우리는데는 오히려 역행이 될 우려가 많다고 봅니다. 構造専門家가 안 될 바에는 構造力学을 2년씩이나 걸려 가르쳐야할지 의심이가며, 이를 위해 高等数学을 배워야 하고 建築設備, 材料, 施工 등의 이론습득을 위하여 너무나 큰 부

담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設計実習時間이 잠식되어 가고, 심지어는 다른 작은 과목 하나와 동등시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는 建築士試験科目에서까지 建築設計가 다른 과목과 동등시되고 있는 것도 그 좋은 실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卒業予定者에 대한 技士1給 制度에 構造技士와 施工技士 자격만 있는 것도 정상적 건축교육을 크게 저해하고 있읍니다.

그 근본원인을 찾아 보면 대학에서 建築工学과 建築教育을 동시에 하려는 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최근에 대학교육은 建築工学에만 치우쳐서 이러한 실정에서 우수한 建築家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란 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建築家가 Almighty할 수도 없거니와 그래야만 된다는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할 것 같읍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全人教育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읍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협동하는 힘과 여러 가지들과의 토의를 거쳐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여러 사람과의 대화와 토의는 빠른 시간에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토의하고 협동하는 능력도 실습을 통해 교육되어야 할 것입니다.

建築이 小数人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大衆을 위한 것이라 볼 때, 建築家의 단독적인 판정은 위험한 일이며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과 토의하고 협동하며 넓은 아량심을 갖도록 建築家는 교육되어야 합니다. 建築은 개성을 중요시하는 관계로 독단적이고 비협조적이며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도 잘못된 교육에서 오는 폐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建築家는 인간의 이상적인 生活空間을 창조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人間生活을 批評·分析·検討하고 비판하며 새로운 생활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해야 하며, 아울러 空間構成에 대한 많은 Practice 를 소요로 합니다. 이것을 위한 보조적인 기술분야는 협동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建築家는 적어도 모든 것을 종합하는 능력과 아름다운 空間을 구상하는 능력만은 스스로 지녀야 합니다.

建築教育은 芸能方面과 같이 理論과 実習이 병행하여야 합니다. 実習이 부족하면 올바른 理論을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많은 시간의 Practice는 理論의 理解를 돕고 또한 여기에서 얻어진 이론은 실습의 차원을 높혀 줌으로써 建築의 理解와 創作의 能力을 높혀 주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학생을 교육하는 大学教授도 Practice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建築分野도 医学界와 비슷한 제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美国에서는 建築設計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하면서도 5년제로 되어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6년제나 8년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과 같은 교육방법으로 우수한 建築家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중에서 우연히 美的 센스가 좋은 사람중 몇사람이 재능있는 建築家로 알려져서 편협된 방법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建築界에서는 建築家라면 오히려 造形만 따지고 그 밖의 일은 소홀히 한다고 해서 建築家 不信風潮까지 일고 있읍니다.

또 한 反面으로 뜻있는 建築家들은 建築의 기초과정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채 서투른 재간만을 피우는 것을 한심스럽게 여기고 있읍니다. 무엇이 더 좋고 옳은 建築인가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한채 技術教育에만 치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構造技術者도 똑같은 建築工学科를 이수했기 때문에 같은 建築家로 자부하고 있으며, 建築家가 構造에 대한 책임까지 지어야 하는 현상을 초래했읍니다. 이는 의사 가 약을 팔고, 약사가 진찰없이 임의로 판단해서 약을 파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의사와 약사와는 이수과목이 엄연히 다르고, 분야가 다르게 확실히 구분되어 있읍니다.

建築家도 構造技術者나 設計技術者와 똑같은 하나의 職業人입니다. 단지 여러 분야의 기술자들과 협동하여 종합함으로써 建築을 芸術的 次元으로까지 끌어 올리는 技能이 다를 뿐입니다.

建築이 科学的 機能充足만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인간에게 참다운 기쁨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芸術을 따로 어렵게 정의할 수도 있겠으나 인간의 부족한 능력과 부족한 기능을 충족시키며 인간생활에 생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建築을 技術的 領域을 초월하여 芸術的 段階에까지 끌어 올리는 노력이 建築家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식과 기술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읍니다. 科学과 芸術을 同時에 追求하려는 建築家의 할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Le Corbusier의 말과 같이 50대 가야 훌륭한 작품을 낼 수 있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이것은 建築이 그만큼 어렵고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많은 시일을 기다리다가 힘들게 되었으며, 지금은 30대에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시대라고 봅니다. 音楽에도 젊은 지휘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들 지휘자가 연주자보다 반드시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기업분야에서 도 50, 60대라야 하던 社長職이 30, 40대로 내려오고 있읍니다. 이것도 권위직이 아니고 하나의 職業人으로 바뀌고 있읍니다. 그러나 많은 경험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큰

요소로 되기 때문에 60代, 70代까지도 계속 창작생활을 하려고 하는 建築家의 意志와 社会的 與件도 아울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스피이디한 시대입니다. 建築家 養成을 위해서는 그것대로의 專門教育이 필요합니다. 構造工学을 겸한 建築工学이 아니라 建築教育에 가장 우선하는 분야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建築과 構造工学專門은 엄연히 구분되어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造形이나 構造 어느 한쪽에만 치중된 건축가가 아니고 또한 설비나 시공을 소홀히 하는 건축가가 아니고 李教授의 말대로 全人教育과 全体的 建築教育을 위해서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構造技術은 長足의 発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建築設計 方面에는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교육제도의 폐단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Less is more" 이것은 Mies의 유명한 말이지만 建築教育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정작 필요한 것은 제대로 가르치치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建築教育方法도 建築創作方法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우수한 建築家를 양성 하려면 체계있고 종합적인 教育方法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르게 建築教育을 받지 못한 사람이 사회에서 참여하게 될때 야기되는 建築公害 또한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建築 이외의 사회인이 建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公害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建築教育의 目標定立과 科学的인 建築教育 方法의 設定은 몇개의 우수한 建築作品을 만들려는 노력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서울産業大学教授

建築創造와 文化의 媒介問題

康 炳 基

本稿는 韓国建築家協会 78年度建築討論会 意見論文임

1. 오늘날 韓国의 建築創造에 관하여 論함에 있어 正統的 接近보다는 逆說的 接近이 試図되어야 할것 같다.

우선 空間의 創造者는 누구인가 하는点부터 생각해보자. 建築家를 建築空間의 創造者라고 確言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을까? 建築家는 나름대로의 空間에 대한 이미지 또는 精神世界를 갖고 있으며 그 心像을 可視的인 소위 空間으로서 実体化할 수 있는 技術과 理論과 知識을 갖고 있는 者라고 하자. 여떠한 注文者에게는 나름대로의 空間에 관한 이미지가 있기는 하나 매우 漠然한 狀態의 心像이다. 또한 그에게는 自己의 心像이 確然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実体化시킬 만큼한 技術과 知識을 갖지 못하고 있다.

建築家는 注文者의 心像을 家体化하는 中間媒体로서 登場하게 된 것이다.

注文者의 心像이 実体化되는 過程을 建築家라는 中間媒体를 経由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必然的으로 建築家에 의한 어떤 偏向作用을 받기 마련이다. 建築家가 생각하는 또는 心像으로서의 空間의 作法에 따라 空間이라는 実体의 모습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이 点으로 해서 建築空間의 創造者는 空間 存在의 動機를 마련한 注文者가 아니고 自他의 心像을 特有의 作法에 의해서 加工해 낸 建築家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実体化된 空間은 다음 段階로 注文者나 利用者의 손으로 넘겨진다. 넘겨진 이후의 空間에 관해서 建築家의 作用은 空間을 構成하는 여러 要素와 全体로서의 空間에 담겨진 建築家의 意図로써 밖에는 作用力을 行使할 수 없게 된다. 建築家가 心血을 기울여서 建築空間의 Highlight로서 마련해 놓은 소위 멋있는 空間의 바로 隻点에 그야말로 野한 오브제나 그림이 걸어진다 하여도 그것을 말릴 수 있는 領域밖에 建築家는 물러나 있는 것이며, 建築家의 創作過程에서는 静寂感이 감도는 空間이었던 場所가 걷잡을 수 없이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쓰인다고 해도 建築家는 그것을 마다할 수 있는 固有의 権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 反対의 경우도 充分히 생각할 수 있다. 建築家가 意図하지 않았던 空間的 特性이 利用者에 의해서 発屈되어 빛을 보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建築을 空間으로 存在케한 建築家가 아니라 그 利用者가 建築의 死活을 決定짓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空間의 創造者란 누구인가에 대하여 쉽게 解答을 내리기 어렵다는 맨 처음에 提起되었던 고민이 허황된 것은 아니다.

2. 여기서 建築家가 즐겨 쓰는 空間이란 것이 어떠한 内容의 것인가를 再吟味해 볼 必要가 있다.

建築家는 은연중 自己의 空間感 즉 自己가 느끼는 空間의 意味를 普遍的인 것으로 錯覚하고 自己以外의 다른 사람들도 自己와 같은 意味를 느낄 것으로 前提하고 建築이라는 作業에 臨해 왔다. 例外的으로 空間의 審美的 側面에 関해서는 그것의 判断基準이 家個人의 主体的 領域에 属하는 소위 主観的 所以라고 해왔지만 余他의 空間 認識에 関해서는 매우 客観的 因果律이 支配하는 것을 前提해 왔다. Gestalt 心理学의 発展이 이러한 見解를 理論的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거기서는 認知의 메카니즘으로서 刺戟의 作用과 反作用이라는 力学的 場이 前提되어 있다. 人間이란 것이 肉体的인 하나의 物体이고 그 物体에 対해서 肉体以外의 소위 外界에서 여러가지 刺戟이 주어진다. 刺戟은 音일 수도 있고 빛일 수도 色彩일 수도 있다. 空間에 関해서 그 構成要素들의 物理量에 의해서 空間의 性質을 理解하려고 든다.

그러나 스위스의 心理学者 Jean Piaget는 「먼저 刺戟이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刺戟에 対한 感受性이 存在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刺戟体系로서의 認知의 메카니즘은 成立하지 아니한다. 刺戟을 認知케 만드는 것은 外界가 아니고 受容体로 생각되어온 人間의 感受性의 有無에 달려 있다고 봐야한다.

人間의 視覚構造와 자주 比喩되는 카메라와 人間의 視覚을 通한 外界認識을 생각해보자. 어떤 風景을 대하였을

때 카메라의 필름위에는 視野內의 모든 風景要素가 빠짐없이 記錄되어 있었지만 人間의 風景認識은 훨씬 rough 하여 自己의 関心을 끈 몇가지 要素以外에는 아무것도 記錄(憶)에 남아 있지 않다.

人間에 있어서 自己의 関心을 끌지 않는 것 즉 無意味한 外界의 存在物은 物理的으로 볼때엔 存在하드라도 自己로서는 存在하지 않는 것과 다름바 없다. 存在하니까 知覚된다는 것이 아니고 自己로서는 知覚되니까 存在한다고 認識되는 것이다.

日本의 美学者인 中井正一(나까이 쇼이찌)는 「美術的空間」에서 実存的空間에 관하여 우선 마음(意識)이 있고, 마음이 外界를 捕捉하는 様態에서 부터 空間의 観念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테면 物理的인 距離가 先験的으로 事実로서 存在하기 때문에 사람이 距離感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흔히 우리는 이런 식으로 믿고 있다) 먼저 距離感이라는 것이 人間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 確認을 위해서 그 느낌을 物理的인 尺度로 재어보자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物理的 空間이란 것은 따지고 보면 마음(意識)속에있는 空間의 그림자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우의 偉大한 近代科学의 世界가 펼쳐 보여 준 것처럼 物理的空間이 実像이고 網膜위에 認知된 空間의 映像이 虚像이 아니라 마음(意識)속의 空間像이 実存이고 그 그림자를 우리는 網膜을 介在시켜 物理的空間위에 보고 있다는 것이다.

3. 이야코프 폰 애크스퀴르라는 生物学者가 意味와 対像의 関係에 대하여 言及하면서 다음과 같은 例를 들고 있다.

길을 가다가 개가 짖어 댔다고 하자. 개의 襲撃을 避하기 위하여 길바닥에 굴러 있던 돌맹이를 집어 던져서 개를 쫓아냈다고 하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집어 던진 돌맹이 위에 妙한 現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맹이와 개를 향하여 던져진 돌맹이는 分明 똑 같은 돌맹이임을 그 누구도 疑心치 않는다. 돌맹이의 物理的 性質이나 化学的 性質엔 아무런 変化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分明한 것은 나와 돌맹이와의 関係가 달라졌다는 点이다. 즉 나에 있어서 돌맹이가 갖는 意味가 変化했다는 事件이 生起한 것이다.

처음 길바닥에 굴러 있던 돌맹이는 에크스퀴르의 말을 빌리자면 「길의 tone」즉 「길」또는 「歩行」이라는 意味속에서 나와의 関係가 있었거나 아니면 無関心속에서 아예 나와 아무런 関係가 없는 存在였다. 그런데 그것을 집어 던지므로해서 돌맹이는 갑자기 「武器」로 変化한 것이다. 나와 돌맹이와는 「武器」라는 意味를 通해서 強烈한 関係가 맺어진 것이다. 따라서 事件의 当事者인 나의 意識세계에서는 길바닥에 굴렀던 돌맹이와 武器로 쓰여진 돌맹이와는 아주 다른 意味의 存在가 되어 버렸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一連의 外観的過程을 第三者인 다른 사람이 보고 있었다고 생각 해보라. 이 第三者에게는 지금 눈 앞에서 일어난 모든 現象은 観察의 対象일 뿐, 스스로가 当事者가 아니기 때문에 이 現象의 内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라곤 돌맹이가 若干의 物理的運動을 한 것 以外에는 돌맹이 위에는 아무런 変化도 일어난 것이 없고 나와 돌맹이의 関係를 굳이 説明한다면 길바닥에서 나의 손으로 그리하여 또다시 개가 짖어대던 곳 가까운 길바닥으로 그 位置関係의 変動過程 혹은 物理的인 関係로서 説明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第三者인 観察者에게는 나와 돌맹이 사이에 생긴 重大한 変化는 決코 보일 수가 없다.

近代科学이 構築한 認識의 科学的方法에 따른다면 이러한 実存의 事実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疎外시켜 버리고 観察할 수 있는 現象으로만 説明하려고 해왔다.

다음에 利用이란 観点에서 対象物의 意味를 생각해 보자. 흔히 볼수 있는 경우이지만 물을 마시는 유리컵이나 맥주잔에 꽃을 꽂아 놓는다. 이 유리컵이라는 対象物(object)이 당초 만들어 졌을때 지녔던 意味하고 꽃그릇으로 쓰일때의 意味는 全혀 다르다. 客体로서 同一物이 그 利用에 따라서 全然 別個의 物体처럼 変化된다는 것은 客体의 物理的 또는 観察可能한 어떤 性質에 縁由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라는 利用者와의 関係에 있어서 그 役割이나 価値가 다른 것으로 変하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 아무런 쓸모 없고 하잘것 없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쓸모 있고 소중한 것으로 물건의 意味가 逆転해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経験한다. 極端的으로 말하면 어떤 사물이 우리에게는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全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李朝사발의 아름다움이 日本人 柳宗悦에게는 뚜렷이 보였던 것이고 우리에게는 情답게 보이기만 하는 草家지붕이 文化(共同의 意味体係)를 달리하는 사람들에겐 돼지우리 같이 보인다 해도 介意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4. 위의 客体와 主体인 나와의 関係를 우리나라는 複数主体인 社会로 置換하여도 論理의 展開는 마찬가지다. 同一 客体인 어떤 事物에 대하여 어떤 社会가 느끼는 意味를 다른 社会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말은 거꾸로 어떤 社会는 独特한 感受性과 価値観을 가짐을 뜻한다.

文化란 것을 現代 社会科学 特히 人類学에서는 人間의 生活方法중 学習을 通해서 그가 属하는 社会에서 習得한 모든 것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러한 意味의 文化의 概念을 発見한 일이 20世紀 人類学의 最大功積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미 1871年 人類学의 어버이라고 일컬어지는 Edward B. Tylor가 「原始文化」속에서 「文化 또는 文明이

란 知識 信仰 芸術 道德 法律 慣習 기타 人間이 社会의 成員으로서 獲得한 모든 能力이나 習性의 複合的 全体이다」라고 現代的 文化 概念과 同一한 定義를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社会의 成員으로서 獲得한 것」이라 함은 人間이 自己가 태어나서 属하는 社会에서 부터 後天的으로 習得하고 社会를 通해서 伝承되는 「社会的遺伝」이라고 할 수 있는 生活의 方式을 指称한다.

広義의 文化의 概念은 技術의 体系와 価値의 体系로 나누어지며 이 技術的 側面을 文明, 価値的 側面을 文化라고 狭義로 定義하여 쓰여지고 있다. 文明은 生物的 遺伝과는 無関하게 生物的 器官이나 能力의 肉体外的인 延長拡大인 技術的体系이며 文化는 生物体의 本能 以外의 作用力으로서 人間의 行動을 規定하는 第2의 天性인 価値的 体系이다.

어떤 個人은 自己의 意思와는 関係없이 特定한 文化속에 태어나 그 文化의 推進者가 되는 同時에 그 文化에 의해서 思考와 行動을 規定받는다. 個人은 그 누구도 自己가 태어난 既存의 文化에서 自由로울 수가 없다. 그런 뜻에서 文化가 天才나 英雄이라는 優秀한 어떤 個人에 의해서 그 뜻대로 創造되거나 方向이 転換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文化는 超個人的이다. 그러나 反面, 文化가 아무리 超個人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生物的 人間속에서 生成된 것이고 人間과 結合하므로서 비로소 存続하는 것이라는 点에서, 文化的 制約의 限界속에서 어떤 優秀한 素質을 지닌 個人이 歷史의 特定한 때와 곳에서 文化의 運動에 決定的 役割을 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完全히 排除할 수는 없다.

어떤 社会가 特有의 感受性이나 価値観을 갖는다 하는 것은 어떤 事象에 부여하는 意味가 다른 社会의 그것과 判異하게 다른 것일수 있다는 뜻으로서 이런 뜻에서 어떤 社会란 하나의 共同幻想体인 것이다. 더 正確하게 말한다면 社会란 그것을 構成하는 各個人마다의 多様한 幻想(意味)体系가 서로 겹치고 얽혀 있는 幻想構造를 갖고 있으며, 그 幻想들 중 一部가 共通되어 있는 그러한 構造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共同幻想体라고 모든 個体의 幻想이 合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共同幻想의 存在로 해서 그 社会의 構成員은 意味伝達의 channel을 갖게 되는 것이다.

5. 建築家라고 이러한 文化의 場이라는 보이지 않는 틀의 밖에 超然할 수는 없다. 文化가 構築해 놓은 言語(vocabulary)라는 共同幻想 体系 아니고는 豊富한 幻想을 惹起시키기가 어렵다. 説話나 文章世界의 vocabulary와 視覚이나 形態에 基盤을 두는 空間世界의 vocabulary의 어느 쪽이 더 많은 共同幻想의 channel을 갖고 있는지 나로서는 断言 못하겠다.

発生的으로 생각한다면 空間의 発生이 説話나 文章의 発生보다 앞서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現代라는 社会가 너무나도 많은 意思소통을 말과 글로서 行하고 있기 때문에 形態言語가 구석에 팽개쳐져 있는 感이 있다.

아무튼 建築家가 駆使할 수 있는 意味伝達 또는 創造의 手段은 空間이라는 形態言語 以外에는 없다. 그리고 形態言語 역시 말이나 글 마찬가지로 한 文化가 構築해 놓은 意味体係를 떠나서는 意味의 伝達이나 誘発이 힘들다. 意味의 伝達이나 誘発없이 感興이나 感激은 있을 수가 없다.

여기서 必然的으로 建築創造에 関한 다음의 疑問이 提起될 차례이다.

즉, 그 하나는 建築創作이 위와 같은 共同幻想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면 成功的인 建築이 駆使할 수 있는 vocabulary는 限定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 帰結로서 建築의 創作이란 自由로와야 할 作業의 바탕을 좁히는 結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疑問이다. 거꾸로 말한다면 이미 同同幻想의 体系로 되어 있는 様式이라든가 伝統으로의 復古나 아니면 大衆迎合的 作法이면 되느냐 하는 疑問이다.

여기서 想起되어야 할 事実은 우리나라의 文学家들이 우리말이라는 制約때문에 創作을 못한다고 탓하지 않고 있다는 事実이다. 이 比喩가 適切할지 모르겠으나 vocabulary의 限定과 創作의 制約과는 그렇게 큰 直接的関聯을 갖고 있지 않다. 文化가 갖고 있는 vocabulary를 自己化하지 못함으로서 일어나는 制約은 自己의 탓이지 文化쪽이 뒤집어 쓸 理由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合理的이라는 近代 西欧의 思考方式이란 眼境을 끼고 自己 것을 보아 왔던 것 같다. 어떤 文化를 形成하고 있는 価値的 共同幻想은 다른 文化의 価値体系를 가지고는 들여다 볼 수 없다는 事実을 想起하는데서부터 우리의 建築作業이 再検討되어야 한다.

6. 또 다시 처음에 提起하였던 問題로 돌아가보자. 建築의 創造者란 누구냐 하는 問題말이다.

지금까지 分明해진 것은 내 視野속에 어떤 事物이 客室로서 놓여 있다고 해서 그 事物이 나에게 主体的으로 実存하는 것은 아니라는 事実이다. 놓여진 客体가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意味를 가졌을 때 비로소 나에 있어서 実存한다. 客体를 空間으로 바꿔보자.

틀림 없는 일은 建築家가 空間의 物理的 存在 바꿔 말해서 客体로서의 空間을 이 세상에 存在시키는 過程에 한몫 끼고 있다 하는 点이나 그 建築空間이 主体的으로 実存하기 위해서는 物理的 存在過程 以上의 그 무엇 즉 우리의 意識 또는 우리의 意味世界와 通할 수 있는 交信의 手段 아니면 交信을 誘発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 그 무엇은 客体가 発散하는 무엇이라기보다 主体의 意味 世界의 投影이어야 한다. 建築家에게 스스로가 属

하는 文化에 대한 깊은 認識이 要請되는 理由가 여기 있다. 文化의 母体인 人間集団(때로 그것은 民族이기도 하고 市民이기도 하고 民衆이기도 하다)에 대한 깊은 洞察없이 그들에게 受容容易한 交信周波를 마련할 수도 없을 것이며, 그들이 어떤 苦悶을 안고 그 解決이나 脫出口가 幻想으로 나타나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事実도 알아차릴 수가 없다.

建築의 創造란 建築家와 Client가 共同幻想을 꾸며 내는 作業이다. 共同部分이 많을수록 建築家의 손을 떠난 다음에도 空間은 生命을 오래 가질 수 있다.

公同의 建築物인 경우에는 이 共同幻想을 꾸미는 일은 文化라는 共同幻想에의 自己没入 또는 対話 또는 止揚에서 나와야 한다.

自己没入된 空間은 感動보다는 安心感을, 安静感을 주고 道具로 말한다면 손에 탁 달라 붙어오는 그런 空間일 것이요, 止揚的作法에 의한 空間은 鋭利한 不安感마저 감도는 緊張된 関係가 主体와 客体空間사이에 惹起되는 그러한 空間일 수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主体의 意識속에서 単純한 콘크리트의 덩어리로 転落되어 버릴 危険性을 크게 지닌 空間이다. 対話的作法에 의한 空間은 両者의 中間쯤에서 생각 해보면 理解可能할 것이다.

이러한 共同幻想을 꾸민다는 過程을 通해서 建築家는 文化에 関与하는 것이며 社会에 関与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는 個人이 Client이고 final user인 소위 私的 建築家의 設計는 不特定 多数를 対象으로 하는 公共建築物이나 都市에 比하여 越等히 共同幻想의 構築은 容易하다고 보아진다.

建築空間이 主体的 意味空間으로서 実存할때 비로소 創造的일 수 있다고 본다면 建築의 創造者는 建築家가 아니고 client나 user이다고 하는 逆説여 成立되어질 수 있다. 이말이 좀 語弊가 있다면 建築의 創造的 空間의 発見者는 client나 User라고 바꿔 말해도 좋다. 結果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나에게 発見되지 않는 空間은 그 物理的 存在의 如不를 不問하고 나에게 있어 主体的으로는 存在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建築家는 無数한 나라는 主体와 物理的 Void에 지나지 않는 物理的 空間사이에 位置하고 共同幻想의 꾸밈을 通하여 両者間에 意味를 発生시키는 그러한 媒体로서 役割하고 이 媒介의 過程을 通하여 文化의 運動에 加擔할 契機를 갖는다.

建築家가 스스로를 空間創造의 絶対者라고 믿어왔던 時代는 過去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時代가 그렇다.

나는 反機能主義를 盲目的으로 부르짖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本然의 機能主義的 接近을 좀더 徹底시켜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이지만, 그러면서도 機能主義的 接近에서 「나」나 「너」가 아니고 無人称의 無機的인 「人間」이라는 것이 余地의 機械的機能과 同列에서 論義되는 우리의 現実은 反省의 時期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建築에 있어서는 Humanism이나 人間回復이 単純한 人間優先이라는 人間機械의 優先이나 復権이 아니고 「나」 또는 「너」라는 固有名詞로서의 人間回復이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떤 性急한 結論을 낼 必要는 없다. 다만 空間의 実存을 意味論의 側面에서 再照明하는 일이 모든 建築家의 創作過程에서 試図될 必要가 切実할 뿐이다.

新刊
아파트平面 678選
編著者 中央大学校 芸術大学
建築工学科 教授
姜 明 求
産業図書出版公社
266-0509 값 6,000원

基調論文을 참작한 意見

尹 道 根

本稿는 韓国建築家協会 78年度建築討論会 意見論文임

1. 오늘과 같은 建築의 量的発展에 対한 鼓舞的인 建築家의 立場과 未来를 向한 示唆, 그리고 技術의 能力과 知識과 経験의 蓄積도 상당한 水準에 이르러 大型化 建築趨勢의 量的 供給에도 可能한 反面, 不安한 疑問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量的発展은 質的으로 또한 建築主나 建築家의 資質과 制度上의 問題를 생각하게 되며 建築家의 教育問題로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것 같다. 이 모두가 急速한 成長으로 因한 能力의 限界를 体験하는 契機가 되고 建築家의 教育的 現実을 파악하고 생각하는 機会인것 같다.

이 時点에서 윤승중氏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縮小된 疑問속에 그 모든 問題들을 包含하고 있는것으로 理解된다.

建築家는 投資者나 企劃者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社会의 要求를 解決해야 하고 特히 利用者들의 慾求를 充足시켜야 할 任務가 주어진다. 다시말하면 人間의 참다운 環境과 우리時代의 文化와 社会像을 創造해야할 責任을 갖는다.

흔히 말하기를 建築家는 建築主에게, 建築主는 建築家에게 어떤 責任을 전리한대로 転嫁하는 경우가 많다. 建築의 創意的 活動에 対한 몰理解와 建築家에 対한 無理한 要求, 建築主의 水準과 能力, 制度上의 問題등, 社会風潮와 政治的 問題까지 어떤 連繫性을 갖게 된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依頼된 테마에 対한 建築家의 建築的 責任을 다 하고 있는가? 라는 疑問을 갖게된다. 어떤 対象物을 建築家에게 依頼되었을 때, 建築的 解決을 建築的 空間世界는 우리의 독자적인 것이며, 누구도 侵犯할 수 없을때 建築의 責任이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한 状況에서 現代建築의 方向마저 저해하는 理由가 되기도 한다.

投資者나 企劃者는 建築家의 建築的 思考를 받아들이는 積極的인 의심를 가져야 하며, 建築家는 快適한, 能率的인, 오늘의 生活을 為해서는 效率的인 建築解決이 되어야 할 것이다. 健全한 要求에서 創造的 建築思想을 内包한 施工上, 使用上, 維持上, 経済的 空間의 構築을 이룩하여야 하며, 디자인의 祖覚的 安全性 建築과 質과 品位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両者사이에 調和된 協力과 建築에 関係되는 制度上의 뒷받침(教育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文化水準 経済的水準의 一致에서 새로운 建築的 様式을 期待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建築家 教育은 制度上에서나 그 内容面에서 前近代的인 制度를 脱皮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事実이다.

学問的 趨勢와 社会与件 変化에도 建築教育의 뚜렷한 方向設定이 缺如되고 教科内容의 改革없이 各大学別로 多様한 教科 課程이 編成 運営되고 있다. 다만 最近에 이르러 実験大学을 通한 建築教育改革의 問題가 활발히 論議되었을 뿐이다. 그 主된 内的 充実을 試図하였고 大学 또는 系列別 募集에 依한 学生選抜을 通하여 学生의 専功選択의 融通性을 부여하며, 副専攻制를 積極的으로 活用하여 卒業生의 就業機会의 拡大와 学問의 視野를 넓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 建築教育의 問題点을 大略 다섯가지로 축소하여 説明할 수 있다.

첫째 教育課程의 편성과 運営의 閉鎖性을 들수 있다. 建築은 学問的 性格으로 専攻領域이 複合的이고 広範囲할뿐 아니라 極히 多様化되어 있고 社会進出에서 特性化 되어 있어 画一的인 教育内容을 가지기 보다는 最小限의 共通部分만을 専攻必須로 하고 専攻選択의 여유 를 많이 둠으로써 特定한 関心分野에 集中的인 教育을 할 수 있게한다. 이에 따라 教育의 質的向上과 社会에서 専門知識人으로서, 建築家로서 資質을 갖출 수 있는 特性있는 教育이 要求된다.

둘째, 學問 相互間 및 教科相互間의 連繫가 부족하다. 建築은 綜合学問으로서, 또한 여러 分野의 領域에 속한 応用学問으로서 学問의 知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学問間의 개방과 交流는 特히 절실한 問題이다. 先修科目制度의 活用을 效率的으로 하고 断片的인 지식을 얻기보다는 綜合的인 思考能力을 培養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建築으로서는 重要視되어야 한다.

세째, 教育内容의 時代的 合当性과 社会的 適合性이 缺如되고 있다. 社会的 与件과 変化에 調和할 수 있도록 教育内容의 改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不拘하고 오랫동안

정체된 狀態에 머물러 왔다.

네째, 学校間에 多様한 教科課程을 運営하고 있으며 学科内에서도 教科内容의 重複이나 教科目間의 不均衡과 配定上에 乱脈狀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統一된 흐름속에서 自律的인 特性을 살릴 수 있는 融通性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다섯째, 教養科目과 専攻科目의 配定上에서 不均衡과 履修形態의 問題가 있다. 교양과목의 集中 配定과 履修는 必然的으로 専攻科目의 集中履修를 강요하게 됨으로써 교양과정을 단계적으로 편성하기가 어려우며 效果的인 教育의 장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한된 짧은 期間内에 過多한 전공학점을 取得하여야 할 경우 教育의 内的充実化를 期하기 어렵고 質的 探化보다도 量的인 面에 置重될 우려가 있다. 特히 프랑스의 경우 6年을 履修해야 되는데 専攻科目을 짧은 期間에 集中的으로 이수하는 것은考慮될 問題이다.

最近 欧美 建築系大学은 大部分 建築大学으로 독립 되는 趨勢에 있으며 教育은 教科目의 性質과 目的에 따라 教養, 一般数学, 視覚基礎훈련, 歴史와 理論, 設計, 製図, 建築技術, 都市計画등으로 要約되며 校外実習을 通한 현역 建築家의 教育参与를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純粋教養科目의 比率이 우리나라와는 比重이 적은 反面, 社会系科目이 重視되고 있고, 建築의 重要한 기초과목인 모형, 色彩, 基礎디자인 등 建築家의 資質向上을 為한 教育이 強化되고 있다. 따라서 建築歴史와 理論分野가 多少큰 比重을 차지하고, 設計·製図는 大部分의 大学에서 가장 重点的으로 다루고 있다. 建築技術分野는 特定한 科目에 置重없이 비교적 균등한 分布를 보이고, 都市計画 分野는 理論과 設計, 住宅地域計画 科目이 重要하게 다루어진다. 특히 앞서말한 校外実習 및 職業分野는 現場 및 設計事務所 実習에 対한 教育이 중요해서 그야말로 産学協同体制에 依한 效率的 専門教育을 実施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과연 全国 建築科의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設計事務所의 運営과 学点取得의 管理가 可能한가하는 疑問을 갖는다.

언젠가는 外国의 그러한 発展的 建築家 教育의 制度와 마찬가지로 施行될 것이 期待되는 点이다. 그리고 大学教育過程 以後의 수련을 為한 大学教育機能의 領域을 拡張하고 教授들의 実務経験을 為해서 제한된, 大学研究機関을 通한 어떤 프로젝트의 용역으로 建築人으로서 社会에 奉仕하는 機会가 주어져야 하는가? 라는 疑問을 갖게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建築界에는 問題가 있다.

프랑스가 그렇고 英国이 그렇듯이 오늘이야 말로 広義로 오픈되어야 할 建築의 共同運命에 있는 것이다.

以上 過去의 建築教育은 建築家가 必要로 하는 技術을 習得하는 것만으로 可能하였으며 오늘의 科学, 情報와 技術社会에서 建築創造에 必要한 専門知識은 建築家만의 知識의 限界를 넘어서고 있다.

建築家들 間의 팀워크로서 設計方法의 必要性은 더욱 増大되고 그에 対한 여러가지 対話를 通한 学問的 背景과 経験을 通한 建築家로서 오늘의 社会에 指導的 役割이 되어야 할 것이다.

〈37頁에서 継続〉

끝으로 韓國의 建築家의 像을 마음에 그려보고 싶다. 建築家는 어떤 자세로 일에 임하여야 겠고 建築家가 一般市民에게 어떤 印象을 주어왔는가 하는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地上에 세워지는 建築物들의 建築家의 資質과 말을 表現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建築物은 萬人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워지고 오래도록 地上에 남게된다.

훌륭한 建築物이 우리나라에 많이 세워질때 建築家의 地位는 向上되고 建築家의 像이 뚜렷해질 것이다.

建築物이 모든사람의 評價의 대상이 됨과 同時에 建築家도 또한 萬人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線 하나 하나를 조심스럽게 긋는 科學者이며 藝術家로 자처하고 싶고 文化를 表現하는 役割을 담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 職業의 重要性을 다시한번 実感하게 된다.

변모하는 우리社会에 있어서 建築家의 課題

朱 鍾 元

建築家는 英語로 architect라고 하며 그 語源을 풀이하면 技術者의 우두머리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果然 建築家가 技術者의 長으로 일하고 있으며 社會的으로 그만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는가 생각할 必要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数年間에 急速度로 成長하여 여러가지 面에서 変化가 많았다. 그中에서도 建設業分野의 業務는 상상할 수 없을 程度로 增加하였다. 即 國內에서는 國土가 改造되고 고속도로가 建設되어 全國이 1日生活圈化하고 있으며 적격한 立地를 選定하여 工業団地로 開發하고 있다.

그리고 工業化에 따라서 都市化가 促進되어 大都市의 肥大현상은 人間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科學文明이 發達함에 따라 人間은 機械의 노예로 화하고 있다고 한탄하였지만 오늘날 人間은 自己가 建設하고 있는 都市의 노예로 化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即 都市가 巨大해짐에 따라 교통의 혼잡을 초래하고 駐車場 공해 등 여러가지 문제가 人間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한 도시에서 發生하고 있다.

더우기 建築技術이 發達하고 경영의 合理化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肥大해지고 있는 大都市에서 高層化와 高密化가 되고 있어 人間的인 尺度를 벗어난 非人間的인 住居団地가 造成되고 있다.

이것은 土地의 효율적인 利用과 경제적인 理由를 經營[illegible]게 의하여 高層의 숲을 이루고 있는 아파트群은 많은 問題[illegible]을 內包하고 있으니 이것들이 建築家의 손에 이루어지고 [illegible]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책감을 갖게된다.

한편 農村聚落構造 改善事業인 새마을事業을 추진하므로서 西欧의 農村처럼 훌륭한 農村聚落을 建設하려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聚落이 改造되고 있다. 그런데 이 엄청난 事業에서 建築家가 어느정도 參與하여 우리의 傳統文化를 繼承해 나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約 100餘萬戶의 住宅이 不足한 実情이고 1991年까지 住宅補給率을 90%로 올리기 위하여는 現在의 住宅在庫인 約 5,000,000餘萬戶를 더 建設하여야 하기로 되어있다. 그와같은 [illegible]한 量의 住宅을 建設하는데 있어서는 새로운 技術과 工法의 開發이 要請된다.

即 組立式工法의 開發로 低廉하고 質이 좋은 住宅을 大量으로 建設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近來에 海外建設붐으로 인하여 많은 建設人力이 海外에 進出하고 있는데 그中 과연 몇 %가 設計用役에 종사하는가 그리고 大型化하고 高度의 技術을 要하는 設計用役에서 우리는 뒤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된다.

油類波動이 있은後 世界各國에서는 太陽熱을 利用할수 있는 住宅과 建物을 設計하려 努力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硏究를 거듭하고 있는데 建築物이 아름다우면서도 太陽熱을 最大限으로 利用할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하는 것이 建築家의 任務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5000年의 찬란한 文化를 자랑하며 많은 文化財를 保存하고 있는것을 긍지로 삼고 있으며, 民家도 硏究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참으로 民家의 硏究에 뜻을 두고 끈질기게 硏究하는 建築家는 그리 많지가 않다.

近來에 와서 많은 建築物이 高層化되는데 따라 構造, 工法등을 전자계산기로 解決하고 努力하고 있고 建物의 設計도 電子計算器에 의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建築家들도 힘을 기우려야할 分野라고 생각된다.

都市內에 雨後竹荀처럼 많은 建物이 세워지고 있으나, 都市의 綜合計劃下에 都市設計의 技法에 順應하고 있지 않은 것도 가끔 볼 수 있고 바로 이웃하는 建物과 調和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首都인 서울이 걷잡을 수 없이 肥大하게 되는데 따르는 대책으로서 신도시가 계획될 수도 있겠다. 이와같은 도시가 건설될 때에 건축가들의 業務가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어떤 形態의 建物을 設計하여야 할 것인가?

前述한 바와 같이 建築家에게 주어지는 課業은 莫重하다. 이와같이 重要한 任務를 遂行할 建築家를 어떤 方法으로 輩出할 것인가 하는것이 큰 関心事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大部分의 建築學科가 工科大學에 属하고 있으며 建築技術者를 養成하고 있고 極히 적은 数의 建築科의 卒業生이 建築家를 指向한 設計業務에 從事하게 된다.

過去에는 徒弟制度에 의하여 오랜동안의 修練과 經驗을 쌓은 후 비로서 建築家로 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오날에는 學校에서 短期間에 教育을 받은 후 一定期間의 修練을 거쳐서 試驗에 合格되어야 建築家로서 일할수 있는 資格을 얻게 된다.

몇몇 大學에서는 建築技術者의 養成과정에서 建築家를 輩出하는 것 보다는 순전한 建築家를 養成할 目的으로 교과목을 마련한 科를 따로 設置한 경우도 있다.

많은 建築家들이 建築大學을 設立할 것을 主張하는 것은 建築이 綜合的인 學問으로 韓國의 建築文化를 發展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첫단계의 試図로서 建

本稿는 韓国建築家協会 78年度建築討論会 意見論文임

築工學科를 建築學科와 工學科로 分離한 大學도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것 같다. 果敢하게 建築大學 設立의 段階로서 建築學部를 設置 運營해보는 것이 좋겠다.

医科大學에서처럼 建築科에서도 修練과정을 대학부설 研究所에서 거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나 制約條件이 풀려야 겠고 建築設計事務所를 運營하는 建築家와 유대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오늘날 生活의 餘裕가 생기는데 따라 傳統問題가 거론되고 古典美를 追求하려는 움직임이 活發해지고 있다. 그와같은 움직임을 올바른 方向으로 유도할 수 있는 建築家의 役割이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어떻게 우리의 建築文化를 계승할 것인가? 高度의 科學化時代에서 System build ng으로 追求와 建築의 藝術性과의 関係를 어떻게 풀이하며 展開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것은 우리들 몸에 배어있는 우리나름대로의 建築哲學에 바탕을 두고 複雜한 問題를 單純하게 풀어나가는 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過去에는 大家의 經驗과 靈感에 의하여 問題를 풀어 나가는 Black box system에 의존하였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分析하므로서 보친다 당성 있는 解答을 求할 수 있는 glass box system을 適用하는 時代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建築은 綜合的인 科學인 만큼 그 関聯分野가 대단히 많다. 特히 都市計劃, 都市設計 및 造景分野는 建築과 密接하게 関聯되어 있어서 都市에 建築物이 세워지는 경우 都市計劃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Walter gropius가 主張한 바와 같이 우리의 建設의 目標를 人間関係의 確立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高度文明社會에서 잃어버려지기 쉬운 人間関係를 기술적, 경제적인 면에서 追求되어야 겠고 그 任務가 建築家에게 주어졌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高度로 發達한 科學文明에 힘입어 建物을 大型化하고 人間의 存在가 등한시된 狀態의 環境을 創造하고 있어 結果的으로는 人間의 心理를 억압하고 있어 社會的인 問題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우리의 祖上은 모름지기 自然과 調和를 이루는 建築空間을 創造하여 世界的으로 評價를 받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文明의 이기를 利用하여 工業化라는 美名아래 自然을 훼손하는 것이 建築家의 손에 의하여 行하여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自然에 順應하여 建物을 自然과 調和시킬수 있는 技術을 터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気候條件을 理解하고 分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建築家의 社會的地位에 對하여 論할 때 우리는 医師나 弁護士같은 地位에 있다고 자처하지만 実質的인 面에서 보면 그와 같은 立場에 있지 못하는것 같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것 中의 하나의 要因으로는 社會的이나 歷史的인 背景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도 있겠으나 医師들 처럼 専門領域別로 分化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倫理의 觀念이 貧弱한데에도 原因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建築家의 權益을 위하여 結成된 団体의 存在가 너무도 微弱하다고 생각된다. 3個의 団体가 힘을 합하여 뚜렷한 目標下에 強力하게 일을 推進하여야 할 時期라고 생각된다.

特히 建設業이 海外에서 높이 評價를 받고있는 계기가 마련된것 같다. 即 國際建築家団体에 參與하는 일, 國際현상설계에 應募하는 일, 國内의 建築活動을 外國에 소개하는 雜誌를 發刊하는 일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이 있다.

國際社會에서 活躍할 수 있는 設計分野의 組織이 綜合엔지니아링의 形態로 나타나고 있으나 國際社會의 競争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組織으로 強化할 것은 勿論, 韓國인 実体(identity)를 나타낼 수 있도록 되어야겠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相對國의 여러가지 條件을 理解하고 分析할 수 있어야 하겠으나 우리나라의 事実도 깊이 研究하여야 할 것이다. 即 文化財保護를 위하여는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몇몇 뜻있는 建築家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民家는 極小数의 建築家가 研究하고 있을 뿐이어서 좀더 많은 建築家가 研究에 參與할 수 있도록 되어야 겠다. 그리고 鄕校나 聚落構造의 研究도 遂行되어야 할 建築家의 課題로 되어있다.

農村聚落構造改善事業의 一環으로 内務部와 建設部가 協力하여 標準住宅図面에 의하여 많은 農村住宅이 建設되고 있다. 이들 設計図에서는 한국의 傳統的인 固有美를 살리기 위하여 合角지붕이나 모임지붕으로 그려져 있어 建築家들은 周辺地勢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農民들은 전부한 것을 그들에게 強要하는것 같아서 새롭고 참신한 形態의 住宅을 要求하고 있다. 그렇다면 農民이 要求하는 形態와 建築家가 設計하는 図面과는 차이가 있어서 이상한 形態의 집들이 建築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要求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그들을 理解하며 그들이 바라는 方向에서 建築的으로 合當한 形態를 찾아야 하리라 생각된다.

우리는 오랜동안 침체되었던 農村을 생각하며 그때 당시보다 좋은 住宅을 設計하려 하나 그들은 악신하고 있고 비약하여 都市民 住宅을 農村에 세우려 하는 意志가 보이는 것이다.

그와같은 要求條件은 비단 農村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理解하고 建築的으로 表現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그와같은 要求條件은 비단 農村에서 뿐만 아니라 都市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일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理解하고 建築的으로 表現하여야 할 것이다.

35 p 로 継続

建築体系를 通해서 본 形態構成과 表現方法

尹 道 根

〈序論〉

過去의 建築体系를 通해서 어떤 形態의 構成과 表現된 方法内容을 살펴보고 分析한다는것은 建築디자인의 学問的 研究에 必要한 過程이다. 또한 高度의 造形芸術 로서의 特質과 広範囲한 技術을 要하는 性質을 갖는 現代建築의 디자인的 側面을 理解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본다

現代建築은 오래 成長한 나무의 한 가지이며 뿌리에서 직접 성장한 가장 새로운 줄기인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줄기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오게 되었나 하는 過程을 알기 為해서는 처음의 가지를 더듬어 보고 살펴보는 것은 極히 当然한 일이다.

本研究는 이러한 뜻에서 人間이 完成한 最初의 建築디자인의 本質的 発展이 시작된 그리이스 建築에서 부터, 外部의 表現的인 다이나믹스, 権力의 表現으로 装飾된 로마 建築, 中世의 橋梁으로 로마의 遺跡위에 선 보울트와 리브의 発生인 로마네스크 建築, 그리고 매우 뛰어나게 洗錬된 形態構成과 限界에 이를만큼 고르게 부합되는 統一性의 発達과 神에 対한 희생과 精神等의 標本인 고딕 建築에 이르기까지의 완만한 한 振幅期間을 対象으로 삼았으며, 그 性格内容과 分析方法에 따라 各章마다의 結論을 얻었다.

1. 그리이스의 建築

① 様式의 起原 : 一般的으로 様式의 原理는 木造建築(도리아式의 어느 程度까지 木造建物의 反映도 包含)의 解決策으로 되어 있다.

木造建築이 점차 石造建築으로 発展하는 동안에 様式的으로 構成되었다. 即 円柱의 比率은 使用된 木材나 石材등 材料에 따라서 디자인 되었다.

트리글리프(trigriph, 도리아 建築의 세로홈으로 된 세 줄기 무늬)는 혼란스럽지 않게 保護하기 為한 들보의 끝에 나열된 들보의 머리와도 같다.

트리글리프 아래에 붙여진 도리는 트리글리프 자리에 固定시켜 줄 나무쐐기로 連結되어 있다.

나무지붕에는 나무서까래로 받쳐진 테라코타(슬레이트기와)타일로 되어 있으며 천장에는 나무 들보가 使用되었다. 도리아式의 처마装飾은 들보의 方式으로 固定시킨 가는 角材의 接合端들이다.

② 建築의 原理 : 그리이스의 建築物은 유일한 建築原理에 基礎를 두고 있다.

③ 柱廊(portico) : 그리이스의 建築家들에 依해 5世紀 前后까지는 있을수도, 바꾸어질 수도 없는, 또한 問題삼을 수도 없는 確固한 原理였다.

1) 古代 그리이스의 規格様式

오오더는 建築術의 다음 3要素로된 特殊한 配合이다.

- 階段式 基壇(stylobatte)
- 円柱(column)
- 엔태블러처(Entablature)

2) 3가지 形式

類型은 各各 固有한 特性들을 갖고 있다.

- 도리아式 오오더(Doric order)
- 이오니아式 오오더(Ionic order)
- 코린트式 오오더(Corinthian order)

① 도리아式은 5世紀가 全盛期였다. "도리아式의 늠름하고 엄청난 景観은 巨大한 神殿의 모든 標識이다."

② 도리아式의 変遷

- 5世紀 以前 : 엔태블러처의 높이는 円柱높이의 절반과 거의 같다. (建物높이의 1/3) 도리아式 오오더의 各部 칫수는 円柱의 지름(Module)을 基準으로 定하여졌다. 円柱의 높이는 지름의 4倍와 같다.
- 5世紀 以后 : 엔태블러처의 높이는 建物높이의 1/3 로 되었다. 円柱의 높이는 지름의 5倍이다.

〈円柱〉

基　　壇	柱　　身	柱　　頭	엔 태 블 러 처
柱礎：神殿의 바닥. 基部(base)없이 직접 柱礎위에서 있다. 一般的으로 3個의 段을 包含한다.	－神殿의 높이를 決定하고, 柱의 세로 홈으로 裝飾 된다. －완전히 圓筒形이 아니고 낮은곳에서 높은 쪽으로 기울어졌다. －약간 조개모양으로 된 "石木"	3部分 包含 －柱頸：柱頭와 柱身사이의 補強材. －에키누스(echinus)：보를 為한 넓은 支柱를 만든 에키누스는 彎曲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아바쿠스(abacus)：柱身과 에키누스 엔태블러처, 柱身사이의 중간 過程	3部分 包含 －円柱頭의 아키트레이브(architrave)보는 円柱들 사이를 넘는다. -프리즈(frieze)：아키트레이브위에 있다. 프리즈는 트리글리프 (3개의 가느다란 수직홈)와 메토프(metope)를 包含한다. －코오니스(Cornice)：비를 막아주는 첫번째와 마찬가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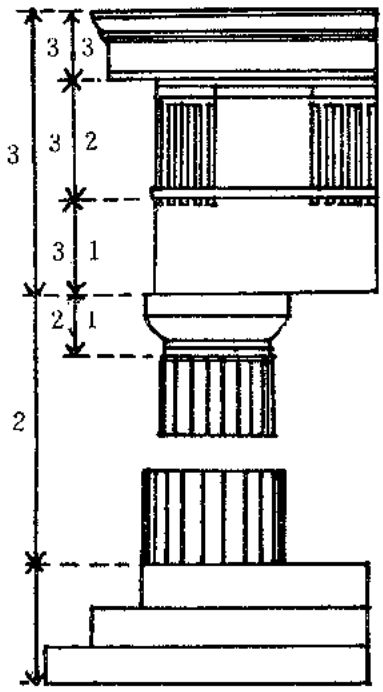
構造의 各部分은 特有하면서도 세가지 樣式의 共通的인 項目, 세가지 部類에 屬해 있다.

〈固有한 特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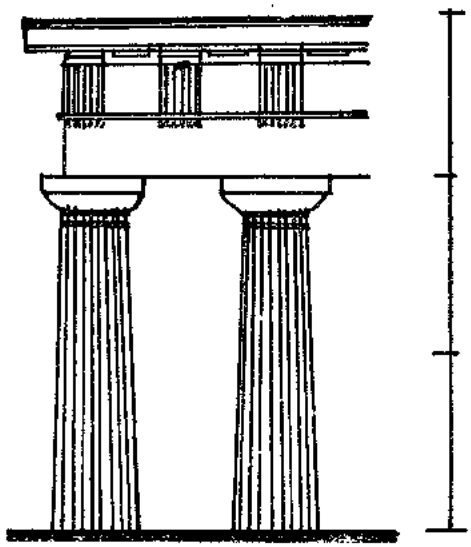
類　　型	基　　壇	円	柱	엔 태 블 러 처
		柱　　身	柱　　頭	
도리아式	上部段의 2重機能 －柱礎로 끝난다. －소용돌이 꼴의 까치발(Consol)에서 円柱까지를 지탱한다.			
이오니아式	－各円柱를 為한 개개의 基壇. －위에서부터 多樣하게 連結된 오목 볼록한 굵은 쇠시리(Moulure)위에 있는 基壇.	半円型의 세로홈, 좁은 接合板으로 하나와 다른 것들을 더 깊게 나누어 놓는다.	볼류트(Volute)는 안으로 굽은 線으로 結合한다.	코오니스는 톱니 모양의 줄 하나라든가 코오니스의 돌출 부분을 지탱하는 조그만 돌출 모서리를 갖고 있다.
코린트式	더욱 잘 다듬어 졌다.		볼류트가 드러나는 아칸더스(acanthus)잎의 오뇌를 뒤 엎어 놓은 듯한 종 모양.	

③ 이오니아式은 6世紀 建築의 創造物이다. 이오니아柱式을 다룬 아테네의 建築家들은 처음에는 柱式을 간단한 平面図에 依한 神殿에만 적합한 것으로 생각했다.(그러한 적은 스케일의 建物로 다룬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조그만 神殿들은 빅트와르 아프테르(Victoire Aptere) 神殿, 미네르바(Minerve) 神殿, 에레크테온(Erechtheion) 神殿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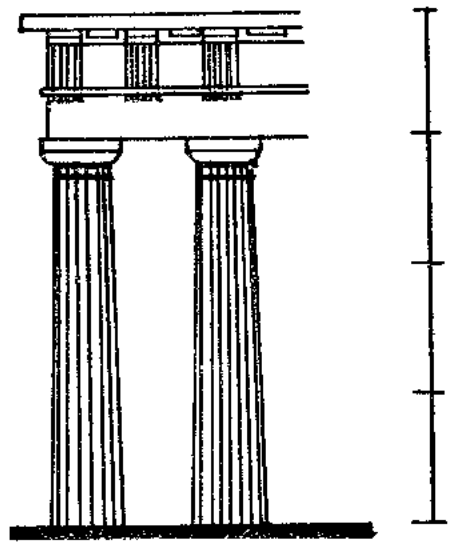
④ 이오니아式의 変化：円柱가 가늘어 지고 엔테블러처도 줄어 졌다. 도리아式 보다 훨씬 더 柔軟性 을 지속하였고, 가장 뚜렷한 特色 은 이오니아式 円柱이다. 그것은 形態뿐만 아니라 精神面에 있어서도 도리아式과는 다르다. 이오니 아式 円柱는 화려하게 裝飾된 그 自体의 基部위에 놓여 柱身은 한결 가늘고 끝 部分이 가늘어지는 것이나 엔타시스는 한결 덜하다.



〈그림 1〉 그리이스 오오더의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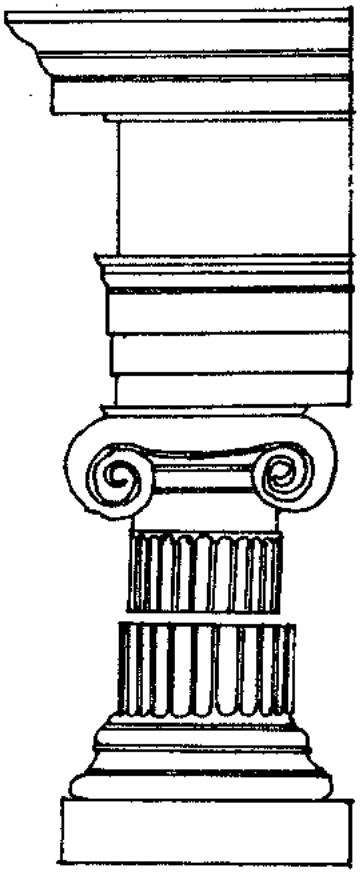


〈그림 2〉 5世紀의페스톰円柱의 比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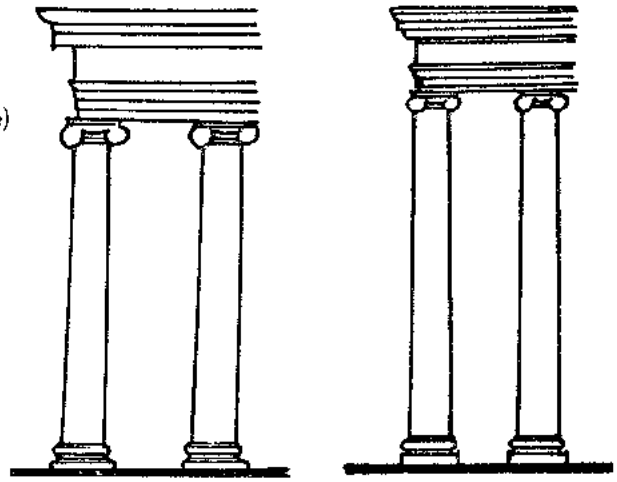


〈그림 3〉 6世紀의 파르테논 円柱의 比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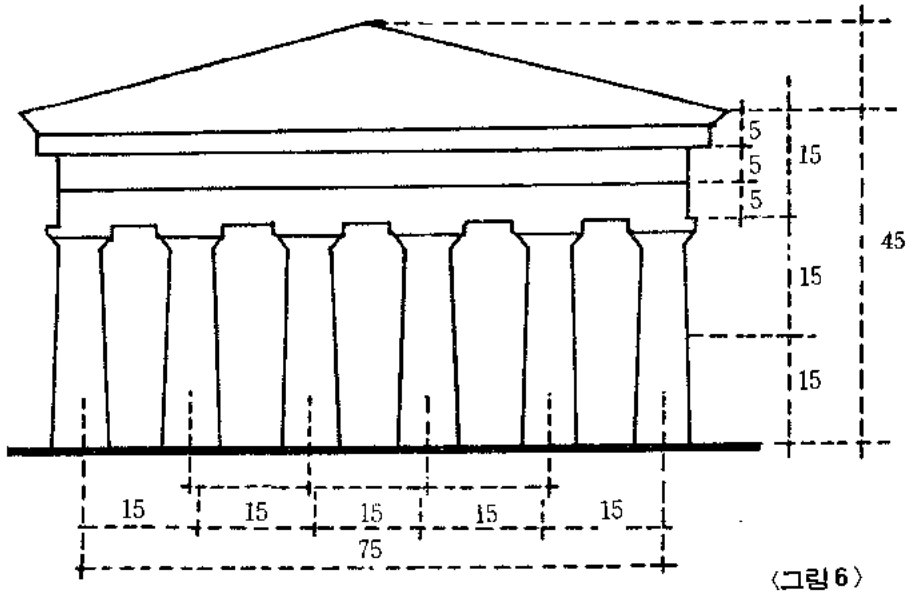
1: 基壇(Stylobatte)
2: 円柱(Coloumn) 2.1: 柱頭(Capital)
3: 엔태블러처(Entablature)
3.1: 아키트레이브(architrave) 3.2: 프리즈(frieze)
3.3: 코오니스(cornice)



〈그림 4〉 이오니아式 円柱



〈그림 5〉 이오니아式 円柱의 変化



〈그림 6〉

－페스툼의 포세이든 神殿

(Poseiden Temple, paestum, B. C. 460)

포세이든 神殿은 5世紀 以前에 도리아式을 利用한 最初의 프로포션이다.

"그리이스의 그리이스 建築物 중에서도 肉感的인 크기에 対한 感覚을 환기시키는 것은 古代의 그것이다. 그것은 무게에서 프로포션까지 이루고 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神殿

(Parthe- non, Athens, B. C. 447－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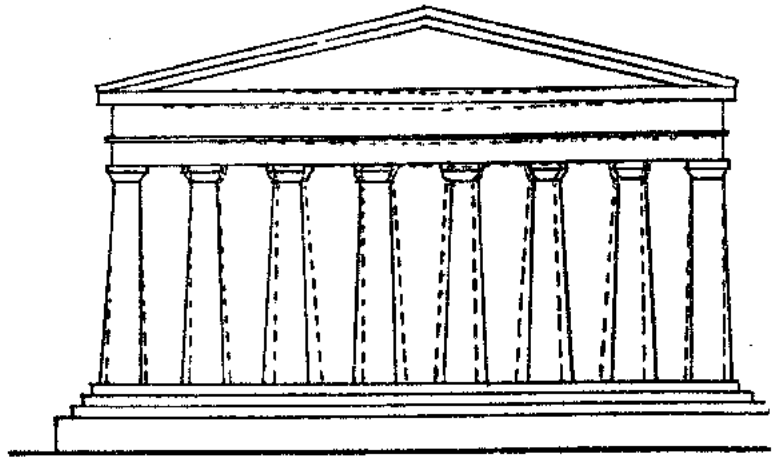
파르테논 神殿은 古典期 도리아式의 상징적인 建物로서 높이와 均衡에 있어서 大敵할 수 없는 걸작품이다 그 大規模에도 불구하고 육중한 느낌은 훨씬 적어 보인다. 오히려 그 두드러진 인상은 도리아式의 簡素한 構成안에서의 명랑하고 均衡잡힌 우아함이라는 느낌이다.

이것은 比例를 全体的으로 부드럽게 하고 再調整한 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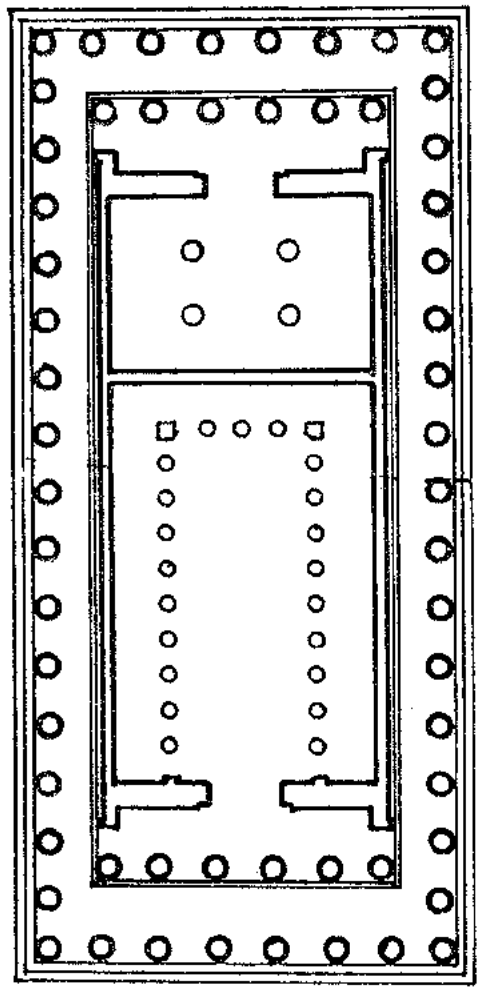
이 神殿은 著名한 그리이스 建築家 이크티누스(Ictinus)와 칼리크라테스(callicrates)의 作品이며, 여기의 彫刻은 피디아스(pheidas)의 作品들이다.

그리이스의 가장 아름다운 神殿으로서 아테네의 위엄있는 聖殿을 創造하려고 노력했다. 主로 聖殿은 神에 対한 栄光의 記念이었다. 建築物은 오히려 内部보다는 外部를 보기 為해서 構想되었다. 内部는 基本的인 것이다.

形式的인 統一, 均衡의 심미적인 역학은 外部에 依한 것이다.



〈그림 7〉 파르테논 神殿의 立面比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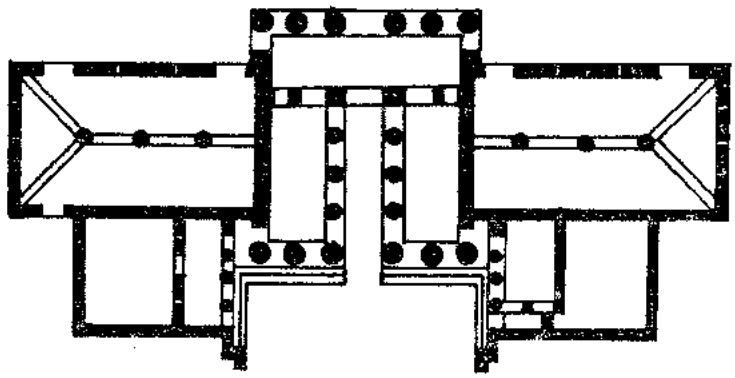


〈그림 7〉 파르테논 神殿의 立面比例와 平面

－프로필라이아(propylaea, B. C. 437～432)

파르테논 神殿이 완성된 직후 페리클레스는 또 하나의 화려하고 경비가 많이 드는 大建築, 프로필라이아라 불리는 記念碑的인 出入 城門으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西쪽끝에 建造했다.

建築家 므네스클레스(Mnesicles)設計로 中央回廊과 正門에 도리아式의 円柱 등 두가지 様式의 要素를 또 다른 과제를 応用하고 活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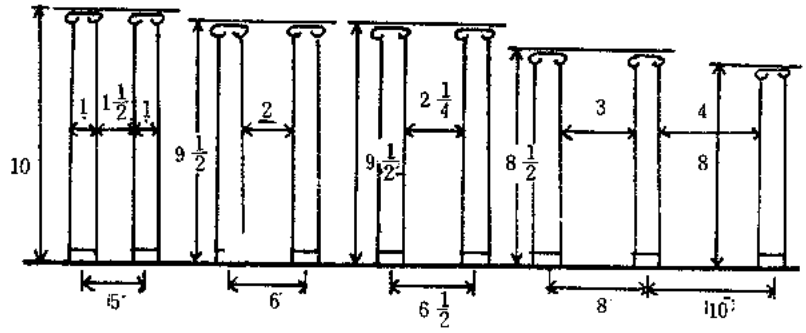
〈그림 8〉 프로필라이아의 平面

3) 모듈의 法則(Systeme Modulaire)

設計의 法則은 本質的으로 모듈라이다. "法則은 같은 建物안에서 共通의 칫수에 종속시킴으로서 統一된 크기를 모듈이라고 한다. 이 以外의 모든 大小는 勿論 가장 단순한 関係로 이루어 진다.

－모듈(Module)

아브르(Avres)에 依한 모듈은 반지름 가운데서 極端 반지름의 総 절반으로 그리이스 末期까지 이르렀다. 아테네에서 308年 16두아(doigts, 손가락)로 세분되고 마그나 그레키아(Grande Grece, 이탈리아 南部에 있었던 그리이스의 여러 植民都市)의 植民地에서 296年 12푸스(pouce, 엄지손가락, pied의 1/12, 約27㎜)로 세분된다



〈그림 9〉 비트류브에 의한 프로포션

-프로포션 (proportion)

① 비트류브(Vitruve)에 依한 樣式의 프로포션 비트류브는 円柱사이의 도리아 樣式과 코린트樣式의 共通点을 5種의 類型으로 区分한다.

가. Pycnostyle:

柱間을 円柱下部 반지름의 3倍로 하는 樣式, 높이가 지름의 10倍인 円柱는 지름과 1/2의 空間(void)에 依해 分離된다. (Castor와 Pollux神殿의 側面 円柱사이)

나. Systyle:

높이는 9 1/2지름, 空間(void)은 2 지름이다.

다. E style:

이 프로포션은 얼마나 순수한가에 따라 決定된다.

라. Diastyle:

이것은 上引枋(Iintel)을 누름으로써 지탱해 준다는 点에서 가장 增大한 프로포션이다. 높이는 8½지름 空間은 3지름.

마. Ae ostyle:

높이는 8지름, 空間(void)은 4지름이다.

② 비그놀(vignole)에 依한 円柱間 空間의 프로포션(上引枋없이

비그놀은 3가지 樣式에 対해 円柱가 各各 8,9,10,지름을 재거나 空間에 関해서 프로포션은 도리아式에서는 3곱이오니아式에서는 4곱, 코린트式은 4곱보다 적게 겹쳐야 한다고 한다.

③ 일토프(Hirtoff)에 依한 直角모양의 프로포션 도리아式의 엑사스타일(hexastyle), 페리스타일(peristyle), 柱廊은 5높이, 8幅을 가진다 옥토스타일(octostyle)은 5높이, 10幅을 가진다. 6個의 円柱로된 이오니아 樣式은 関係度가 5~7, 8個의 円柱가 5~10이고, 10個의 円柱는 (드물게) 5~1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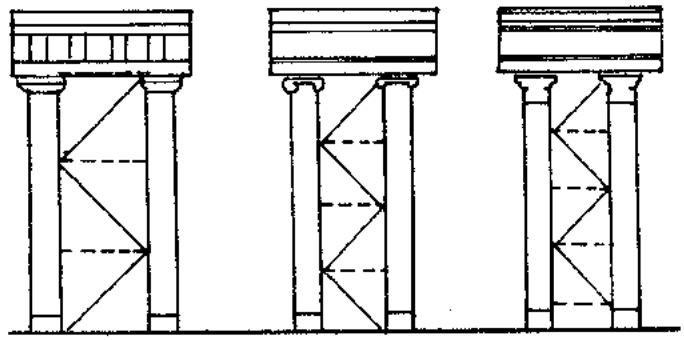
4) 三角形의 시스템

適切하게 말해서 規制를 하는 조직을 構成하는 이 三角形은 建築의 裝飾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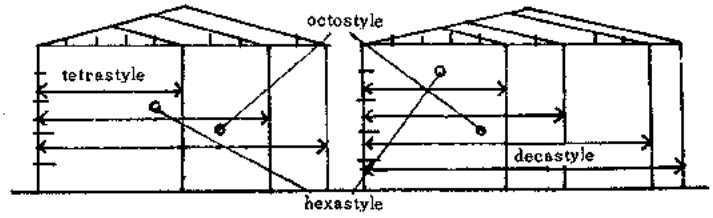
-이집트의 三角形과 派生形 -等邊三角形

그 例로써 바벵(Babin)에 依하면 〈그림14와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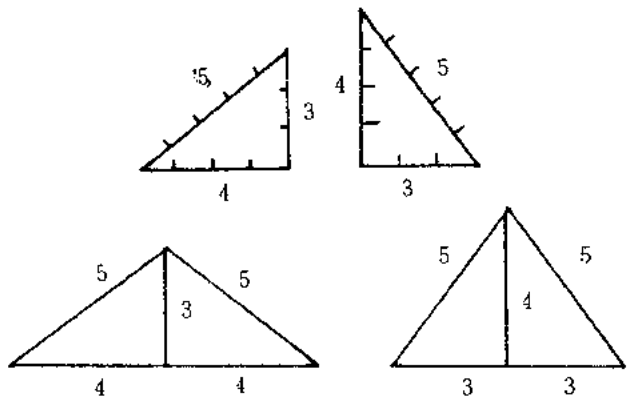
Thrasyllus의 記念碑(A)와 세리몬트(Selimonte)神殿(B)의 柱와 柱사이의 거리에서 생기는 角度이다. 그렇지 않으면 結局 三角形의 높이는 基礎를 平均해서 나눈 것이나 窮極의 근거에 依해서 나눈 것이나 窮極의 근거에 依해서 決定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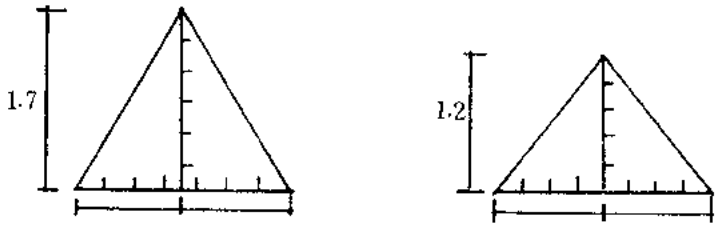
〈그림10〉 비그놀에 依한 프로포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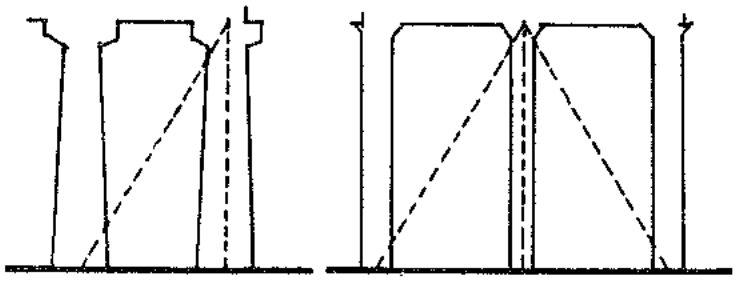
〈그림11〉 일토프에 의한 프로포션



〈그림12〉 이집트의 三角形과 派生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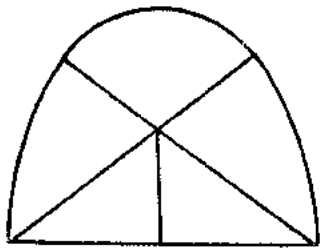


〈그림13〉 等邊三角形



〈그림14〉 바벵에 依한 等邊三角形

註 : 이집트人들 집으로 보울트(vault 의 設計는 三角形과 콤파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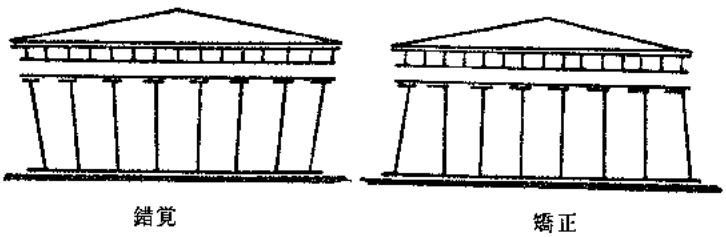
〈그림15〉 이집트의 보울트로된 三角形

5) 視覺的 矯正

① 円柱의 曲線 : 정확한 円柱는 한 가운데가 좁게 보였다. 이 좁아진 부분을 訂正하기 為해서 柱身의 田線(generatrice)이 外部쪽으로 구부러져 있다. 即, 円柱에는 반드시 엔타시스(entasis 배흘림)가 있다. 페스툼의 바질리카(Basilica, paestum B. C. 5世紀)를 例들을 수 있다.

② 円柱의 傾斜

비트류브(Vitruve)는 円柱의 軸을 建物 쪽으로 가벼운 傾斜를 두게 規定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벌어져 보인다. 그것은 堅固性으로서도 증명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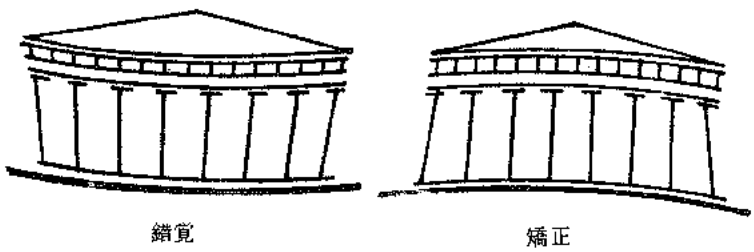


錯覚 矯正

〈그림16〉 円柱傾斜의 錯覚과 矯正

③ 水平線의 가벼운 휘어짐

屈曲의 모든 結果를 피하기 為해서 水平線의 가벼운 휘어짐을 하고 있다.



錯覚 矯正

〈그림17〉 水平의 錯覚과 矯正

그것은 이미 이집트에서 알려졌다. 曲線의 모든部分이 지극히 미약하다. penrose에 依한 無直높이의 볼록하게 된 最高部 寸数는 100피에드(pieds)에 対한 0.065M, 파르테논의 前面原理의 30M에 対해서, 또 側面70M에 対해 0.123M의 数字어림이 있다.

註 : 오목曲線과 눈에 띄는 볼록曲線을 対応시키도록 되어있는 원칙은 5世紀 中葉傾부터 適用되었다.

6) 結論

그리이스 建築의 3가지 原則은 様式의 構造를 規定한다.

모듈라 原則 - 三角形에 依한 幾何学的 方式 - 視覚的 矯正原則등, 이러한 規範은 外的 景観의 심미적 역학을 완성하는데 関係가 있다. 두가지 理由로 그 点을 説明할 수 있다.

그 첫째는 社会文明説에 연유한다. 建築은 神을 為해 構想되었다. 근본적으로 聖殿은 神의 栄光에 対한 記念物이며 建物은 内部보다는 外観을 보기 為해 構想되었다.

그리이스 宗教는 정신적인 종교라기 보다는 훌륭한 태도를 주고 받는것 처럼 個人은 慣習을 중시했고, 어떤 희생을 履行하고, 偶像을 바꿈으로서 보호를 받고 要求되는 은혜를 우상에게 一致 시켰다.

神殿의 建築表現도 현세적인 태도로 示唆 되었다. 더욱이 文化는 神殿의 外部를 찬양하고 있다.

두번째는 気候와 関係가 있다. 南部気候에서 사람들은 그늘과 신선한 空気를 갈망했고 柱廊은 建築의 基礎的 原理였다. 그리이스의 神殿은 円柱의 柱廊이 正面에 있는 것은 거의 不変的이다. 한낮의 타는듯한 날씨에 그늘을 찾는 市民들의 노력을 생각해서 피난처로 바꾸려는 欲求이기도 했다.

① 프로포션 속에서의 審美的다이나믹스D(Iynamics)

5世紀부터 그리이스人들은 스케일의 독립적 프로포션 조직위에 様式을 決定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리이스 人들은 方法의 매력에 굴복되었다. 即, 그들 自身의 肉感的인 합치를 인정하는 프로포션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스케일에 対한 意識(모듈라에서 르·꼬르뷰지에 에依해서 発展된 感覚)은 무시 되었거나 그리이스 建築에서는 알모없는 경관이 되었다. "스케일에 対하여 考慮되는 이 様式은 그리이스人들에게 以前부터 관찰되었거나, 그들은 의도를 잃어버렸다. 모든 수단이 모듈라에 따르게 되었고, 모듈尺度에 依해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었다.

② 規格意識과 프로포션 調整에 있어서의 形式的인 靈感

프로포션의 基準은 建築構成과 다이나믹스(Dynamics)의 功利主義로 맺어졌다. (数学 의식과 당시의 幾何学을 通해서)다이나믹스는 論理的인 정의가 따르는 프로포션의 方法을 通해 의미심장하게 再発見되었다.

모듈라의 原則, 幾何学的 方法, 視覚変形에 있어 직관적이기 조차한 의식은 建築構成을 완벽하게 검토하는 그리이스人들에게 可能케 되었다.

공리정신은 "幾何学的으로 만들려는 맹렬한 渴望"에서 잘 表現되어 있고, 数字上으로 검토 되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pythagoras) 整理는 数字学問으로써 事物을 검토하려는 의도에 공헌을 했으며, 추종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数字의 不可思議)

"分数에 있어 数字의 선택을 為해서 例를들면 가장 비슷하고 완전한 数字를 고르는 것이 論理的인 것이다." 그리이스人들은 기억을 끌어넣고 다음 様式에서 数字의 定義를 分類하는 "제곱(puissance)이란 이름의 피타고라스 整理를 유도했다. 平方의 数字앞에 "제곱" 홀수의 둘째, 짝수에 関해서 체계적인 거부 목적이다.

생각지도 않았던 힘을 数字에다 충당하게 되었다. "神의 마음에 드는 짝수"계속되는 짝수의 총화인 제곱수는 그 어느때보다도 神들을 "즐겁게"하는것 같았다.

③ 様式構造에 있어서 形態構成

様式構造에 있어 形態構成에 두가지 基本的인 양상이 뚜렷이 나타남을 알수가 있다.

하나는 規範論理의 活用(모듈과 論理, 三角形方式, 視覚的인 矯正)이 프로포션에 対한 研究를 指向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表現的인 다이나믹스가 構成된 形態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点이다.

表現的인 다이나믹스는 規範的인 論理의 特質과 인식에 의존한다. 그리고 論理의 精錬은 表現的인 다이나믹스의 검토를 하도록 해 준다.

다음과 같은 두가지 質問을 갖게된다. 規範的인 論理의 特質은 어떻게 関係하는가? 論理의 精錬은 왜?

모듈라 原則과 三角形 方法과 視覚的 矯正이 프로포션의 研究에 一致하고 概念이 관념적인 形態의 理解와 連結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以上 概念의 세계에서 완전한 追求는 그 당시 哲学的인 추세였다. 그 時代는 모든것"을 規定지었다. 規範은 精錬되고 変化되고, 完全한 프로포션을 向한 進歩하는 가운데 가치를 찾아 냈다.

様式構造의 変化를 성립하는 洞視的(diachromique)인 과정이나 目的의 모든 尺度는 극한쪽으로 変化될 수 없는 構造쪽으로 기울어 졌다.

실제로 다음과 같이 集約할 수 있다.

-構成의 尺度는 매우 明確하다.

-方法(技術과 材料)은 正確하다.

-뒤따르는 進歩는 대부분 描写(관념적인 프로포션 의 추구)되었다.

2. 로마의 建築

로마 建築은 그리이스의 構造와 直接的인 関係가 있다. 로마 建築은 概念과 形態의 構成이 같은 水準은 아니었다.

로마 建築은 어트루리아(Etruria) 人들의 공헌과 함께 그리이스 様式의 構造에 基礎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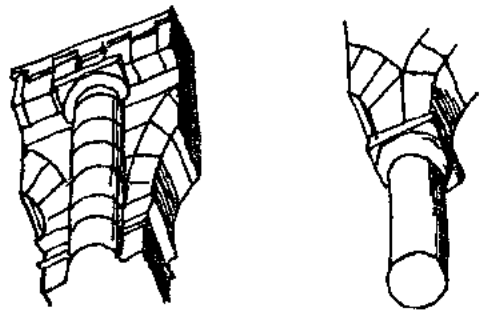
비트류브(vitrute)의 発展에 依하면 로마의 根本的인 様式은 이오니아式이었던 것 같다.

로마人들은 그의 文化巻을 形式하는데 그리이스와는 다른 方法을 썼으며 로마는 힘의 정치로 세계 제패의 이상을 具現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다. 精巧하고 세련된 高度의 芸術性은 찾아 볼수 없고 規模의 방대성과 호화로움을 자랑할 뿐이다. 무엇보다 콘크리이트의 사용은 로마 建築様式의 특징을 결정지은 유일한 要因이 된다.

1) 様式의 特性과 改革

두가지 特性과 로마 様式을 잘 定義해주는 한가지 改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아아케이드(arcade: 柱 円柱로 둘러싸인 回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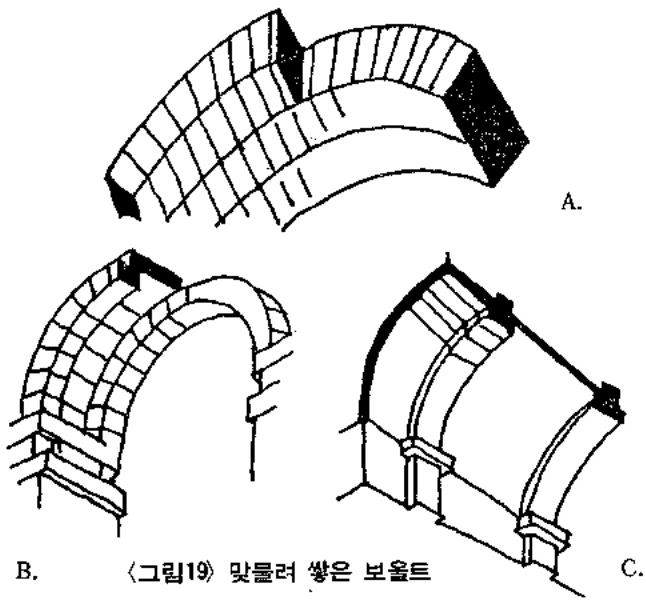


〈그림18〉 아아케이드의 아아치

아아케이드는 보통은 아아치로 차 있고 간혹 둥근 아아치로 되어 있다. 드물게는 円柱위에 놓이기도 한다.

"폼페이에 있는(〈그림18〉의 B) 아아케이드는 東로마제국時代 以前까지의 結合으로 알려져 있는 유일한 것이다.

② 맞물려 쌓은 보울트



〈그림19〉 맞물려 쌓은 보울트

(그림19)의A : 보울트는 "切斷되지 않고"半円型이 나란히 연결되어 이루어졌다.

(그림19)의B : 半円型에 사이를 두거나 鉄線緊張器(raidisseur)에 자갈반죽의 타일을 붙여 리브(nervure 잎맥)를 配列하는 유기적 조직.

(그림19)의C : 石土 지붕材料로 대체되는板(大理石 및 타일)아아치 대들보, 石壁틈을 채우는 자갈 회반죽의 토대로된 建物構成은 아아치型을 돕고 있다.

모서리의 보울트와 回廊의 아아치型 보울트는 半円型 천장의 回廊이 엇갈리는 構造的 原則이다.

③ 콘크리트 보울트(vault)와 둥근지붕(cupola) 束縛된 機能으로서의 内部空間을 規定짓는 必要性 特히 정당한 機能的인 様式은 必要可不缺한 사회지식을 가지고 로마人을 이끌었으며 着想하거나 内部形態를 構成함에 있어 改革을 일으켰다.

이 改革은 기디온(S. Giedon)이 제 2의 空間의 建築概念이라고 하는데에 一致한다.

"보울트는 建築術이 처음부터 存在했으나 로마제국下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사회가치로 놓였다. 그것은 内部空間과 宇宙世界사이의 象徵的 関係로 나타났다."

内部空間을 좀더 크게 해보려는 분별 있는 方法으로서 지붕을 얹는다는 必要性을 로마 建築術을 改革하는데에 자극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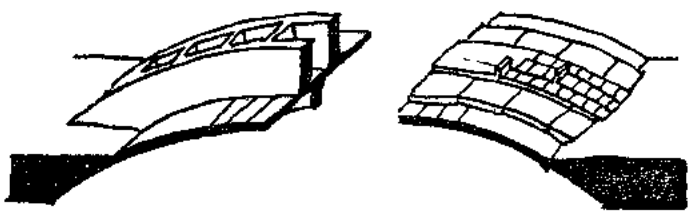
베스파시안(Vespasien)大帝때(A. D70)에 創始하여 도미티안王(A. D. 82)때 준공이 된"로마 콜로세움(colosseum)"의 平面은 円型 경기장으로 검투사들의 결투장과 동물들의 싸움터가 지정되었다. 広場에는 約 5,000名 의 사람이 앉는다. 外部正面(外部形態의 観点)은 3段階로된 回廊, 混合構造에 따랐다.

上部 : 코린트式 中部 : 이오니아式 下部 : 도리아式

4층은 後世에 증축한 것으로 코린트式의 柱를 세웠으며 정상의 돌출부에는 경기장에 채일을 덮기 위한 鉄柱를 세웠다.

内部(内部形態의 観点)는 3층과 대응된다. 半円型의 천장위에 있는 두개의 回廊은 계단의 액세스로 제공되고 있다.

技術的인 様式의 어려움은 하나의 돌로된 보울트를 지층수평으로 建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파괴의 위험은 로마人들이 콘크리트 보울트의 제안을 받아 들이게 끔 했다.



A 〈그림20〉 콘크리트 보울트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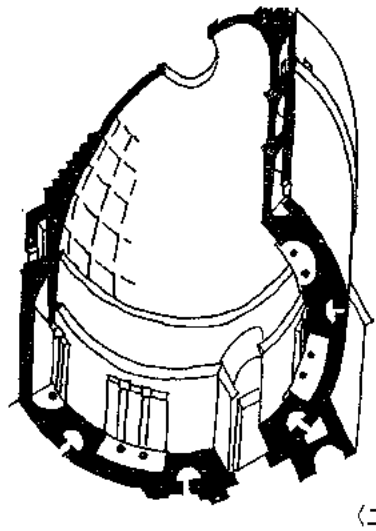
2) 콘크리트 보울트의 原理

"아아치型으로 建築하는 대신에 보울트의 동체를 이루어야하는 엄청난 凝固는 全体무게를 받을 수 있었고 보울트는 잘 견딜 수 있는 構造的骨格과 石壁틈을 채우는 자갈, 회반죽의 토대로 区分되었다.

骨格은 半円型 部分에서 부터 창살에까지 연속으로 構成되었고, 경제적인 문제와 가벼움의 理由로 서로 떨어져있다. 〈그림20〉의 B 는 떨어져있는 半円型의 部分을 가지고 아아치를 마치 휘어진 포장도로처럼 만들어 에워쌓는 편편한 벽돌로 연결되는것을 철골보 바꾸는 異形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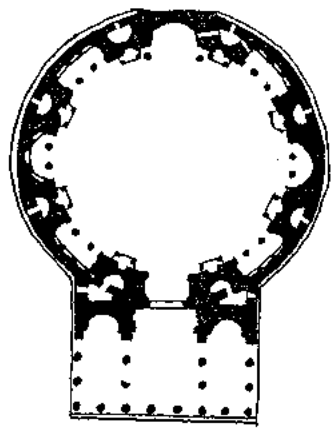
콘크리트 보울트가 一般化되던 時期는 바로 잘 구운 벽돌이 평범한 建築材料들 가운데 자리잡는 時期이다. 물질에 사로잡힌 때에 나타난 비약은 커다란 보울트의 建築을 보조적으로 철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凝固를 利用한 보울트建築物 技術의 우수성은 로마의 建築家들이 改革을 通한 内部空間을 정복하는데로 이끌었다. 둥근지붕(Cupola)도 역시 상징적인 의미로서 形態의 表現的인 다이나믹을 一致시키고 있다.



〈그림21〉 판데온의 礎石断面

거대한 規模의 半球를 지탱하고 있는 橋臺의 역할을 하는 판데온의 礎石断面



건축가 다마스커스의 Appollodore

〈그림22〉 판데온의平面

"世紀 初期 하드리아누스 판테온의 둥근지붕은 空間에 対한 제 2 槪念의 완벽한 승리를 뜻한다. 그 당시에 조직적인 空間의 개념은 텅빈 內部空間의 관념과 区分되지않았다."

로마建築은 정복자와 지배자의 表現方式처럼 보였다. 그것은 정치를 利用한 共公案內施設의 建築이었다.

3) 3가지 建造物의 例

① 共同浴場(The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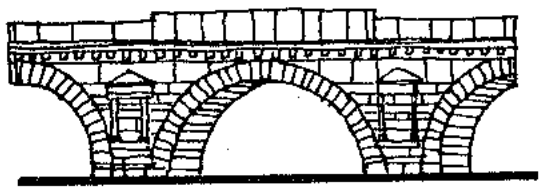
共同浴場의 建築物은 다마스커스의 Appolodore에 남아있다. 트라얀(Thajan)의 공동욕장은 모든 공동욕장의 모델이 되었다. 이것은 주변을 둘러싼 垈地內의 높은 基壇위에 세웠고 地下에는 보일러실과 建設을 위한 서어비스룸이 있다. 카라칼라浴場이나 디오클레티안浴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음 3部分으로 크게 区分된다.

-大中央建築物 -庭園部分 -外廓部分

"로마人들이 가장 重要하게 関心을 둔 方向은 네 基点(東西南北)을 쳐다보는 네角으로, 이러한 面은 正午의 太陽에 依해 결코 태울수도 없고 太陽光線의 영원한 方式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어떤 면과도 같다. 서로 다른 部分들의 배분은 대칭조직 가운데서 명확하고 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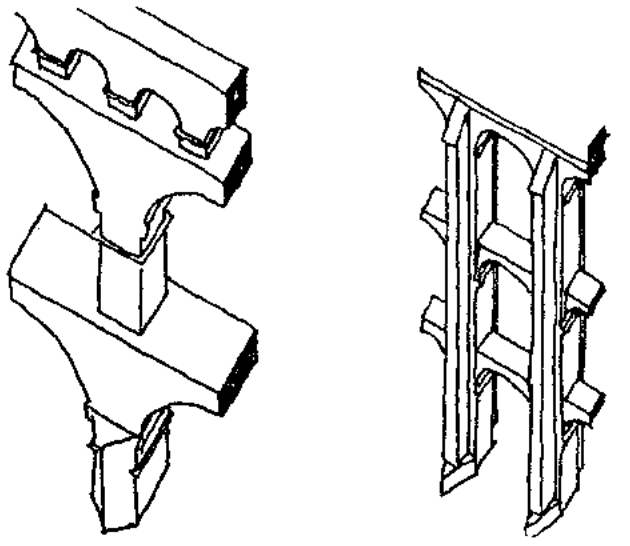
② 橋(pont)

아아치들은 굴곡部分으로 이루어진 것과 비슷한 曲線을 제시하고 각 교각은 교대를 만든다. 그것은 차례로 아아치를 만들도록 한다.



〈그림23〉 특징적인 스타일의例 Rimini 橋

③ 高架式 水路(aqueduc) 와 高架橋(Viaduc)



A Le pont du Gard B l'aqueduc d Seqovie

〈그림24〉 水路와 高架橋

아아케이드에 두세줄이 있는 벽단의橋(그림24의 경우)와 교각을 올라가면 가로장을 붙인 半円型의 도움으로 중간 높이에 연결한다. (그림24의B경우)

以上 세가지 基本的 양상은 로마建築의 独創性을 밝혀준다.

그것은 公共施設과 위력의 作用인 공리적인 建築物이다. 그 機能은 직접적으로 정치제도에서 유래되었다.

円形闘技場(Amphiteatre) 바질리카(Basilica)
高架橋(Viaduc) 共同浴場(therme)

등은 로마社会 政治制度에서 要求되는 施設의 必要性에 의해 나온 것들이다.

이 時期의 현실적 感覚에서 나온 機能主義의 建築物이다.

콘크리트 보울트의 技法을 通한 改革은 좀더 큰 內部空間을 活用하고 덮으려는 必要性은 로마人들에게 새로운 解決策을 생각해 내도록 자극되었다.

콘크리트 보울트의 技法의 우월성은 로마建築의 창의력있는 경관을 연출했다. 그것은 內部空間의 塑像術에 전념한 建築物이며 機能的인 必要性의 큰 돌으로 생긴 것이다.

4) 結論

建築物의 目的은 로마社会 文化構造에서 유래된다. 실제와 부합되는 塑像術(modelage)은 관념론적인 개념의 적용이며 정치를 통해 変해 간다. (그리이스人들 집의 실제 塑像術은 宗教를 통해 変해갔다)

外部의 表現的인 다이나믹스는 로마人들의 권력과 栄華를 느끼게하며 低浮彫의 像과 다른 装飾物은 희상하고 感覚을 불러 일으키도록 만들어졌다. 그것은 로마人의 思考하는 方法과 부합되는 실제 塑像術이었다.

이러한 表現的인 다이나믹은 건설적인 原理와 프로포션의 論理에 근거를 둔다. 根本的으로 느껴지는 다른 양상은 機能主義(유행의 感覚) 設計図는 로마建築物에 있어 內部機能의 반영이었다.

마치 프로그램의 要素中에 긴밀히 결합된 構成처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 機能은 프로그램의 要素에 基礎를 두고 論理的인 原則(여기에서는 均斉)으로 검토되어야한다. 均斉의 개념은 基本的인 것이다. 即 均斉의 개념에 要素들의 配列에 一連의 論理를 끌어 넣는다.

끝으로 內部空間을 創造하려는 실제적 塑像術은 로마의 建築家들을 자극해서 內部形態의 構成을 改革했다. 建造原則에 기인한 이러한 改革은 規範的인 論理를 통해 검토되고 塑像術은 관념론적인 개념과 결부된 다양한 감동에 부합된 상징 쪽으로 方向이 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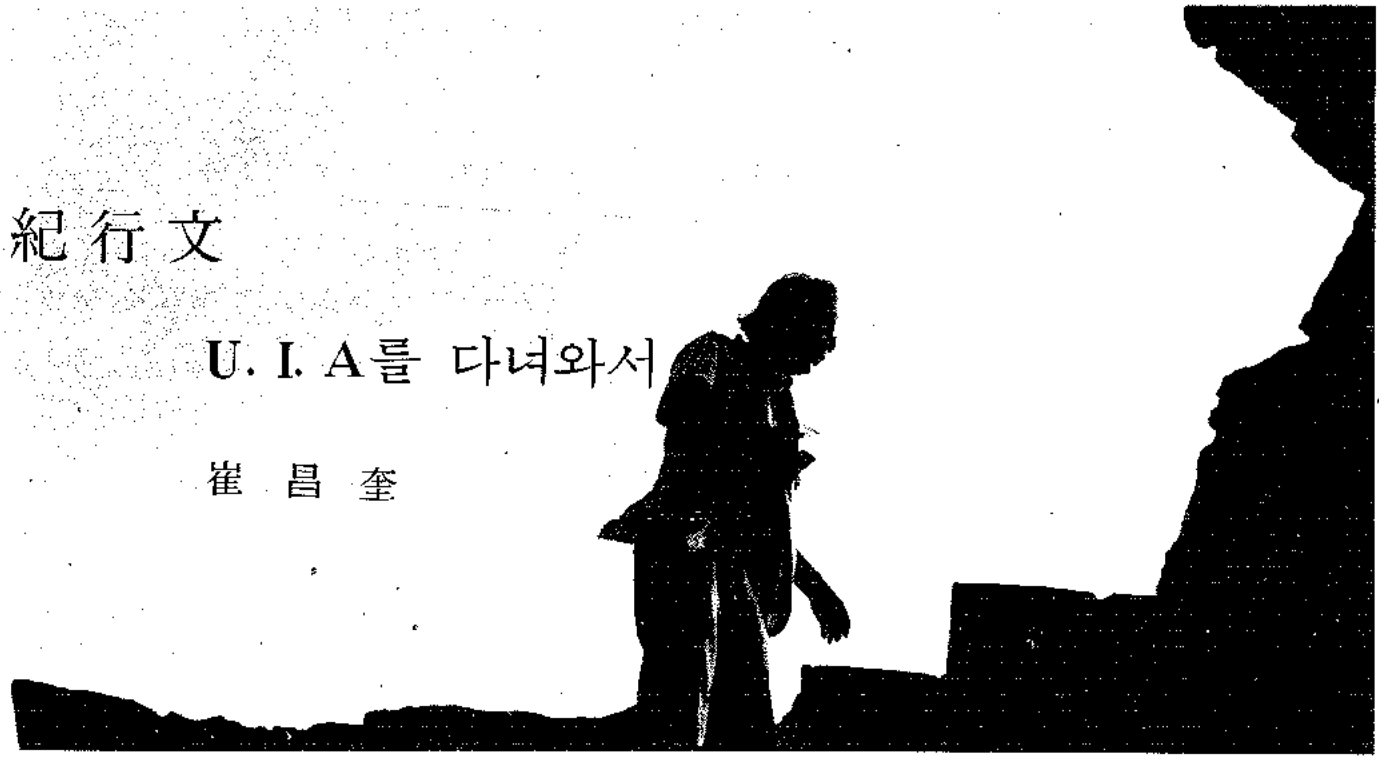
만일 古代様式의 構造와 로마建築사이의 論理的인 어떤 연속성을 알아낸다면 古代様式의 改革이 덜 이루어진 것을 로마様式에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로마의 芸術은 둘러싸고 있는 옛文化가운데서 재생시키거나 끌어내온 社会의 芸術이다.

(弘大工大建築学科 教授)

(다음호에 계속)

紀行文



U. I. A를 다녀와서

崔 昌 奎

이 紀行文을 쓰기에 앞서 U.I.A에 対한 簡略한 説明이 必要할것 같다.

또 世界建築界에서 가장 大規模이고 権威있는 会議란 어떤것인가? 왜 韓国建築家協会는 갖은 逆境에서도 이会議에 빠짐없이 参加하는가? 또 이機構나 会議가 우리建築界에 어떤 影響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建築学会나 建築士協会는 参加못하는가? 大体 U.I.A란 무엇인가? 라는 質問을 때로 会員들에게서 받은적도 있고해서 紀行文앞에 蛇足을 부칠까 한다. U.I.A (Union International Architectural) 即 国際建築家連盟이라 불리운다.

1800年代에서부터 일어난 世界的인 建築文化 運動은 近代建築史가 말해주듯이 各国에서 (特히 유럽地域)갖인 이름의 써클이나, 구룹形式으로부터 各様의 形態로 거듭하다가 루콜비제, 월타구로푸스, 미-스, 라이트等의 巨匠들이 創設한 C.I.A.M(国際建築会議)가 1900年代에 와서 互鮮되고 젊은 新世代들로 하여금 U.I.A는 創立했다. C.I.A.M이 解散할때의 르·코르비제의 各演説中 한句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리는 人類의 建築이란 나무를 発芽시키고 또 키워왔다. 우리는 마땅히 이열매를 다음 世代에 기꺼이 물려 줄때가 왔다." C.I.A.M의 後身으로 創設된 U.I.A는 第6次 総会에서 韓国建築家協이 加入承認을 얻을 때는 世界에서 78個国의 会員国이였으나 今般13回総会에서 92個国이란 地球上의 나라가 거의다 加入되어있다.

総会는 3年마다 열린다. 会般 Mexico総会는 13次이고 大会는 12次이고 理事会는 全体理事会와 구룹별 理事会가 있다. 韓国은 第4구룹 即, 아세아 아프리카구룹이 있는데 前年에 아프리카가 第5그룹이 되므로서 구룹会員国의 数가 変動이 일어났다. 北韓은 우리보다 3年前에 加入했고 4祖의 理事国이 된것도 우리보다 먼저이다. 各祖는 副会長 1名式이 있고 U.I.A는 会長1名과 副会長 5名이 된다. 4祖副会長은 호주가 今般 社議에서 말레이지아가 되었다.

4祖 理事国은 韓国, 中共, 北韓, 몽고인데 3対1의 比로 共産陣営이 우세이므로 隘路가 있을것으로 보이나, 会長이 美国이고 副会長이 말레이지아라는 点에서 若干의 安心은 된다.

会議는, 大会, 総会, 理事会의 三種으로 나누어진다. 이 3個会議가 한 나라에서 開催하는데, 各国은 開催申請해서 総会의 承認을 얻어야한다.

다음 1981年은 폴랜드의 와르샤와에서 1985年은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開催할것이 決定되였다.

日本도 数次 4祖의 副会長, 理事国을 지냈으나, 大会開催는 아직못했다. 이것은 該当国의 建築家協会가 主管하는데 財政上의 問題로 그나라의 政府가 財政, 人員, 場所, 節次等의 協助없이는 不可能한 形便이다. 日本의 境偶 日貨4億엔 必要하다는 計算이고 보면 우리는 政府가 8億의 財政과 準備進行의 人員 協助가 없이는 到底히 大会開催의 꿈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U.I.A은 U.N의 建築文化의 諮問機関으로 되어 있고 本会는 U.N에 人員을 派遣해서 그諮問에 応한다. 会員国의 代表人員이 다르다.

原来 U.I.A는 各国의 人口数의 10,000名에 1人의 建築家란 率을 摘用하므로 우리는 300名의 家協会員名単이 提出되여있다. 投票権도 会員 100名에 1票면 것을 憲章을 改正해서 国民所得率에 依해 投票数를 決定한다. 再作年까지 우린 3票였든면이 経済成長을 認定받아 이번 会議부터는 4票가 되였고 北韓은 如前히 3票인 것이다.

会員国의 特典은 国際懸賞設計에 応募資格은 会員国의 家協会員만이 가진다. 前年日本에서 巴里文化会館 国際懸賞에 士協, 学会賞이 出品하게 되여 U.I.A가 不応해서 日本家協의 認定書가 必要했을 程度이다.

모든 国際建築懸賞設計는 U.I.A 을 通해 U.I.A가 管掌한다.

우리나라에서 国際懸賞을 하고 싶으면 家協을 通해 U.I.A의 承認과 規定에 応해야만 한다.

大会는 議決하는것이 없고 各国의 建築에 関한 研究発表, 書籍, 映画, 其他建築에 関한 社会全般問題를 討論한다.

総会는 憲章政正이든지 任員選挙, 모든 議決事項을 다룬다. 理事会는 U.I.A의 運営, 事業等을 다루어 総会에 提出한다.

이번 大会의 테-마는 人間과 建築, 建築과 会社発展, 非常時의 人類救済, 地震対策等이였다. 大会에는 代表라든지 参加人員의 制限이없다. 即 情報 交換, 親善図謀및 祝祭이다.

総会는 各国別로 代表数만이 参席하고 座席이 固定되여 있고 名単이 明示되여있다.

理事는 各組의 理事만이 参席할수 있다. (交替理事 1名은 承認한다). 以上簡略하게 U.I.A의 略丁과 機構組織을 設明했다.

이 序文으로서 紀行文을 읽으면 内容의 理解가 쉬울것 같다. 家協이 政府의 補助도 없이 自費로 무리해서 꼭 参席하는 理由는 알것이고, 理事国이란 어떤 位置에 있으며 政治와는 関係없는 人類, 建築, 芸術에 関한 것만이 研究되고 交換되고 発表建議, 宣言되는 建築界의 世界에서 가장 大規模이고 権威있는 国際機構임을 알수 있겠다.

第13次 U.I.A総会가 Mexico city에서 関催한다는 連絡을 事務局(建築家協)이 接受한것이 77. 10월頃이였다. 理事会는 代表選出과 全会員으로부터 参加申請을 받은바 約20名의 会員이 申請해 왔기에 이것을 認准했다.

原来南美의 各国은 韓国에 対한 VISA発給이 어렵고 時間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기에 会議関催日(10月21日~11月2日)의 約8個月前부터 手続을 始作했다. 文公部, 外務部 그리고 治安本部等 20名의 団体身元照会等 많은 時間이 걸렸다. 美国, 캐나다, 페루, 칠레 브라질, 알젠틴, 그리고 Mexcico는 勿論이고 可能하면 코롬비아, 베네쥬엘라等을 視察하고 싶어서 VISA獲得에 많은 險路와 時間이 걸려서 겨우 各自의 出国予定의 2~3日前에 겨우 大略的으로 끝났으나 우리나라에 大使館이 없는나라는 Mexco에서 얻기로 했으나 브라질만은 아주 까다로와다. 計画대로 VISA를 다 얻지 못하고 모두들 허둥지둥 出国했다.

結局事情으로 2名이 기권하고 18名이 出国하게 되였다. 10月21日 午后9時30分 KAL便으로 마지막 4人中에 끼어 一路 L.A로 떠났다.

途中 하와이에 2時間이나 寄着했으나 밤3時나 되는 時間이라 空港에 사람들이없다.

美国쪽으로 가는 移民의 무리! 아 이많은 사람들이 왜 祖国을 등지고 移民길에 오를까? 고요한 異国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얼굴 表情에 슬픔같은 것이 보였다.

철없는 어린것은 멋도모르고 어버이들이 心情은 아랑곳없이 이리뛰고 저리 두리번 거리고 떠들어대고 있는것이 異常한 気分이였다.

하와이는 数次 들러서 地理나 낮익은 거리가 불빛에 보인다. DC10, 00 機는 불빛 찬란한 하와이群島를 뒤로하고 L.A로 出発했다.

機中의 男女승무원들은 밥잠도 자지 못하고 継続 的인 雑務를 보고 있다. 늘 생각했지만 般的으로는 飛行機승무원들이란 그制服과 外国을 다닌다는 表面的인 印象에서 華麗한 職業으로 보고 있지만 事実은 重労動者라고 생각했다. 하도 長時間의 飛行이라 疲労해서 音楽도 映画도 볼생각이 없어 그저 오지 않는 잠을 請하느라고 눈을 감고만 있었다. 서울을 떠난것이 21日 午後이지만 日字 変更線을 지났으니L.A에 到着해서도 21日이란다. 一行은 하도 疲労해서 호텔에서 푹쉬고 Olimpic Town(韓国人村)에 가서. 낙지볶음이니 빈대떡, 냉면等을 먹고 잤다. 22日 12時30分 Mexico Air Line을 타고 L.A을 出発해서 会議地인 Mexicocity로 出発했다. 23日 午前 5時에 到着했다. 空港에는 벌써 Mexico建築家協의 案内者들이 5, 6名이 나와서 名国代表들을 迎接하고 있었다. 13V. I. A U Congress라고 쓴 큰 포스터가 空港到処에 붙여있고 会議에 온 各国 代表들은 여기와서 案内를 받으라고 아나운스하고 있다. 우리도 거기에가서 韓国에서 왔다고 하니 先着한 우리 一行이 어느 호텔에 있다, 짐票를 달라, 不足은 없느냐 車가 準備되여 있다고 用意周到한 案内와 進行을 해준다. 한 学生을 따라 空港밖에 나오니 우리 一行의 짐이 나와 있고 車가 待機하고 있다. 모두 無料로 奉仕해주는 것이다. 호텔에 到着하니 先着한 우리一行 14名이 다 있고 房配置予約이 다 되여 있었다. 이것이 23日 첫 새벽 이야기이다.

会議場에 나아가 登録을 하고 会議에 関한 日程이며 油印物 Bag 名札等을 얻어서달고 10時 Opening, Seremony에 参加했다. Lobby에 北韓, 몽고, 中共, 代表도 만났다. 北韓親旧들에게 말을 걸었더니 대답도 하지 않고 달아났다. 몽고나 中共은 제법 親切히 人事를 나눈다.

美国, 호주, 필리핀, 英国等은 반갑게 人事를 한다. 12回 마드리드大会에서 만났던 몇사람이 아주 반가워 또만났구나 하며 마구 껴안는다.

日本의 進来, 山田氏等은 「야-왔구나, 또 만났구나 하며 반긴다」 美国親旧는 곧 Acapulco에서의 総会에 美国이 会長出馬를 했으니 너희들은 勿論이고 東洋의 親旧들에 잘 附托한다고 하면서 한 집안식구같은 行動을 한다.

香港代表 李景勲氏는 旧面이라 今般에 会員加入申請을 했으니 잘 보아 달라고 한다. 自己 事務室에 있는 申鉉尚氏의 人事를 伝해 주기도 한다.

나는 Lobby에서 Peru代表를 無限히 찾았었는데 안보인다.

이것은 75年度 마드리드에서 만났던 Per 女性 建築家 Socorro Eestrada의 安否가 알고 싶어서 였다.

그녀는 75年 스페인마드리드 会議때 만난 以後 곧 便紙往来가 있었고, 이번 会議가 끝나면 꼭 Peru의Lima로 오라고 했고, Inca文明遺跡을 自己가 案内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原来 이会議에 参加한것은 会議도 会議려니와 南美란 地域이 우리로서는 보기가 힘든 곳이고 또 世界 7大文化圈中의 두개인 Inca와Maya의 遺跡을 보아야겠고해서 갖은 無理를 해가며 参加한것이다.

또 하나의 작은 理由는 Socorro Estrada嬢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도 事実이다.

이때까지 Inca와 Maya文化를 이룩한 民族이 어느民族이냐라는 점에는 異論이 区区하다. 나는 여러 書籍을 調査해서 내 나름으로 몽고族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直接 가보고 確認하고 싶었던 것도 이번 旅行의 目的의 하나이다.

이 問題에 関해서는 後에 Yucadan半島紀行에서 쓰기로 한다. 23日午後 全員 우리 大使館을 礼訪했다. 마침 玄時学 大使가 韓鼎変会長과 같은 故郷의 竹馬古友에서 그에게 "우린 継続会議와 Yucadan의 遺蹟을 보고 南美를 一週해야할 旅程이니 経由地追加와 各国의 Visa를 다 받아달라고 떠 맡겼다. 玄大使가 고맙게도 大使館職員을 動員해서 4個国Colombia,Chire,Brasil,Argentina)의 経由地 追加와 visa를 다 얻어 주었기때문에 우린 마음놓고 会議를 다 마쳤고 3個組로 나누어서 Maya遺蹟을 交代로 다 보았다. 하도 고마워서 우린 mexico를 떠나는 前날밤 우리 大使館員 全員을 저녁食事에 招待했다. 全員 約25名이 모인 이 저녁은 Mexico의 伝統음식과 伝統音楽을 들으면서 즐겁게 지냈다.

이 자리에서 玄大使는 大使館員을 일일히 紹介하고 Mexico에서의 活動状을 말해 주었다 韓会長은 우리一行을 紹介하고 家族같은 気分으로 지냈다. 特히 武官 許中一 大領은 내동생과 陸士同窓이라 하면서 兄任하며 기뻐하였다. 24日부터는 各組別로 自己들의 割当된 会議室로 들어갔다.

U.I.A会는 23日부터 28日까지가 Congress이고 (Mexicocity) 30日~12月 2 日까지가 Assembly이고 12月 3 日 ~ 4 日이 Counsil이다. 即 大会, 総会, 理事会로 나누어져 있다. 大会에는 代表가 없고 参加者全員이 参席할수 있고 総会엔 各国마다 代表人員이 다르다. 例를들면 昨年까지 우리는 3票의 投票権이 国家의 経済成長率을 考慮해서 4票가 되였고 北韓은 3票그대로였다. 美国.소련等이 7票이고 몇나라가 6,5票이고 4票가 가장많고 2票, 1票의 나라들도 많다. 따라서 総会에는 4名의 代表가 正式名札이 있는 座席에 着席하고 아침 8시부터 저녁7시까지 자리를 뜰수가 없다. 点心도 会議場 안에서 먹고 커피타임은 午前 午后 2 回일뿐이여서 어떻게 지루하고 긴장을 했는지 커피시간에 lobby에 나와서는 모두가 몸을 움직여 나른함을 풀을 程度이였다.

내가 包含된 組는 26日 아침 7 시 Yucatan半島의 Merida로 出発했다.

Merida는 yu atan半島의 中心地이며 Maya文化의 遺蹟이 가장많고 主要한 것이 있는 곳이므로 모-든 Maya 文化를 볼려는 사람들은 거의가다 이 Merida로 간다.

Mexico全域에 遺蹟들이 널려져 있지만 이곳에 가장 잘 保存되고 集中되여 있기 때문이다.

mexico city 대회장

maya歷의 原本

Yucatan紀行(Maya文化의 遺跡地)

前記한 바와 같이 이번 旅行의 第2의 目的이 Maya와 Inca文化遺跡을 보는데 있고 보면 이 Merida行은 興奮된 旅行이 아닐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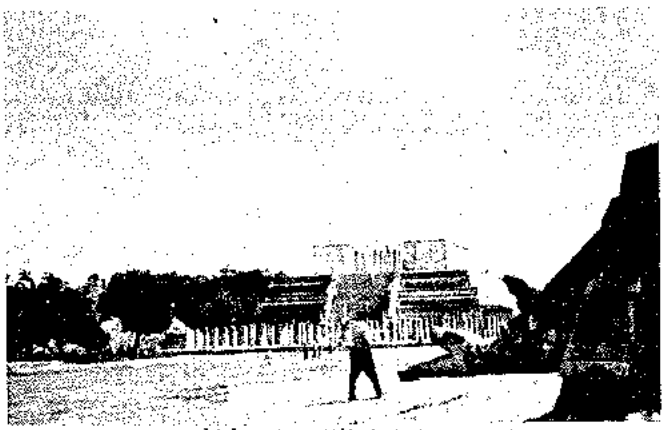
原来 Maya文化를 이룩한 民族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는 点에서 많은 世界의 考古学者間엔 세가지説이 있다.

첫째는, Maya民族이 古代에 이처럼 어마어마한 文明

을 가져다가 감쪽같이 증발한것은 (遺骸들도 없다) 그 地方의 爬虫類(両棲類)에 全滅을 当했다고 보는데 그理由로서는 그들 遺跡의 彫刻에나 壁画에나 到処에 爬虫類(即 毒蛇나 고렝이等)이 남아 있는点이고, 現在도이Yucadan 半島의 大部分의 (密林)속은 수렁으로서 악어, 독사가 많아서 사람들이 들어갈수 없다는데서 이런 說이 나온것이고, 둘째로는 스페인이나, 포루투갈人들에 征服되였다가 콜레라, 페스트 같은 伝染病의 漫延으로 全滅했다는 說이 있고 셋째로는 全民族이 外界로 移動했다는 說인데 이說을 뒷받침하는 点은 이들 遺跡에는 天文에 関한 高度의 知識이 엿보이며 壁画에 現在의人工衛星에 사람이 搭乘하고 있는것과 똑 같은 그림들이 있고 Maya歷은 太陽歷이나 太陰歷이 아니고 星座를 基準으로 만든 万年歷인데 60年에 1秒밖에 틀리지 않는다는 点이다.

現世에서 우리가 使用하고 있는 歷이 많지만(太陽歷, 太陰歷, 그레고리歷, 이지프트歷, 터키歷等)이 Maya 만큼 正確한 万年歷은 없다는데서 그들이 얼마나 宇宙에 関한 文明이 高度에 있었다는 点을 알수가 있다. 原来 이 Maya歷은 처음에 彫刻(宗教的)으로만 해석했는데, 独逸人考古学者가 풀이 해서 Maya歷임을 証明했다. Merida에서Taxi로 3時間 程度가서 Kabah에 갔다. 石築과 피라밋, 密林 地下洞窟, 그리고 建物外壁의 周刻들이 이루 表現할 수 없을 程度로 規模며 솜씨가 大端했음을 알수 있고, 그들이 太陽을 神으로 崇拜했다는 宗教的인, 政治的인, 意味에서 또 年代를 살펴볼때 鉄製道具가 없었고 石材道具로 이런 彫刻과 建築을 이룩했다는 点에서는 더욱 놀날수 밖에 없다. Uxmal은 가장 遺跡이 거 의 完全하게 또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이집트의 피라밋트에 맞먹는 높은 피라밋트가 密林속에 우뚝 우뚝 서 있다. 이곳에 그옛날 大行事(祭典)을 挙行했던 (서울運動場 蹴球場 2倍程度의 大広場이 白灰色 建物을 周囲에 가지고 階段이 되여있고, 파란잔디도 깔려있다. 우리 一行은 이잔디 밭에 누어서 하늘을 쳐다보며 그옛날의 Maya民族들의 栄華를 回想해 보았다.



chichen itza列柱피라밑, 독사의 머리가 보임

日気가 亜熱帯地方이라 너무도 더워서 샤쓰를 벗어던지고 裸体로 걸어다녔다. 가장 높은 피라밋트의 頂上에 올라가 4方을 돌아보니 끝 없는 密林의 荒野이다. 이 樹海가 그치는 곳은 地平線이고 바다는 보이지 않는데 그 樹海속에 到処에 높은 白色의 피라밋트가 点点히 서 있다. 우리는 Kabah에서 Uxmal로 오는 途中의 길가의 農家에 들어가 보았다. 오두막 単間집인데 草家집이다. 나는 그 農家에 들어가 보고 놀랐다. 그것은 나의 未熟한 知識을 Maya民族은 몽고族의 後裔들일것이다라고 漠然히 생각해 왔었는데 이 어찌된 일이냐, 내가 젊었을때 北支에있을때 몽고에 들어가 본 記憶이 되살아 났기 때문이다. 몽고包(라오)와 内部가 너무도 同一하고 침구가 海軍式 함모그이고 바른쪽 壁面에 神壇을 차려논것 까지도 몽고包와 똑같지 아닌가 나는 그집 어린애기를 안고서 슬쩍 下衣를 까고 궁둥이를 보았더니 푸른 班点이 있다. 即 몽고族만이 있는 몽고班点인 것이다. 우리 韓国도 몽고族인데 (우린 그班点을 七星(삼신)할머니가 때린 멍이라고 한다). 이 偉大한 Maya文化를 쌓은 民族이 바로 몽고族이라니 은근히 흐뭇하기도 하고 놀라웁기도 하다.

뒷뜰에 가서 炊事道具며 農具를 살펴보았더니 너무도 몽고것과 같으니 더욱 놀랐다. 그렇다면 세가지說이 다 틀린것이라고 생각했다. 万一 Maya族이 틀림없는 몽고族이라면 現在 Mexico나 Peru나 아마존流域에 있는 Indio들이 그들의 後孫임엔 틀림이 없을게다. 요지음 新聞에 作家 李炳注氏의 "인디오의 哀歎이란" 글이 실리고 T.B C의 아라스카에서 마제란까지라고 하는 카메라 出動이란 프로가 있다. 이것은 建築家들이 現地에 가 본것과는 若干의 差異点이 있음을 알았다.

그것은 카메라의 效果와 나레이타-의 誇張된 說明과 文人의 表現이라는 点에서 일어나는 不得已한 差異일 것이다.

Kabah, Uxmal, Chichen Itza, Conzumel等地의 피라밋드에 Maya建築의 基調라고 共通된 基壇위에 建築을 한다는 点과 基調線이 梯形이라는 点이 되겠다.

또한 宗教的인 意味에서 처음의 적은 피라밋드가 時間이 흐르면 허물지 않고 그위에 더쌔워서 더 크게짓고 그것이 또 어떤 期間이 지나면 그 위에다 또 짓는 式으로 해서 現在 남아있는 巨大한 피라밋드들은 거의가 3重에서 5重이나 덮어쌔운 最終의 것들인 것이다. 허나 그巨大한 役事를 어떤 道具를 썼으며 얼마마한 人員이 動員되었으며 石材의 運般과 工事의 設計者나 施工指揮者가 어떤階層의 人物이였다는 것은 全혀 알길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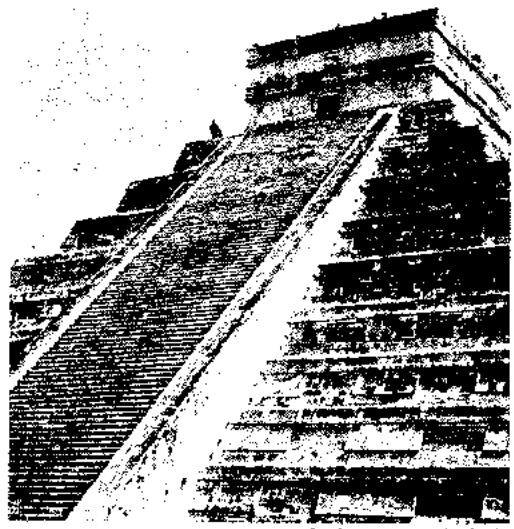
오직 建物의 表面이나 기둥의 彫刻에서 미루어보아 奴隸들을 使用했을 것이라는것, 神殿이라기 보다는 祭壇이라는 느낌이 짙은 것이다. 太陽을 崇尙한 그들의 宗教가 어떤 犧牲物을 太陽에 받침으로서 그들의 安慰를 祈願했던 것으로 奴隸의 움직이고 있는(갓죽은) 心臟을 祭境에 바쳤다든가 로마의 코로숨 같이 鬪技場같은 性格의 運動試合場에 試合에 敗한 便의 主将을 죽였든가 또는 自己肉体에 어떤 苦痛을 주어서 그 苦痛을 참는者를 尊敬했다는 記錄이나 映画는 많다.

例를 들면 칼로 自己 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참는다든지 毒벌을 全身에 쏘개하고 참었다든지 特異한 것은 男性이 서로 性器를 노끈으로 묶어서 両便에서 서로 당기여서 한쪽편의 性器가 떨어질때까지 참었다든가 하는 따위의 原가 하는 따위의 原始 宗教的 인 怪異한 行事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우리 一行은 저녁무렵 Uxmal의 遺跡을 다 돌아보고 撮影도 하고 構內案內所에서 쉬고 있을때 約70才 程度의 美国人考古学者를 만났다. 그는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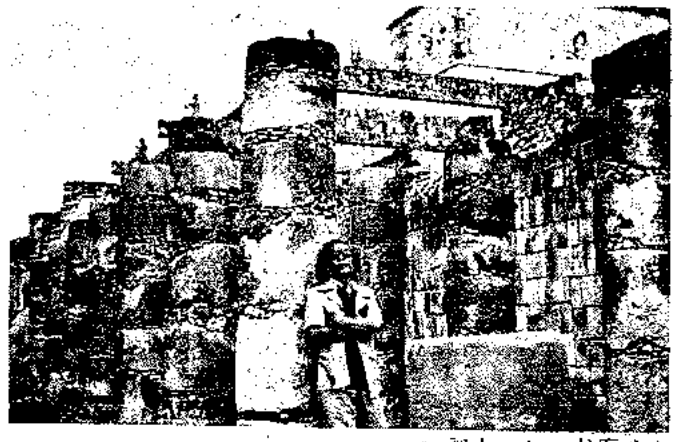
即 美国의 National Geograpy社가 Mexico政府에게서 이 地域의 補修権을 얻어서 莫大한 投資를 해서 補修및 復原을 하고 있었다. 그 代身에 이 地域에 대한 観光収益権을 몇年間 가진다는 것이다. Mexico政府로서도 아 주 玲利한 方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補修工事 現場에 Maya文化에 대해 研究를 한 考古学者, 歷史家들이 많이 雇傭되여 있는데, 이 사람도 그中의 한사람이다. 나는 그에게 連続的인 質問을 했다.

即, Maya文化를 이룩한 民族은 어느民族인가? 年代는? 그들의 後裔들은 지금 어디에 生存하는가? 더욱 劇的인 說話가 있어서 너희들의 観光資料로 하려고 発表않는거냐? 어디선가 앵그로색손 民族이 했을것이다라는 物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거냐? 何如間에 美国인디언들 余他 民族이 이런 文化를 이룩했다면 現美国人들의 自尊心에 打撃이 오기 때문인가? 라고 興奮해서 質問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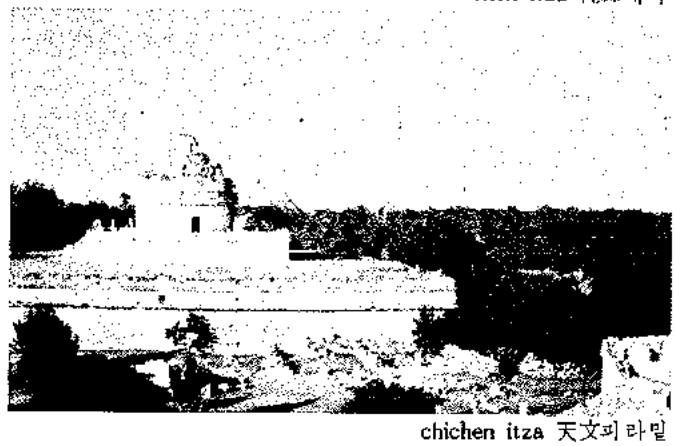


chichen itza 피라밑

chichen itza 독사머리조각



chichen itza 柱廊에서



chichen itza 天文피라밑

그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아마도 네 말이 옳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考古学界의 이름으로 発表를 하지 않는가? 나같은 東洋 小国의 無名의 建築家의 見解로서는 確実히 몽고族이라고 본다. 그理由는 現地 Indio들의 肉体的 諸般点(크기, 容貌, 皮膚色, 言語, 아기들의 몽고班点, 家屋構造, 生活道具들을 본대로 들면서)으로 보아 틀림없이 몽고族인데 왜 잘알고 있으면서도 発表하지 않는 理由가 무엇인가? 그러면서도 学者라고 할수 있느냐고 드리댓드니 그는 몹시 慨慌하면서 亦是 또 아마도 몽고族일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또 나에게 너는 韓国人인데 어떻게 몽고를 잘 아느냐고 묻기에 나는 25才에서 27才까지 몽고各地를 돌아본 経験이 있고 特히 日本軍의 命으로 몽고包를 研究報告한 일이있다. 따라서 몽고의 遊牧人의 住居에 대해서는 自信이 있다고 했드니 그는 애!를 連発하면서 알겠다고 한다.

그와 討論을 벌이다 보니 밤이되여 4方이 캄캄하다.

우리는 이때를 기다린 것이다. Night Show가 있다기에 그것을 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윽고 Night show가 始作됐다. 캄캄한 樹海속에 立体音楽이 始作되고 각금 原始時代의 怪獣의 울음等이 섞인 怪異한 Maya古典音楽이 暗黒속에서 徐徐히 漸次拡大되여 온다. 넓은(잔듸밭)広場石階段에 앉아서 이 show를 기다리는 数많은 観光客들이 喊声을 올리고 恐怖心마저 일어난다. 이윽고 7色의 強한 光線이 한 建物에 準中되니 또 喊声이 일어난다. 音楽사이에 그 集点을 맞춘 建物의 来歴과 年代며 무엇으로 使用됐던 것이라고 説明이 拡声器로 흘러 나온다.

이런式으로 그많은 建物과 피라밋드가 그 怪異한 音楽과 説明으로 約1時間 30分間이 継続되고 끝으로 넓은 잔뒤 広場에 Indio무용수들이 古典衣裳을 하고 무용이 始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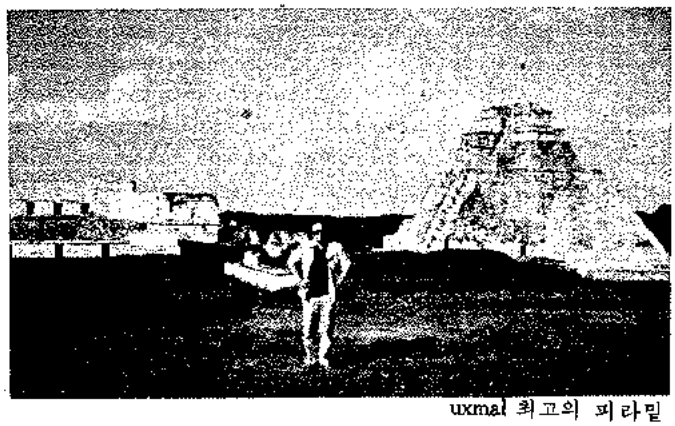
아-황홀한 光景이고 마치 몇千年前 Maya人이된 気分으로 넋을 잃고 보았다. 暗黒속에서 벌어진 이 show 의 企画은 참 멋있는 생각이였다고 본다.

何如間 그 옛날 어느때 偉大한 우리 몽고族이 (韓国도 몽고族이다) 아라스카를 거쳐 록키山脈을 넘어 여기 Yakadan에 와서 華麗한 文化를 이룩했다. 이어서 안데스山脈을 거슬러 내려가서 페루 各地에 Inca文明을 이룩해 놓았다는 点을 생각할때 나는 建築을 生業으로 択한것에 보람을 느꼈고 韓国族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밤中 11시에 Merica의 호텔에 돌아와서도 興奮은 가시지 않어 果実店에가서 熱帯果実을 막 먹어 댔다.

다음날 10月26日

아침 일찍부터 Chichen itza로 떠났다. Merida市 밖으로 나서자 昨日 Uxmal로 가는 途中과 꼭같다. 이 넓은 広野를 農地로 開墾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途中에 Sezar工場을 見学했다. 龍舌蘭의 잎을 툭툭 잘라서 水分



uxmal 최고의 피라밑

uxmal 조각벽 앞에 앉아 瞑想하는 一行

uxmal 부근의 indio의 農家

uxmal의 잔듸광장 주변의 건물

을 除去하고 繊維만을 摘出해서 乾燥시켜서 그것으로 加工品을 만든다. 工場의 規模는 크나, Proseat는 아주 簡単하고 設備도 거의 없다. 이러한 設備로 工場을 運営할 수 있다니 多幸한 일이다. 그繊維로 바구니, 食卓카바, 帽子, 로-프 等 多様한 土産品을 만들어 낸다.

몹씨 더운 날씨에서 거의 上衣는 벗어제치고 裸体로 다녔다. 다른 観光客들도 홋팬티만 입고 있고 女大学生들은 完全한 비키니 海水浴服으로 때를지어 다닌다. Chechen Itza는 天文을 測量했던 색다른 円型의 피라밋드가 있다. 그들이 出入口와 窓이 冬至와 夏至의 太陽光線을 考慮해서 만든 것이나 方間等은 天文에 대한 高度의 知識이 있었음을 알수있다. Mexico全域에 있는 Maya의 遺跡과 Chichen Itza의 遺跡이 다를바는 없지만 여기에 異常한 못(池)이 있다. 年中同一水位(장마때나, 가뭄때나)라고 한다. 지금은 그못속에서 数많은 宝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옛 사람들은 宝物의 貯蔵을 水中에 했다는 境偶가 나중에 쓸 Inca文化에서도 나온다. 原来 이 地方에는 年中降雨量이 없고 가뭄이 몇해고 継続되는 때가 많았다고 한다. 한다면 Maya民族이 遺骸도 없이 遺跡만 남겼다면 前記한 세가지 説에다 한가지를 더해서 물이없어 他地方으로(안데스 山脈을 타고 Peru, Chiree쪽으로 가서 새로운 Inca文化를 이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Inca帝国을이룩하고 Inca文明을 発足시킨 Inca族의 遺骨들을 Peru의 안데스山中 渓谷에서 無数한 遺骨들이 発見되고 있기 때문이다. 歸路에 음식店 뒷뜰에 있는 pool에서 水泳을 했다.

気分좋은 水泳이다. Pool Side에서 日光浴을하고 있는데 밖에서 들어온 노새 한마리가 나의 담배를 물고 갔다.

従業員들이 소리를 지르며 따라갔으나 그 노새는 담배를 문채로 달아나 버렸다. Meridaに서 저녁때 돌아와서 Merida市立 博物館을 보았다. 純金으로된 遺物들이 大部分인데 특히 두꺼비가 이나라에서 神聖視되고 있어 金두꺼비 彫刻이 많았다. 이두꺼비는 Inca에서도 登場한다.

Bolibia의 近処에 있는 神秘의 湖水라고 부르는 Titica-ca湖에는 다른 魚族은 거의없고 이러한 두꺼비만이 살고 있는 죽은 湖水가 있다.

호텔로 돌아오니 lobby에 Merida大学 男女学生 10余名이 손님들을 하나하나 잡고 앙케이트를 받고 있다. 한 女学生이 나에게와서 앙케이트를 보이면서 対答해 달라는 것이다. 即 Meridaに 오는 観光客의 動態를 調査하는 것이였다. 나는 그学生에게 Meridaに 伝統的인 Maya 音楽과 무용이나 演劇을 하는곳이 있느냐고 물었드니 그런곳의 이름을 적어준다. 저녁식사후 一行은 그곳에 가보았다. 우리보다 먼저와 있는 数10名의 손님이 있었다.

簡単한 演劇과 音楽과 무용이 있었는데 아주 純朴한 것들이였다.

mexicocity의 인중박물관앞

chichen itza 피라밑 정상에서 mexico 여학생들과

kabah의 祭壇趾

司会者가 幕間에 손님들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차례로 묻는다.

南美 各地는 勿論 구라파 各国이 大部分이다.

우리들의 자리를 가르키며 묻기에 나는 일어서서 콘소리로 South Korea라고 외쳤드니 그는 놀라면서 모든 손님들에게 가장 먼 나라에서 온 손님들에게 拍手를 보내자고 한다. 場内가 拍手로 우리를 迎歎하는 것이다. 나는 일어서서 두손을 잡고 높히 쳐들어 흔들어 보였다.

이윽고 音楽이 나오고 손님들이 舞台에 나가 마주 춤을 추는 順序인데 우리一行은 相対가 없다. 그러든 참에 부라질 女性(젊은)와서 춤을 추자고 한다. 그런데 그춤이 怪常한 춤이다. 우리에겐 처음보는 Mexico춤이라 自信이 없어서 拒絶했다.

밤늦게 밤거리를 散歩하면서 호텔로 돌아왔다. Merida의 마지막 밤이다. 来日아침엔 Mexico city로 돌아가야 하니까 平生두고 Maya, Maya를 보아야지 하면서 집에서 기르는 개의 이름을 Maya와 Inca라고까지 지은 내가 이제 Maya를 보고나니 虚脱感이랄까 充足感같은 것을 느꼈다.

Mexico city에서와 Acapulco에서의 会議가 끝나면 一路 Peru로 가서 Inca를 보겠다는 期待感에서 마냥 興奮한채 잠자리에 들었다.

胸中에 万感이 去来하니 잠이 오질 않는다. 나는 곰곰히 Maya의 建築과 그리고 文明을 足跡들을 다시 되씹으며 記憶속에 간직하려고 日記에다 詳細히 보고 느낀것을 적었다.

10月27日 아침 10時 Mexico city에 到着 会議場(Congress)으로 갔다. 이날은 午后6時에 congress가 끝나는 날이다.

午前과 午后는 別 모임이 없고 6時부터 Closing Seremony가 있을 뿐이다. 우리一行 16名이 다 모였다.

Lobby에서 各国代表들이 끝나는 날이라 설렁대고 있었다.

우리는 몇組로 나누어서 6時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Mexica city에 各名所로 떠났다. 마침 Mexico建築家協이 이런일에 対備해서 大学建築科 男女学生들을 動員해서 待機시켜 놓았기에 Mexico大学生은 2名을 골라서 (女学生) 大学街로 갔다. 가는길에 Olimpic town도 보았고 富豪村의 独立住宅들이며 各国大使館들을 보았다.

大学에는 저 有名한 建物外部에 全部 모자이크画를 그린 図書館이며 美術大学館 等을 두루 돌아보았다. 두女学生은 自己네 学校를 案内하는지라 신이나서 教授들 이름을 대고 各処의 壁面에 Spain語로 쓴 学生들의 落書며 檄文을 説明해 주었다. 檄文의 内容은 現定府를 反対하는것, 共産主義나 社会主義를 讃揚하는 文句가 많았다.

이것은 어찌된 일인지 Peru나 Sâopaulo大学에서 거의 같은 内容이였고 海抜 4,000M의 高地都市인 Peru의 Cuzco大学이나 飛行機에서 보았고 메모하는것도 여러번 보았다. 그들은 메모를 Meeting이라고 불렀다.

밤 6時에 全員이 会議場에 모였다. Lobby한쪽에서는 은은히 音楽이 흐르고 6000名에 가까운 名国 建築家들은 離別을 아쉬워 했다. 北韓化表 5名도 東欧圏人들과 이야기하고 있었기에 우린 16名이 그들을 둘러싸고 人事라도 하자고 했드니 그들이 懐惶한 表情으로 "当身들은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을 걸어오다니 礼儀도 없소" "아그러면 기다리지요"하고 서 있노라니 東欧人들과 말이 끝나자 마자 눈짓을 하드니 5名이 一列로 쏜살같이 뛰어 달아나 버렸다.

우린 純粋한 마음으로 이야기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들은 무슨劫을 먹은듯이 달아나 버렸다. 北韓代表들은 会議途中에도 가끔 눈이라도 마주치면 外面을 했고 우리를 避하는 눈치이다.

한번은 내가 손을 내밀고 人事를 請했드니 "当身은 누구요" "나 서울서 왔수다" 外国에 와서 同族끼리 人事나 하자는데 뭐 잘못이요" "必要없소"하고 途亡을 쳤고 우리一行中에는 카메라를 더려 대니깐" 우릴 写真찍어 무엇에 쓰슈하면서 손을 얼굴에 가리는 等 우스운 이야기가 많다.

이윽고 会議場앞 広場에 요란한 音楽과 歓声이 터지고 보슬비 내리는 하늘엔 数많은 불꽃이 터지고 그 불꽃속에서 "81年 와르샤와에서 만납시다"라는 붓글씨가 나오자 모두들 歓声을 올렸다. 音楽에 맞추어 춤을 추는 사람들, 몸을 흔드는 사람들, 完全히 祝祭이다. 비는 오고 바람은 불어도 모두가 離別이 아쉬운지 자리를 뜨지 않는다. 우리도 異常한 気分이 들었다. Good by Mexico city여!! 6日間 우리는 兄弟같이 한자리에 建築을 論했고 建築에 関한 많은 行事를 했다.

이제 離別이다.

우리 一行은 서글픈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왔다. 来日부터는 各己分散해야한다. 4名의 代表는 来日 Acapulco에가서 総会와 理事会를 마쳐야하지만 나머지 一行은 欧라波쪽, 北美쪽, 南美쪽으로 뿔뿔히 헤여진다.

会員아르헨티나式 食堂에가서 会食을하고 各己의 来日부터의 旅行에 祝福을 빌며 無事歸国을 約束하고 손을 흔들어 헤어졌다.

Acapulco"

Acapulco市는 Mexico city에 飛行機로 約1時半의 距離에 있는 太平洋岸의 世界에서 第一風景이 明眉한 観光地이다. 北美와 구라파의 大富豪들이 이곳에 別莊과 호텔을 짓고 Mexico政府가 莫大한 予算을 들여 建設한 名実共히 世界公園이다. 하와이는 그 規模나 設備와 自然의 아름다움에 Acapulco에 比할바가 못된다.

나는 数年来로 世界의 三大美港이란 屈指의 各勝을 다 보았지만 Acapulo에는 敢히 比할곳이 없다고 断言한다. 이런곳의 丘陵에 Acapulo center란 会議場이 있다. 우린 서울서 代表4名의 호텔을 予約하고 갔기에 Pize hotel에 우리房이 마련되어 있었다.

各호텔에서는 bus가 会議場까지 아침과 저녁 꼬박 輸送을 해 주었다. 파도소리, 밝은하늘 알맞는 気温, 湿気 果然 天国이다. 그러나 우리은 지루하고 苦痛스러운 3日間의 会議에 지쳤고 아침 8時부터 저녁 7時까지 꼬박 자리를 뜰수가 없었고, 午前과 午后에 한번씩 있는 coffee time 점심시간 1時間以外에 余服을 만들수가 없고 市内는 저녁 7時가 지나면 店舗는 다 門을 닫는다. 그좋은 바다에 발한번 적셔보지도 못했다.

代表가 아닌 몇名의 一行들은 마음껏 Acapulo의 観光을 満喫했고 海水浴도 했다. 밤이면 자랑을 하며 놀려댔다. 会議場에서도 日本代表가 茶時間에 날보고 이会議는 苦痛스럽다면서 우리들의 会議를 이런式으로 強行軍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不平을 늘어 놓았을 程度이다.

우린 이러한 正式的인 会議의 雰囲気나 状況을 経験하기 위해 代表로 登録안된 우리一行들을 交替로 或은 午前 或은 午后 式으로 参席시켰다.

重要한 選挙라든지 重要한 案件에는 4名代表가 꼭 参席했다. 이런 世界的인 観光名勝地에 와서 이 苦生을 하다니 하는 생각이들 程度였다.

이곳에서는 各国代表가 総350名 程度이였고 座席이 定해져 있어 座席을 뜰수도 없고 또 떠서도 안되게 되여있다.

会議의 案件中에 언제 어떤 重要案件이 上程될지도 모를 것이고 会議内容을 놓칠수없어 分業으로 4名은 Memo를 해 두었다. 그래야만 歸国後에 報告를 더욱 詳細히 할수가 있기 때문이다.

北韓代表들도 이 더운 날씨에 青灰色制服같은 것을 입고가슴에 color사진으로 된 金日成의 뺏지를 달고 있었다. 나는 이들을 보고 문득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Acapulco의 総会開催時에 会長 Mr. Bara氏가 이곳 日気가 몹시 더우니 会議中에 服装을 上衣나 넥타이를 매지말고자 発言하자 全員 와-하고 歓迎을 했고 넥타이를 풀고 上衣를 벗고 야단들이였다. 다음날 부터는 各様各色의 여름샤쓰를 모두들 입고 나왔다.

우리들도 原色에 가까운 샤쓰를 입고 끝날까지 参席했을 程度이였는데 北韓代表들은 샤쓰가 없는지 如前히 Mexico서부터 입든 그 制服같은 服装을 하고 있었고 美国이 会長으로 当選되여 祝賀招請파티에도 그러했고 마지막날의 Mexico建築家協会의 主催파티에서 그들은 그더 밤에 그服装으로 나왔고, 모-든 사람들의 最高級 Mexico料理와 甘美로운 音楽에 춤을 추며 즐기는데 그들은 꿔온 보리자루같이, 또는 미개한 表情으로 멍하니 입을 벌리고 그런 光景을 처음 보는것 같은 눈치였고 그들이 歸国해서 이런 光景을 어떻게 報告할 것이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니 그저 불쌍한 느낌만들었다.

日本代表들도 우리와 같이 明朗하고 愉快하게 즐겼는데 왜 그들은 저렇게 멍하게 그러냐고 묻고 있었다.

亦是 中共은 大国이라 그런지 淡淡하게 우리와 이야기도 하고 몽고도 사진도 같이 찍고 했는데 北韓만은 有別나게 그러한 行動을 最하고 있었다.

듣건데 5명中 2명은 그들의 쿠바大使館에 있는 通訳을 데리고 온 것이라고 했는데 佛語를 했다.

3명中 1名은 20才 程度의 젊은 親旧인데 毎日熱心히 記録만 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監視員인것만 같았고 全員이 머리는 G.I cut로 会議에 모인 各国中에서 가장 머리가 짧은것이 北韓이였다.

이会議에서는 香港을 비롯해서 8個国이 新規로 U.I.A에 加入承認이 났고 若干의 憲法改正과 馬来가 亜阿祖의 副会長으로 美国이 会長으로 中共이 理事国으로 当選됐고 1981年度 総会는 Poland의 Warsawに서 1984年度 総会는 Pilipin의 Manilaに서 開催키로 承認이 났다. 特記할만한 것은 選挙의 投票가 不正할수 없게 미리 完全한 準備가 되여 있었다는 것이고 Computer로 監票되므로 投票函이 computer室로 들어가면 다른 案件은 継続, 進行시키다가 computer의 答이 나오면 案件審議途中 에라도 結果만을 発表하고 伯手로 承認하는 아주 機械的 節次가 予定대로 着着 進行된다는 일이다.

11月1日 아침 7時에 우리는 公式的인 모든 行事를 大過없이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南美巡礼의 길을 떠나기 위해 Acapulco飛行場으로 나아갔다.

다음은 南美各国紀行을 紹介하겠음.

計劃住宅地의 施設供給에 대하여

朴 勇 煥

諸般 社会的 要因을 背景으로 急增하는 住宅수요에 대한 供給이 民間建設業者 或은 関連하는 団体에 依하여 急激히 住宅団地 建設이 進行되고 있는 한편, 建築技術 의 向上을 基盤으로 점차 巨大化 高層 化하고 있는 가운데, 都市를 中心으로 아파트 生活이 住居의 한 形態로 널리 一般化하여 그 槪念이 生活속에 깊히 定着하여 가는 것 같다.

從来, 住宅및 住生活環境의 水準을 크게 規定지어 온 要素들 가운데 住宅供給 - 住宅의 計劃; 生産, 供給, 운영및 관리等의 넓은 意味에서-의경우를 들어서 생각해 볼 때, 그 形態가 個人 혹은 小規模의 零細 建設業者에 依存되어 온 것이 大部分으로 그 過程上 수요와 供給이 個人·個別的인 発注·建設에 依한 것으로 一定한 計劃性을 基盤으로 한 性格을 띄우기 보다는 오히려, 一定한 法的 範囲内에서 個別的으로 追求하는 論理에 따라 建設·축적되어 오면서 現在와 같은 旣成市街地가 形成되어 왔다는 것은 極히 一般的인 事実이라 하겠다.

그러나, 從来와는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急変하는 社会的 背景은 都市의 人口集中, 住宅問題, 家族制度의 変化, 交通問題, 各種 生活関連施設의 不足等으로 住居및 住生活環境에 対하여 直·間接으로 심각한 様相으로 発展케하고 時急히 그 解決策이 要求되고 있다 하겠다.

特히, 最近의 建設資材의 폭등, 地価상승, 노동력 不足, 住宅수요의 不安定状態等은 相互関連 作用하면서 住宅供給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状況에서, 住宅団地 建設이 住宅 수요에 대하여 住宅生産의 量産化를 最大 目標로 強調하고, 그것을 위한 解決方法이 住居및 住生活環境 計劃의 先行 課題로 要求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住宅의 標準化를 불가피하게 함과 同時에 획일적인 住宅이 供給의 支配的인 方向으로 흐름에 따라서, 보다 더 長期的으로 住居및 住生活環境의 水準을 새롭게 規定하여 갈 것같은 傾向을 쉽게 予想하기엔 그리 힘들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当初에서 부터 住宅団地 建設이 많은 問題点을 未解決 状態로 안고있음은 굳이 指摘할 필요가 없겠으나 우선 住戸計劃의 측면에서 볼 때, 住生活의 多様한 要求나 時間的 変化에 対応할 수 있는 生活様式의 設定이 多方面에서 追求되어야 하겠으며, 住外計劃에 있어서는 現在의 一律的인 外部空間 構成에서 탈피하여 生活의 연속적 空間으로 重要視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要求되는 諸般 生活関連施設의 供給·整備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하겠다.

現在, 高層, 高密 아파트와 같은 団地住宅에서 여러가지의 事故·問題가 表面化하고 있음은 위에서 말한 事実에 根源하고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겠다.

最近, 住宅団地의 生活環境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공포 된 바 있는 住宅建設촉진법 施行令規則에 依하면 建設業者에 대한 부대복리施設의 의무규정이 大幅 強化 된 바 있으나 内容을 간단히 招介하여 보면 施設의 種類別로,

- 教育施設(国民学校, 中高等学校, 유치원 내지는 탁아소)
- 녹지및 公門施設
- 의료施設
- 老人亭

等을 中心으로 駐車場, 가스공급, 저수를 위한 各施設들로 되어 있는 한편, 設置基準에 関해서는 各施設 共通的으로 施設·세대수의 関係를 단순히 一元化하여 最大의 指標로 設定하고 있으며, 老人亭의 경우에서는 $10m^2$ / 50세대의 비율로 施設規模의 基準을 定하여 장기·바둑위주의 오락을 主 施設内容으로 老人의 余暇生活에 対応코져 함이 그 根本 취지로 생각된다.

以上의 개정안에 対하여 建築計劃的인 側面에서 批判하고 考察하여 그 具体的인 問題点을 나열하면,

1) 施設供給에 대한 理念이 明確하지 못한 점
2) 設置要綱(目的·方法·対象)에 関한 具体的인 施策이 검토되어야 하는 점.

3) 施設內容이 住生活과 密接하게 關連하는 가운데 多樣한 要求에 対応할 수 있는 方向으로 追求되어야 하는 점.

4) 各施設間의 關連性을 검토하여 施設의 役割을 開発하고 多樣化할 수 있는 方向이 모색되어야 하는점 (施設內容의 多樣性과 利用의 효율을 높이고 나아가서 地域에 대한 共同意識의 形成을 위한 具体的인 한가지 例로써 複合施設의 可能性을 포함)

5) 위와 깊이 關連하는 것으로, 운영및 관리에 대한 方案과 特히 횡적인 總合性의 검토.

以上과 같이 要約할 수가 있겠으며 계속하여 그 具体的인 提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本稿에서는 以上에서 記述한 바와 같은 住宅団地 建設에 따른 부대 施設供給에 対하여 建築計劃的인 視点에서 고려해야 할 問題点들을 나열하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記述하고져 하며, 다음의 機会에 生活關連施設에 대한 実例로써 外国의 例를 들어 그 現況, 理念, 方向等에 関하여 紹介하고져 한다.

〈施設의 運営및 관리에 대하여〉

運営및 管理 形態가 施設에 対하여 미치는 영향은 一般的으로 至大하다.

그것을 여하히 하느냐에 따른 制度上의 問題는 現実的으로 施設計劃 以前에 充分히 検討되어야 하는 根本的인 課題로써 施設의 性格 혹은 이메지(Image)의 大部分을 左右하게 된다.

例를 들면, 一般 施設利用者에 있어서 利用者의 少数特定化, 不活性化의 問題에서 볼 수 있듯이 施設·利用者의 関係에서 폐쇄적인 方向으로 作用하는 現象을 고려할 때, 運営과 管理부분이 施設計劃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절대적인 것일 뿐만이 아니라, 施設의 地域化란 施設供給의 궁주적인 目標에 대하여 크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편, 現実的으로 運営및 管理가 制度上 많은 制約 制限을 받게 됨은 말할 필요가 없다하겠으나 原則的으로 그 運営上의 決定權이 自治的으로 解決과 反映이 될 수 있는 体制의 確立이 必要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것이 可能하게 되면 施設內容이 利用者의 要求에 적극적으로 対応할 수 있겠으며 独自的인 프로그램(Program) 의 展開가 可能하게 된다.

結果的으로 利用內容의 活性化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施設計劃을 지양하고 特色을 가지는 施設로써 그 供給이 可能하게 될 것이다.

運営에 対한 一般 住民의 参加를 可能하게 하여 施設의 自主管理를 위한 方向이 追求될 때 団地 혹은 地域의 共同生活속에 施設의 地域化를 촉진하고 또한 밀접한 関係를 유지할 수 있는 方法이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施設의 선전은 特히 새로운 수요자 층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行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것과 同時에 신진대사적인 施設內容이 항시 追求되어야 만 하겠다.

〈施設利用者의 固定化 現象〉

既存의 制度的 範囲內에서 各施設에 따라 程度의 差異는 있을지라도, 施設이 具体的으로 어떠한 利用者를 対象으로, 어느 程度의 利用者数에 대하여, 어떠한 役割을 하는가?를 생각할 때 既存究研에서와 같이 利用者에 대한 少数特定化 現象, 即 施設을 利用하는 利用者가 固定化하는 現象에서 考察할 수가 있다.

이 現象은, 利用者의 社会的 階層, 施設에 대한 수요의 構造等에 関한 基礎的인 実態에서 充分히 把握할 수 있으며,

当初에서 부터 施設自体가 限定性을 가지며 필타(Filter)의 役割을 하는 事実에 비추어 볼 때, 自然히 利用者가 固定化하는 傾向을 予想할 수가 있겠다.

以上에서와 같이, 実際 利用者가 限定되어지고 固定化하는 問題는 多少의 施設規模나 空間構成의 差異를 초월하는 一般的인 메카니즘으로써, 結局 施設은 特定의 固定利用者에 限하여 対応하는 形態로 밖에 機能하지 못하며, 또한 特定의 役割로 밖에 機能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곧, 이것이 施設이 어떠한 利用者를 対象으로 하는가에 대한 現実的인 解答이 되겠다.

特히 老人亭과 같은 콤뮤니티 - 関連施設의 경우 그 利用者에 대하여 以上에서 記述한 固定化 現象에 依한 問題点을 既存研究의 成果에서 紹介하면,

1) 施設을 利用하지 않는 潜在수요 자층에 대한 問題.

2) 固定化하는 利用者層과 그 영향에 대한 問題.

3) 새로운 수요자층에 대응하기 위한 問題.

等을 들 수 있다.

以上의 問題들은 居住者의 多樣한 要求와 相互関連 하는 것들로써 施設의 機能과 役割이 어떻게 그것을 保証하여야 하느냐는 印, 施設을 中心으로 한 根本的인 課題라 하겠다.

自然히 그 対策이 追求되어야만 되겠으나 우선 私的인 観点에서 施設·地域住民의 関係上 그 対応에 대하여 記述하면,

ㄱ) 수요層의 多樣한 要求에 対応할 수 있는 方案이 모색되어야만하겠다.

ㄴ) 潜在化한 수요자層의 발굴을 施設目標의 하나로 設定하여야 하겠다.

ㄷ) 施設自体의 限定性에 대하여 多樣한 施設이 追求되어야 하겠다.

ㄹ) 利用者와 利用內容의 関係에서도 存在하는 限定性에 関하여서도 그것에 依하여 排除되는 部分에 관해서도 同時에 그 対策이 강구 되어야만 하겠다.

〈計劃上의 問題〉

私的인 觀点에서, 記述한 施設의 課題와 그 基本的 視点에 대하여 以下에서 具体的인 計劃上의 問題를 정리하면,

1) 固定化 現象과 傾向에 대한 対策으로써 固定化 그 自体를 반드시 否定的인 것으로만 断定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것이 形成되는 것은 施設이 그와 같은 構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施設의 内容이 多様化되고 運営方法의 새로운 提案이 充分히 고려된다면 当然히 그 様相이 달라 지겠다.

固定化 現象이 問題視되어야 함이 그것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閉鎖的인 方向으로 作用한다는 事実로 因하여,

他 利用者및 새로운 수요자層을 排除하고 더우기 施設의 利用者가 老令化하는 데에 대한 큰 要因이 되는 点에 있다.

이 点에 대한 直接的인 対策으로서는 무엇보다도 施設의 運営方法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2) 現実的으로 施設内容의 多様化를 追求하는 것이施設의 大前提候件이기는 하지만 無限定 可能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단순히 施設規模를 増大 한다고 하여 多様化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겠다. 運営이나 管理에 대한 制度上의 解決이 병행하는 가운데 利用者의 自発性을 촉구하고 個性, 취미, 自己表現等이 可能할 수 있는 施設内容이 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施設의 規模에는 限界가 있음이 当然하므로 여러 가지의 空間을 小規模施設에서 具備하기란 不可能하므로 오히려 各施設이 特色있는 空間構成을 追求하고 施設間의 交流를 試図 한다면 小規模施設이 活性化할 수 있는 하나의 方案이 될수가 있겠다.

3) 物的条件으로서 空間構成의 영향은 施設利用者 및 利用内容에 대하여 決定的임은 말 할 필요가 없겠다. 特히 小規模施設의 경우 多目的 空間構成은결코 空間의 無性格 以外 어떤 意味를 가지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短時日内에 前記한 바와 같이, 利用者의 固定化및 不活性化를 招来할 것으로 안다. 現実的으로 施設·利用者의 関係에서 결코 多目的 多用途의 空間(Multi-purpose)이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大規模施設의 경우, 多様한 施設機能을 具備하여 利用者의 社会的 階層別로 多様한 要求에 대한 対応이 可能하여 施設의 매력을 높이고 潜在 수요자層을 발굴하여 利用者層의 幅을 넓일수는 있겠으나 運営이나 管理에 대한 比重이 유지되어 지지 못할 경우 결국 小規模施設에서와 같은 固定化 現象을 招来할 것이 分明하겠다.

〈地域計劃上의 問題〉

施設수요에 대한 対応策은 通常 施設網이나 施他設과의 関係에서 問題視되지만 우선 地域計劃的인 視点에서 考察하여 볼 때 단순히 施設의 配置問題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充分하지 못하여 地域的 次元에서의 解決方案이 必要하게 된다.

以下에서 整理하면,

1) 従来, 施設의 配置를 区分하여 볼 때 大規模施設을 中心으로 하는 것과 小規模施設을 多数 配置하는 것과의 두가지 方向이 両立되어 왔다고 하겠다. 施設의 性格上, 利用圏의 概念을 고려 할 때 大規模施設(異種施設과의 複合施設을 포함한) 만으로 対応할 수는 없겠다.

그것이 綜合的으로 施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 하더라도 地域的 要求에 対応하기란 限界 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利用者数가 施設 規模에 대하여 比例的으로 増加 하지는 않으므로 同時에 小規模施設의 配置가 불가피하게 되므로 그 方向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2) 施設의 立地問題는 実際上 여러가지의 制約을 받게 되지만 利用圏이나 交通関係, 地域的 特性이 充分히 고려하여 決定되어야 하겠다.

立地条件 自体가 実際 利用者 分布에 대하여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3) 画一的인 施設보다는 特色을 지닌 施設이 相互連関性을 유지할 수 있는 配置가 追求되어야 하겠다. 이는 곧 利用者에 依한 施設 選択性을 살릴 수있고 多様한 要求에 可能한한 대응할 수 있는 方法이 될 수 있겠다.

4) 異種施設間의 関連性이 充分히 고려 되어야 하겠다.

外国의 例에서 볼 때 異種施設과의 併設 혹은 複合을 볼 수가 있다 적극적으로 現実的 面에서 活用할 수 있는 可能性이 추구되어야 하겠다.

5) 配置計劃은 공원이나 기타 오픈 스페이스等의 정비를 基盤으로 하는 住居環境計劃과 連関性을 갖일 수 있어야 하겠다.

以上의 地域計劃的인 次元에서 各施設의 機能이나 性格이 既存 概念에 左右됨이 없이 또한, 特定한 종합적인 計劃가운데 具体化되어야 하겠다.

〈展　　望〉

以上의 記述에서와 같이 計劃的인 対応에 대한 問題点들을 나열하여 보았으나 結局, 그 根本에는 처음에서 말

한 바와 같이 施設供給의 理念및 制度上의 諸般 問題들이 施設向題令에 가로 놓여 있다.

特히 固定化에 依한 問題点은 直接的으로 그것을 関連되는 것으로 重要視되어야 하겠다.

거의 大部分의 施設研究가 그렇듯이 現実的인 側面을 前提로 하는 以上 研究自体나 解決策이 出発에서 부터 어떠한 限界性을 갖게 됨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으나 制度的인 問題 自体가 未整備된 状態로 因하여 施設計劃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겠다.

또한, 施設에 대한 実態의 解明이 반드시 直接的 으로 計劃的인 提案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안다.

建築計劃에서 従来 취급하여온 규모계획,配置計劃等도 現実的으로 制度的인 問題自体가 体系化되어 있지 않는 状態에서는 그렇게 有効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으로 안다.

結局, 必要한 것은 施設議劃이 地域의 綜合的인 計劃 가운데 位置되어야 할 것으로 알며, 그 具体的 提案이 追求되어야 하겠다.

児童에서 老人問題에 이르기까지 그것과 같은 綜合的인 施策에 대한 多面的인 追求 方向(Approach)이 検討되는 가운데서 施設의 役割이 기대 될 수 있을 것으로 안다.

끝으로, 施設이란 物的条件에만 편중하는 施策만이 반드시 有効하지 만은 아닌 것을 強調해 두고 싶다.

漢陽工大教授

建築計劃決定方法

3版出刊 発賣中

漢陽大教授·工博 金 眞 一 著

책의 편집방향

1. 計劃各論의 要点과 기타 設計情報의 연결
2. 決定過程에 필요한 資料의 分析能力
3. 創意的인 문제해결과 절충能力
4. 선택을 위한 判斷能力과 価値観의 확립
5. 計劃에서 企劃으로 참여하는 能力

普成文化社発行 73-7244 74-4292

新菊版·洋装·386面 값 3,500원

風水地理說과 建築計劃

風水地理에 依한 過去建築

朴 時 翼

1 意 義

1－1. 風水地理와 建築과의 關係

風水地理의 本質이 天地의 生気를 땅에 의하여 받아서 人生의 幸福을 영위코져 하는 것임으로 地中에 葬한 死者에게나 地上에 거주하는 生人에게도 地気의 影響이 큰것은 동일하다.

다만 葬者는 地中에서 不動하나 生人은 地上에서 活動하는 차이에 의하여 生活上 필요한 여건이 葬者에 비하여 한층 더 追加된 것이라 할 수 있어서 地気를 重要視하는 것은 모두 같다.

風水에서는 死者의 住所를 陰宅이라 하고 地上에 居住하는 生人의 居住地를 陽基라고 말하며 陰宅과 비교하여 쓰고 있다. 따라서, 陽基는 크게는 一国家를 말할 수도 있으며 한 都市 또는 邑 그리고 一家의 住宅을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陽宅이라 하지않고 陽基라고 한것도 陽宅이 生人의 住宅만을 말함에 비하여 陽基라고 하면 住宅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使用에 필요한 각종 건물도 모두 包含한 큰 範囲의 뜻을 말한다. 따라서 陽基라고 하면生活人의 터전을 말하게 되며 작게는 一個人의 집터도 될 수 있고 여러 住宅이 있는 部落 또는 市, 郡을 뜻할때도 있다.

따라서 陽基는 그 規模에 따라 大別하여 個人의 집터인 個人 陽基와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集団陽基로 区別되고 集団陽基에는그 規模에 따라 一国, 道, 郡, 市, 邑, 및 部落等으로 나눌 수 있다.

風水 및 陰陽五行에 의하면 萬物은 陽과 陰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의하면 建物 或은 住宅도 "陽"이되고 "火"가 되는 것으로 풀이한다. 이것은 住宅이나 建物이 그目的上 사람이 비나 추위로부터 保護를 받는 것에 큰 比重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이 建物을 세우는 것은 그 建物을 一般的인 生活上의 必要로부터 세우게되나 이 建物은 地上에 새로운 한개의 "陽"을 만든 結果가 되며 이것으로 인하여 建物外的으로 発生되는 自然속의 새로운 運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風水地理에서는 더욱 重要視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建物로 인한 陰陽의 変化는 그 建物이 서는 땅의 風水的 性格에 따라 그 変化의 性質과 크기를 달리하게 된다. 이러한 例로 新羅는 黃龍寺 九層塔을 세워서 이로 인하여 国家를 外的으로부터 防禦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高麗때는 도참설에 따라 많은 궁궐을 지었으며 그로 인하여 国家의 태평과 발전을 祈願하였고 李太祖는 開城을 버리고 漢陽에 도읍터를 잡은 것도 모두 建物外的 変化 즉 風水的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風水에서는 自然과 人間을 物質과 生物과의 関係로보는것이 아니고 自然 즉 山野 및 水가 모두 生動하며 사람에게 影響을 주는 것은 마치 이들 自然은 巨大한 힘을 갖은 사람 以上의 生物로서 이 自然에 따라 사람의 運命도 左右하게 된다고 믿어 建物보다도 自然을 중요시하고 사람보다도 自然을 무섭게 여겼다.

이와같이 風水的으로는 한개의 建物도 無生命한 것으로서 이것이 단지 사람의 必要에만 応하는 消極的 物體로보는것 보다는 오히려 한 建物이 陽또는 陰으로서自然이나 人間等과 서로 다른 것이 아니며 이들은 모두 같은 生命體로서 한 空間을 이루는 合同體로서 認識하게 된다. 따라서 建物은 사람을 위하는 目的은 즉 自然을 위하는 目的이며 또 自然이나 建物이 区別이 없고 自然과 人間에 차이가 없는 모두 同一한 生命으로 認定한다.

1－2. 居住地의 選定基準

陽基로서 適合한 땅은 그 形勢가 陰陽이 沖和하고 五行이 生気를 충만한 곳을 吉地로 하여 藏風, 得水, 四砂, 方位 등도 陰宅에서와 같다. 그러나 規模上 陰宅은 좁은 산속에서도 가능하나 陽基는 生活에 필요한 資料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많은 사람이 모

여서 살기 위한 곳으로는 넓은 장소가 좋게 된다. 따라서 한 두개의 건물에만은 매우 좋은 땅이더라도 大地로서는 부적합한 것은 당연하다.

또한 陰宅에 있어서 그 周囲의 形勢를 重視하듯이 陽基에서도 地上의 形勢를 重視함은 그 周囲의 気가 직접적으로 陽基에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例로 高麗의 国都 開城은 칼날을 세워논 형상을 한 서울의 三角山때문에 滅亡했다고 하며 平壤은 行丹形이어서 市内에서는 우물을 파는 것을 禁했다고 하며 서울은 舞鶴의 形이어서 宮城을 지을때 鶴의 날개를 먼저 눌러서 鶴이 날아가지 못하게 한후 궁궐을 세웠다는 이야기와 같이 陽基에서도 그 類形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李重煥이 지은 択里志에서 살터를 구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을 본다.

가. 대지 : 살터를 잡는데에는 첫째 地理(땅, 山, 江, 바다등에 대한 形而上学的인 이치)가 좋아야 하고 다음 生利(그 땅에서 生産되는 物質的인 利益)가 좋아야 하며 다음 人心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네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그런데 地理는 비록 좋아도 生利가 모자라면 오래 살 곳이 못되고 生利는 비록 좋더라도 地理가 나쁘면 또한 오래살곳이 못된다. 地理와 生利가 함께 좋으나 인심이 착하지 않으면 반듯이 後回할 일이 있게되고 가까운 곳에 逍風할만한 山水가 없으면 情緒를 和暢하게 하지 못한다.

나. 地理 : 어떻게 地理를 論하는가? 먼저 水口를 보고 다음 들의 形勢를 본다. 다음에 산의 모양을 보고 다음에는 흙의 빛갈을 다음은 朝水를 본다. 무릇 水口가 엉성하고 널다랗기만 하면 비록 좋은밭 만이랑과 넓은 집 천간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까지내려가지못하고저절로 흩어져 없어진다. 그러므로 집터를 잡으려면 반드시水口가 꼭 닫힌듯하고 그안에 들이 펼쳐진 곳을 눈여겨 보아서 구할 것이다. 그러나 산중에서는 水口가 닫힌 곳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들판에서는 水口가 굳게 닫힌 곳이 어려우니 반드시 겨슬러 흘러드는 물이 있어야 한다. 높은 산이나 그늘진 언덕이나 逆으로 흘러드는 물이 힘있게 版局을 가로 막았으면 좋은 곳이 된다. 막은 것이 한 겹이라도 진실로 좋지마는 세겹, 다섯겹이면 더욱 크게 좋다. 이런 곳이라야 完全하게 오랜 세대를 이어나갈터가 된다.

무릇 사람은 陽明한 기운을 받아서 태어났는바 하늘은 양명한 빛이니 하늘이 조금만 보이는 곳에는 결코 살곳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들이 넓을수록 터는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해와 달과 별 빛이 恒常 환하게 비치고 바람과 비와 차고 더운 気候가 고르게 알맞은 곳이면 人才가 많이 나고 또 病도 적다. 사방 산이 높아서 해가 늦게 돋으면서 일찍 빠지고 밤에는 혹 北斗星이 보이지 않는 곳은 가장 꺼리는 곳이다. 이런곳은 양명한 빛이 적고 陰冷한 기운이 쉽게 侵入하여 或 雜鬼가 모여들기도 한다. 또 朝夕으로 산안개와 気가 사람을 병들게 하기 쉽다. 이 때문에 산골에 사는 것이 들에 사는것 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큰 들판에 낮은 산이 둘린것은 산이라 하지 않고 모두 들이라 한다. 그것은 하늘빛이 막히지 아니하고 水気도 멀리 통하기 때문이다. 높은 산중이라도 들이 펼쳐진 곳이라야 바야흐로 터가 된다.

무릇 산모양은 祖宗되는 산은 다락집이 치솟은 形勢라야 좋다는 堪輿家의 말이있다. 主山이 秀麗하고 端正하고 清明하고 아담한 것이 上이다. 뒤에서 내려오는 山脈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돌을건너다가 갑자기 높고 큰 봉우리로 솟아나고 支脈이 감싸돌면서 골짜(洞府)을 만들어 宮内에들어온듯한 気分이 나며 주산의 形勢가 穏重하고 豊大하여 겹집이나 높은 궁전같은 것이 다음이다. 사방 산이 멀리 있어서 平垣하고 넓으며 山脈이 平地에 뻗어 내렸다가 물가에 그쳐서 들판터를만든것이 또 그다음이다.

가장 꺼려는 것은 산의 来脈이 약하고 둔하면서 생생한 気色이 없거나 혹 산모양이 부서지고 비뚤어져서 길한 기운이 적은 곳이다. 땅에 생생한 빛과 吉한 기운이 없으면 人才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산모양을 살피지 아니할 수 없다.

다 土質 : 무릇 시골살이는 물복판이나 물가를 가릴것없이 土質이 砂土로서 굳고 촘촘하면 우물물도 맑고 차다. 이와같은 곳이면 살한만 곳이다. 만약 붉은 찰흙과 검은 자갈이던지 또는 누런 진흙이면 이것은 죽은 흙이다. 그 땅에서 나는 우물물에는 반듯이 장기가 있는데 이와 같아서는 살만한 곳이 못된다.

라. 水 : 무릇 물이 없는 곳은 사람이 살곳이 못된다. 산에는 반듯이 물이 있어야 한다. 물과 짝한 다음이라야 바야흐로 生成하는 妙함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은 반듯이 흘러오고 흘러감이 地理에 合当한 다음이라야 비로서 精気를 모아 기르게 된다. 물은 財禄을 맡은 것이므로 큰 물가에 富裕한 집과 유명한 마을이 많다. 비록 산중이라도 또한 시내와 澗水 물이 모이는 곳이라야 여러대를 이어가며 오랫동안 살수 있는 터가된다. 朝水라는 것은 물너머의 물을 말하는 것이다. 작은 냇물은 역으로 흘러드는 것이吉하다. 기름진곳이 제일이고 배와 수레와 사람와 사람과 물자가 모여 들어서 있는 것없는 것을 서로 바꿀수 있는 곳이 그다음이다.

. 라. 人心 : 孔子께서「마을 人心이 착한 곳이 좋다. 착한 곳을 가려서 살지 아니하면 어찌 智慧롭다 하랴」하시었다. 또 옛적에 孟子의 어머님이 세 번이나 집을 옮긴것도 아들의 教育을 위한 것 이었다. 옮은 풍속을 가리지 아니하면 다만 自身에게만 해로울뿐 아니라 子孫들도 반듯이 나쁜 물이 들어서 그르치게 될 근심이 있다. 그러므로 살터를 잡음에 있어서 그 地方의 풍속을 살피지 않

을 수 없다.

우리나라 八道中에 평안도는 인심이 醇厚하기가 첫째이고 다음은 慶尙道로서 風俗이 真実하다. 함경도는 地域이 오랑캐 땅과 잇닿 았으므로 백성의 성질이 모두 굳세고 사나우며 黃海道는 山水가 험한 까닭에 백성이 사납고 모질다. 江原道는 산골백성이어서 많이 어리석고 전라도는 오로지 간사함을 숭상하여 나쁜데에 쉽게 움직인다. 경기도는 都城밖의 들판 고을은 백성의 재물이 보잘것 없고 오로지 勢道와 財利에만 쫓는데 이것이 八道人心의 大略이다. …… 택리리

p. 176

以上에서 말한바와 같이 각요소는 生人에 必要로 하는 條件들이나 陰宅에 있어서도 빼어 놓을 수 없는 要素등이다.

이와같이 各条件들이 個人陽基 및 集団陽基에 기본이됨을 알수 있다.

2. 住宅과 風水

2－1. 鄭苦鏞의 卜居編

風水에 立脚한 住宅의 垈地의 条件은 앞節에서 말한바와 같다. 그리고 風水信仰은 地気의 生死 및 吉凶을 観察하여 이에 의하여 幸福을 받고져함에 있기 때문에 陰宅에서 뿐만 아니라 生人의 住宅을 짓는데에도 그 터를 고르는 것부터 始作하여 大門, 변소 등등을 配置함에 있어서나 심지어 花草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吉凶을 陰陽論에 立脚하여 따질 정도로 風水를 중요시 하였다.

住宅으로서의 吉地를 略論한다면 그것은 天地의 精気가 貯積되어 生気를 発하는 곳으로 바람과 햇빛이 밝고 따뜻하여야 하며 물(水)이 충족하고 깨끗하고 맛이 좋아 草木과 異獣가 잘살 수 있는 곳이고 사람의 生活이 発達伸張케 하여 주는 形象을 갖춘 땅이어야 한다.

以上에서 열거한 것은 이미 앞 節에서 論한바 있다.

陰宅에서는 地中의 生気를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시 하나 住宅에서는 生人이 地下의 生気를 직접 탈수 없기 때문에 地上의 類形에 더 比重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生人이 日常 이를 바라보게 되고 接触하게 되는 機会가많아서 이 類形의 影響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地中의 生気를 찾는 어려움보다는 地上의 주위의 상태를 一般的인 常識으로도 判別할 수 있기 때문에 風水에 専門的인 조예가 깊은 風水師의 수고를 끼치지 않아도 되었다.

또한 地上의 類形을 중요시하는 사상은 住宅의 平面的形態도 "日""月""用""吉"字形等으로 하여 반가운 文字形을 받으면 하늘에 福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반대로"亡"字形은 피하였다.

이와같이 吉地는 장차 発展할 수 있는 吉形을 重要하게 여겼다. 用字는 日字月字의合字로 보아 이것을 吉形으로 보고 이 이외에「多」「也」「乃」字等도「多」는「多」祥을,「也」는 有終을 그리고「乃」는「乃」字 즉 生産을 의미하는 까닭으로 陽宅에서나 陰宅에서도 吉形으로 본다.

李朝末期의 住宅에 관한 風水 및 俗信에 대하여 鄭苦鏞의 山林経済 第一卜居編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卜居総論

대저 一区를 建築코저할때 者는 경솔하게 자리를 정하지 말며 반듯이 먼저 風気의 蔵聚, 面背의 安穏을 審択하여 永久한 計劃을 하여야 한다.

(2) 地勢論

(가) 우선 地勢를 観察하여야 하며 水陸이 함께 있는 곳이 가장 좋다. 따라서 山을 등지고 湖를 面하고 있음이 좋고 그 勢가 寬大할 것이며 또 緊束하면 財利가 모이게 된다.

(나) 龍이 가까이 머리를 바로하고 있는 곳은 吉하며 手脚을 벌려 받아 들이는 形이면 더욱 좋다.

(다) 建物이 平衡을 이루고 左右가 좁지 않고 明堂이 넓고 흙이 윤기가 있고 샘(泉)달며(甘)光沢과 陽基가 있고 竹木이 울창하여 그気가 旺盛하면 吉하고 만약 흙이 乾燥하고 윤택하지 않으면 凶하다.

(라) 陽居가 一山一水하여 有情하여도 그 局이 적으면 吉함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局이 大勢大形이면 富貴가 크고 오래간다.

(마) 큰산(大山)에 기대어 집을 지으면 沙汰가 나기 쉽고 江海에 가까우면 水災를 받게 된다. 또 물이 나쁘면 風土病을 앓게 되고 猛獣나 盜賊이 出没하는 곳은 피하여야 하며 시끄러운 곳도 좋지 못 하다.

(바) 地形이 평탄하고 끝없이 넓은 곳이라도 조금 높은곳(단 1尺이라도)이 좋다.

(사) 山谷에 있는 陽気는 平地에 山이 사방을 감싸주어야 하고 움푹 파여진 곳이 없어야 하며 水口가 단단하고 明堂이 넓고 개천을 끼고 있고 渓谷에 의지한 곳이 좋다. 平地가 좁고 四山이 높으면 이곳은 피하여야 한다. 山谷의 陽基는 바람을 모이게 하는 곳이 吉하고 함부로 땅을 파서 넓히려고 함은 気脉을損傷케 한다.

(3) 宅址論

(가) 宅地는 東高西低하면 生気가 融盛하고 西高東低하면 富豪가 되지 않고 前高後低하면 門戸敗絶하고 後高前低하면 牛馬가많아지고 큰 人物이 난다. 四面이 높고 中央이 낮으면 앞에는 좋으나 뒤에

는 가난하게 된다.
平垣하면 大吉이다.

(나) 宅址는 卯酉나 子午에 있으면 大凶이다. 南北이 길고 東西가 좁으면 좋고 東西가 길고 南北이 좁으면 初凶하고 後吉하다. 右長 左短하면 富하다. 左長右短하면 子孫小하고 前濶하고 後狹하면 貧하다. 前狹하고 後濶하면 富貴.

(다) 住宅의 左에 흐르는 물을 青龍 右에 흐르는것을 白虎라 하고 앞에 汚池가 있는 것을 走雀이라하고 뒤에 丘陵이 있음을 玄武라 불러 이러한곳을 貴地가 된다.

(라) 住宅이 궁궐이나 신선이 사는 곳의 옆에 위치하면 主人이 寿를 더하게 되고 人安하고 物資가 豊富하며 神前, 仏寺, 吉獄, 戰場, 祭丘, 廃址, 油房, 石斷, 衙水, 道門, 서낭당의 근처에는 좋지 않다.

(4) 水 論

(가) 물은 넓고 悠悠하여 나를 돌보고 머물러야 하고 고여서 뒤로 빠지지 않고 첩첩한 水田은 海潮를 이기고 또 背後를 감싸주는 것이 좋다. 만약 물이 등을 찌르고 옆구리를 쏘거나 팔을 뚫거나 앞으로 오거나 빠지는 것 등은 凶하다.

(5) 砂 論

住宅의 左右前의 砂가 단정하고 부드러우면 科挙에 及第하고巽辛向에 卓筆形이 보이면 文貴하다. 堆甲屯軍形은 武貴하고 머리가 기울고 비끼면 盜賊이 되고 一山이 孤曜하면 僧道가 되고 燥火 疫은 火災를 당하고 掃蕩은 爭訟한다.

(6) 風 論

子風이 들어오면 子孫이 물에 빠지고 発風이면 男女가 淫慾하며 丑風은 軍에 들어가 落伍되고 艮風은 교질병을 얻게되고 寅風은 호랑이에게 傷害되고 甲卯風은 道路에서 死亡하고 乙風은 子孫이 青育하고 辰巽風은 主人이 頭風하고 巳丙風은 蛇傷하고 午丁風은 水穴하고 未風은 폐병에 걸리고 坤風은 公訟을 申庚風은 敗家 辛風은 苦生하고 戌乾風은 교질병, 亥壬風은 貧賤하다.

(7) 造屋論

(가) 家舍의 크기는 人数의 半을 계산하여 그집의 間数로 한다. 많아도 二十四間을 넘을 수 없다. (一間은 約一坪半) 집이 너무 크면 不吉하고 작은 집은 人吉하다.

(나) 집은 너무 高明하면 나쁘고 多陽盛하면 마음을 상한다. (너무 밝으면 발을 내리고 어두우면 이것을 접는다.)

(다) 집의 形이 "日""月""口""吉"의 字와 같으면 좋고 "工""戸"形은 不吉하다.

(라) 造屋의 間数는 반드시 単数를 써야 吉하고 기둥의 尺数및 서까래의 数도 모두 単数가 되도록 한다.

(마) 세우는 순서는 住房을 맨처음에 그리고 마루 다음에 그 이외의 방들을 세우고 집이 끝난 후에 大門을 세운다. 大略 안에서 부터 밖으로 지어나간다.

(바) 변소 厠室)은 집의 内外에 각 한개씩 설치하고 밝고 깨끗하여야 하고 매일매일 糞尿를 내보내야 한다. 여름에는 蕎茶를 한주먹가량 뿌려서 구더기를 방지한다.

(사) 灰室은 西方(西方)이 좋고 변소옆에 있어야 좋다. 또한 바람을 피하는 곳이어야 한다.

(7) 造門論

(가) 봄에는 東, 여름에 南, 가을에 西, 겨울에 北門을 지어서는 않된다.

(나) 집에 비하여 門이 작으면 吉하고 문이 크면凶하고 大門과 中門이 마주 있으면 나쁘다.

(다) 집의 정면으로 大門이 있으면 不吉하고 길모퉁이에 있는것도 凶하다.

(8) 우물과 부엌論(井竈)

(가) 우물의 위치는 本山의 生旺한 方向에 두어야 吉하다. 가령 本山이 金体일 경우 西쪽에 木体이면 東쪽이 좋다)

(나) 우물은 建物의 前後 房앞은 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물과 부엌은 서로 보이지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主人 男女가 陰乱해 진다. 우물판흙으로 부엌을 지어서는 안되고 부엌의 흙으로 우물을 메우면 벙어리나 장님이 난다.

(다) 五月辰日에 돼지머리로 부엌에 察祝지내면 財産이 萬倍하고 四月 丁巳日에 察지내면 財産이 百倍, 正月巳丑日에 白鷄로 察지내면 누에가 잘자라나 여자가 察지내면 不祥이다.

(라) 개(太)로 察지내면 凶敗한다.

(마) 부엌의 위치는 東南向이 吉하고 東北은 凶하다.

(9) 宅木論

(가) 住宅안에 심는 나무는 소나무와 대나무(松竹)가 좋다. 松竹이 울창하면 生気가 旺하고 俗気가 없어진다. 또 陽居에는 陰한것이 陰居에는 陽한것이 서로 陰陽의 相和를 이루워 吉하다.

(나) 정원의 가운데 나무를 심으면 "困"字가 되어 不吉하다.

(다) 果樹가 무성하여 住宅의 左右에 기대어 있음은 피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主人이 병든다. 그리고 큰나무의 가지가 집이나 門에 닿는 것도 不吉하다.

(라) 집 가까이 가운데 오래된 나무는 피한다.

(마) 나무뿌리가 집처마밑을 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바) 집가까이 무궁화나 단풍을 심지 말라. 일반적으로 中庭에는 植樹하지 않고 꽃을 栽培하는 것은

좋다.

(10) 五虛, 五実論

住宅에 五虛가 있으면 凶하고 五実하면 富貴한다.

(가) 五 虛

1. 집이 크고 사람수가 적은것.
2. 문이 크고 집이 작은것
3. 담장이 완전하지 못한것
4. 우물과 부엌의 위치가 나쁜것
5. 마당이 건물에 비하여 너무 넓은것

(나) 五 実

1. 집이 작고 사람이 많은 것
2. 집이 크고 문이 작은것
3. 담장이 완전한것
4. 집이 작고 가축이 많은것
5. 물이 東南으로 흐르는것

2－2. 家相에 관한 諸理論

한 가정 혹은 그 가정의 一員이 運勢가 그들이 居住하고 있는 住宅의 風水地理 및 陰陽五行説에 의하여 吉凶이 고정되어 집이 마치 観相, 手相, 骨相, 足相 等과 같이 運命的인 뜻으로 家相이란 말이 최근에 쓰여지고 있다.

이 家相이란 말은 本来 韓国 古有의 말이 아니고 李祖朝末基에도 使用되지 않았음은 村山智順이 昭和六年에 쓴 "朝鮮의 風水"라는 題目의 朝鮮民間信仰調査資料 第三十一輯에 "家相"이란 文句는 전혀 記録되어 있지 않고 오직 「住宅의 風水」라고만 쓰여진 것으로 보아 日帝時代 以後부터 使用되어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家相은 先祖의 墓가 後孫에 影響을 주는 것과 같은 뜻에서 단지 住宅의 風水라고 해도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오늘날 住宅의 風水(家相)에 대하여 저술되어 있는 冊으로는 三巻이 있다. (1978. 7 現在)

즉 1. 家相의 科学 金瑞京編著 玄岩社刊
2. 家相学入門 金泰樹著 明文堂刊
3. 明堂論全集 張龍得著 発丸文化社刊

以上의 三巻의 内容중에 特色을 살피면 아래와 같다.

(1) 家相의 科学

이 冊의 内容은 주로 앞에서 말한 鄭苦鏞의 山林経済第一卜居編에 수록되어 있는 内容과 大同小異하다. 즉 건축(여기서는 住宅)에 있어서 一般常識的이라고 할 수 있는것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가) 大門앞에 큰 나무가 섰으면 凶(43페이지)

(나) 집터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집이 吉(56페이지)

(다) 裏室이 大門과 一直線上에 있으면 凶(121페이지) 等이다.

以上과 같은 内容은 住宅이나 建築에 専門的인 知識이 없는 一般人에게는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진다. 그러나 이 冊의 附録篇의「알기쉬운 家相判断法」에서는 凶事가 일어났던 住宅의 平面図와 그러한 住宅에서는 不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当然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例컨대 "一家가 没死한집"(페이지333) 또는 "青年두명이 죽은집" 等으로 이러한 집이 家相으로 볼때 不幸을 초래케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은 一般 建築専門家가 보더라도 집이 몹시 오래되었고 計画없이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構造的으로나 機能的 또한 美的으로도 좋은 점이 없어서 常識的으로도 좋지 않은 집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와 똑같은 집에서 모두 이와같은 不幸한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冊에 附録된 実例는 一般的인 妥当性이 貧困하다고 생각된다.

(2) 家相学入門

이 冊의 内容은 앞에 설명한 "家相의 科学"과 흡사한 점이 있으나(家相의 科学中의 附録編의 著者가 바로 이 家相入門의 著者임)"家相의 科学"中에 있는 実例와 같은 것은 실리지 않아서 오히려 좀더 次元 높은 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陰陽五行의 理論을 応用함이 지나치게 많은듯 한 감이 있어 一般人이 "家相의 科学"보다는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뿐만아니라 저자의 家相理論의 主와 従을 区別하지 못하게 그 内容이 서로 얽어져 있고 한 대목에서도 前後가 서로 맞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例컨대 住宅에 있어서 大門의 위치에 관하여 쓰여진 것을 보면 첫째 이 冊 118페이지 巽章 門편에

「……따라서 各種 門은 門 自體만의 方立도 중요하지만 宅向과 関聯시킨 方立와 方向이 훨씬 더 중요하다.筆者가 方位本位인 八宅家相術을 不信하고 方向본위로 門을 따지는 奇門遁甲家相術을 대체로 準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여 八宅家相術을 不信한다고 지적한 것에 反하여 同冊 120페이지에는「…… 大門은 建築上 道路에 따라 그 위치와 方向이 制限을 받게 마련이지만 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八宅家相術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門位를 吉方門으로 参考하기 바란다.

居室의 집터의 中心에서 보아 北, 南, 東, 南東方에 있으면 위의 방위중 어느 한 方位에 大門이 있으면 吉하다.

居室이 집터의 중심에서 보아 北東, 南西, 北西, 西方에 있으면 위의 방위중 어느한 방위에 大門이 있는 것이 吉하다. 이것은 韓屋인 경우 더 잘맞는다」라고 하여 韓屋인 경우에 더 잘맞는다고 하여 八宅家相術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하였으니 118페이지에서는 不信한다 하였고 120페이지에 잘맞으니 참고하라고 하여 서로 맞지 않는다.

3. 都市와 風水

3－1 鎮 山

대부분의 都市(또는 郡, 邑, 面)는 그 뒷편에 山을 갖고 있는 平地에다 그 터를 잡고 있다. 이 때의 이 뒷산을 그 陽基의 鎮山이라고 부른다. 이 鎮山은 陽基를 鎮護하는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붙이게 되었다. 이 鎮山은 神은 上方에 存在한다는 観念으로부터 그 神에

의하여 生活의 安居를 保護받고져 하는 信仰心의 일부라 할수 있다. 그러나 鎭山이없는 곳에서는 老樹의木神에 의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信仰心이 風水와도 결합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즉 땅의 生氣가 흐르고 그 生氣가 모이는 곳에서 生活의 幸福을 누리고져하는 風水的인 곳은 바로 來龍이 있어야 하며 이 來龍은 山으로 부터 나오게 되기 때문에 좋은 鎭山은 바로 좋은 生氣를 주게 되기 때문에 이鎭山에 의하여 集団陽氣의 터를 삼게되었다. 이와같이 風水理論에 立脚하여 都邑의 터를 잡게된 까닭으로 都邑地는 風水에서 重要視하는 藏風得水 또는 靑龍, 白虎, 朱雀, 玄武, 四砂 및 朝案等과 또 그의 形勢등에 세심한 관찰을 요하게 된다.

3－2. 類形 信仰

都市 또는 邑은 風水的으로도 集団陽基에 속하고 이 陽基는 陰宅과 같이 風水의 原則에서 벗어나지 않고있어 藏風, 得水 等을 빼놓고서는 이루워질 수 없다. 또한 集団陽基로서의 터도 穴인 점에서는 陰宅과 같으나陽基의 穴은 陰宅보다도 넓어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수있다.

그러나 陰宅은 葬者가 地中에 흐르는 生氣를 직접 몸에 받는 것에 반하여 陽宅은 生氣있는 땅위에 집을 짓고 살아 地中의 生氣를 間接的으로 받고 그 반면에 地上의 周囲의 形勢의 影響을 直接的으로 받게되어 類形을 받게되어 類形을 重視하게 된다.

즉 形勢의 善悪順逆은 同気感応하게 되어 生人에게 그 影響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하고 있어 陰陽五行의 根本観念뿐만 아니라 그 形勢의 類形 類物에 의하여 陰陽의 調和, 五行의 相生相克을 説明하게 되고 따라서 그곳에 사는 사람의 吉凶을 予測하여 이에 대비케 하게한다. 이와같이 類形을 重視하는 정도가 깊어져서 마치 類形類物信仰과 같이 尊重되었다. 이러한 実例로 앞에서 말한것과 같이 開城은 서울의 三角山이 칼날을 세워놓은 것과 같은 形을 이루어 開城의 남쪽에서 바라다 보여 이로 인해 開城이 亡했다고 하며 평양은 行舟形이어서 市内에 우물파는 것을 금했다고도 한다.

3－3. 都邑地

風水地理的으로 都市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를 判別하는 基準은 앞에서 말한바 있으나 略述하면 다음의 六項目을 들을 수 있다.

가. 水口：水口가 넓고 벌어져 있으면 아무리 큰 富者라도 그 財産을 伝世할 수 없고 自然히 消散耗敗하게 된다. 따라서 水口는 바로 빠지지 않고 막힌듯한 山사이로 흘러 나가는 곳이 좋다.

나. 野勢：물관은 넓어야 좋고 하늘의 陽明한 気가 충만하고 日月과 星辰의 光이 항상 빛나게 비춰주는 곳이 좋으며 気候가 급히 변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만약 주위의 四山이 높아서 해가 솟음이 늦고 저녁에 해짐이 빠르면 또한 밤에 北斗의 霊光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반듯이 病을 얻게 된다

다. 山形：山形은 主山이 秀麗端正하고 清明하여야 하고 그 来龍이 生気있게 活動하는 듯 하고四山은 벌려 물러서서 감싸고 있어야 한다. 만약 来龍이 弱하고 회미하면 이곳은 生気가 없는 곳이다.

라. 土色：땅의 색깔이 生色이면 吉気하여 人才가 多出하나 반면에 찰흙 혹은 자갈이 많은 땅에는 井泉이 좋지 않아 잘 살수 없다.

마. 水理：山은 반듯이 물이 있어야 生気가 나타난다. 이와같이 陽基도 물이 있으면 財祿이 따르게 되어 물가에는 富厚한 집들이 서게 되고 山中에서도 서냇물을 끼고 있는 洞里가 모여 살기에 좋다.

六. 朝山朝水：주변 산이 단정하지 못하고 모양이 어지럽거나 놀라서 날뛰는 듯한 곳에는 살곳이 못되며 물은 小川小溪는 逆한것이 吉하나 大川大江은 逆해서는 안된다.

이상에 열거한 六項目은 陽宅에서 뿐만 아니라 陰宅에서도 결코 빼어 놓을 수 없는 条件들이다.

4. 서울의 風水地理

4－1. 서울의 歷史

歷史에 의하면 現在의 서울이 都邑地로 된 것은 매우 오래 전부터이다. 즉 三国時代 百済의 始祖 温祚王이 国을 建하여 河南의 慰礼에 都邑을 하였다. (BC 18年) 즉 그는 高句麗의 東明 聖王이 두려워 그의 兄沸流와 그의 臣下를 거느리고 南行하여 지금의 漢江의 北쪽에 都邑을 定하고 慰礼城이라 한것으로부터 서울의 歷史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후 百済 二十代 蓋鹵王이 高句麗로부터 攻撃을 받아 그 都邑을 南쪽 熊津(現公州)로 옮기기 전까지 약 百二十여년을 지금의 서울에서 都邑한 것이 王都로된 最初이다. 그후 高麗의 中葉에는 서울의 南山(당시에 木覓山)에 宮을 지어 南京으로 하여 開城(당시 松兵)을 中京으로 삼고 平壤을 西京으로 하였으며 高麗末葉에는 이곳으로 遷都의 의견이 조정에서 있었다. 그후 李朝太祖가 등극하여 開城에서 즉위한 직후에 無学의 주장을 받아들여 遷都를 결심하였다. 처음에는 鷄龍山으로 国都를 삼으려 하였으나 漢陽으로 변경하여 白岳의 南쪽에 궁궐을(지금의 景福宮)세우고 즉위 三年 十月一日 官을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후 定宗때 一時 開城으로 遷都하였지만 太宗 五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六百여년간 国都로 되어져 왔다.

4－2. 도선의 地理説과 高麗肅完의 遷都計劃

도선의 姓은 金氏인데 新羅 第四十二代 興德王二年(AD 827年)에 金羅南道 靈岩에서 出生하여 十五歲에 出家하였고 二十歲頃에 惠徹大師에게 学業을 닦은후 그 名声이 四方에 들렸고 第五十二代 孝孝王二年(AD 892年)에 七十二歲로 入寂하였다.

도선은 陰陽地現説의 完師로 스스로 믿으며 高麗太祖의 出生을 予言하였고 또 米生君子를 위하여 一卷의 秘書를 편찬하여 王에게 献上하였다고 하며 歷大君王과 民衆은 그를 信奉하였다 한다. 高麗 第八代 顯完은 도선에게 大禪師라는 諡号를 贈하였고 第十五代 肅宗은 王師의 号를 加하였고 第二十七代 仁完은 다시 先覚国師로 追封하였으며 第十八代 毅宗은 入寂地인 全羅道 白漢山 玉龍寺에 碑를 建立하였다. 이리하여 도선의 秘説은 널리 世上에 流布되여 当時 人心을 움직였다. 各 君王 이 서울 巡幸과 麗朝末期에 遷都 計劃도 또한 도선 国師의 説에 움직임이 더 크다고 하겠다.

第十五代 肅宗元年 夏六月(AD 1096年)에 衛尉承同正 金謂磾은 도선秘記를 根拠로 하여 새로히 都城을 南京(漢陽)에 造営하고 遷都하기를 請하였다. 즉「道詵記에 보면 高麗에 三京이 있으니 松京(開城)을 中京 木覓壤(서울)은 南京 平壤은 西京인지데 十一, 十二, 正月은 中京에 住하고 三四五六月은 南京에 住하고 七八九十月은 西京에 住한즉 三十六国이 来朝하고 또 開国後 百六十四年은 木覓城에 都한다」하였으니 지금 이때가 正히 新京에 住할 時期라 現国内에 中京과 南京은 있으되 南京이 빠졌으니 三角山南과 木覓北에 都城을 建立하고 時를 따라 巡駐하자는 것이다.

王은 이말을 믿고 四年 秋九月에 宰臣과 日官等에게 命하야 楊州에 南京을 세울것을 議論하게 하고 同月 二十八日에 王이 親히 王妃와 元子및 三角山에 幸行하여 常惠寺와 僧伽密을 経하여 州(現 서울)에 이르러 宅都의 地를 占하고 後에 仁慈寺와 補穴寺를 経하여 十月 十五日 還宮하였다. 慈 慈

4－3. 李太祖의 登極

李太祖 李成桂는 高麗王氏의 後를 継承하여 西紀一三九四年 七月十七日에 開城壽昌宮에서 即位하여 国号를 朝鮮이라 하였다.

李太祖는 国都를 옮김으로써 人心을 一新하고 邦家萬代의 基礎를 確立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太祖 即立 元年 八月에 먼저 国都를 物色하기 위하여 同月 十五日에 三司 右僕射李恬을 漢陽에 遣하여 宮室의 修葺를 命하였을때 마침 天候酉寒과 또 諸般準備가 未備하였음으로 이를 곧 中止하였다. 太祖는 그다음 權仲和를 全羅道에 보내어 国都를 特色하게 하였드니 翌年 正月二日에 權仲和는 吉地의 山水形勢図와 鷄龍山의 都邑地図를 올리니 太祖는 同十八日에 親히 그 地域을 調査하기 위해서 開城을 出発하여 二十一日에 檜巖寺에 이르러 王師自超(無学)의 同行을 求하여 鷄龍山으로 向하였다. 二月八日에 鷄龍山에 到着하여 이곳에 머무르며 地形을 調査하였고 同十三日에 太祖는 鷄龍山을 出発할때 商議門下附事金湊 知中枢朴永忠, 前密直崔文夕을 当地에 머물게하여 造営責任을 맡기었다. 同三月에 新都에 附属한 役徒等을 徵発하여 鷄龍山에 集合시키고 工事進을 꾀하였다.

4－4. 河崙과 漢陽城

元来 鷄龍山의 選定은 書雲観의 説을 依持하였었다. 그러나 当時 図讖説의 権威者로서 알려진 京畿左右道 観察使 河崙은 自己의 所見을 堅持하여 이를 極力反対 하였다. 그 이유는 鷄龍山의 땅은 山은 乾하고 水는 巽方으로 흐르니 이는 宋朝胡舞申의 書에 이른바 水長生은 破局되어 衰敗에 들어 있음으로 이 地帯는 不吉하다는 理由였다.

李太祖는 말을 옳게여기고 다시 權仲和, 鄭道伝等에게 命하여 河崙説을 基礎로 高麗時代 諸山陵의 基幹을 調査하여 吉凶을 点検하였는데 事実上 河崙의 説이 符合하였다. 이리하여 急히 着手하였든 鷄龍山의 新都経営을 中止하고 다시 河崙의 主張에 依拠하여 漢陽附近에 択地를 命하였다. 그러나 漢陽을 調査하고 돌아온者中에는 이곳이 王都되기에 적합하나 明堂地의 地로서는 좁은 感이 있음을 啓上하였다. 그러나 河崙은 主張하기를 이곳이 오히려 開城이나 平壤에 比하여 넓어 王都로서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議論이 紛紛한 所以는 当時 風水地理学은 사람마다 所見을 各各 달리하는 까닭인데 秘録은 亦是 異同하여 正邪를 区別하기에 어려운 까닭이다. 따라서 太祖는 곧 親行하였으나 鄭道伝等은 遷都尚早論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太祖는 高麗가 亡하게 된것은 地徳이 衰한 原因이라고 더욱 遷都의 뜻을 堅固히 하였다. 그리하여 서울의 땅을 다시 친히 旧関의 基地와 山河의 形勢를 観望하니 이땅은 漕運의 便이 있고 里程이 均等하여 人馬의 便이 있음으로 太祖는 王都되기에 足하다 생각하고 먼저 判書雲観事 尹 莘達에게 그 意見을 下問하니 尹은 곧,

「我国境内에서 松岳이 第一이고 이곳은 그 다음이 오나 다못 恨하는 바는 乾方이 低下하여 水泉(明堂)이 枯渇합니다」하고 反対하니 太祖는 無学王師에게 또다시 그 意見을 물으니「이곳은 四面이 秀高하고 中央이 平衡하여 마땅히 都邑할만한 好適地입니다」하고 無学이 対答하니 太祖는 다시 諸臣을 돌아보고 이를 議論하라 하니 諸臣은 太祖의 뜻이 堅固한 것을 알고「반듯이 遷都하자면 이곳이 可合합니다」라고 答上하니 太祖는 기쁘게 생각하고 이곳 漢陽으로 新都를 定하였다.

4－5. 서울의 風水

서울은 東経 126°59分, 北韓 37°34分에 위치하여 北에 白岳(지금의 北岳) 南에 南山, 西에 仁王山, 東에 駱駝

山이 벌려서 있고 連山環擁하여 天成의 城廓을 이루었고 漢江의 물은 城밖에 東南一帶를 돌아서 山河 禁帶한 形勝地이다. 北方에는 三角山과 北岳의 두산이 있고 三角山은 그 높이가 636메타로 北漢山이라고도 불려 지는데 江原道의 分水嶺으로부터 出発한 脉이 楊州(現서울北쪽) 西南에 道峯山을 이루었고 그 餘脉이 突出하여 山脉을 이루워 白雲, 国望, 仁寿의 三峯을 구름위에 突出시켜 마치 연꽃과 같고 세개의 角을 이룬것으로 인하여 三角이라 이름하게 되었다. 国望峯은 萬景台라고도 하는데 이 산위에 오르면 萬景이 저절로 환하게 보이게 되기 때문이며 国望이라 부르게 된것은 일찍이 李太祖가 無学으로 하여금 国都를 터를 찾도록 할때 無学이 이곳에 올라서서 国都의 땅을 살펴보았다고 하여 国望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仁寿峰은 白雲의 東쪽에 있어서「仁者楽山」「仁者寿」라는 뜻에서 仁寿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北岳山은 높이 143m 三角山의 南쪽에 있어서 高麗時代에는 面岳이라 하였고 三角山 萬景台의 支脉이 突出하여 이 산을 이루워 마치 모란꽃이 장차 필려고 하는 상태라고 하며 서울의 鎭山이고 이 山거슭에 궁궐의 터를 앉히었다. 또 서울의 南쪽가까이에는 南山이 있어서 높이는 265m이고木覓(목멱)山이라고도 불리워졌었다. 이南山의 最高峰을 蚕頭라 하고 이 南山이 서울의 案山이 된다.

이와같이 서울의 터는 山과 水에 있어서 큰 明堂을 이루고 있음이 韓半島에서는 第一이며 東国輿地勝覧 에도「京都背負華山. 面対 漢水, 形勝甲天下」서울땅이 뒤에는 華山이 있고 앞에는 漢江이 있어서 그 形이 天下에 제일이다)라고 하여있다. 이와같이 서울은 風水的 으로 보아 国都로서 가장 適合하여 古来로 王朝를 세운자는 이곳을 한편 두려워 하게 되었고 한편 이곳의 主人이 되고자 하였다.

5－6. 서울의 風水伝說

서울(漢陽)의 風水에 관한 伝說은 無数히 많다. 이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면 아래와 같다.

(가) 도선의 秘記에「継王者李而都於漢陽」있어서 高麗時代부터 漢陽땅을 꺼리되어 이곳에 李樹를 심어 이것이 무성하여지면 代草하여 버리고 그 気를 없애는 일까지 하였다 한다. 이렇듯 漢陽땅은 李氏의 王都로 先天的으로 運命지어져 왔다고 한다.

서울의 地脉은 咸鏡道의 安辺 鉄嶺의 一脉이 南行 五六百里 楊州땅의 萬丈石峰의 道峰山이 되고 이로부터 南西쪽으로 向하여 내려가 三角山 白雲台를 만들었고 이로부터 또 南下하여 萬景台가 되고 그의 한가지가 다시 南下하여 白岳을 만들었다하고 風水上 木體来龍이고 貪狼星来龍이라 불려지고있다. 이것은 또 서울이 主山이 木星이기 때문에 李氏는 木星임으로 서울은 木星의 土이다 스럴 곳임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다.

(나) 아직 城廓의 位置를 計劃하지 못하고 궁궐만을 짓고 있던때 하루는 大雪이 내려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 눈이 一線을 긋고 있어서 宮의 안쪽은 눈이 녹아 있고 바깥쪽은 녹지않고 쌓여 있었다고 한다. 이에 太祖가 이를 보고 이는 반듯이 하늘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이 눈의 경계선을 따라서 城廓을 築城하였다 한다.

(다) 서울의 地勢가 東쪽과 南西쪽이 다른 쪽에 비하여 顕著하게 弱하다. 따라서 城壁도 西方과 南西쪽이 약하였다. 이것은 地勢에 따라 城廓을 쌓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漢陽이 東쪽의 日本에게 壬辰乱을 만나게 되었고 南西쪽에 清国에 의하여 丙子의 乱을 맞게 되었다고 하며 또 漢陽임에 대하여 東쪽은 五行上木이됨으로 両木 相争한다는 五行의 理에 의하여 相克하는 것임으로 또 南西方은 五行上 土이고 木克土함으로 이것 또한 相克이기 때문에 漢陽은 東쪽과 南西쪽으로부터 侵入을 막가에 게을리 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

(라) 漢陽의 궁궐의 坐向을 결정하기 위하여 鄭道伝과 無学과 서로 意見이 일치하지 않았다. 즉 鄭道伝은 당시 古今의 学理에 通한 学者로 그는 白岳을 鎭山으로 한 南向을 主張하였으나 神僧無学은 仁旺山을 鎭山으로 하고 南山과 白岳을 左右龍虎로 하는 坐向 즉 西生卯向(東向)을 主張하였으나 鄭道伝이 그의 의견을 계속 主張함에 그의 뜻대로 南向하여 配置하였다 한다. 이에無学이 깊이 슬퍼하며 말하기를「新羅 名僧 義相大師의 山水秘記에 의하면 都를 選定하는 者가 僧의 말을 듣지 않으면 国運延長을 바랄 수 없고 만약 鄭氏의 사람이 나와서 是非를 벌리면 五世되지 않아서 相争의 禍가 생기며 二百年内에 内外에 큰 乱이 있으리라 하였다」고 하며 이로 인하여 太宗의 兄弟가 骨肉相争을 하였고 世祖의 反正과 壬辰의 乱을 맞게 되었다고 한다.

(마) 해태 : 지금의 中央庁 光化門에는 두개의 해태가 있다. 이것은 大院君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景福宮이 때때로 火災가 일어남은 南方에 있는 冠岳山이 景福宮을 直面하여 火気를 뿜기 때문이라하여 이 気를 누르기 위하여 물에서 사는 해태의 상을 만들어서 火気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 한다.

(바) 蚕室 : 서울의 東南에 位置한 蚕室은 예전에는 沙平里라 하였는데 이것이 잠실이라고 부르게 된 경우는 서울의 南쪽에 있는 南山이 봉우리가 누에머리(蚕頭)와 같은 形으로 이 누에의 地気를 旺盛하게 하기 위하여 그 南山의 東쪽에 보이는 当時의 沙平里에 뽕나무를 심게 하였다. 그리고 이곳을 蚕室이라 한것으로 부터 由来 하였다고 한다.

(사) 城門 : 漢陽城에는 八大門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易의 八卦에서 비롯했다하며 門名도 風水厭勝의 뜻으로 鄭道傳에 의하여 지어졌다고 한다.

南大門은 崇礼門이라 하는데 礼는 五行으로 보면 南方(火)에 속하기 때문에 (東仁, 西義, 南礼, 北智, 中央信) 南쪽임을 나타내기 위함에서 였으며 또 다른 문의 현판이

다. 横書体로되어 있는데 오직 이 崇礼門만이 縦書体 로 된것은 冠岳山의 火山의 火気에 대항키 위한 目的에서 였으며 또 冠岳山의 変主峯에 九個의 防火 부적을 넣은 항아리를 묻었다고 한다.

(1) 東大門 : 東大門은 興仁門이다. 仁字는 木에 속하며 또 木은 東方을 의미한다. 따라서 興仁은 東方을 받거는 뜻이 있다. 그런데 興仁門을 興仁之門이라고 하여 之字를 넣어서 다른 門은 三字인데 이 문만은 四字가 되었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城의 東쪽의 地脉이 낮고 따라서 城廓도 低虚한 까닭에 이 弱勢를 補하기 위하여 之字를 넣었는데 之字는 玄字와 같아 来龍이 즉 山脉이 左折右曲하여 오는 것을 形象的으로 나타낸 文字임으로 이 之字를 넣어 山을 쌓아 補強하는 労力을 대신하여 厭勝的으로 山脉을 文字로 바꾸어 使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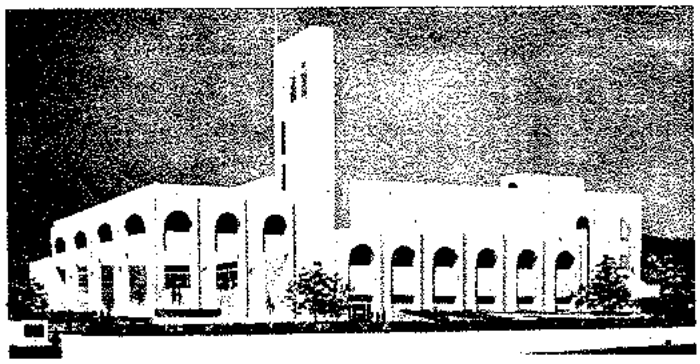
(2) 彰義門 : 전하는 바에 의하면 彰義門은 그 外部의 地勢가 마치 지네와 같은 形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지네의 気를 적게하기 위하여 닭의 모양을 나무에 파서 문에 달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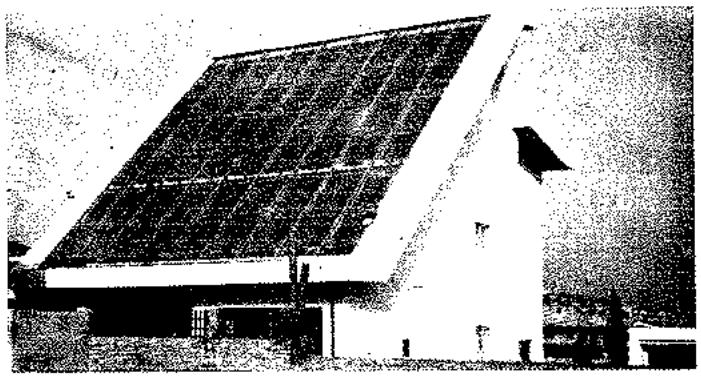
(3) 粛靖門은 北門으로 北漢山으로 통하는 門으로 오래 전부터 閉鎖되어 있고 열지 않았다. 그 까닭은 이문을열면 城内의 마을에 淫乱한 風이 増加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南大門인 光熙門도 역시 穆宗 元年에 陰陽家로부터 巽方을 열면 不吉하다 하여 닫았다고 한다.

(4) 大漢門은 徳寿宮의 宮門인데 元来는 大安門 이었다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고종의 執権当時 寵臣玄映運의 妾 裵氏가 洋装을 하고 그 門을 자주 出入하였다. 그런데 近臣中에 이것을 시기하는 者가 이것을 王에게 고하여 秘記에 大安門의 安字는 女가 冠을 쓴安임으로 만약 이 冠을 쓴 여자가 이문을 出入하는 경우에는 나라가 亡한다고 注意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니 王은 이에 感動하여 즉시 裵氏의 궁궐出入을 厳禁시키고 또 門名도 大漢門으로 変更하였다.

(아) 往十里 : 서울의 東쪽 약 十里에 往十里라는 洞里가 있다. 이는 李太祖가 忠南鶏龍山에 新都邑을建設코저 그 工事를 着手하자 山神이 太祖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곳 鶏龍山은 将来 鄭氏가 都邑할 땅이고 李氏 는 漢陽에서 都邑地를 찾는편이 좋다고 말하기 때문에 太祖는 無学等을 거느리고 漢陽으로 向하였다. 그래서 漢江의 연안을 따라서 王城宮궐의 터를 찾기 위해 여러날을 보냈으나 아직 그 정확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을때 하루는 지금의 往十里에 이르러서 주위의 山川을 調査하고 있을때 한편으로는 北岩의 南쪽과 南山의 사이가 상당히 넓은 明堂이 있는듯하여 바라보고 있을때 한 노파가 나타나서 太祖를 向하여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물었다. 太祖는 国都를 찾기 위해 苦心한다고 対答하자 노파는 그러면 十里를 가라고 쉽게 말하였다. 노파가 이런 중대한 일을 쉽게 말하는 것이 이상히 생각되어 다시 그 노파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사이에 그 노파는 어느덧 멀리 사라져 버렸다. 太祖와 無学은 이것이 반듯이 神의 啓示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北岳의 南쪽에 가서 궁궐의 터를 찾았다고 한다.

本協会員





동순동P씨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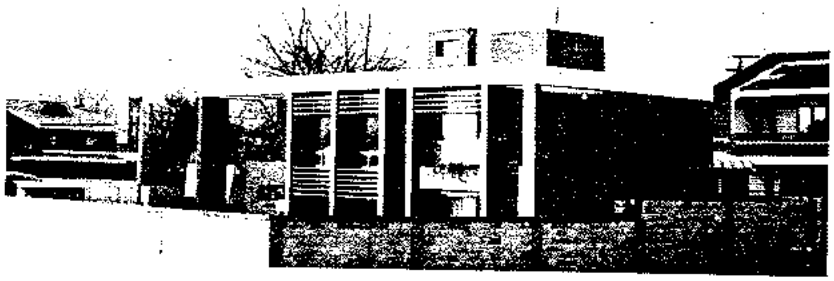
설　　계 : 홍 순 인 대우건축연구소
건물위치 : 종로구 동숭동 구서울대부지내
건물면적 : 연면적 268㎡
　　1층 : 147㎡, 2층 : 70㎡
사용재료 : 외부 : 오렌지색 적벽돌 (대동요업)
　　밤색 알미늄
　　내부(거실)벽 : 노출벽돌위에 백색본타일
　　바닥 : 암스트롱 타일
　　천정 : 소기목후로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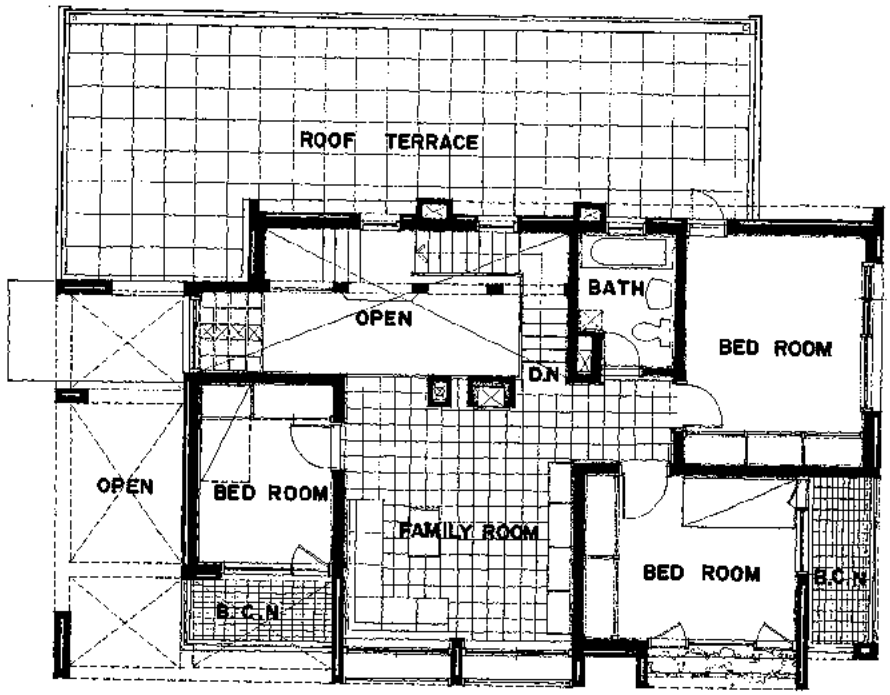
설계개요 :

도심에 가까운 좋은 조건의 택지라고는 하나 획일적으로 짤라 놓은 대지는 우리(설계자)들의 생각을 구속하거나 또는 좋은 발상을 유발케 하는 계기는 되지 못 했으나 두 번째 집을 짓는다는 의사인 건축주 부부의 건축에 관한 열의가 끝까지 마음에 들었다. 외부조형에서 대문과 담을 본 건물과 일치가 되도록 노력해 보았고 대문에 들어서면 지붕위로, 그리고 정원쪽으로 터진 공간이 연결되고, 현관문에 들어서면 2층으로 터진 천정과 중이층의 식당이 함께 시야에 들어온다. 좁은 폭이지만 좌·우로, 위로 연결된 공간때문에 꽤 넓게 느껴진다. 장남인 주인은 년중 가정내 행사가 잦아서 한식형 다용도의 방을 식당옆에 요구했는데 쓰기에 아주 편리하다는 뒷이야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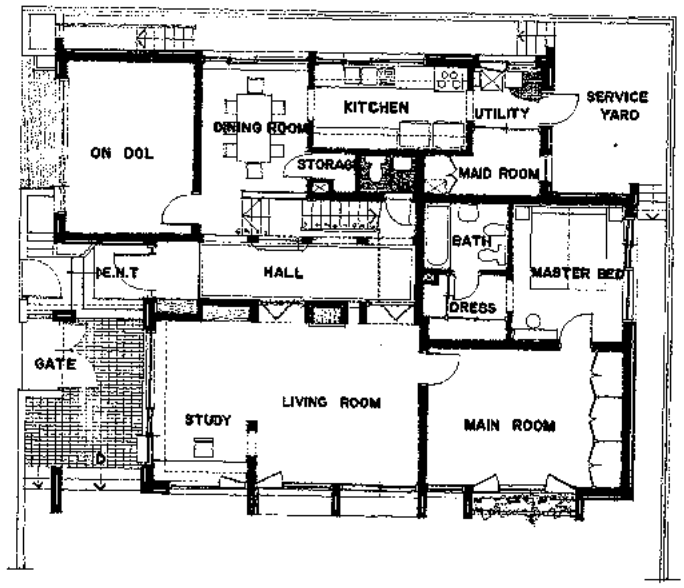
전　　경

회원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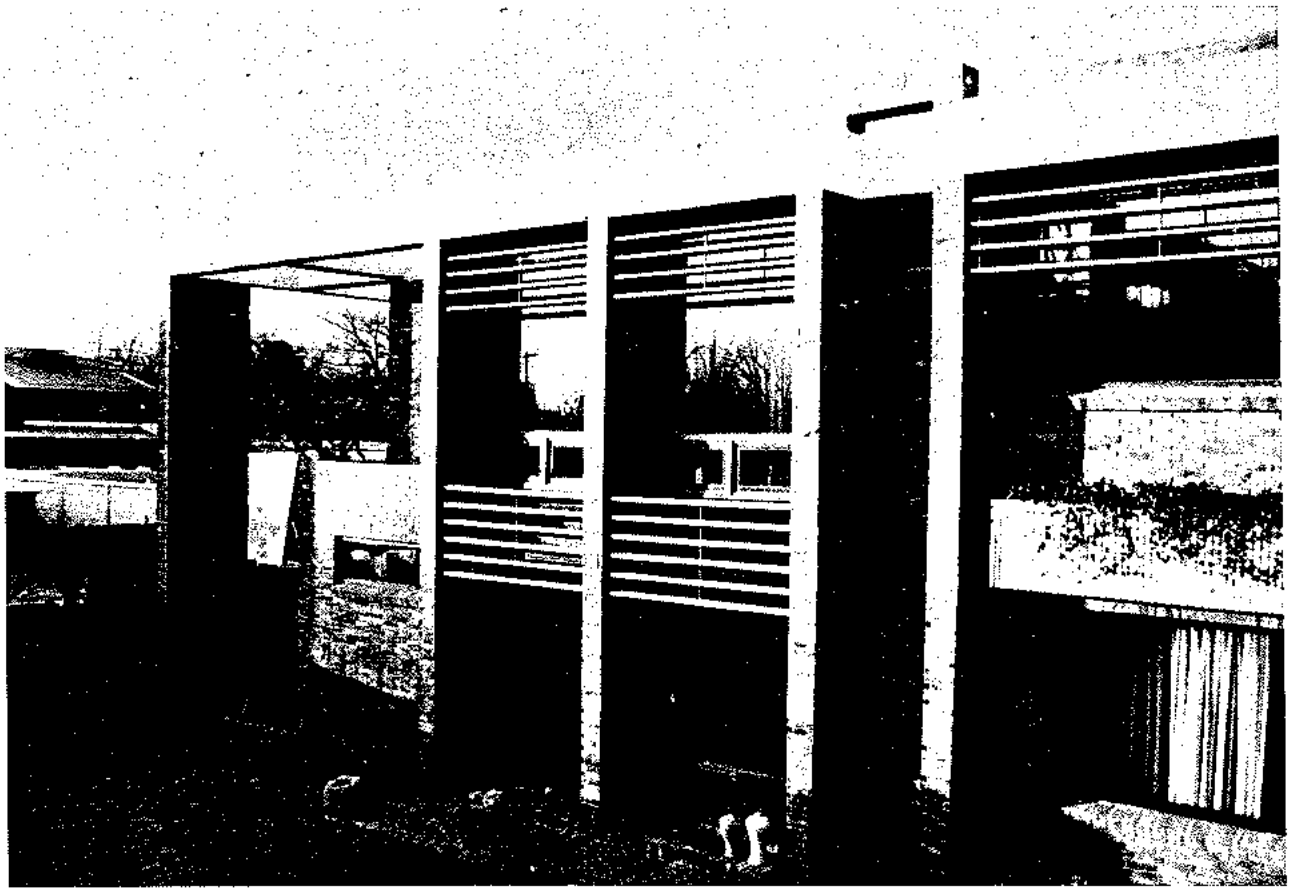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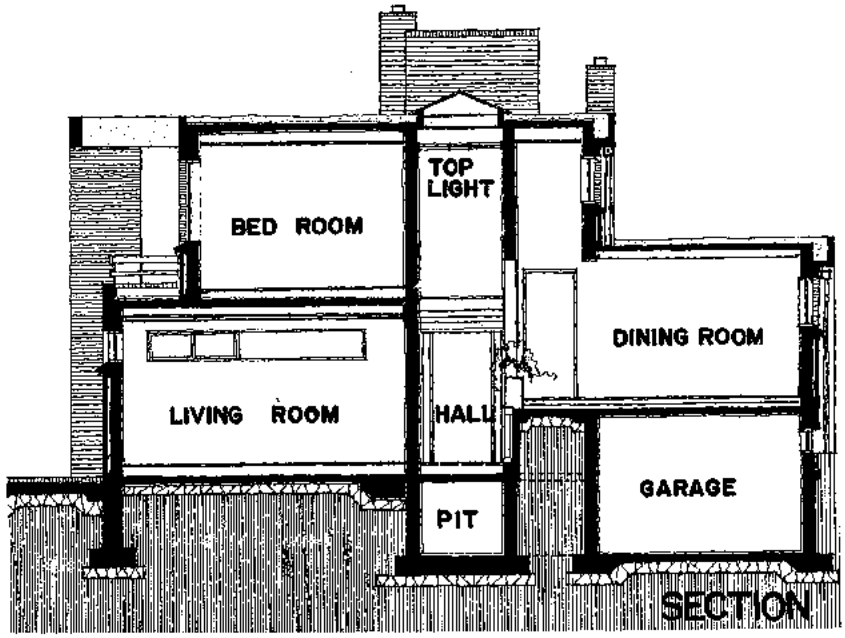
2 층평면도



1 층평면도

회원작품




TOP
LIGHT
BED ROOM
DINING ROOM
LIVING ROOM
HALL
GARAGE
PIT
SECTION

회원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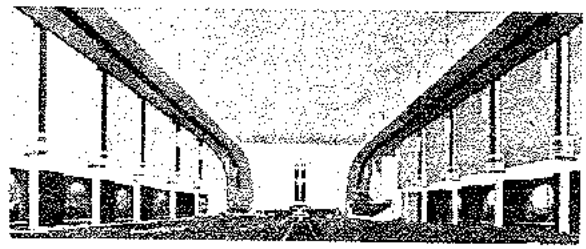
단면도

충무로 성결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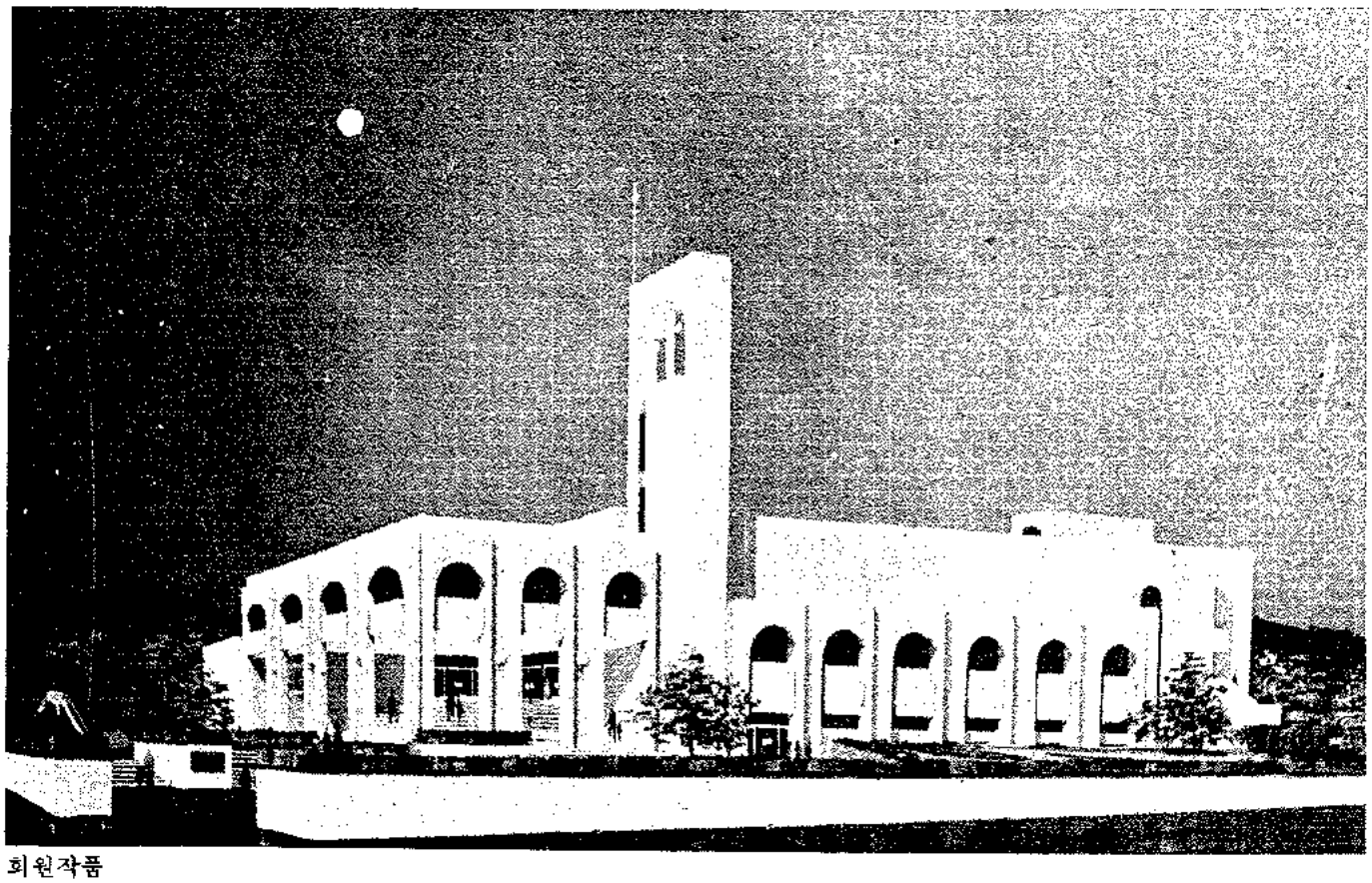
설　　계 : 강 순일(필 건축설계사무소)
건물위치 : 강남구 삼성동
건축면적 : 284.81평
연 면 적 : 673.54평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설계개요 :

어떤 프로젝트이건 설계자에게 주어지는 창작의 영역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음을 느껴오는 터이지만, 비교적 이런 범주에서 벗어날수 있다고 보는 교회건축에서까지 대지의 모양이나 일조권이다, 주차장정비 지구다 하는 강요된 여건하의 창작물을 만들어야 하는 비애를 느끼면서 구형의 대지의 선택에서 부터 이미 건축주는 어떤 고정적인 틀속에서 교회건물을 상상해 놓고 정해버린 대지에다 건축가에게 접데기 모양이나 다듬고 치장이나 해달라는 정도의 영역의 활해를 허다히 경험케 되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도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생활을 간섭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해 버렸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굳어져버린 여건속에서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어 예배실의 형태라든지 교육실의 위치등이 특기할 사항이 없읍니다. 단지 어느교회나 예배와 교육, 교회행정이나 관리의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예배가 시작되기 전이라든지, 끝나고 교육과 선교, 집무, 취사, 오락등이 시작되기 전후의 시간적인 공간을 친교(성도의교제)시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위한 공간을 소중히 그리고 유효하게 처리할 필요를 느꼈읍니다. 되도록 개방적이고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겠으며 그러면서도 오래머무를수있는 동선처리가 필요합니다. 전면의 포-치나 전실 로-비 그리고 계단 등 아까우리만치 비대한 공간을 소모한것은 그러한 의도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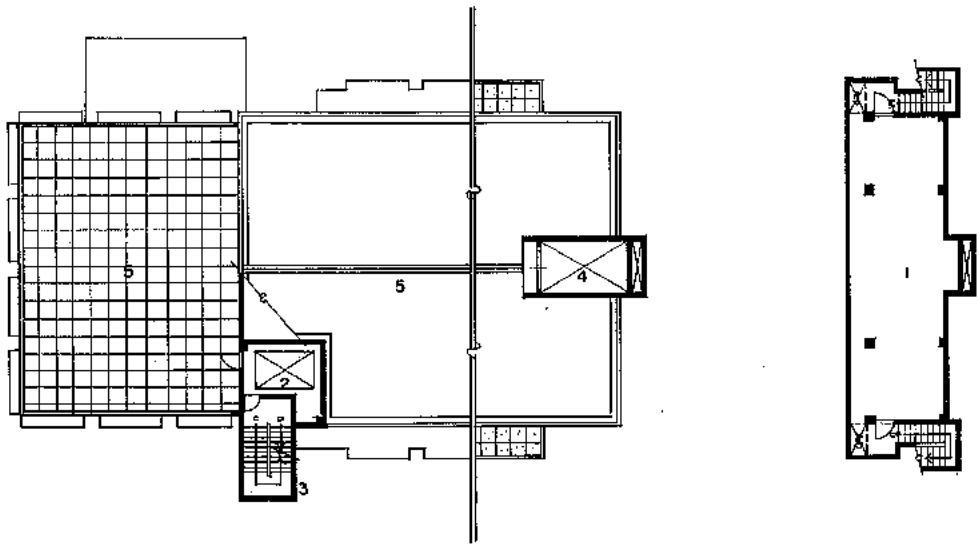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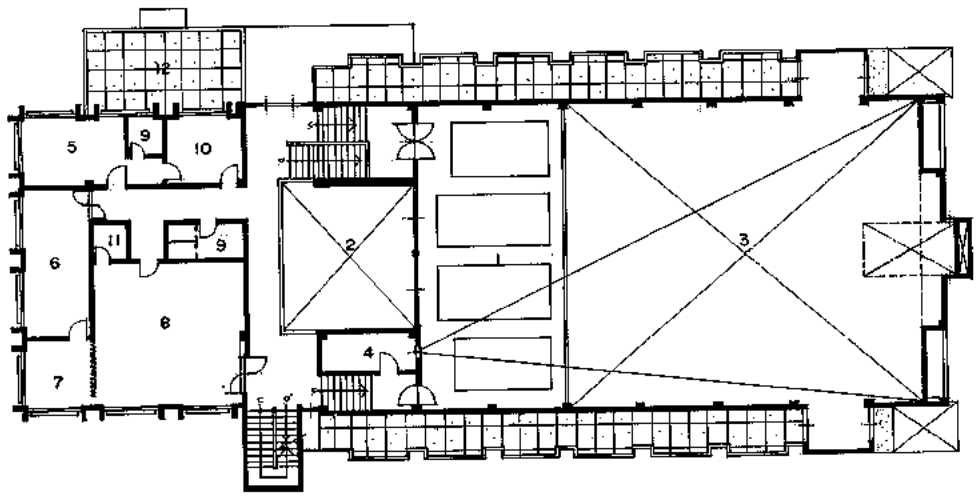
회원작품

지하및 지붕층
①기계실
②물탱크실
③종탑
④강당 천장



지층및 지붕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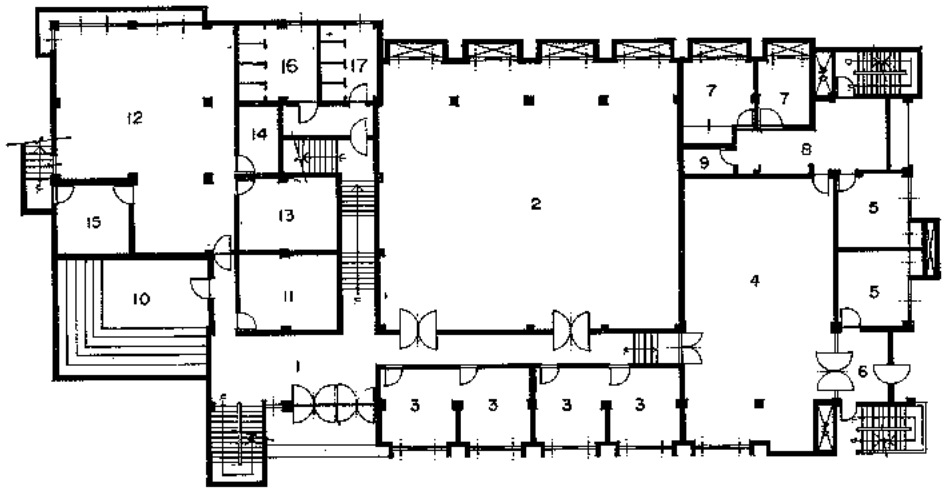
①예배석
②로비 상부
③하층 예배석 상부
④방송실
⑤당 회장실
⑥당 회원실
⑦교역자실
⑧기관사무실
⑨화장실
⑩강사실
⑪창고
⑫테라스



2 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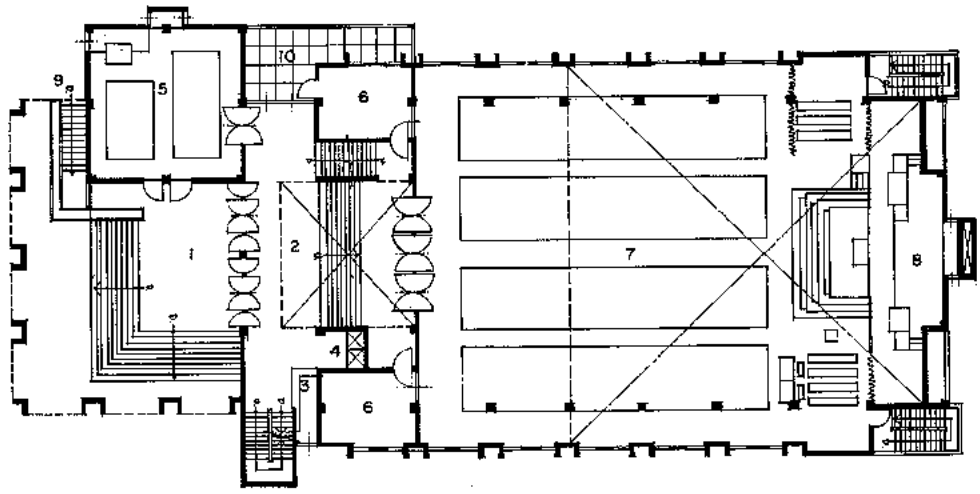
회원작품

①현관 홀 ⑥전실 ⑪성가대 락카실 ⑯화장실(남)
②교육관 ⑦사찰실 ⑫유치원 ⑰화장실(여)
③다목적실 ⑧주방 ⑬보육실
④식당·휴게실 ⑨창고 ⑭다 용도실
⑤기도실 ⑩성가 연습실 ⑮락카실



지하층

①포-치 ④공중전화 ⑦대 예배석 ⑩테라스
②로비 ⑤기도회실 ⑧강당
③안내 ⑥자모실 ⑨유치원 입구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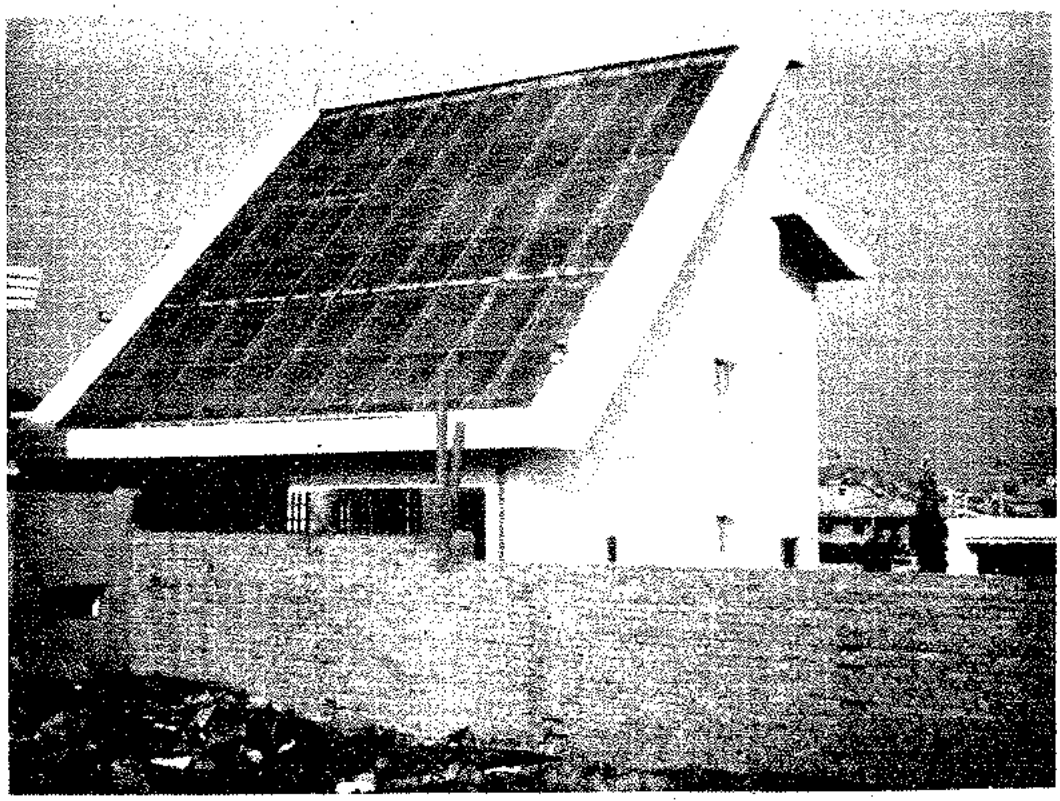
회원작품

태양열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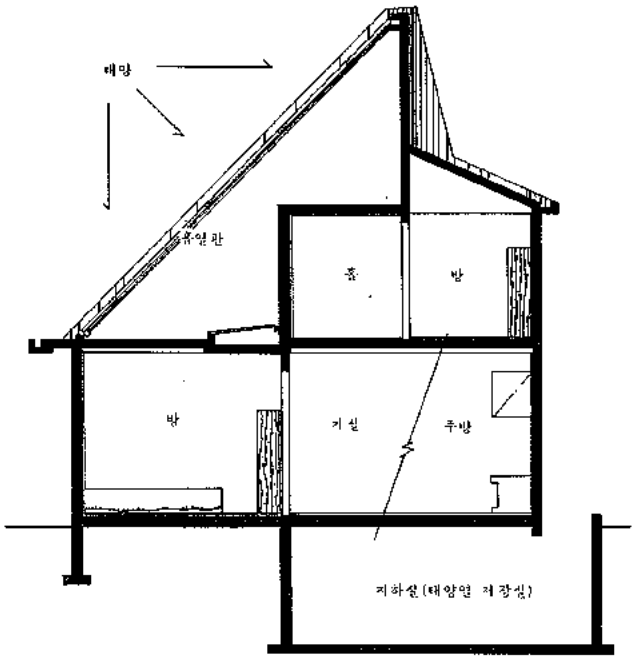
설　　계 : 정 정치(합정건축 연구소)
건물위치 : 관악구 신림동
건물면적 : 지하 21㎡
1층 76㎡
2층 38㎡
대지면적 : 350㎡
구　　조 : 시멘트 벽돌조

설계개요 : 본 주택은 에너지 수급에 더욱 어려워가는 지음에 자연 에너지인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시설로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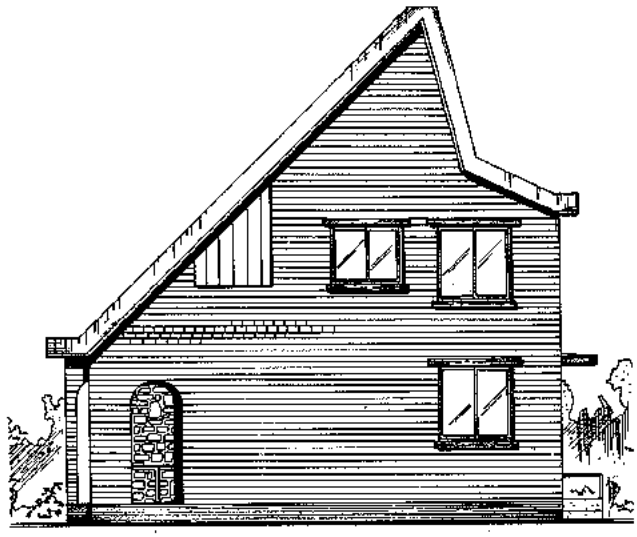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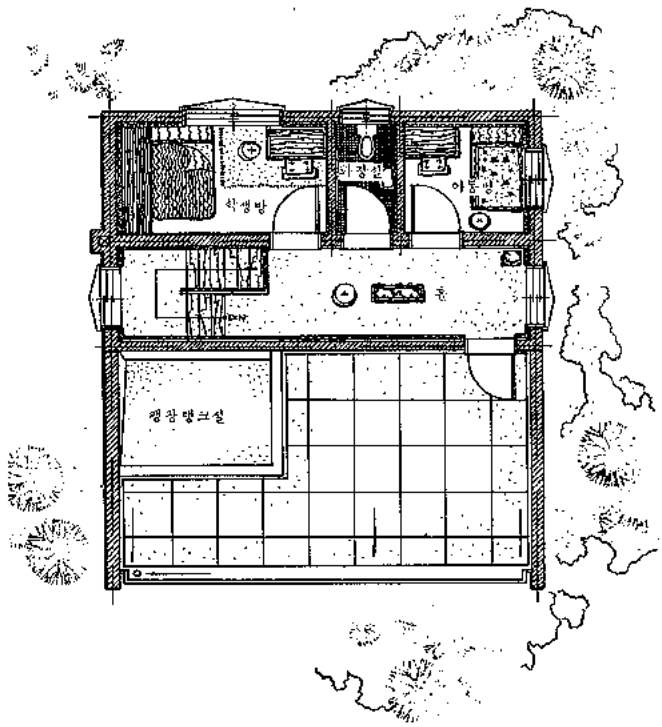
회원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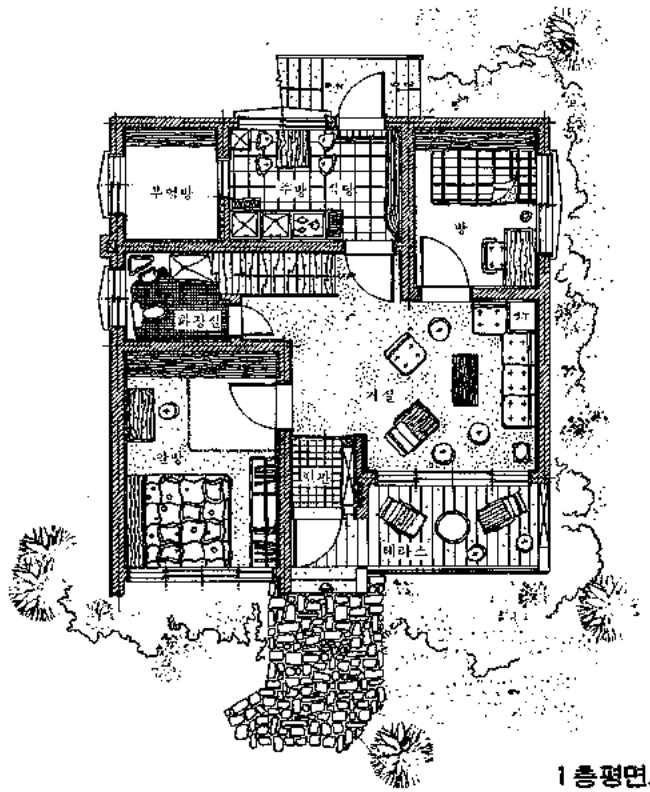
단 면 도



2층평면도



축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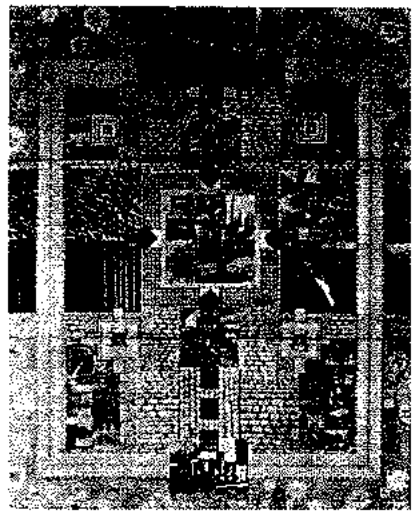


1층평면도

회원작품

弘益大学校編

開校 30周年紀念 第13回 建築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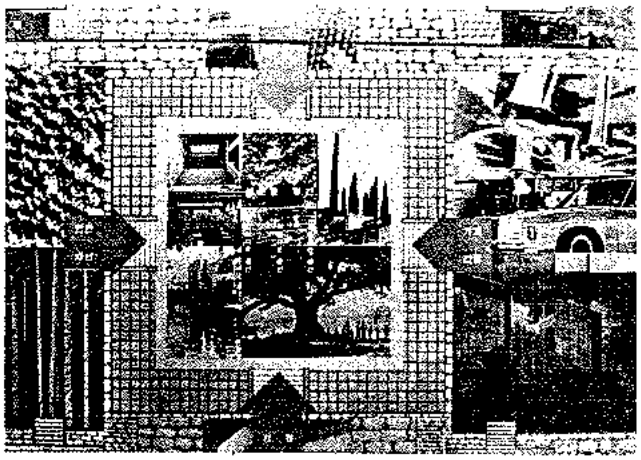


序論部

● 問題의 提起　● 디자인 創出要因

「永遠한미소」 무궁한 発展과 永遠한 前進을 表像하는 校庭의 상징탑, 8m높이의 거대한 탑이 서서히 그러나 쉬임없는 회전운동을 하듯이 真実로 붉고 집념어린 建築学徒들의 꿈이 영글어간다.

本校建築科는 1954年 美術学部内 韓国初有의 建築美術科로 創立을 보았다. 1964年 학칙의 변경으로 美術学部에서 독립된 建築学部로, 1966年 建築学部를 工学部로 개칭하고 建築教育系의 建児로서 자리를 굳혔다. 1971年 종합대학으로 승격됨과 아울러 理工大学의 建築工学科로서 그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明年 1979学年度에는 工科大学의 建築学科로 개칭되어 소신껏 활기찬 科歴을 꾸려가게 될것이다. 이들은 항상 꿋꿋이 지켜온 伝統과 신뢰를 스스로 체득하고 새롭게 엮어나갈 것이다. 이미 밝혔듯이 国内最初의 建築美術科로 出発, 25年의 열과 성으로 成長하여 長年期에 접어들어 한숨쉬어 돌아보는 눈길엔 스스로 価値가 表明되지 않을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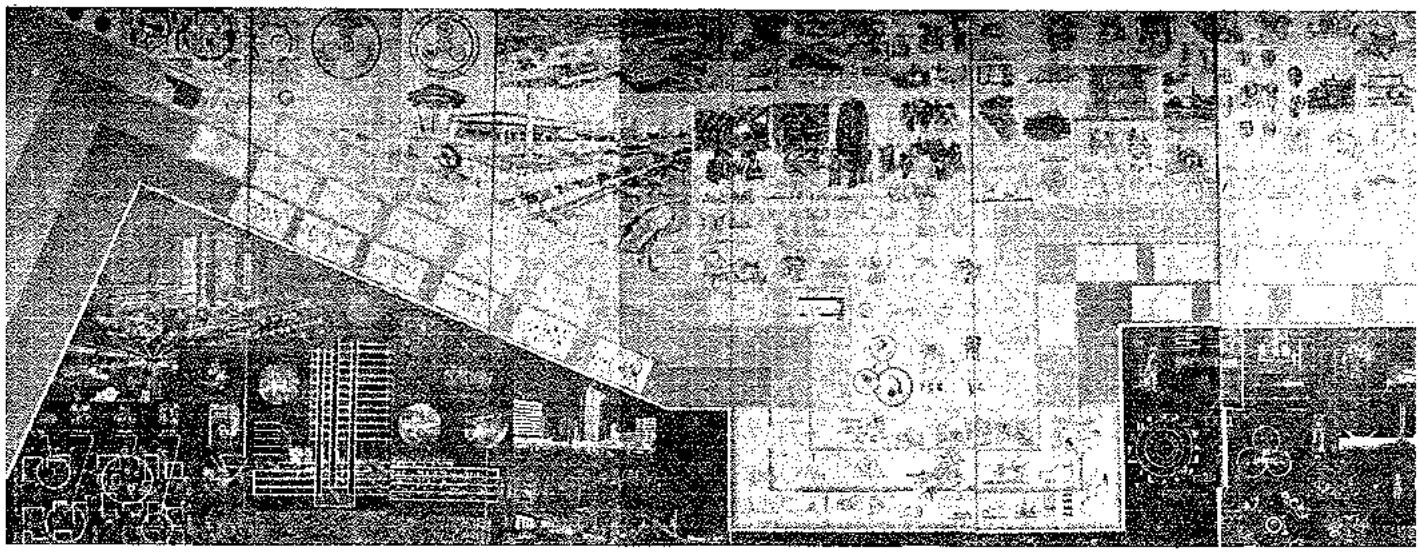
本校 建築科의 教育目標는 **先進国家의 建築을 이해하고 새로운 韓国建築의 発展, 創造에 기여할수있는 우수한 建築家로서의 기초소양을 함양한다. 建築은 綜合芸術이며, 建築의 工学的技術은 芸術에 도달하는 수단이라는 前題에서 建築芸術의 創造的 表現能力과 構造学, 材料学, 等의 工学的 芸術을 함께 강조한다.**

建築学科의 学風을 説明하기 위해서는 역시 母体인 弘益大学의 芸術精神을 들추지 않을수없다. 弘益美術이 이룩해온 造形的体係와 実験精神의 추구, 즉 基低에 깔린 生動感은 建築에 있어서의 확고한 空間感의 획득과 아울러 항시 새로운 디자인과 아이디어의 創出이란 果題를 우위케했다. 스케치북과 줄자없이는 外出도 하지 않았다는 선배들의 정확한 안목형성을 위한 노력은 헛되지않았고,

展開部

● 資料의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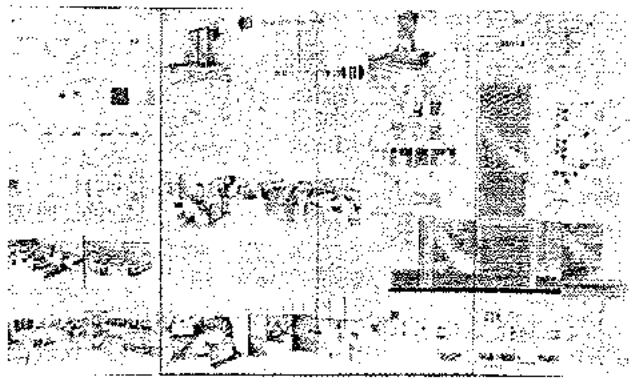
● 環境要素의 展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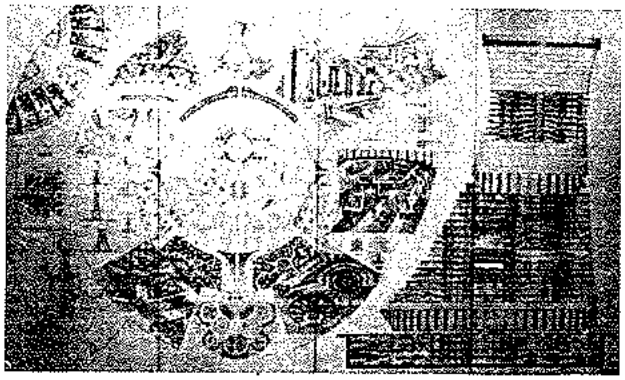
●生産과 情報의 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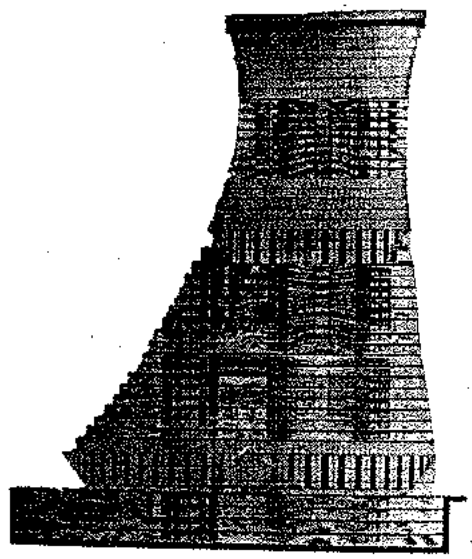
훌륭한 建築디자이너 양성의 소양을 함양시키고자 실기교육의 重要함을 잊지않았던 여지껏의 教育風土아래 다채로운 수상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매년「国展」 建築部門의 독보적인 수상경력을 자랑하며 在学生들의 활발한 활동을 볼수있다. 뿐만아니라 70年초에는「国展」에서 연달아 大統領賞을 수상하는등 실로 建築家가 되기 위한 綜合的인 재능을 기량껏 길렀음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社会속에서 韓国建築의 発展, 創造에 이바지 할수있는 배움의 자세를 확립했다. 또한「쌍파울로 비엔나레」等 여러 国際建築展에서도 受賞경력의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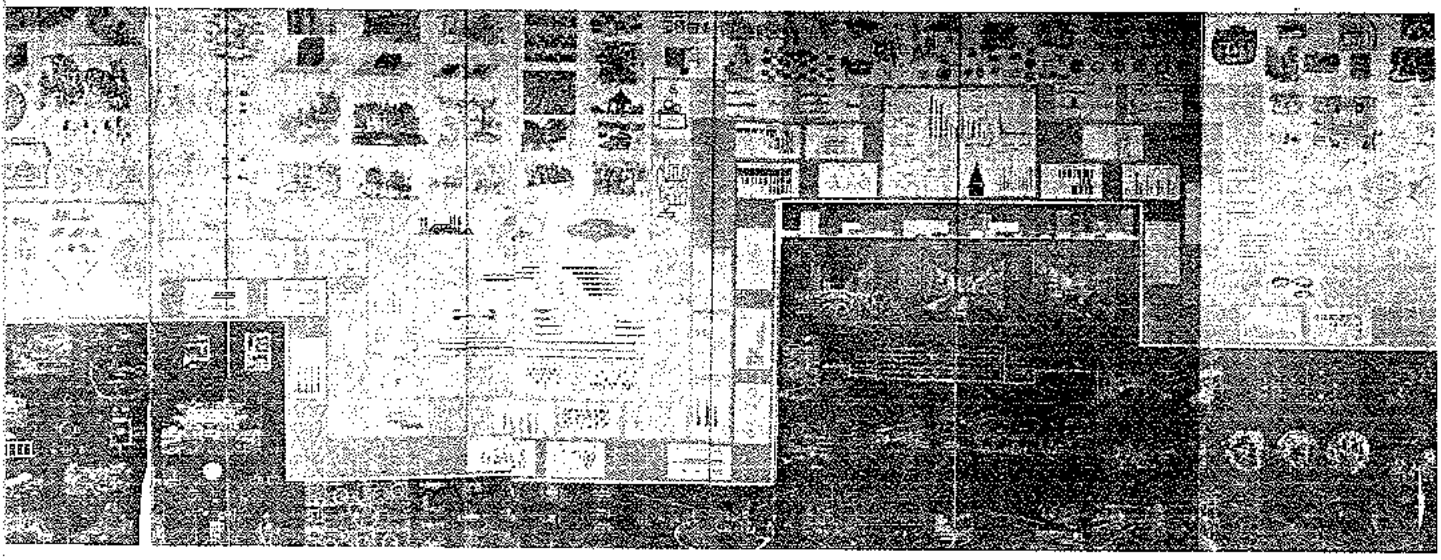
作品 하나하나를 해결해가면서 겪은 아픔과 희열의 순간을 展示를 통해 보여주고 채찍질 받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1955年 第1回建築展 이후 정기적으로 建築展을 開催하여 금년으로 第13回를 맞았다.



●供給과 循環의 空間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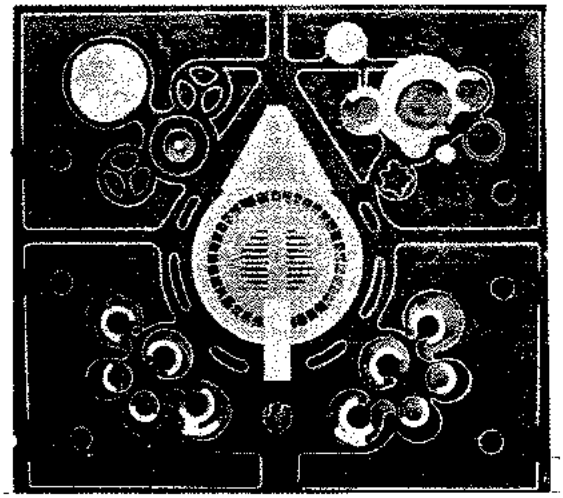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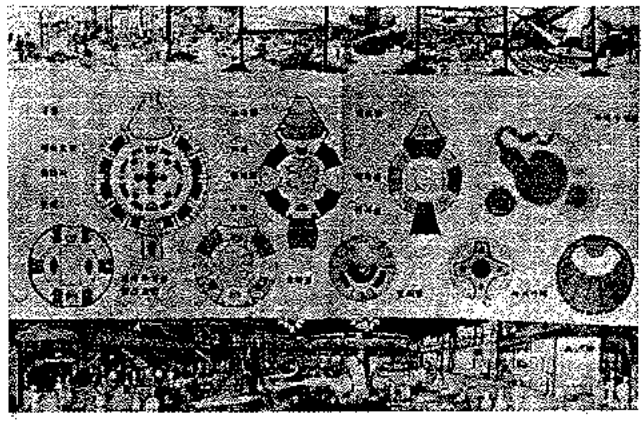
教·講師陣

教, 講師名	담 당 과 목	비 고
尹 道 根	建築設計, 建築計劃. 세미나	教授, 建築学科長
金 昌 集	建築構造力学, 鉄骨工学	教授
姜 健 熙	建築設計, 建築特論	副教授
朴 彦 坤	建築史, 建築設計	助教授
朴 炳 柱	団地計劃	講師 劃科教授)
羅 相 起	都市計劃	講師 科教授)
郭 英 薰	造景学	講師(都市計劃科副教授)
姜 道 烈	電気設備	講師(電気工学科副教授)
이 경 희	建築計劃原論	講師
강 석 원	建築設計	講師
길 정 천	建築一般構造	講師
한 규 봉	建築法規	講師
장 용 택	建築設備	講師
홍 사 천	建築施工学	講師
이 희 욱	建築材料学	講師
전 동 훈	意匠実習	講師
이 용 하	鉄筋工学	講師
임 상 하	測量学	講師
김 기 철	建築特論	講師
박 석 원	美術実技, 造形実習	講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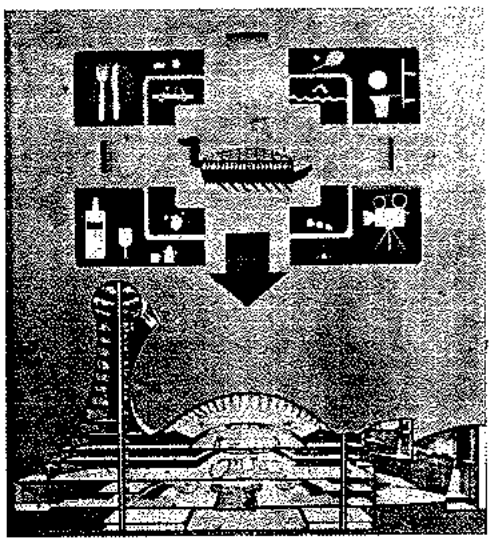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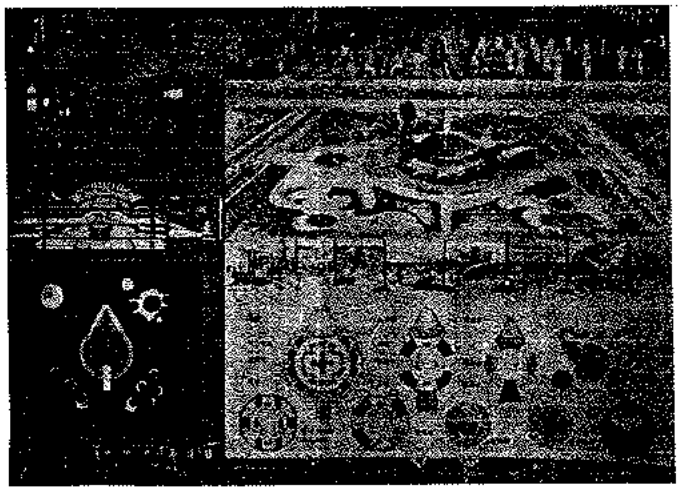
그外에도 70年代初부터 「韓·日交流展」을 가져 現在5回에 이르며 지난 11월 7일부터는 「開校30周年記念 第13回 建築都市計劃展」을 개최한바 있다.

각계각층에 고루퍼져있는 同門은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고있으며 特히 建築 디자이너로서의 확고한 位置를 차지하고있다. 1回(58)年 졸업생 8名이 교정을 떠난이후 처음, 材料의 本質을 물으면서 色彩와 造形의 世界를 헤엄쳐가는 学生들은 工業立国의 새땅위에 순수한 숫자의 개념까지를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이제 스스로 自門하고 모순점을 찾아내어 슬기로운 몸짓으로 雄飛할수 있는 재량을 온몸에 갖추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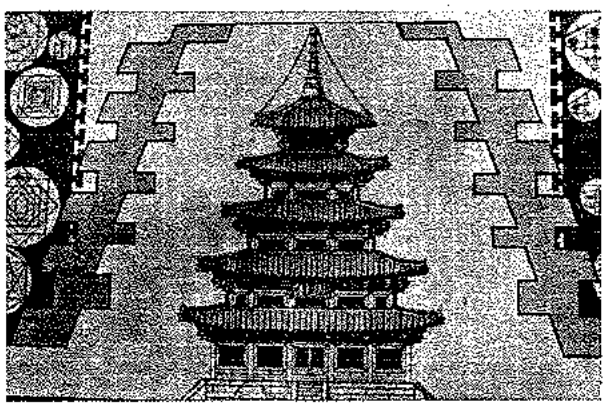
●再生의 空間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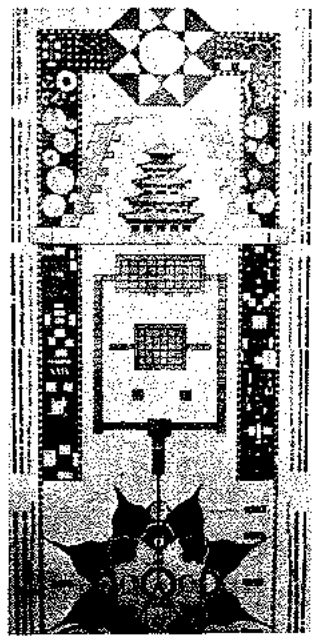
建築学科 沿革

1954年 3 月 美術学部 建築美術科로 創立
1958年 2 月 第 1 回卒業(8名)
1964年 2 月 建築学部 建築科로 독립
1966年12月 建築学部에서 工学部로 개칭
1971年12月 綜合大学으로 승격후 理工大学 建築工学科로 개칭
1973年 1 月 大学院建築科 博士過程신설
1973年12月 二部大学 建築工芸科 신설
1975年12月 二部大学 建築工芸科를 建築工学科로 개편
1978年12月 理工大学 建築工学科를 建築学科로
二部大学 建築工学科를 建築学科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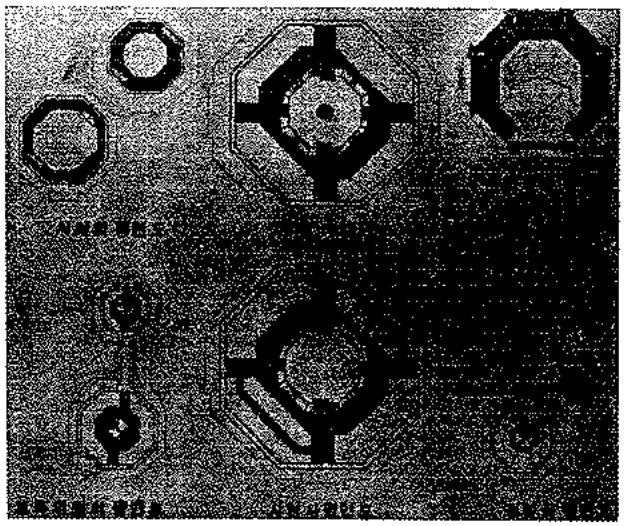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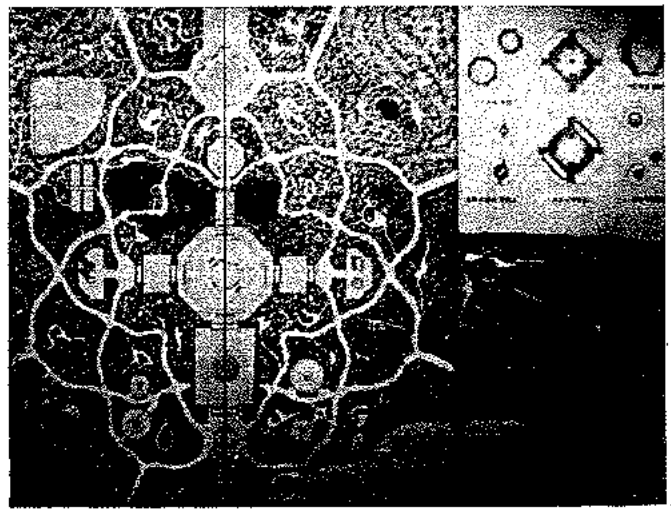
展示沿革

1955年 第 1 回 校內建築展
1957年 第 2 回 소품전, 第 3 回 校內建築소품전
1958年 第 4 回 校內建築展(덕수궁미술관)
1963年 쌍파울로 비엔나레 世界大学生 建築展出品 世界第 5 位(브라질)
1966年 第 7 回 校內建築展(예총화랑)
校內綜合展(경복궁미술관)
1968年 校內室內디자인展
1969年 第 8 回 校內建築展
1971年 第 9 回 建築都市計劃展(신문화관)
1972年 第 1 回 韓日交流展(日本・오사까)
1973年 第10回 建築都市計劃展(본교박물관)
第 2 回 韓日交流展(미도파 장미홀)
1975年 第11回 建築都市計劃展(본교박물관)
第 3 回交流展(日本・오사까)
1976年 第 4 回 韓日交流展(본교박물관)
1977年 第12回 建築都市計劃展(본교박물관)
1977年 開校30周年記念, 第13回建築都市計劃展(본교 박물관)
第 5 回 韓日交流展(日本・오사까)



●市民을 위한 空間





건축사법 시행규칙

1978. 12 건설부장관

건축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축사법시행 규칙은 본문만을 게재하고 서식등은 별도 유인물로 통보하겠읍니다.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건축 보조사의 신고등) ① 법 제 2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 보조사(이하 "보조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건축보조사신고에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 제 1 호 전단에 해당하는 자는 경력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신고를 한자가 법 제 2 조 제 2 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보조사명부와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 보조사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 일내에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 보조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신고를 한 자가 성명·주소 또는 근무처를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 5 호 서식에 의한 보조사 신상변동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영 제 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에 대한 설계도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 6 호 서식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 각 50부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시행규칙 제 1 조에 게기한 도서, 다만, 부안내도, 배치도 및 토지굴착부분정리계획도를 제외한다.

2. 특수공법에 대한 설명서(특수공법에 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 한한다.)

3. 특수구조와 시공법 및 자재에 대한 설명서(특수공법에 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 한한다).

4. 관계시험기관의 시험성과표사본

제 4 조(건축사자격시험응시 및 면허신청서) 영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시험응시 및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 7 호서식에 의한다.

제 5 조(건축사명부 및 면허증등의 서식) 영 제 5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는 별지 제 8 호서식, 건축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한다) 은 별지 제 9 호 서식, 건축사 "면허수첩(이하 "면허수첩"이라한다)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 6 조(면허증등의 재교부신청등) ① 건축사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재교부를받은 후 분실하였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 7 조(신상변동신고서등) ① 영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신상변동신고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영 제2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 휴업, 폐업의 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②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시험과목별 출제범위) 영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 9 조(경력의 인정기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및 법 제23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 1,500원
2. 건축사 사무소등록 수수료 : 10,000원
3.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재교부 수수료 : 500 원
4. 건축사 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 500 원

② 제 1 항의 각호의 수수료는 시험응시 원서 또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제11조(설계도서 신고서등)①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신고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검토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행하며, 설계도서 신고대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현장점검등)건설부장관이 영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점검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③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건축사사무소 등록신청서등)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등록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그 내용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한다.

제14조(사무소의 등록기준)영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 및 시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용역업체소속 건축사의 신고등)① 영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플랜트엔지니어링 용역업체와 종합건설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사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신원증명서 3. 면허증사본
4. 입사증명서 5. 소속용역업체의 등록증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용역업체를 퇴사한 때에는 그 퇴사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소속 건축사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소등록증등)영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등록부는 별지 제23호 서식, 합동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24호 서식, 단독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사무소등록증등의 재교부신청) ① 사무소 등록증 또는 용역업체소속 건축사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제26호 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합동사무소등록인의 확인등)①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날인할 건축사의 수는 별표 3에서 정한 건축사의 수로 한다.

제19조(장부)①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등의 등록사항 기록부 2. 직원명부.
3. 설계수급대장 4. 공사감리기록대장.

② 제1항의 보조사의 등록사항 기록부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하고, 설계수급대장은 별지 제28호 서식, 직원명부는 별지 제29호 서식, 공사감리기록대장은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다.

제20조(위탁계약 해지시의 보수)법 제22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소정보수액의 8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건축사등에 관한경과조치)① 대통령령 제8,069호 건축사법 시행령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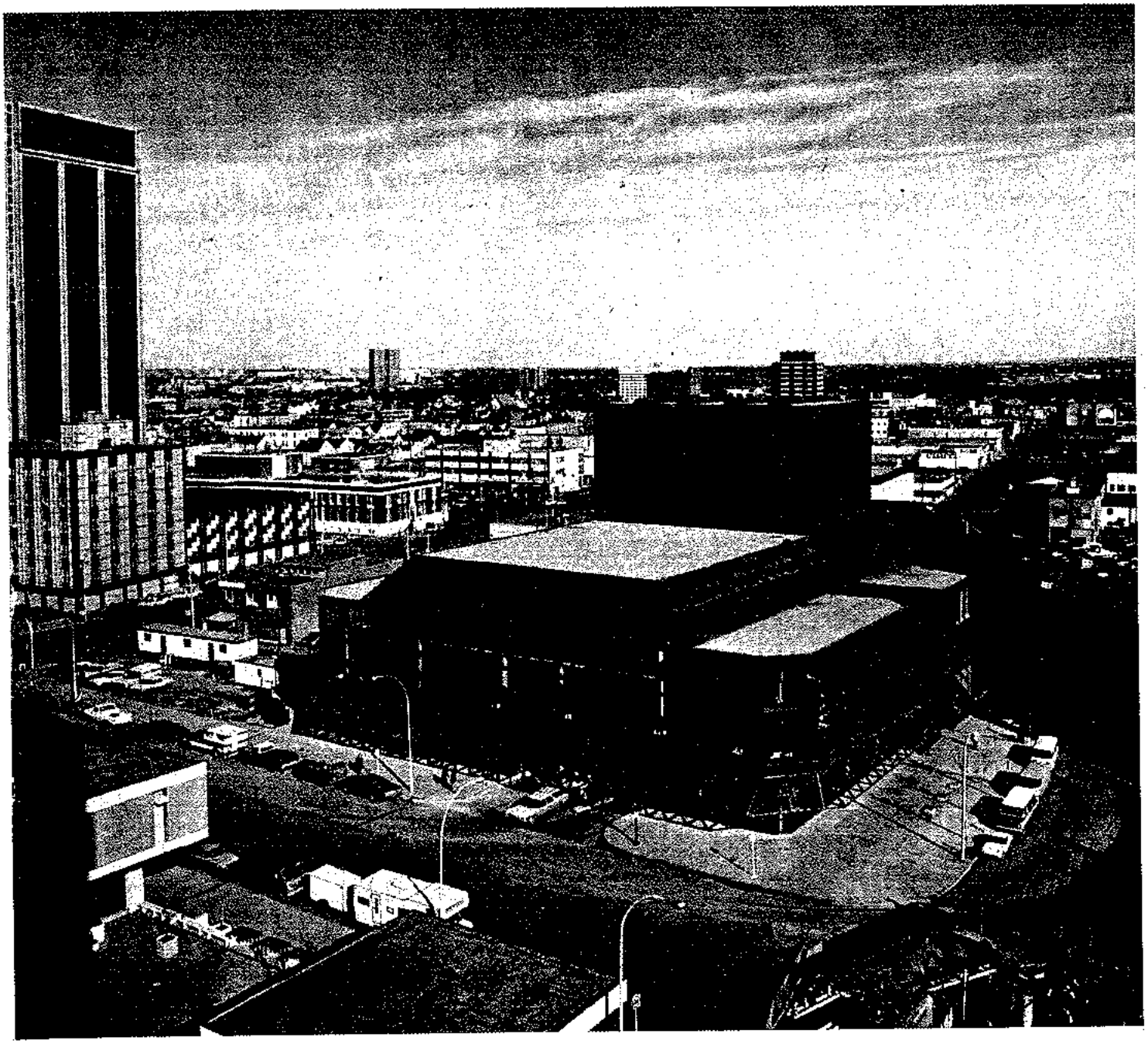
1. 종전의 면허증.
2. 신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재교부하는 면허증은 별지 제31호 서식, 면허수첩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③ 개정령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교부신청서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다.

④ 개정령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등록증와 재교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영 제22조 각호의 서류와 종전의 등록증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보조사 경력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보조사의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신고전에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한 경력중 법 제2조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한 날 이후의 경력은 건축보조사의 경력으로 본다.



시타델 · 劇場

카나다, 아루바－다州, 에드몬튼/1976

設計 : 바－톤마야

Citadel Theater

이 시다델·극장은 카나다의 아루바－다州 에드몬튼에 있다.

에드몬튼은 石油로 因해 急激히 発展을 본 都市로서 敷地는 아트·갸라리, 図書館, 市民会館, 호텔, 쇼핑街 広場이 즐이은 同市의 中心地域의 一角에 있다.

建設에 앞서 指名懸賞이 実施되여 바톤－마야가 採用되었다. 이建物에 세개의 劇場이 들어앉고, 駐車場은 敷地가 좁은 탓으로 地下로 들어갔다.

建物은 大別해서 두部分으로 構成되어있다. 또 北側과 南側의 두곳으로 吊構造의 鋼製階段室이 設置되어 있다.

이 透明性이 있는 앞쪽보름에 대해 뒷부분은 煉互부치기로 全혀 不透明한 불름을 나타내고 있다.

設計에 当面 무엇보다 重要한 포인트로 된것은, 建物을 둘로 나누어 南北方向으로 通하게하고 있는 通路인 것이다.

이 巾은 30뭐트의 通路는 屋内街路라고도 할 수 있는 性格을 갖고 있다.

그곳은 通行者가 自然스럽게 建物에 끌려, 劇場을 構成하고 있는 모든部分의 雰囲気를 体驗시키려는 設計者의 意図가 있다. 天井面은 大劇場의 段状의 座席및 部分으로 彫刻的인 同心円을 나타내고 있다.

레스트랑은 1年을 通해 歩道脇의 카페와 같은 雰囲気를 갖고, 劇場売店도 이通路에 対応해서 設置되어있다. 建物의 뒷部分에는 作業室의 水平에 達하는 경사가 되어있다. 舞台에 必要로하는 set는 이곳까지 直接搬入되어, 여기서 組立된 다음, 舞台로 들여보내진다.

更衣室, 리허살, 홀, 舞台, 俳優休憩室은 모두 될수 있는限은 가까운 位置에 配置되어 있다.

한便 環境에 의한 分離도 必要한 곳에는 明確히하여 衣裳및 小道具의 作業室은, 大道具의 作業室보다는 한층 높은 水準에 配置되어 있다.

이 建物에는 施主의 要求에 따라 規模, 性格等이 각기 다른 셋의 劇場이, 各己전혀 독립機能을 갖고 収容되여 있다.

셋중 가장 크게 伝統的 構成의 劇場은 収容人員685名으로, 19列의 客席이 段状에다 同心円状으로 配置되어 있다.

막과 주역석의 사이(proscenium) 아치의 構造体는 独立되, 両側의 에푸론 Stagte는 照明은 융통성을 最大限으로 하고 있다.

観客席의 照明은, 天井에 전네진 照明box를 主로하고 있다.

劇場속은 거의 전부 防火処理되어진 美国杉의 파넬이 쓰여지고 있다.

또 吸音効果가 높은 材料로 안 部分을 처리한다든지, 有孔板으로 쓰고 있다.

天井面은, 파넬이 스릿트状으로발려져 있으나, 그裏面은 吸音材가 使用되어 있다.

地上層에 設置된 劇場은, 主로 映画館으로 利用된다.

収容人員은 250명으로 規模는 작으나, 모든 屋内街路와 直接, 同一平面上에 묶여있어 利用度가 높다.

또한 이 劇場은 映画館으로서만이 아니라 講演場이나 리허설 場으로서도 쓰여진다.

地層에 設置되어진 劇場은 모든実驗劇場에서, 俳優와 観客의 多様한 関係를 可能케 하고 있다.

座席数는 最高30席까지 可能하다. 普通200席으로 되어 있다.

舞台를 내려다보는듯한 周囲에 設
되여진 발코니는, 地上層에서
들어간

壁面과 天井面은 吸音材로 補完되어, 表面은 모두 짙은 paint가 칠하여졌다.

이 建物은 두 種類의 構造가 併用되여 있다. 建物의 後部와 大劇場은, 거의 콘크리트柱, 보, 스라부로 構成되있다.

建物의 前部는, 로비－의 스라브및 기둥이 콘크리트製이나, 그 以外의 로비－를 감싸는 후레임이나, 階段室은 鋼構造로 되어있다

이와같은 構造体는, 建物의 마무리 材料까지를 決定하고 있다.

뒷部分의 不透明한 煉互의 보름과 鋼材와 유리의 透明한 보름의 並置는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煉互는 에드몬튼의 建物에서 伝統的으로 使用되고 있다.

그러나 現在로서는, 몇몇 오래된 有名한 建物以外에는 pre cast 콘크리트의 建物로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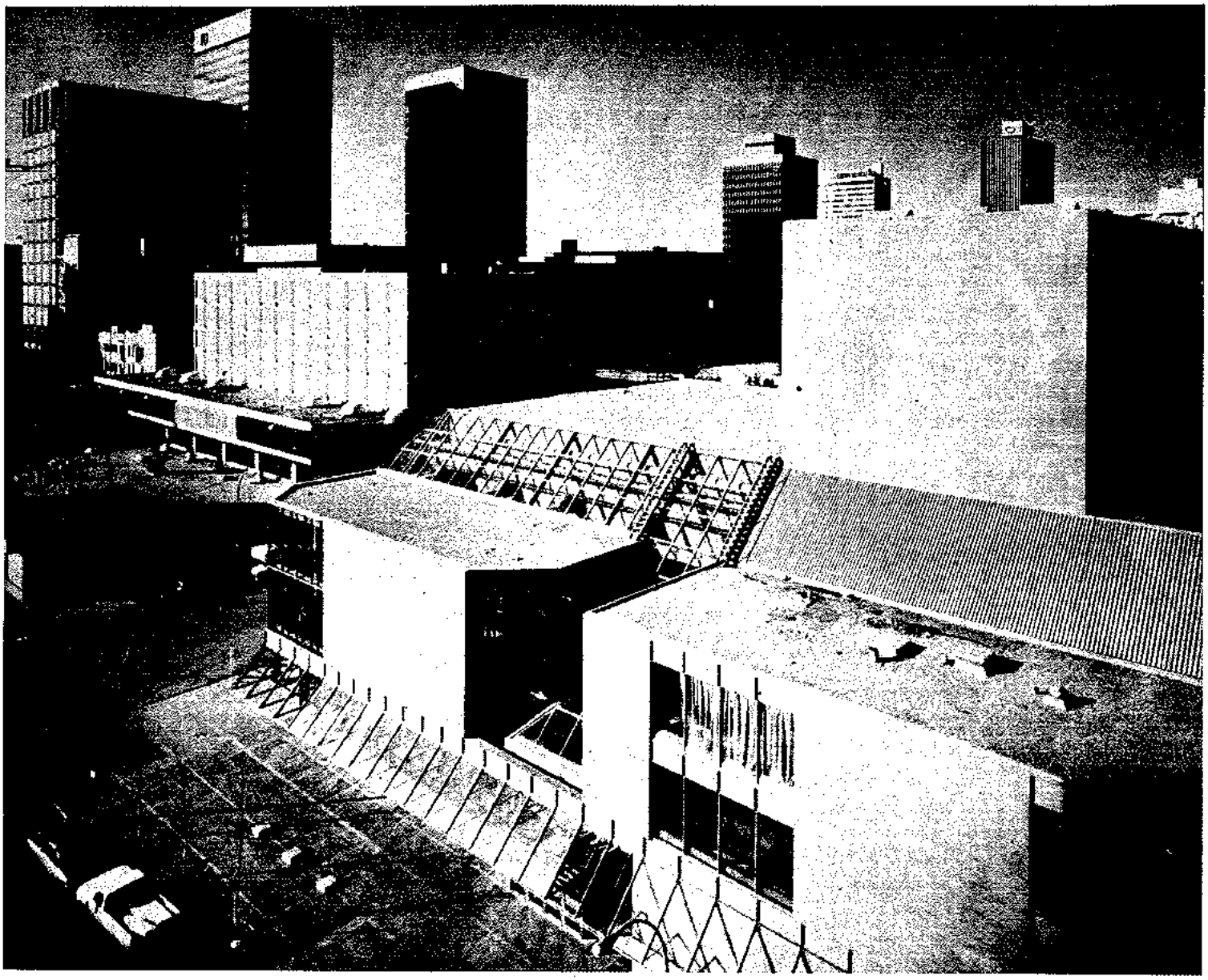
이에 대해서 設計者와 施主는, 이 煉互의 復権을 期해 建物 뒷 부분의 外壁, 大劇場의 밖 壁面, 그리고 歩行者通路의 콘크리트面에 煉互를 부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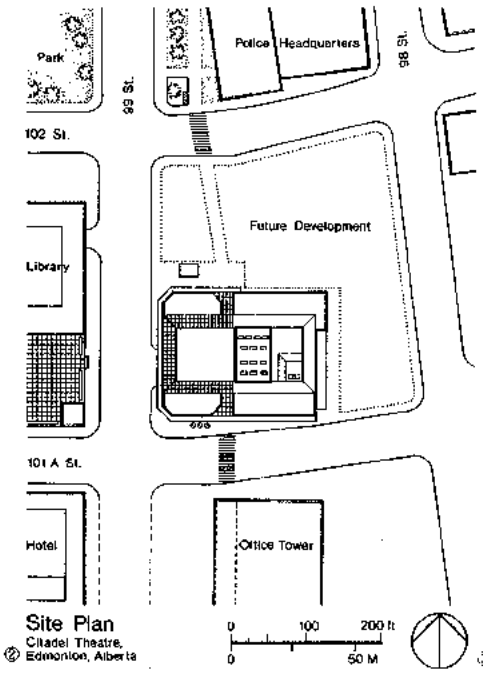
아루미·샷슈의 커－튼월과 日光을 받고있는 前部의 透明한 보름은, 모든 屋内街路를 設置한 것으로 象徴하는 外部와의 一体感을 주자는 意図에 依한 것이다.

設計者인 바－톤·마야는 1934年 버지니아 州 出生 1956年 海軍兵学校卒業後, 파이롯트로서 訓練을 받아, 英国派兵, 1960年 게인부리지大学建築学科에 聴講生으로 修業, 1964年 펜실바니아大学建築学 修士을 得하다. 그後 루이스·간事務所, 소－크研究所, 다카 国会議事室 設計에 従事, 1968年 토론토大学建築学科助教授로 부임과 同時, A.J. 다이아몬드와 設計事務所를 開設, 1975年 다이어모드와 헤어지고 토론트에 個人事務所 開設 오늘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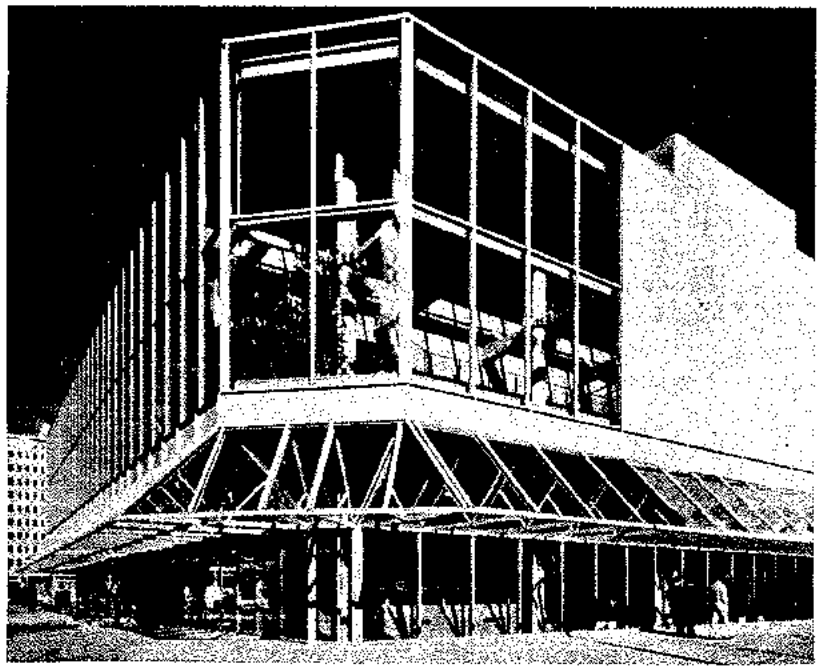
主要作品으로는 : 몬타리오州 医師会本部(토론토, 1971)
카나다 아루미늄株式会社事務所 1969
마이야－邸(토론토 1970)
요크 스퀘아 토론토 아루바－다 大学 学生유니온宿舎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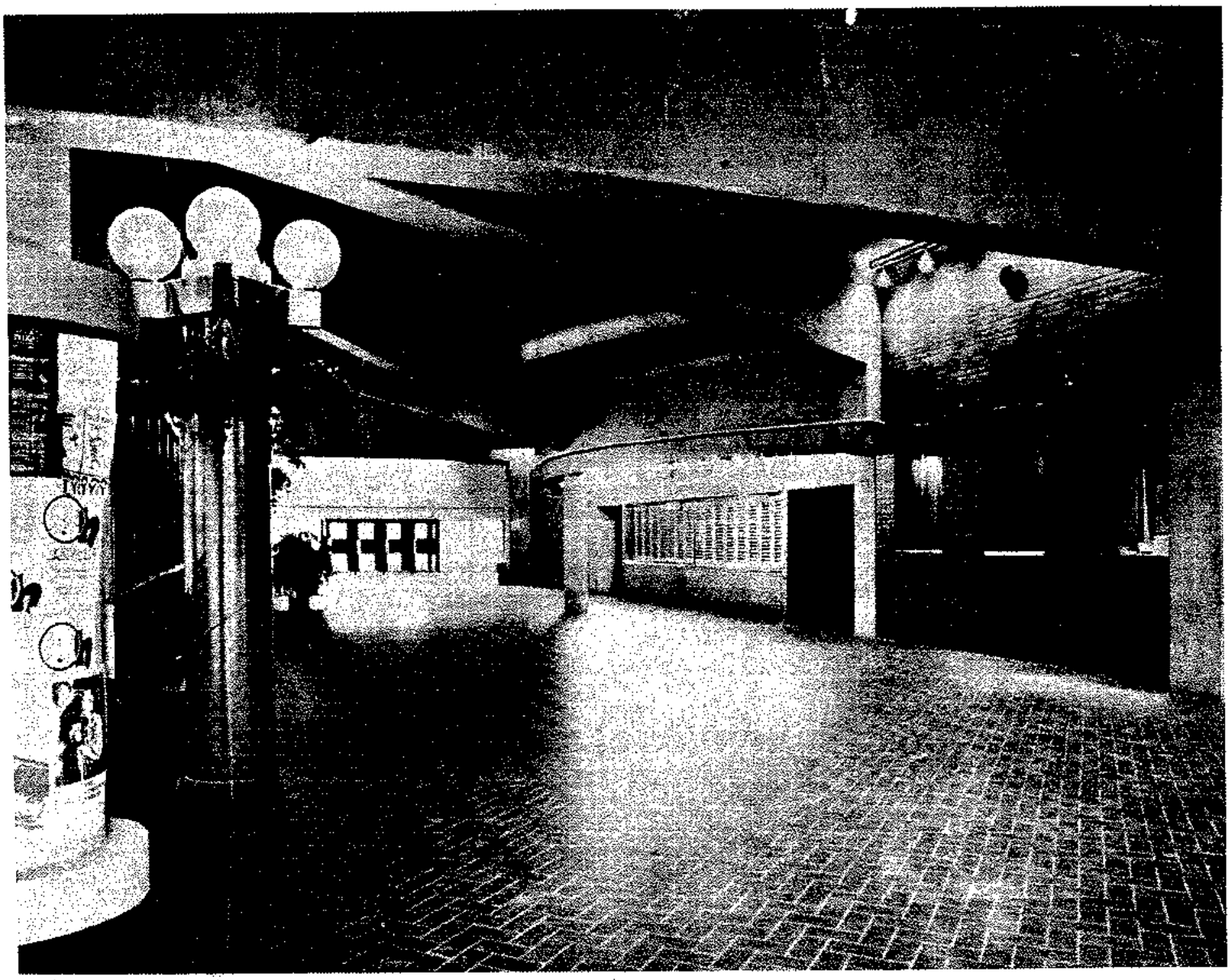
① 南에서의 全景
② 配置図
③ 南北코－나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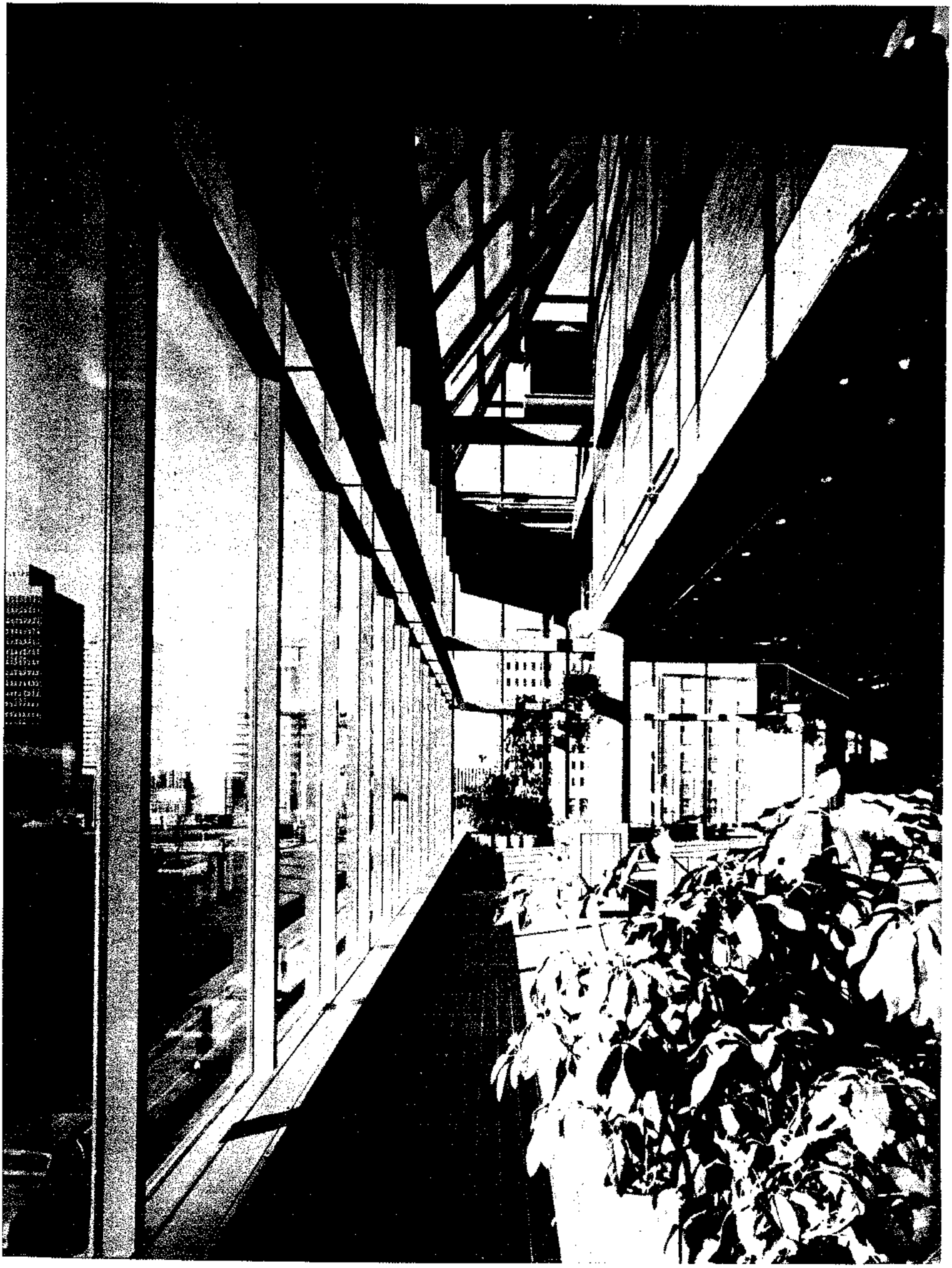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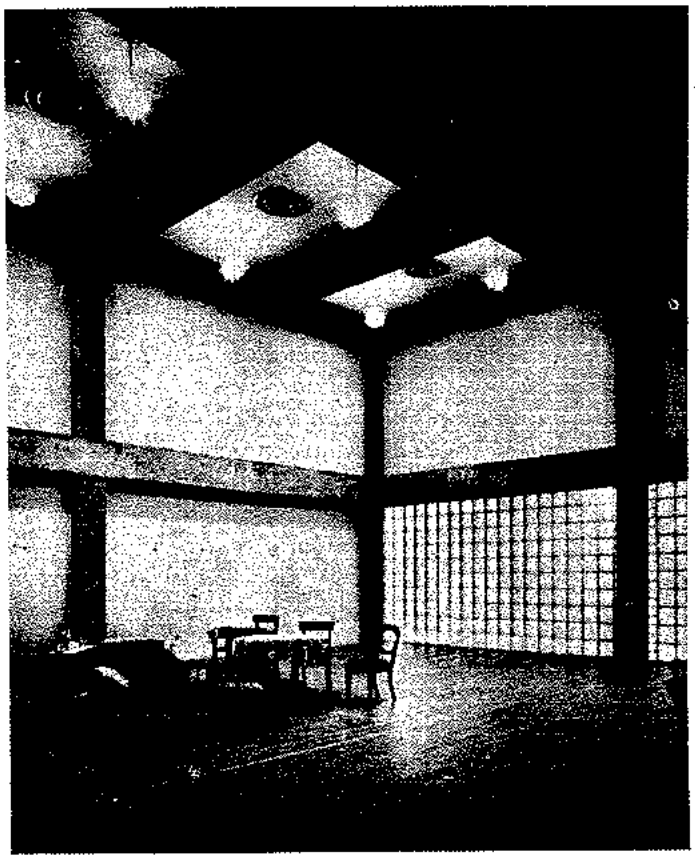


Site Plan
Citadel Theatre,
Edmonton, Alber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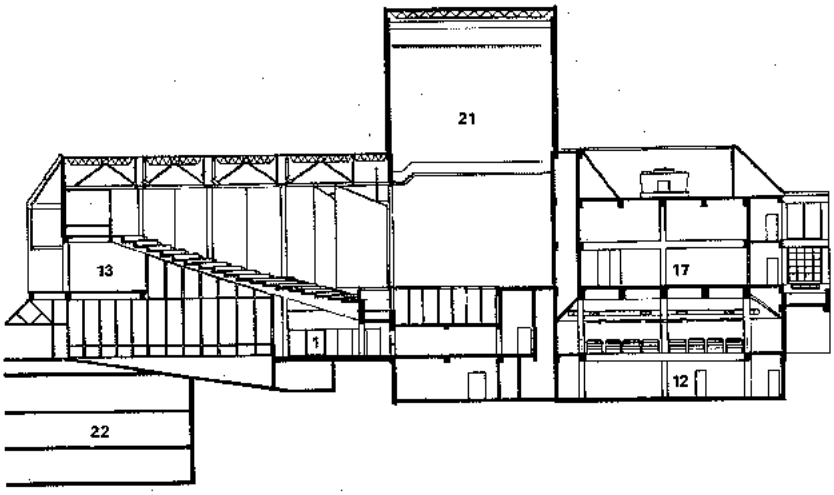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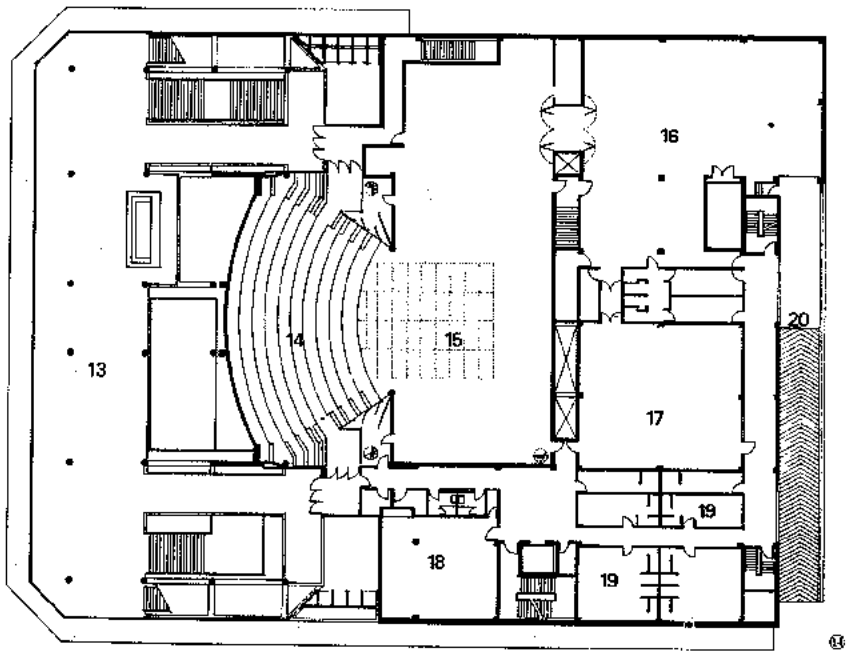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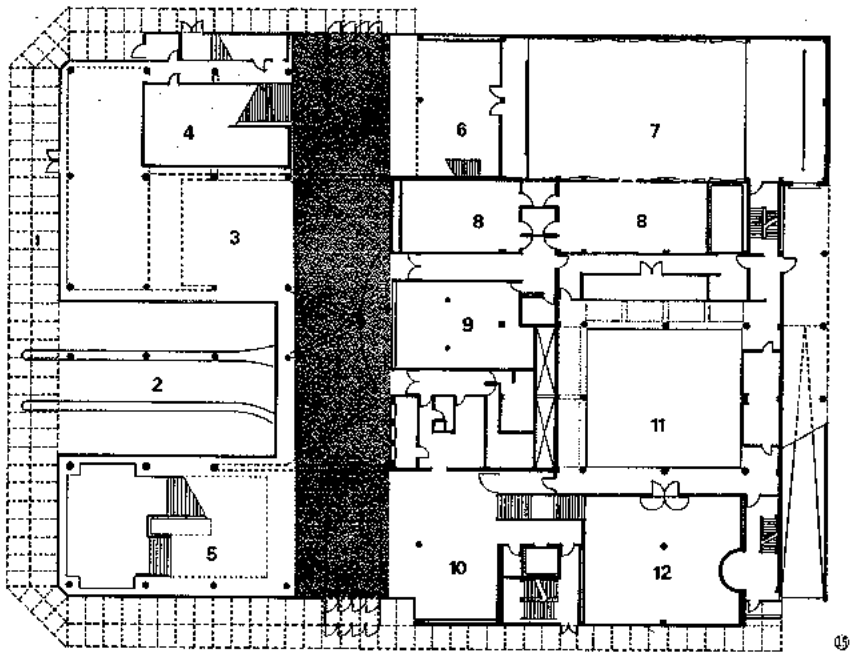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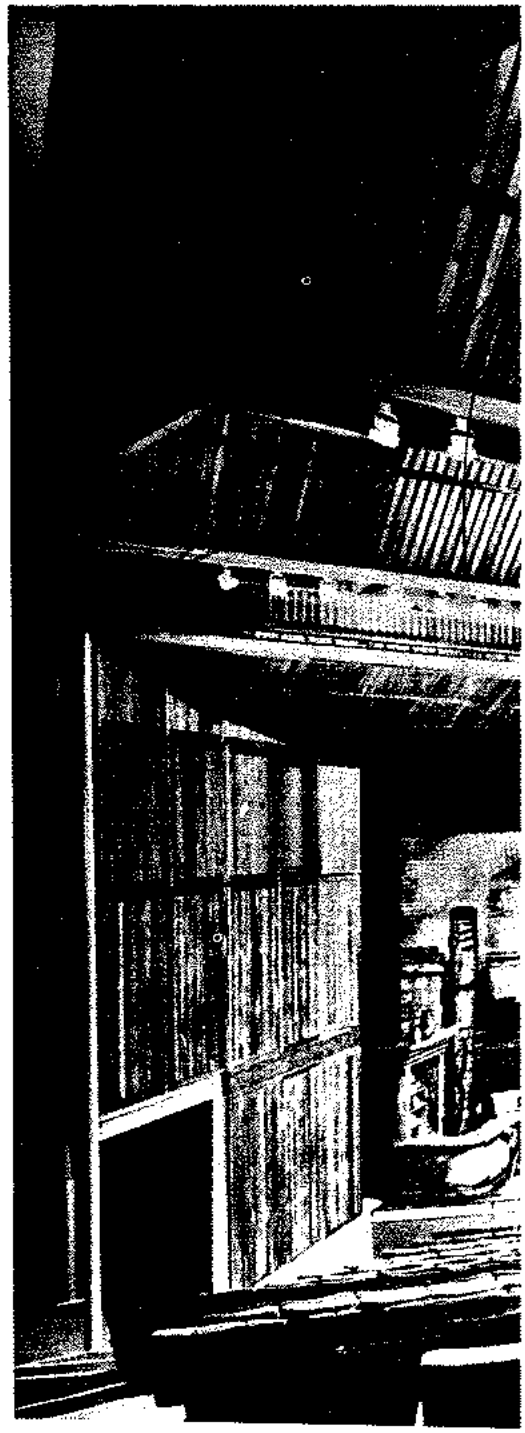


④ 階段에서 로-비를 보다
⑤ 通行街路
⑥ 実驗劇場, 1層 발코니에서 보다
⑦ 入口홀
⑧ 2層 로비
⑨ 日光窓
⑩ 2層로비
⑪ 리허살 홀
⑫ 大道具室, 右上이 小道具와 衣裝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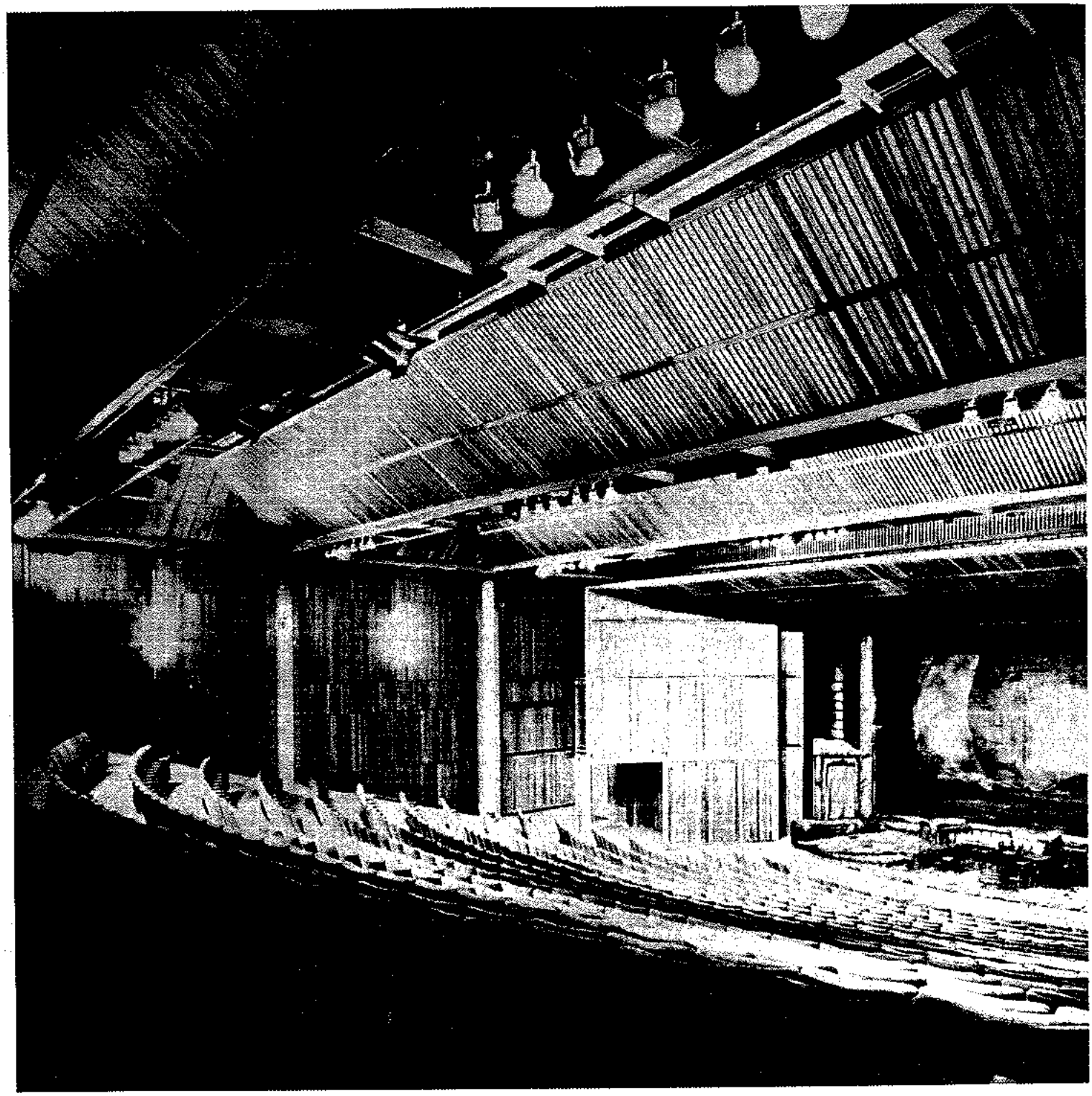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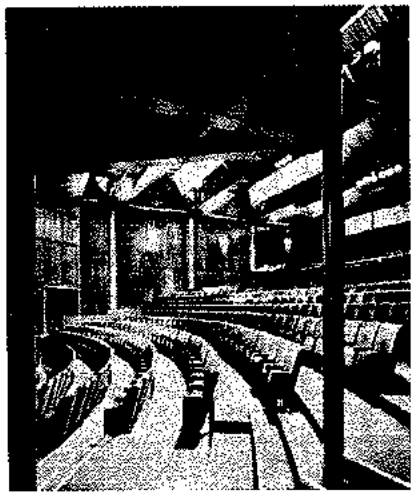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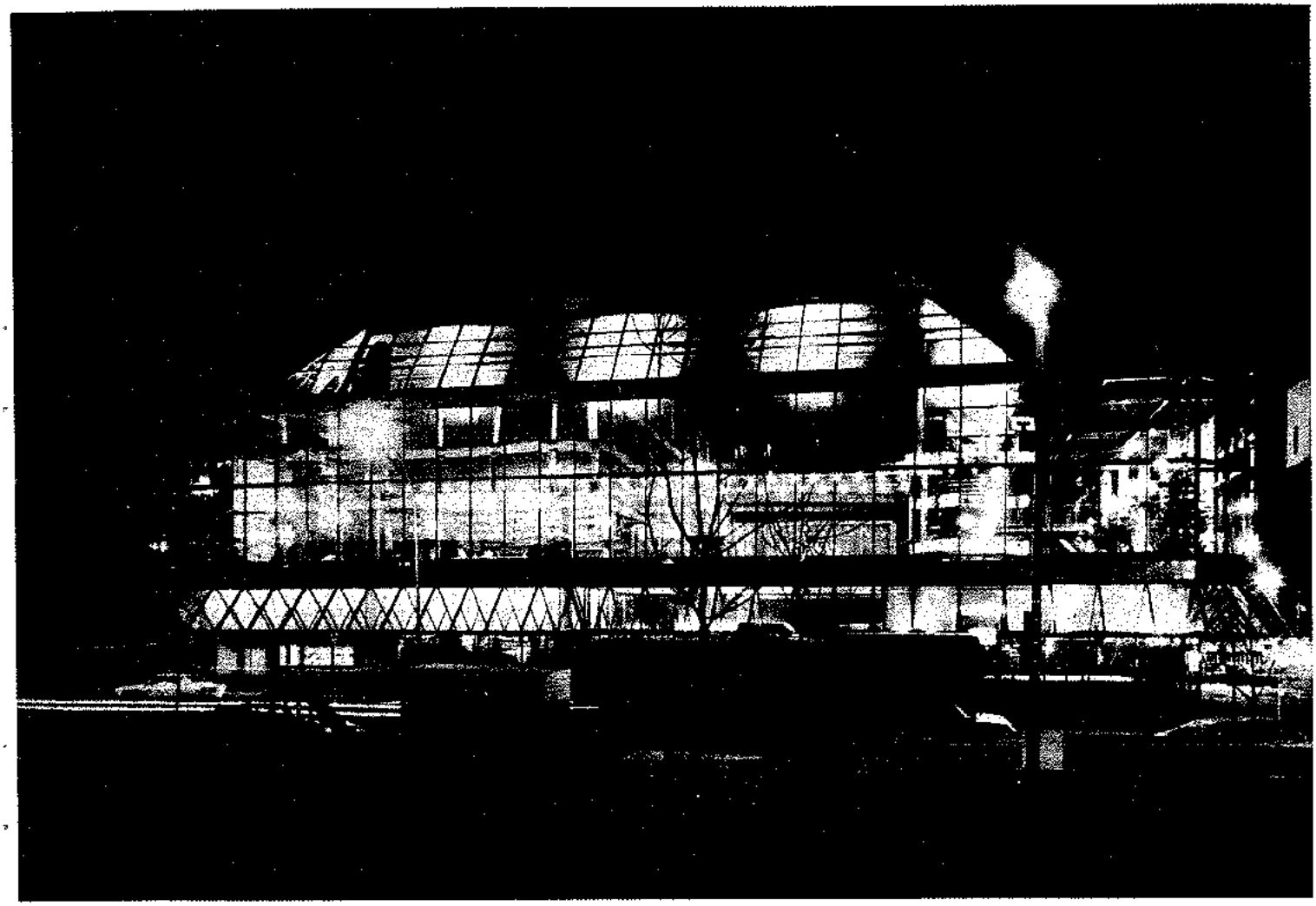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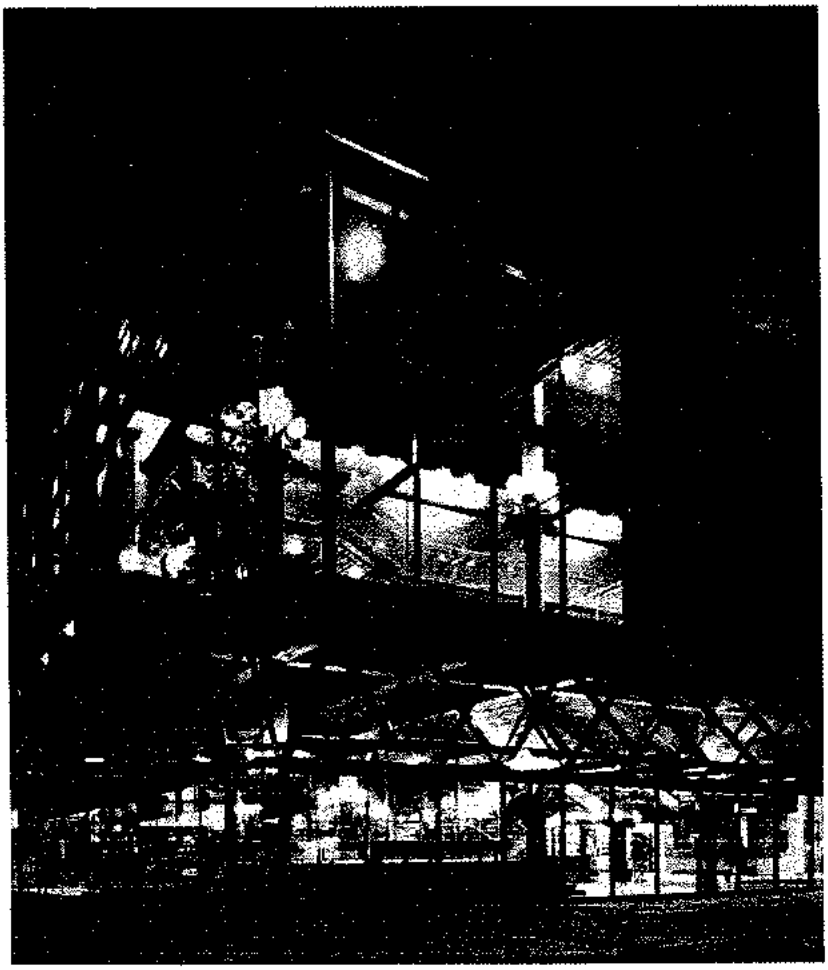
⑬ 断面図
⑭ 2層平面図
⑮ 1層平面図
⑯ 大劇場客席
⑱ 大劇場舞台

1, 모-루(屋内街路)
2. 地下駐車場入口
3. 라운지·레스토랑
4. 厨房
5. 階段
6. 映画館로-비
7. 映画館
8. 談話室
9. 房
10. 売店
11. 実驗劇場
12. 実驗劇場로-비
13. 로-비
14. 오더토륨
15. 무대
16. 作業室
17. 리허살·홀
18. 俳優控室
17. 更衣室
20. 램프
21. FFLYLOFT
22. 地下駐車場









延床面積90,000sapt
構造鉄筋콘크리트鋼構造
建築費 $ 6,000,000
完成1976年

⑲ 夜景西側회사－드
⑳ 夜景南西코－나部分

제록스・国際研修院

Xerox International Center (Leesburg, Virginia, U.S.A)

設計：The Kling Partnership

이 제록스 国際研修院은 제록스의 새로운 総合研修院인 것이다.

이곳은 販売, 技術에 関한 全般的 研修는 앞서보다는 새롭게 開発되어진 新製品에 関해 従業員이 充分히 理解해서, 販売活動에 임할수 있도록 指導, 訓練이 行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제록스의 研修施設은 美国内의 10個所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이것을 이번 1個所로 集中시켜, 500名의 스탭과 最大2,000名의 研修員의 収容이 可能하게 되였다.

敷地는 버지니아州, 리스버그의東-쪽 2마일의 森林地帯의 2,265 에카로, 와싱톤 D.C. 의 中心街에서 40마일정도 떨어진 곳에 位置한다.

地形은 変化가 많은 그리크, 運河, 河川에 沿해있는 넓직한 平垣地, 그리고 広葉樹, 松林이 뒤덮은 高台를 안고 있다. 이와같은 敷地中丘陵의 斜面40에카가 센터의 建設用地에 充当되고 있다.

그 以外의 空地는 自然 그대로 남는다. 建設用地中에서도 樹木은 極力自然의 그대로를 留保시키려는 配慮가 있었다.

이와같은 自然環境에서의 研修生活은, 日常의 作業의 스트레스 解消에 有効한다.

同時에 都市地域과의 交通便도 좋았고, 都市地域의 教育 文化的, 公共的 資産을 利用할수도 있다.

또한 建物의 設計및 建設의 課題가 段階的으로 実施되여질것도 要求 되여졌다.

即, 第1期完成時에는, 経営者側의 研修 이 될뿐만 아니라, 한번에 1,000名의 従業員에 대해서, 販売및 専門技術의 研修와 訓練의 프로그램에 投資하는 環境을 提供하지 않으면안 되였다. 그리고 다음은, 会社의 모든 職種의 従業員에 総合訓練 센타로서의 機能을 할 수 있도록 拡張하는것이 計画되였다.

建物은 set백의 6層으로서, 지그재그状의 計画으로 되어있다. 建物은 2個의 부럭으로 나누어져 있다. 어느것도 正八象形을 基準으로 하고있다. 이 두 부럭사이에 넓직하게 中庭이 마련되어, 各各의 부럭内는 中央으로 事務, 研修의 空間, 娯楽, 食事等 때문에 共有空間.

그리고 研修者의 宿泊室이 줄짓는 空間인 셋으로 大別되어, 共有性의 높은것으로부터 個有性의 順으로, 中心으로 外側으로 展開, 配置되어 있다.

建物의 제일外側에 지그재그状에 配置되어 있는 宿泊施設은, 研修者 6名에 대해서 라운지와, 그것을 三角形의 두 辺으로 감싸는듯이 配置한 여섯개의 個室을 한個의 群으로서, 그것을 連続시키는 構成을 나타내고 있다. 各 個室은 책상, 침대, 洗面台를 모두 갖추고 있으나, 샤와 便所는 隣室과 同同으로 使用하게 되어 있다.

宿泊室 部分은 段状構成때문에, 個室部의 밑이, 마루 下層의 라운지部分에 해당되며, 上下方向의 防音에 대한 配慮가 되여있다. 1層 및 2層의 宿泊室로는, 경사진 階段에 依해 올라, 3層에서 6層까지는 階段과 에레베타로 오를수 있다.

이 宿泊室의 따른 空間과 娯楽, 食事의 空間과의 다리로서 걸쳐 있는 코아와도 直接걸쳐 있다.

다시 한편 研修空間과 얼켜 있는 코아와도 直接얼켜 있다. 共有空間形状은, 段状의 宿泊室群에 依해 決定되여지고 있다.

宿泊室의 3層과 같은 水平의 通路가 設置되어 있어, 研修者나 스탭들이 他部門으로의 移動에 利用한다.

地上層의 2個所에는 카페테리아가 設置되어, 各各의 600名의 収容能力이 있다.

카페테리아 말고도 이空間에는 칵테일·라운지나 娯楽施設이 들어가 있다.

이 센타의 機能上 特히 重要한 研修空間은, 約4,000平方 휘-트의 正方形을 基準単位로 한 平面構成을 나타내고 있다.

建物은 各室속의 区割이 容易하게 될 수 있도록 鋼構造 構造로 되었다. 基準이되는 65′×65″의 正方形에서 研修目的에 따라, 다시 몇 種類인가의 넓은 房이 만들어진다. 内部를 5개의 8角房에 再分시켜 600平方휘-트의 教室을 만들든가, 中央에 通路를 設置 둘로 나누어 1,600平方휘-트의 研修室을 만들든가, 또 둘로 나눈 한쪽을 다시갈라 작은房을만들었다. 한다.

建物外壁은 바꿔치기가 容易할 수 있도록 판넬化 되고있다. 内壁은 그나름대로 房의 性格에 따라 木材, 스탓코, 유리材가 使用되고 있다.

다시 事務, 管理施設이 全体의 中心에 配置되고 있다.

構造는 宿泊施設, 共有空間部分이 鉄骨이콘크리트造. 中央의 研修및 事務室은 鋼構造로, 판넬板 바르기. 지붕의 기와는 따뜻한 色調의 것이 選択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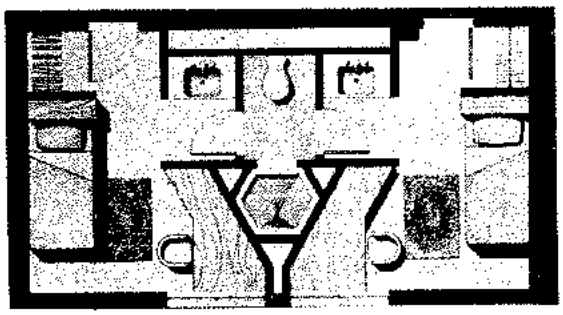
이 宿泊棟의 지붕기와 調和시키기 위해, 研修棟의 外壁에는 아프리카産의 마호가니를 파넬化시켜 부쳐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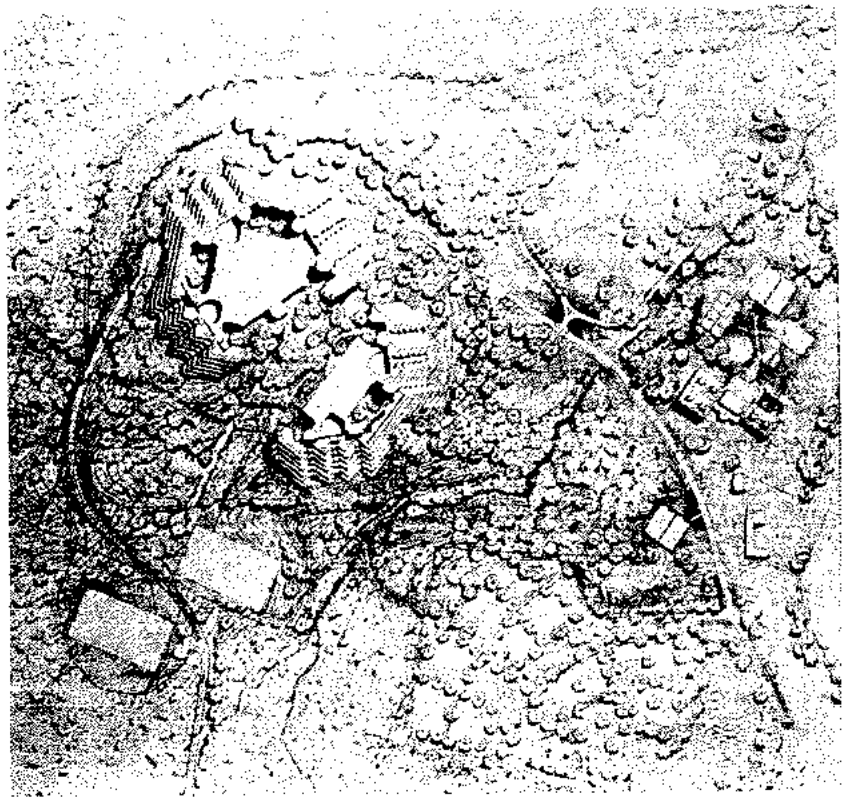
建物内部의 間막이壁은 콘크리트·블록 쌓기, 푸라스타 바르기, 天井은 防音用 타일이 부쳐지고 있다. 바닥은 거의가 카펫깔기.

이 제록스 研修센타의 敷地속에는, 이建物과는 따로 体育館, 水永풀, 테니스 코트, 농구코트가 設置되어있다. 이것들은 단지 会社 販売活動때문에의 研修場에 그치지 않고 従業員個個人의人間性向上의 一助가 되는 総合研修센타-로 만들고자하는 施主의 意問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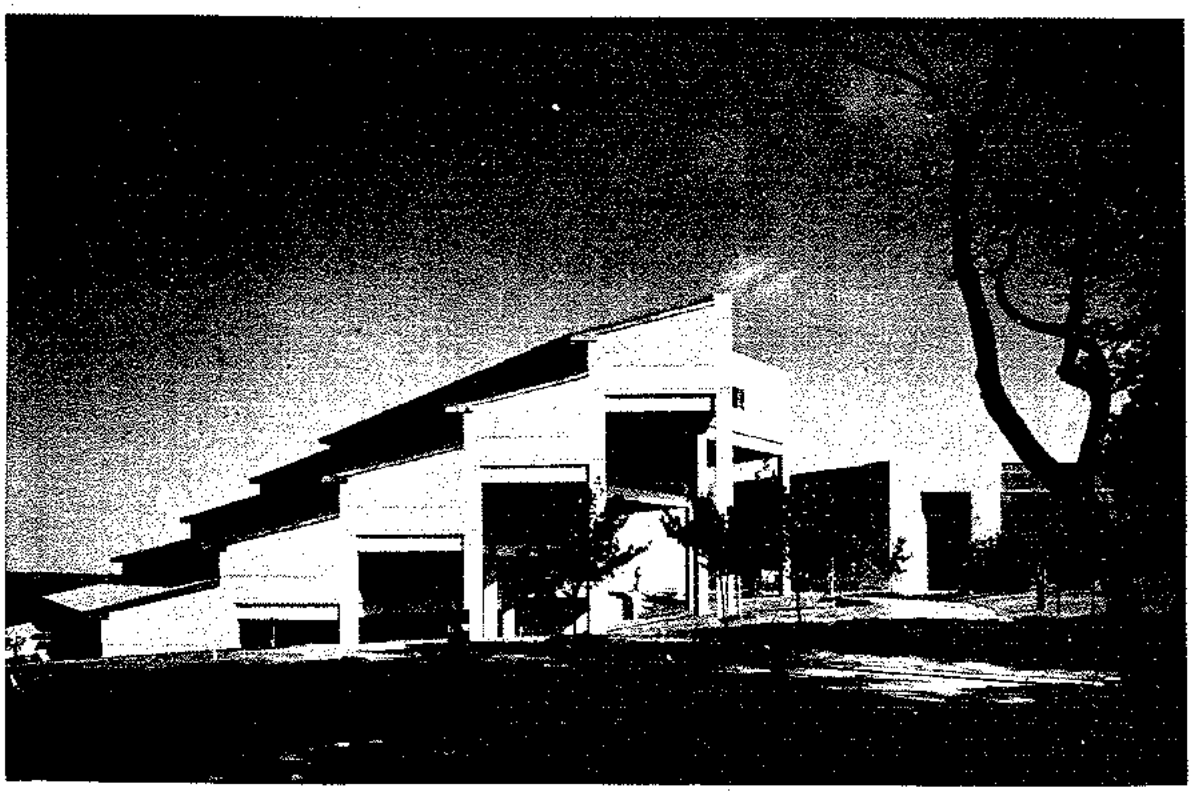
設計者, 윈센트·크린은 필라델피아의 크린. 파트나십의 建築設計部門을 担当하고 있는 組職인 것이다.

크린·파트나십은, 윈센트·G·크린을 所長으로 建築設計, 構造計画, 地域開発計画, 인테리아·디자인의 各部門에서 이루어지는 総合建築 事務所로서, 事務室BL, 空港BL, 医療센타-, 教会, 工場等 大規模인 建築을 손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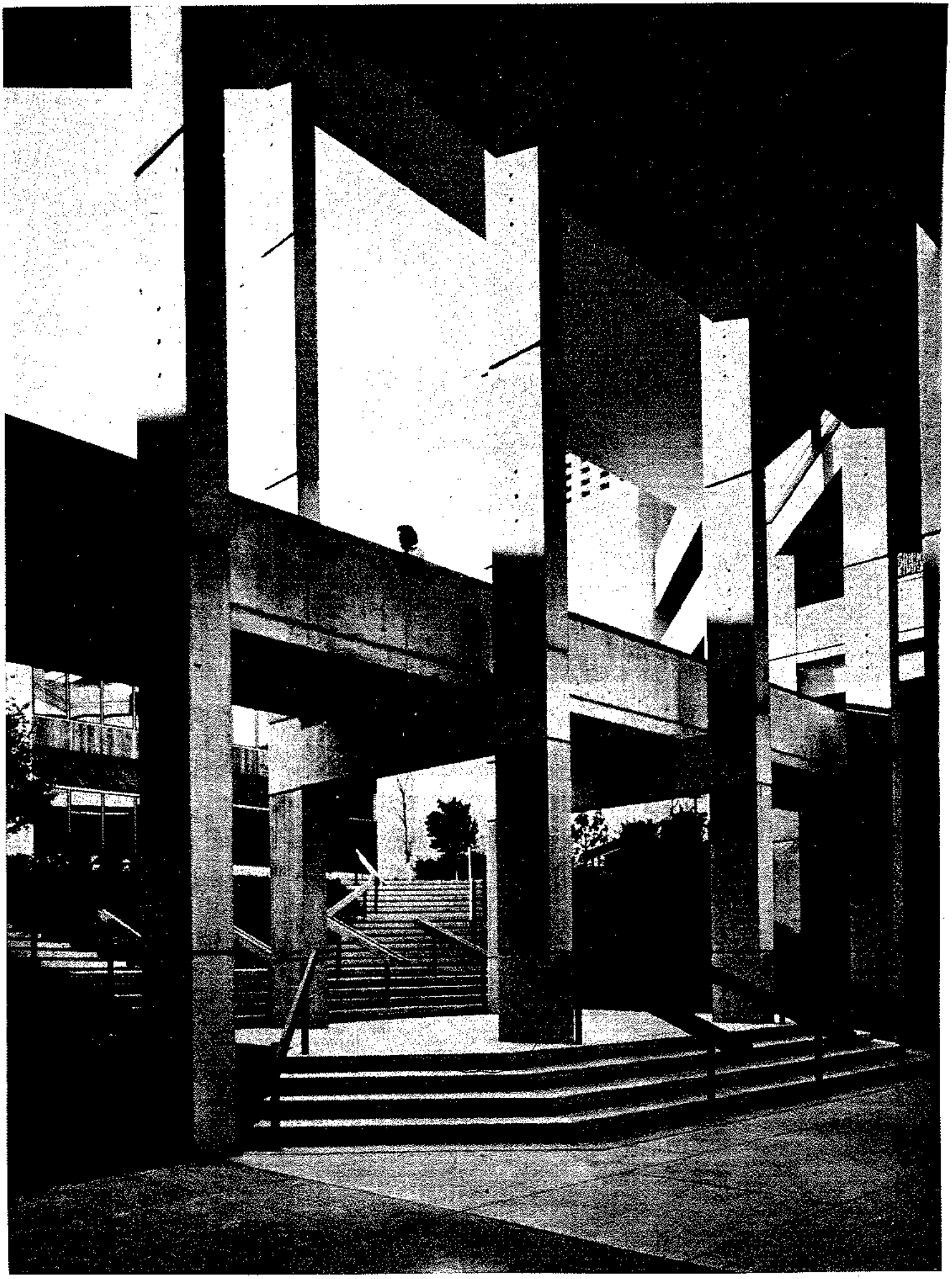




① 敷地와의 融和를 計劃하고 있다.
② 個室유닛트平面図
③ 마스타·計 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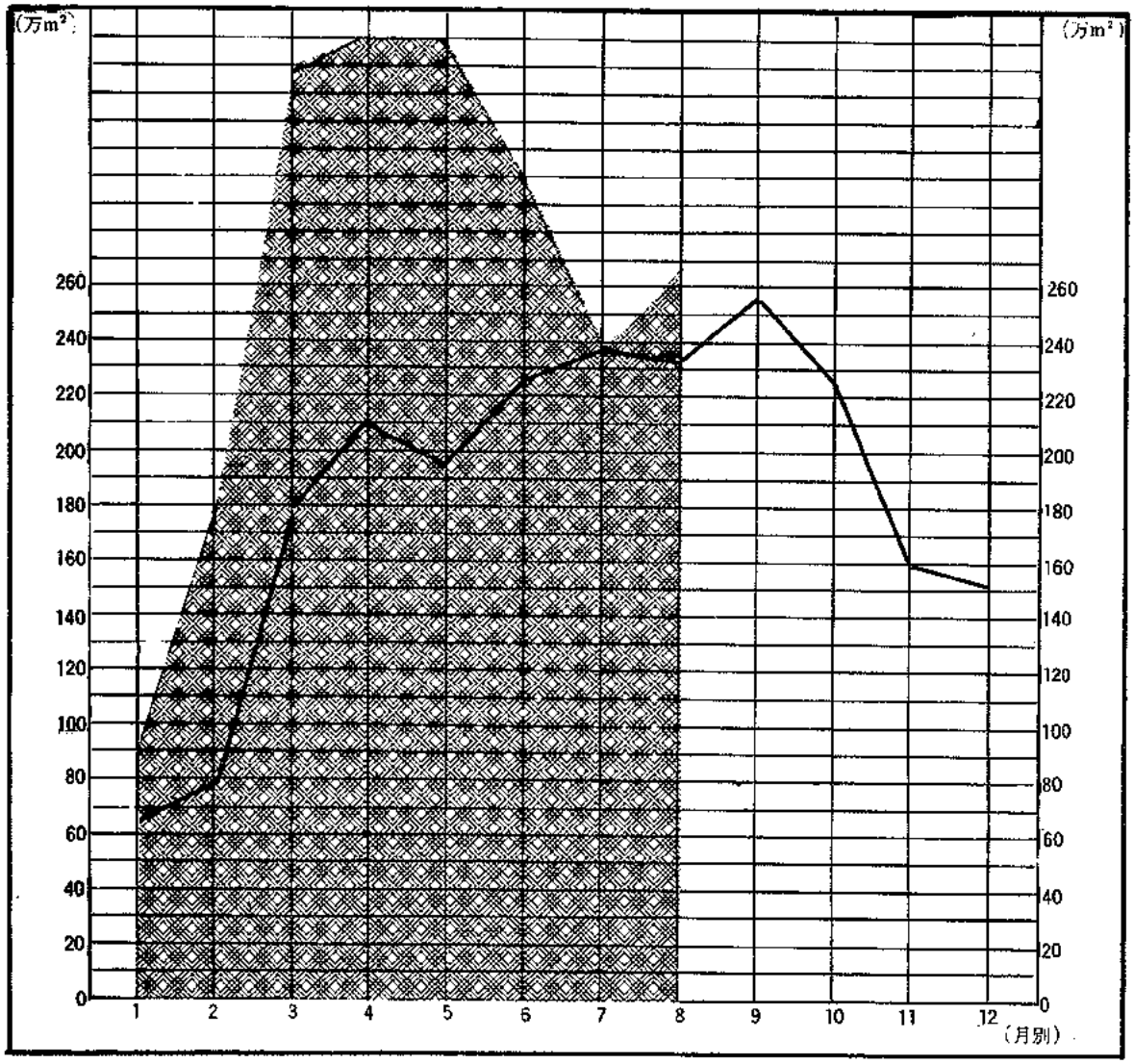


④ 研修者入口
⑤ 断面図
⑥ 段状に 構成되어진 宿泊棟
⑦ 中庭
⑧ 라테일 · 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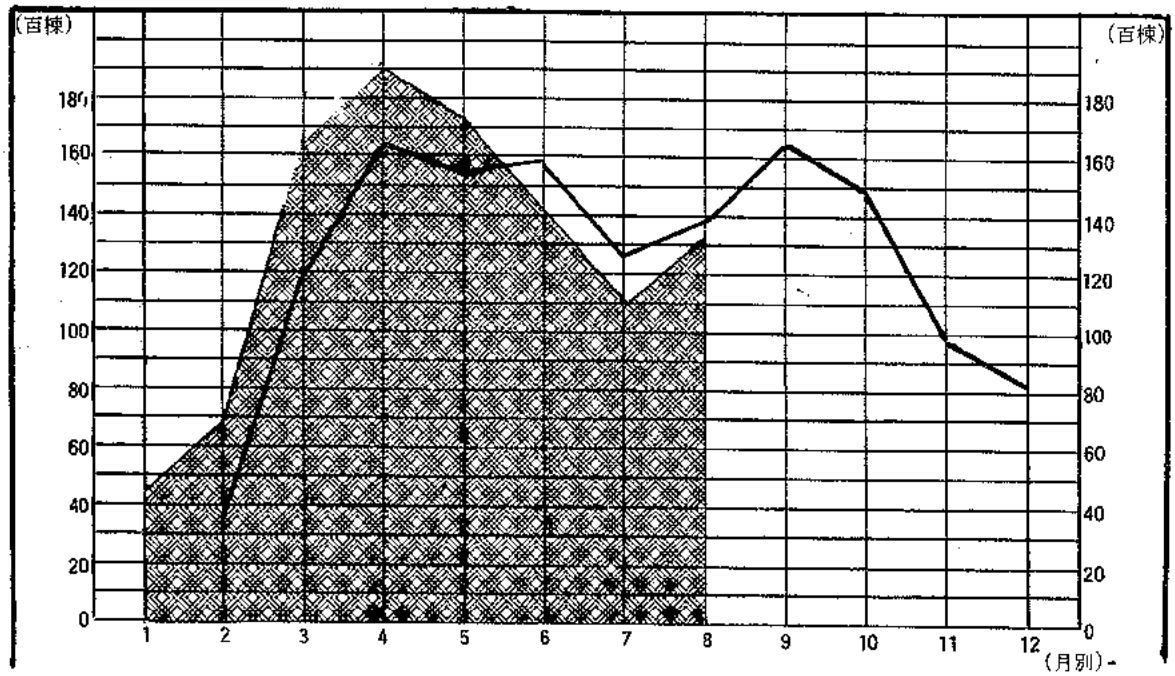


全国建築許可統計

月別建築許可（延面積）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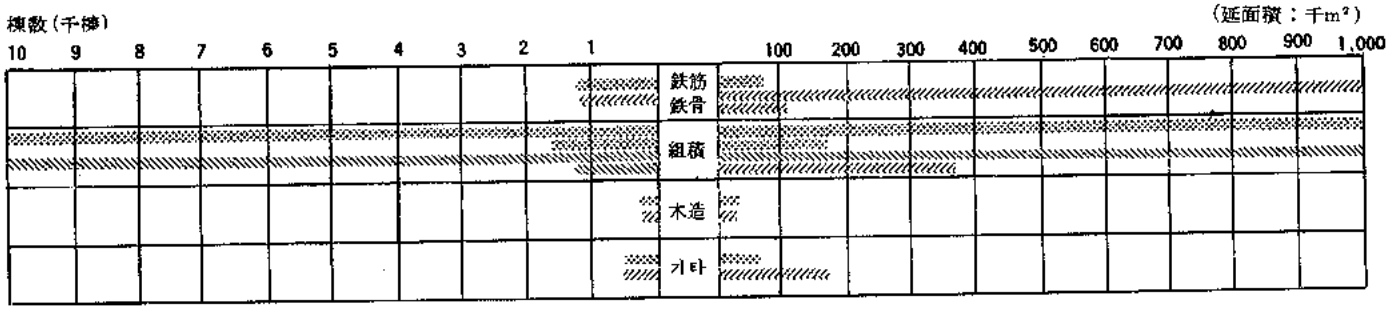


月別建築許可（棟数）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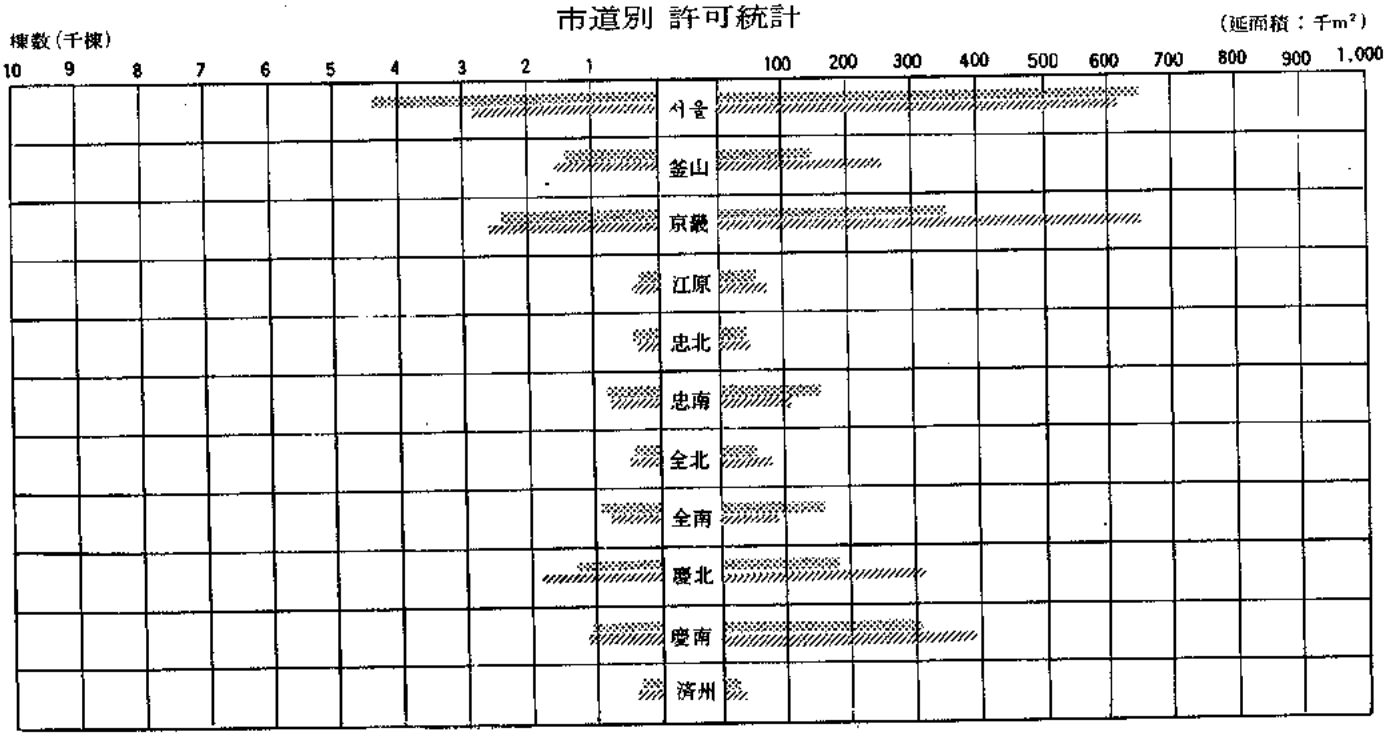
1978
1977

構造別 許可統計



用途別 許可統計

市道別 許可統計



全国 許可 統計総括

棟数(萬棟)　　(延面積：萬m²)

13,809	前年対比	2,166,211	
13,299		2,674,854	

(일본 기술을 도입)

콘크리트, 몰탈, 푸라스타(石灰) 防水·防濕用

하이너루 防水劑
수성페인트混和劑

사용후 다시찾는 防水工의 마약

◆ 特徵·利點 ◆

* 防水콘크리트로 母体防水가 可能함.
* 塩類, 酸類에 強하며 金屬性부식이 全無.
* 用途가 다양하고 사용이 간편하다.
* 防水, 防濕, 防腐效果는 100%이다.
* K.S 規格에 맞은 優秀品質.
* 수성페인트 混和劑는 100% 방수효과를 낸다.
* 価格低廉, 経済性이 倍加.

◆ 用 途 ◆

* 터-널 地下室 屋上 벽체 욕실防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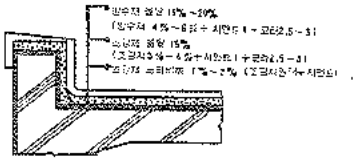
◆ 사 용 법 ◆

* 콘크리트용은 : 시멘트중량비 2%이상.
* 몰탈용은 : 시멘트중량비 4%이상
* 석회용은 : 석회중량비 4%이상.
* 使用水量에 混和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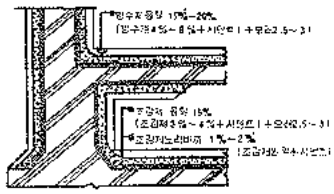
◆ 제품성능 ◆

* 국립건설연구소(KS규격에 합격), 대한주택공사(KS규격에 합격), 국립공업시험원(KS 규격에 합격), 쌍용레미콘시험실(強度시험), 日本工業規格(JIS)에 의한 시험성적이 品質을 보증함.

① 屋上, 베란다等 防水工法



② 地下室等 防水工法



하이너-루工法에 의한 소요재료

재료 / 면적	시 멘 트	모 래	하이너-루원액소요량			비 고
			조강폐스트 70%	조강몰탈 3%	방수몰탈 4%	기준량 이 상 첨가요
100M²	(42.5포) 1,710kg	3.0M³	42kg	27kg	30kg	

※ 방수콘크리트는 시멘트 중량비 2%이상 첨가.
예 : 320kg(1M³) × 2% = 6.4kg(하이너-루방수제)

四季節 土木建築工事를 용이하게하는

하이너루 防凍劑 早強劑
시멘트混和劑의 最新·最優秀製品

◆ 特徵·利點 ◆

* 1日, 3日, 7日 強度가 보통 콘크리트 3日, 7日, 28日 強度와 同一.
* A, E劑, 減水劑, 分散劑役割
* 工事費의 減少, 工期短縮, 凍害防止.
* 強度增大로 Cement절감.

◆ 品 質 ◆

* 性能은 국립건설연구소, 국립공업시험원, 日本工業規格(JIS A-6101에 의한 시험성적), 大韓住宅公社 시험성적이 外國産을 능가 함을 증명한다.

◆ 用 途 ◆

* 初期強度를 要하는 工事 * 突貫工事, 水中工事
* 凍期工事(−15 ℃), 緊急을 要하는 工事
* 시멘트 2次製品
* 早強 Cement를 要하는 工事
* 防水工事에 止水劑로 사용.

◆ 使用法 ◆

* 早強효과 : 시멘트중량비 1~5%첨가
* 防凍효과 : 시멘트중량비 6~12%첨가
* 止水효과 : 100%원액을 사용
* 사용水量에 稀釋사용

◆ 納品実績 ◆

*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 대한주택공사(경남기업, 미성건설, 정우개발) * 부산시청 * 부산세관 * 수힘중앙회 * 자명건설Co. * 총성건설Co. * 태평양건설Co. * 삼익주택(여의도Apt) * 삼부토건(여의도 타워형Apt) * 부산시청 영도제2대교가설공사(홍화공업) * 대한주택공사 사직동아파트(경남기업) * 부산제7부두축조공사(동아건설)외 200여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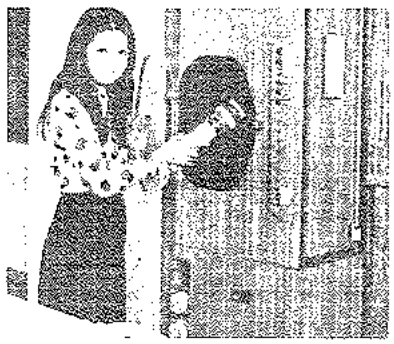
三龍化學工業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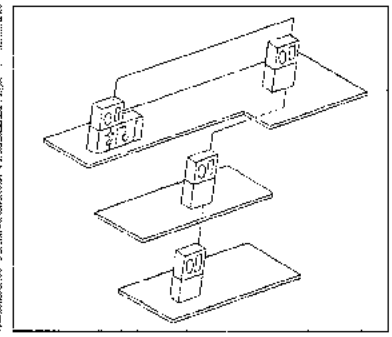
서울 ㉚ 5377·7892 부산 ㉑ 0777, ㉒ 0113·㉖ 0253 대구 67 1797 이리 2945 인천 ㉕ 5125 성남 2 1807 청주 ② 1020

物品, 傳票 運搬의 現代化 設備.

先進國의 대열에 선 우리의 企業들이 보다 效率的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大韓中外商事(株)가 日本 Nippon Air-Shooter와 提携, 現代 都市建設에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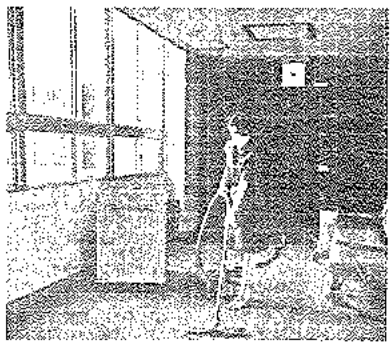
Air-Shoo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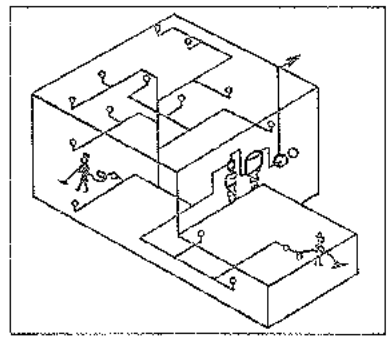




모든 곳에서 活躍하고 있는 Air-Shooter. 書類搬送만이 아니고 分析資料의 急送, Part 搬送 등 豊富한 機種과 System으로 모든 分野에서 쓰여지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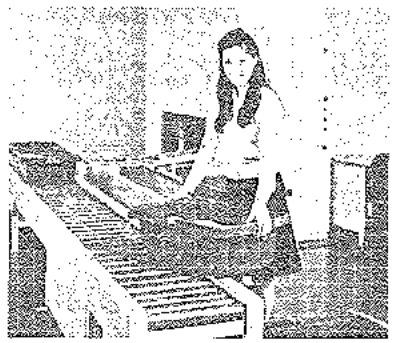
Central Clea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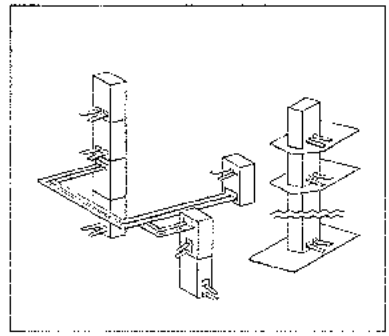




먼지의 收集方法을 크게 바꾼 먼지 眞空輸送設備, 超大型의 眞空掃除機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지는 投入口에서 輸送管을 通하여 收集됩니다.

Vertical Conveyor System.





어디서나 利用되고 있는 Vertical Conveyor System 15kg 以下의 重量으로 Tray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搬送됩니다. 즉 Building 內의 Track 大量搬送에도 便利합니다.

◉ Air-Shooter를 主로 利用하는 곳.

銀行, 商社, Maker, 病院, 電力会社, 出版社, 保険, 証券会社, HOTEL, GOLF場 等.

製造元 日本AIR SHOOTER株式會社

韓国総代理店 大韓中外商事株式会社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0-2. 94-0981~4(교환), 95-4449(직통)

시멘트混和劑 標準型

AE·分散劑·減水劑

츄폴·씨

CHUPOL·C

▲ 츄폴·씨의 特性

- 單位水量의 減少 (8 – 12%)
- 作業性이 좋아짐.
- 強度增大로 Cement 節減 (8 – 10%)
- 工期短縮, 工事費節減
- 過多使用하여도 效能不變
- 非이온性이므로 鉄骨腐蝕性 없음.

經済的이며 品質優秀한
最新混和劑

츄 폴·NR 遲延型

츄 폴·Z-1 早強型

▲ 츄폴·씨의 使用法

- 使用하는 Cement重量의 0.04%가 標準임.
  콘크리트 $1m^3$을 만들때 츄폴-C 사용으로 절감되는 시멘트 량은?
  (보통 콘크리트 $1m^3$ 만들때 씨멘트 320 kg이 소요된다면)
  츄폴-C 사용시 시멘트 10%를 절감한 (320 kg – 32kg) 288kg에 츄폴-C를 115g (288 kg의 0.04%)을 투입사용하시면 됩니다.

- 씨멘트 한포 (40kg)에
  츄폴·씨 16g.

▲ 使 用 量

- 지연효과 : 시멘트 重量의 0.1%
- 早強효과 : 시멘트 重量의 0.5%

✓脫型油는 포리존

▲ 品質保証

- 本 製品은 日本에서 20余年間 使用한 特許品임.
- 技術導入 및 合作投資로 国内 生産供給
- 国立건설연구소, 국방부조달본부, 농업진흥공사 品質시험합격, 日本工業規格 (JIS) 合格.

新韓有機化學工業株式會社
TEL : 仁川 ⑥0031 · 1407
本社 · 工場 : 京畿道 高川市 春衣洞 209 서울連絡所 : 22 – 5486 · 23 – 8821

發明特許品 電子열쇠(도어로크)新発売

열쇠界의 혁신! 電子열쇠로 여러분의 財産을 保護합시다

電子열쇠는…

1. 電子열쇠는 다른 열쇠나 어떠한方法으로도 열수 없음.
2. 電子열쇠는 故障이 全然없음.
3. 電子열쇠는 使用操作이 부드럽다.
4. 電子열쇠는 特殊磁石을 使用하여 永久的임.
5. 電子열쇠는 複製(合鍵)가 않됨.
(439,296個가 生産될때 同一한 열쇠 한개가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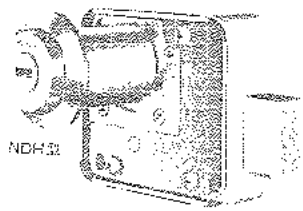
使用處 : 아파트, 住宅, 事務室, 병원 保管倉庫, 金庫, 호텔 등
販賣處 : 有名鐵物商이나 本社營業部

※ 열쇠가 더 必要하거나 紛失時는 本社로 注文하십시오.

"쥐 쫓는 초음파기 판매"
(日本 完製品輸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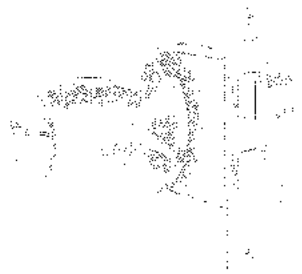
世林貿易株式會社
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 2 街 60－3
TEL. 775－7040・7041
공장 TEL. 260－1623 부산지사 : 26－8765
日本美和LOCK株式会社

補助錠(ECNDH型) 電子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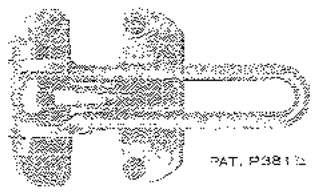
附着하기 쉬우며 堅固하고 耐久性이 좋고 防犯上 安全합니다.

도어록크(ECHMU型) 電子式



한가지型으로 左右 內外, 開門自由로히 使用할수 있고, 重要保管用達使用, 補助錠이 必要 없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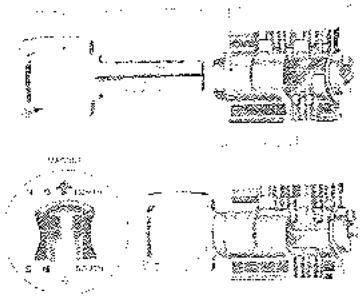
安全문고리(SL-1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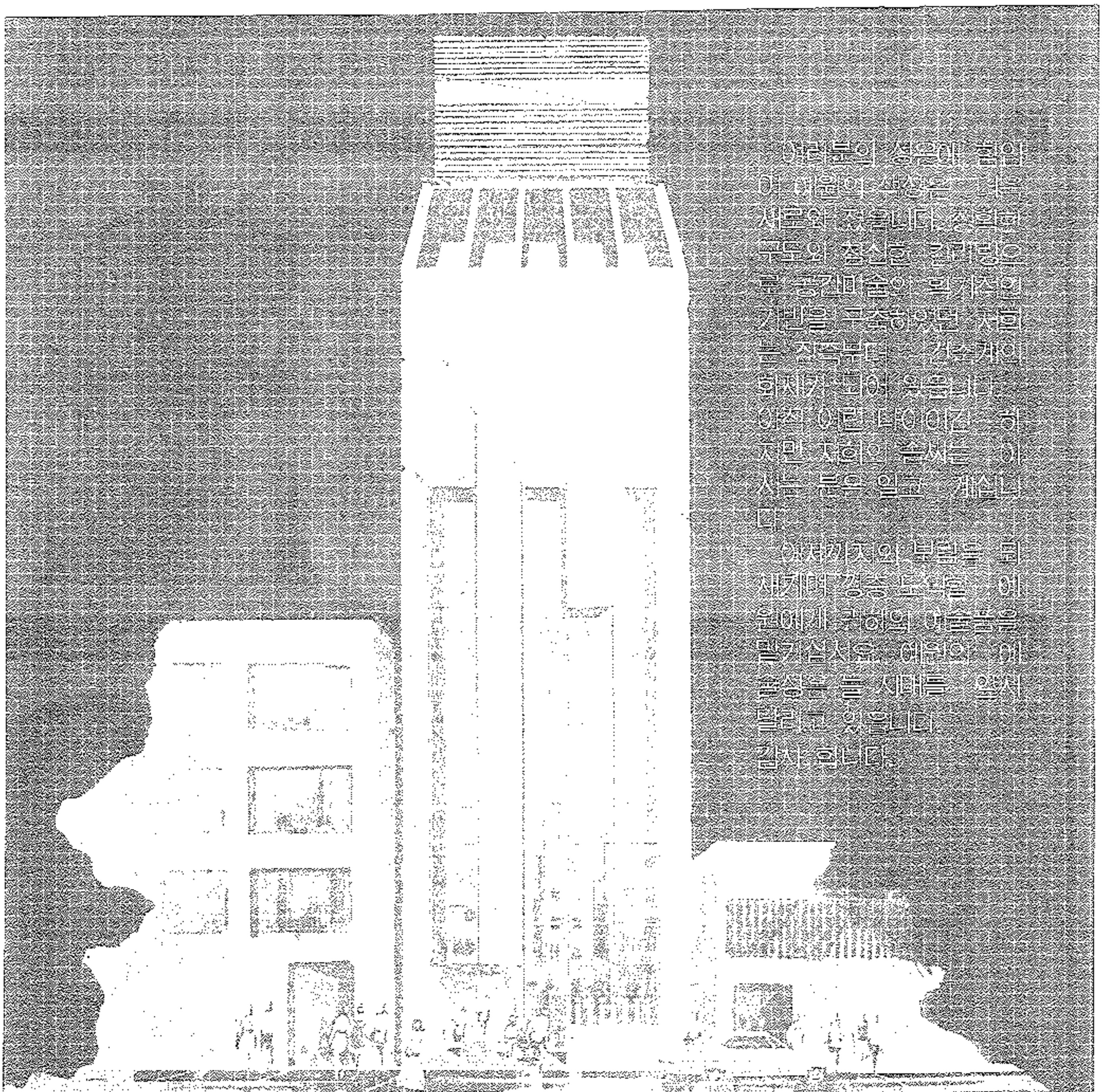
外部에서 門을 열때 10cm 程度만 열리고 확인후 門을 열어주는 安全고리

※ 金庫用, 家具什器用, 카비넷트用, 私書函, 其他 電子열쇠가 있음.

電子열쇠의 構造



예원네 솜씨



투시도 · 조감도

94·5784

藝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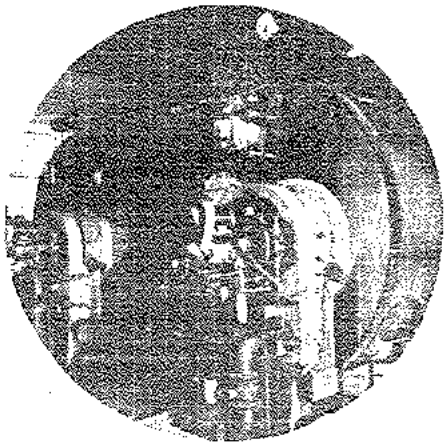
Rocket Boiler
연료비40% 절약!

로켓트 보일러

工産品 品質管理法에 依한 優秀商品 指定

燃料 使用器機大會 商工部 優秀賞受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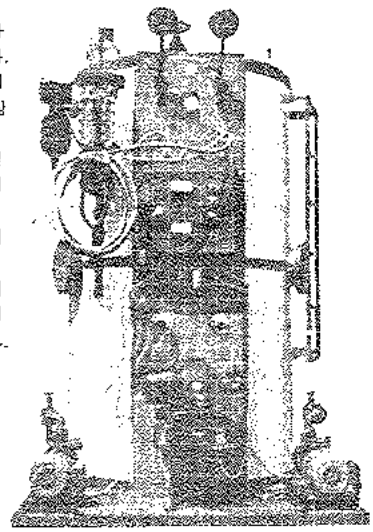
고압연관식보일러(KR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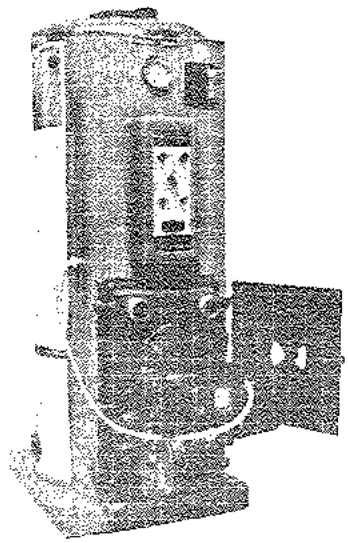
- 1ton에서 10ton까지 용량이 규격별로 다양합니다.
- 벨기에의 최근과 기술 협력한 새로운 모델로 긴 수명과 놀라운 성능의 보일러입니다.
- 연관식 보일러의 신기원을 이룩한 제품입니다.

전자동 증기보일러(KRS)

- 1000명 미만 가축사 취사는 20분내에 해결합니다.
- 직물공장 건조 세팅 증기 마리비용으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 화학반응기 살균 난방및 급탕용 식품가공 공장에 적합합니다.
- 미역해초등 수산물가공에 적합합니다.
- 규격 0.2에서 0.5ton 의 전자동 소형 스팀 보일러로 관리에 편리하고 연료비 40%가 절약됩니다.
- 전자동이므로 관리할 이 필요없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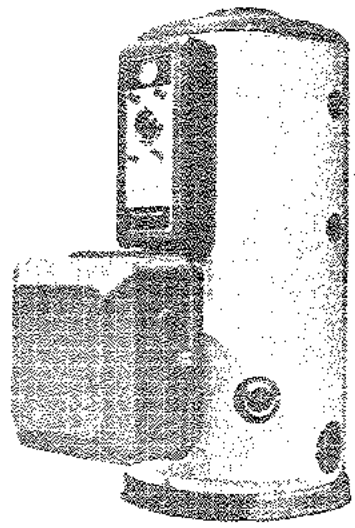
다목적온수보일러(KRZ)



- 난방용 급탕용 목욕탕 전용.
- 정전시 또는 오일버이너 고장시 연탄화목및 폐품을 사용할 수 있읍니다.
- 본제품은 5만에서 40만 Kcal까지 용량이 규격별로 다양합니다.
- 취급이 간단한 one-touch식입니다.
- 내부가 완전 도금처리된 급탕용과 동코일이 삽입된 급탕 난방점용이 있읍니다.

전자동 소형온수보일러(KRQ)

- 경이적인 보일러 기술의 혁신.
- 신제품 KRQ는 벨기에의 완손 기술협력 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 본제품의 개발목적은 15평이상 30평미만 40평이상 60평미만 주택의 난방과 목욕을 해결 하는데 있읍니다.
- 본제품은 저렴한 시설비와 맞먹는 기름연료비 ⅙ IP소형 오일버어너로 전기소비가 적고 설치면적이 작은 지하실 부엌 창고등에 간단히 설치할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대량생산 기계화로 동종 타 보일러에 비해 보일러 구입비가 30% 이상 저렴합니다.



- 관리유지비가 없고 최고의 안전도 저렴한 시설비 연료비 40 %를 절약하시려면 Rocket Boiler에 문의하십시오.
- Rocket Boiler의 모조품에 유의하시고 Rocket상표를 확인하십시오.

국내 유일의 보일러 수출업체

고려강철주식회사

본사 :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254－6

전화 : (6) 5131－4

여의도 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99(세우회관 6층)

전화 : (782) 7373, 7387, 8757

韓国유리는 使命感을 갖고 精進하고 있읍니다.

■ 여러분의 指導와 鞭撻 속에서 成長하는 韓国유리는 優秀한 製品을 生産 供給하기 為해 끊임없이 研究 努力하고 있읍니다.

◎ 生産製品
- 맑은유리
- 무늬유리
- 安全強化유리

◎맑은유리最大規格

두께 (㎜)	inch	mm
5	84×120	2134×3048
6	84×120	2134×3048
8	84×108	2134×2743
10	84×96	2134×2438
12	84×96	2134×2438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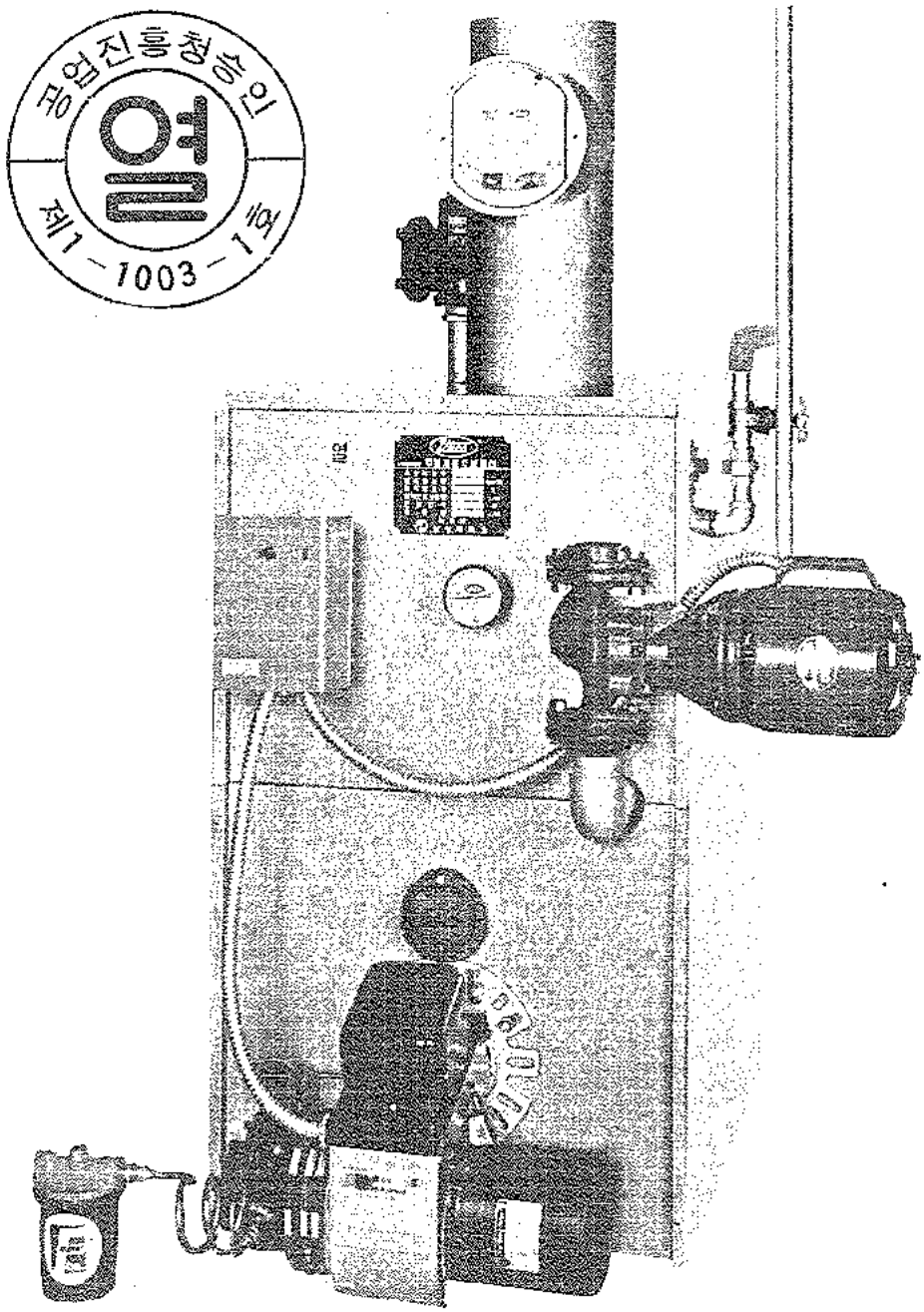
本　　社：서울特別市 中区 西小門洞75　㉓ 7141～5　㉷ 8022～6
仁川工場：京畿道 仁川市 東区 万石洞2　仁川 ⑦ 0111～0119
釜山工場：慶南 梁山郡 日光面 伊川里345　釜山 ⑫ 4066～4070

Cast Iron Boilers

높라운성능 • 연료비절감 • 영구적인수명

난방 / 급탕겸용

Utica 유티카 자동 보일러 신제품



製造元 : 三成製作所

유 보 商 事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 4 街 126－1 호
進洋商街 1 층 2 동 나열 109호

TEL: 266－2807, 266－8015